

[1 ~ 3] 다음은 반대 신문식 토론의 일부이다. 물음에 답하시오.

찬성 1: 저는 한식의 표준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 한국을 대표하는 음식들의 조리법부터 표준화해야 합니다. 한식의 조리법은 복잡한 데다 계량화되어 있지 않은 경우가 많아서 조리하는 사람에 따라 많은 차이가 나게 됩니다. 게다가 최근에는 한식 고유의 맛과 모양에서 많이 벗어난 음식들까지 등장하여 한식 고유의 맛과 정체성을 흔들고 있습니다. 따라서 한국을 대표하는 음식들부터 식자재 종류와 사용량, 조리하는 방법 등을 일정한 기준에 따라 통일해 놓으면 한식 고유의 맛과 정체성을 지키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반대 2: 한식의 표준화가 획일화를 가져와 한식의 다양성을 훼손할 수 있다는 생각은 안 해 보셨나요?

찬성 1: 물론 해 보았습니다. 한식의 표준화가 한식의 다양성을 훼손할 수도 있지만, 한식 고유의 맛과 정체성을 지키기 위해서는 꼭 필요한 일입니다.

사회자: 찬성 측 토론자의 입론과 이에 대한 교차 조사를 잘 들었습니다. 이어서 반대 측 토론자가 입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 1: 한식 고유의 맛과 정체성은 다른 데 있는 게 아니라 조리하는 사람의 깊은 손맛에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한식을 선불리 표준화하면 이러한 한식 고유의 손맛을 잃어 버려 한식 고유의 맛과 정체성이 오히려 더 크게 훼손될 것입니다.

찬성 1: 한식 조리법을 표준화하면 손맛을 낼 수 없다는 말씀이신가요?

반대 1: 손맛은 조리하는 사람마다의 경험과 정성에서 우러나오는 것인데, 조리법을 표준화하면 음식에 이러한 것들을 담기 어려울 것입니다.

사회자: 이어서 찬성과 반대 측 토론자의 두 번째 입론을 시작하겠습니다. 교차 조사도 함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성 2: 저는 한식의 표준화가 한식의 세계화를 위해서도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최근 케이팝(K-pop)과 드라마 등 한국 대중문화가 세계 속에 널리 알려지면서 우리 음식에 대한 세계인들의 관심이 점점 높아지고 있는데, 한식의 조리법이 표준화되어 있지 않아서 이것이 한식의 세계화에 걸림돌이 되고 있습니다. 얼마 전 외국의 한식당에 가 보니 소금에 절이지도 않은 배추를 고춧가루 양념에만 버무려 놓고, 이것을 김치로 판매하고 있더군요. 이런 문제들이 해결되어야 한식의 세계화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것입니다.

반대 1: 그것은 한식의 표준화보다 정책 당국의 관심과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닐까요?

찬성 2: 물론 그렇습니다. 그런데 한식의 표준화가 이루어져 있다면 정부의 홍보도 훨씬 쉬워질 것입니다.

반대 2: 표준화가 되어 있지 않아도 외국에서 큰 호응을 얻고 있는 한식당들이 최근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추세를 감안할 때, 한식의 표준화가 한식의 세계화를 위해 꼭 필요한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인도는 카레로 유명한 나라지만 표준화된 인도식 카레 같은 것은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음식의 표준을 정한다는 것도 현실적으로 가능한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세계인들의 입맛은 우리와 다르고 또 다양할 텐데 한식을 표준화하는 것은 오히려 한식의 세계화를 어렵게 할 수 있습니다.

1. 위 토론의 ‘입론’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찬성 1’은 한식 조리법의 특성과 최근의 부정적 상황을 논거로 제시하고 있다.
- ② ‘반대 1’은 한식의 표준화가 초래할 수 있는 부작용을 논거로 제시하고 있다.
- ③ ‘찬성 2’는 한식의 표준화가 여러 대안들 중 최선의 선택이라는 점을 부각하고 있다.
- ④ ‘반대 2’는 현황과 사례를 들어 한식의 표준화가 필요하지 않다는 논지를 강화하고 있다.
- ⑤ ‘반대 2’는 한식 표준화의 실현 가능성에 의문을 제시하며 주장을 펼치고 있다.

2. 위 토론에 나타난 하위 쟁점을 <보기>에서 찾아 바르게 묶은 것은?

- < 보 기 > —
- ㄱ. 정부의 정책을 통해 한식을 세계화할 수 있는가.
 - ㄴ. 한식의 표준화가 한식의 세계화를 위해 필요한가.
 - ㄷ. 손맛을 한식의 표준화의 기준으로 삼을 수 있는가.
 - ㄹ. 한식의 표준화가 한식의 고유한 맛과 정체성을 지킬 수 있는가.

-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 ④ ㄴ, ㄹ ⑤ ㄷ, ㄹ

3. 다음은 위 토론에 청중으로 참여했던 학생이 쓴 글이다. ㉠~㉥에 대한 평가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한식은 맛있고 건강에도 좋은 음식이라는 인식이 퍼지면서, 한식에 대한 외국 사람들의 관심이 점점 높아지고 있다. 이에 따라 한식의 표준화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 물론 한국을 대표하는 음식의 조리법을 표준화하면 한식의 전통을 유지하기에 좋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한식의 표준화가 모든 것을 다 해결해 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 내가 외국에서 살았을 때, 한국에서 사용했던 조리법 그대로 음식을 만들어 주어도 맛이 없다고 말하는 외국인 친구들이 많았다. 왜냐하면 외국인들의 입맛은 다양하고 외국의 식자재도 한국의 식자재와 차이가 있었기 때문이다. ㉣ 한식을 표준화하는 것보다는 세계인들의 다양한 입맛을 고려하는 것이 중요하다. ㉤ 물론 한식 고유의 맛과 정체성도 지켜 나가야 할 것이다.

- ① ㉠: 한식에 대한 세계인들의 관심이 높아진 이유를 ‘찬성 2’와는 다른 측면에서 제시하고 있군.
 ② ㉡: ‘찬성 1’이 제시한 의견의 일부에 공감하면서 논지를 전개하고 있군.
 ③ ㉢: ‘찬성 2’의 주장에 부합하는 개인적 경험을 제시하고 있군.
 ④ ㉣: ‘반대 2’의 주장에 동조하는 방향의 논지를 제시하고 있군.
 ⑤ ㉤: ‘찬성 1’과 ‘반대 1’이 공통적으로 인정하는 내용으로 글을 마무리하고 있군.

[4~5] 다음은 인터뷰 대화이다. 물음에 답하시오.

학생: 안녕하세요? 얼마 전에 진로 박람회에 참가해 ‘지역학’으로서의 ‘한국학’이라는 교수님의 강연을 인상 깊게 들었습니다. ㉠ 오늘은 교수님께 지역학에 관한 정보를 얻어 저희 학교 교지에 특집 기사를 쓰려고 합니다.

교수: (웃으면서) 고등학생이 지역학에 관심을 가져 주니 기분이 좋습니다.

학생: 그럼 몇 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역학이란 어떠한 연구를 하는 학문인지 말씀해 주세요.

교수: 지역학은 지역 정체성 확립을 목표로 일정한 지역의 지리나 역사, 문화, 정치, 경제 등을 다양하게 연구하는 학문입니다.

학생: ㉡ 그럼 지역학은 한 지역에 대한 종합적 연구를 진행하는 학문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교수: (고개를 끄덕이며) 그렇습니다.

학생: 연구의 폭이 상당히 넓은 것이네요. 한국학도 지역학의 한 영역이라고 알고 있는데, 지역학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교수: (표를 보여 주며) 지역학의 영역을 체계화한 표입니다.

학생: (표를 살펴보며) 한국학이라는 지역학 안에 서울학, 영남학, 호남학, 제주학 등의 지역학이 있네요?

교수: 그렇습니다. 현재 국내의 지역학은 15개인데, 앞으로 그 숫자가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학생: 지역학 연구자는 그 지역에 사는 사람인 것이 좋을까요?

교수: (고개를 저으며) 그런 것만은 아닙니다. ㉢ 해당 지역에 대해 관심과 애정이 있는 사람, 그 지역에 대해 잘 알고 있는 사람이 연구자로 적합하겠지요.

학생: 지역학의 전망은 어떤가요?

교수: 지역 문화 진흥의 관점에서 지역학의 전망은 밝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학생: 지역 문화 진흥의 관점이라는 말이 다소 어려운데요.

교수: ㉣ 쉽게 말해, 지역 문화 진흥의 관점이란 지역의 고유한 특성이나 문화를 발전시키고 지역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고자 하는 시각입니다. 전 지역의 균형 발전이 과제인 미래 사회에서 지역학은 각광 받을 것입니다. 학생들이 이 점을 인식하고 지역학에 관심을 가지는 계기가 되도록 기사를 썼으면 좋겠네요.

학생: ㉤ (고개를 끄덕이며) 네, 교수님 말씀처럼 지역학에 관한 학생들의 관심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기사를 써 보겠습니다. 오늘 인터뷰에 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4. ㉠~㉤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 인터뷰의 목적을 밝히면서 인터뷰를 시작하고 있다.
 ② ㉡: 질문을 통해 상대방의 설명에 대한 자신의 이해가 맞는지 확인하고 있다.
 ③ ㉢: 상대방의 경험을 환기하여 화제에 대한 상대방의 이해를 돕고 있다.
 ④ ㉣: 상대방의 반응에 따라 이해하기 어려운 말의 의미를 설명하고 있다.
 ⑤ ㉤: 상대방의 말에 긍정적으로 반응하면서 인터뷰를 마무리하고 있다.

5. 인터뷰를 마친 후 학생이 인터뷰 계획에 따른 자기 점검표를 작성하였다. 적절하지 않은 것은?

자기 점검표

인터뷰 계획	실행 여부		
	예	아니오	
지역학의 전망에 대해 물어본다.	✓		①
지역학이 무엇을 연구하는 학문인지에 대해 질문한다.	✓		②
지역학과 관련하여 특집 기사에 넣을 만한 시각 자료를 요청한다.		✓	③
지역학과 한국학의 관계 속에서 한국학의 국제적 위상에 대해 확인한다.		✓	④
지역학자가 갖추어야 할 자질과 지역학자가 되기 위해 필요한 과정에 대해 질문한다.	✓		⑤

[6~8] 다음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작문 상황

- 예상 독자: 정부 관계자 ㉠
- 글을 쓰게 된 배경: 주위에 아르바이트를 하는 친구들이 부당한 일을 자주 겪고 있음. ㉡
- 글을 쓰는 목적: 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을 수립하여 시행할 것을 건의함. ㉢
- 유의할 사항: 학교에서 건의문 쓰기에 대해 배운 내용 중 다음 사항에 유의하고자 함.
 1. 예의 바르게 글을 시작하고, 정중하게 표현한다. ㉣
 2. 상대방이 납득할 만한 근거 자료를 제시한다. ㉤

(나) 학생의 초고

안녕하십니까? 저는 ○○시에 살고 있는 고등학생 박세연입니다. 제가 이렇게 글을 쓰게 된 이유는 청소년들이 아르바이트를 하다가 겪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건의를 드리기 위해서입니다.

얼마 전 제 친구가 아르바이트를 하다가 고용주로부터 심한 폭언을 들었다고 합니다. 또 다른 친구는 아르바이트를 ㉠ 그만둔지 한 달이나 지났는데 임금을 받지 못했다고 합니다. 단지 제 주변 친구들만의 일이 아닙니다. 얼마 전 □□신문에 보도된 설문 조사에 따르면, 고등학교 졸업 전까지 청소년들의 1/3 가량이 아르바이트를 경험하는데, 그중 19.2%에 달하는 학생들이 아르바이트 중 부당한 대우를 당한 적이 있다고 합니다.

현행법상 아르바이트라도 근로 기준법, 최저 임금법 등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이것이 잘 지켜지지 않는 것 같습니다. ㉡ 또한 최저 임금 인상에 대한 논의가 더 필요합니다. 그 이유는 첫째, 고용주들이 관련 법령을 잘 모르거나, 알고 있더라도 무시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둘째, 청소년들이 근로자로서 보장받아야 할 권리와 그것이 ㉢ 저해되었을 때 대처하는 방법을 몰라서 부당한 대우를 당해도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선 정부 당국에서 고용주에게 노동관계 법령에 대해 적극적으로 홍보해야 합니다. 이를 위반하는 고용주를 엄중하게 ㉣ 처벌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따라서 정부 당국에서는 청소년들이 노동 인권과 권리 구제 방법을 잘 알 수 있도록, 관련 내용에 대한 홍보를 정책적으로 강화해야 할 것입니다.

청소년들은 미래의 주역입니다. 청소년들이 올바른 직업의식을 지닌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6. (가)의 ㉠~㉤ 중, (나)에 반영되지 않은 것은?

- ① ㉠을 고려하여 정부의 역할에 초점을 맞추어 해결책을 건의한다.
- ② ㉡를 드러내기 위해 친구들이 겪은 사례를 제시한다.
- ③ ㉢를 달성하기 위해 문제 상황의 심각성을 재차 강조하며 글을 마무리한다.
- ④ ㉣를 고려하여 인사말과 자기소개로 시작하고 경어체를 사용한다.
- ⑤ ㉤를 고려하여 현 실태를 보여 주는 설문 조사 결과를 인용한다.

7. <보기>의 자료를 모두 활용해서 (나)를 보완하기 위한 방안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자료 1]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설문 조사

설문 내용	응답률	
	예	아니오
아르바이트를 하는 동안 최저임금을 받지 못한 경우 3년 안에 고용노동부에 신고하면 못 받은 임금을 받을 수 있음을 알고 있습니까?	28.3 %	71.7 %
청소년이 일하다가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신고 전화가 있음을 알고 있습니까?	25.9 %	74.1 %

[자료 2] 전문가 인터뷰

“청소년들이 아르바이트를 하다가 부당한 대우를 당했을 때 대처한 방법을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참고 계속 일했다.’거나 ‘그냥 일을 그만두었다.’라고 응답한 청소년들이 전체 응답자의 절반을 넘었습니다. 이것은 청소년들이 관계 법령의 내용이나 적절한 대처 방법을 잘 몰랐기 때문입니다.”

- ① 고용주들이 노동관계 법령을 잘 몰라서 불러올 수 있는 피해를 추가하는 자료로 활용한다.
- ② 정부 당국이 노동관계 법령을 어기는 고용주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의 근거로 활용한다.
- ③ 청소년들이 고용주의 부당한 대우에 잘 대처할 수 있도록 정부 당국의 정책적인 홍보가 강화되어야 한다는 주장의 근거로 활용한다.
- ④ 고용주들이 근로 기준법을 알면서도 지키지 않고 있다는 사실을 드러내어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자료로 활용한다.
- ⑤ 청소년들이 겪는 부당한 대우가 청소년들의 직업의식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제시해 문제 해결의 시급성을 강조하는 자료로 활용한다.

8. ㉠~㉤을 고쳐 쓰기 위한 방안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띄어쓰기가 잘못되었으므로, ㉠을 ‘그만둔 지’로 수정한다.
- ② 글의 통일성을 해치므로, ㉡을 삭제한다.
- ③ 어휘의 사용이 적합하지 않으므로, ㉢을 ‘침해당했을’로 교체한다.
- ④ 불필요하게 피동 표현을 사용하였으므로, ㉣을 ‘처벌해야’로 수정한다.
- ⑤ 앞뒤 문장을 자연스럽게 연결해 주지 못하므로, ㉤을 ‘그런데’로 교체한다.

[9~10] 다음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작문 상황]

학교에서 개최된 ‘리더십 캠프’에 참가하여 ‘경청의 리더십’에 관한 강연을 듣고, 소감문을 작성하였다.

[학생의 글]

지난 주 학교에서 개최된 ‘리더십 캠프’에 참여하였다. 캠프에는 리더십 게임, 강연, 모둠 토론 등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 있었는데, 그중에서 나는 ‘경청의 리더십’에 관한 강연의 내용이 가장 인상적이었다. 사회적으로 축적된 지식의 수준이 낮았던 과거에는 지식과 정보가 권력자에게 집중되었고, 카리스마 있는 리더가 영향력을 행사했다. 그러나 오늘날에는 다원화된 정보화 사회가 도래했기 때문에 다양한 정보를 수용하고 합리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중요해졌다. 이에 따라 뛰어난 소통 능력을 바탕으로 여러 사람의 개성을 조화롭게 이끌어 갈 수 있는 경청의 리더십이 중요한 덕목으로 부각된다는 것이 강연의 핵심 내용이었다.

강연을 듣고 나니 리더십에 대한 나의 생각이 편협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중요한 결정을 내리고 지시하는 것만이 리더의 역할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던 것이다. 지난 학기에 동아리 회장으로서 축제 준비를 할 때, 나는 리더로서 할 일을 잘 하고 있는데 동아리 부원들이 나에게 제대로 협조해 주지 않는다고 불평했던 일이 떠올랐다. 그러나 강연을 들으며 생각해 보니 그때 나는 부원들의 의견을 무시하고 내 주장만 했던 것 같다. 부원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였다면 더 알찬 행사를 구성하고, 더 즐거운 분위기에서 축제를 준비할 수 있었을 텐데 하는 아쉬움이 들었다.

9. <보기> 중 [학생의 글]에 활용된 내용 전개 방식으로 적절한 것을 모두 고른 것은?

- < 보 기 >
- ㄱ. 강연의 인상 깊은 내용을 요약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ㄴ. 강연의 내용을 여러 사람의 입장에서 분석하여 소개하고 있다.
 ㄷ. 강연에서 깨달은 바를 글쓴이의 경험과 관련지어 제시하고 있다.
 ㄹ. 강연 내용을 토대로 그릇된 통념이 널리 확산된 이유를 규명하고 있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10. [학생의 글]의 마지막에 추가할 내용을 <조건>에 따라 쓴 것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 조 건 >
- 강연의 핵심 내용을 활용할 것.
 ○ 앞으로의 다짐을 밝힐 것.
 ○ 직접 인용의 방식을 활용할 것.

- ① 전에 읽은 책에서도 ‘남의 말을 잘 들어줌으로써 상대의 마음을 얻을 수 있다.’라는 구절을 본 기억이 난다. 지금부터라도 다른 이들의 말을 잘 듣고 포용하는 태도를 길러 좋은 리더로서의 자질을 갖추어 가야겠다.
 ② 여러 사람의 개성을 조화롭게 이끌어 갈 수 있는 경청의 리더십에 대해 알게 되었다. 그것은 다른 이들이 꺼리는 일에 솔선수범하고 자신을 낮추어 봉사하는 자세가 아닐까?
 ③ 사람에게 입은 하나이고 귀가 둘인 까닭은 적게 말하고 많이 들으라는 뜻일 것이다. 내 말만 하느라고 다른 사람들의 의견을 귀담아 듣지 않는 일은 없어야겠다.
 ④ ‘훌륭한 리더가 되려면 다른 이들의 마음을 잘 읽어야 한다.’라는 말이 있다. 리더와 구성원 간의 원활한 소통은 상호 간에 신뢰를 형성하는 지름길이 될 것이다.
 ⑤ ‘침묵은 금이다.’라는 말이 있다. 말을 많이 할수록 실수하기 쉬우므로 앞으로는 남에게 상처 주는 말을 하지 않도록 조심해야겠다.

11. <보기>는 겹받침 ‘리’의 표준 발음 규정을 정리한 것이다. ㉠~㉤ 각각에 해당하는 표준 발음의 예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 보 기 >
- ㉠ ‘리’은 어말 또는 자음 앞에서 [ㄱ]으로 발음한다.
 ㉡ 용언의 어간 말음 ‘리’은 ‘ㄱ’ 앞에서 [ㄹ]로 발음한다.
 ㉢ 받침 ‘리’이 뒤 음절 첫소리 ‘ㅎ’과 결합되는 경우에는 뒤엣것과 ‘ㅎ’을 합쳐서 [ㄱ]으로 발음한다.
 ㉣ ‘리’이 모음으로 시작된 조사나 어미, 접미사와 결합되는 경우에는, 뒤엣것만을 뒤 음절 첫소리로 옮겨 발음한다.
 ㉤ 받침 ‘리’은 ‘ㄴ, ㄹ’ 앞에서 [ㅇ]으로 발음한다.

- ① ㉠: 햇살이 눈부시게 밝다[박따].
 ② ㉡: 밝게[발게] 웃으며 인사하다.
 ③ ㉢: 그는 진실을 세상에 밝혔다[발켄따].
 ④ ㉣: 전등의 밝기[발끼]를 낮추다.
 ⑤ ㉤: 동쪽에서 날이 밝는다[방는다].

12. <보기>는 한글 맞춤법에 대한 설명이다. 한글 맞춤법 조항의 내용과 ㉠, ㉡을 적절하게 연결하지 못한 것은?

< 보 기 >

한글 맞춤법은 표준어를 ㉠ 소리대로 적되, ㉡ 어법에 맞도록 함을 원칙으로 한다. 표준어를 소리대로 적는다는 것은 표준어의 발음대로 적는다는 뜻이다. 그리고 각 형태소가 지닌 뜻이 분명히 드러나도록 하기 위하여, 그 본 모양을 밝히어법에 맞도록 적는다는 또 하나의 원칙이 추가되었다.

㉠	‘ㄷ, ㅌ’ 받침 뒤에 종속적 관계를 가진 ‘-이(-)’나 ‘-히-’가 올 적에는, 그 ‘ㄷ, ㅌ’이 ‘ㄷ, ㅌ’으로 소리 나더라도 ‘ㄷ, ㅌ’으로 적음. 예) 맏이, 굳이, 묻히다	㉡
㉡	자음을 첫소리로 가지고 있는 음절의 ‘-니’는 ‘-니’로 소리 나는 경우가 있더라도 ‘-니’로 적음. 예) 희망, 하늬바람	㉢
㉢	체언은 조사와 구별하여 적음. 예) 떡이, 손이, 팔이	㉣
㉣	어간에 ‘-이’나 ‘-음’이 붙어서 명사로 바뀐 것이라도 그 어간의 뜻과 떨어진 것은 원형을 밝히어 적지 아니함. 예) 목거리(목병), 노름(도박)	㉤
㉤	둘 이상의 단어가 어울리거나 접두사가 붙어서 이루어진 말은 각각 그 원형을 밝히어 적음. 예) 꽃잎, 헛웃음, 굶주리다	㉥

13. ㉠~㉥의 사례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보 기 >

문장을 어법에 어긋나거나 부자연스럽게 사용한 대표적 유형으로는, ㉠ 주어와 서술어가 호응하지 않는 경우, ㉡ 부사어와 서술어가 호응하지 않는 경우, ㉢ 서술어가 요구하는 문장 성분이 부적절하게 생략된 경우, ㉣ 서술어가 부적절하게 생략된 경우, ㉤ 불필요하게 의미가 중복되는 경우 등이 있다.

- ㉠ ㉠: 내가 하고 싶은 말은 다른 사람을 배려해서 행동하자.
- ㉡ ㉡: 새벽에 잠을 깬 사람은 비단 나뭇잎이었다.
- ㉢ ㉢: 나는 집에 오자마자 들고 있던 가방을 두었다.
- ㉣ ㉣: 새로 산 자동차에 짐과 동생을 태우고 여행을 떠났다.
- ㉤ ㉤: 착한 너의 후배를 나한테 빨리 소개해 주었으면 좋겠다.

14. 다음은 ‘달다’에 관한 사전 자료의 일부분이다. 이를 탐구한 결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보 기 >

달다¹ ㉠ 【...에 ...을】 [달아, 다니, 다오]
 ㉡ 물건을 일정한 곳에 걸거나 매어 놓다.
 예) 배에 돛을 달다.
 ㉢ 이름이나 제목 따위를 정하여 붙이다.
 예) 작품에 제목을 달다.

달다² ㉣ [달아, 다니, 다오]
 ㉤ 꿀이나 설탕의 맛과 같다.
 예) 아이스크림이 달다. ㉥ 달면 삼키고 쓰면 뱉는다.
 ㉦ 흡족하여 기분이 좋다.
 예) 나른한 식곤에 잠이 달았다.

- ㉠ ‘달다¹’과 ‘달다²’는 별개의 표제어로 기술된 걸 보니 동음이의어에 해당하는군.
- ㉡ ‘달다¹’과 ‘달다²’는 모두 연결 어미 ‘-니’가 결합되면 ‘다니’로 활용되는군.
- ㉢ ‘달다¹’ ㉡의 용례로 ‘소금의 무게를 저울에 달아 보았다.’를 추가할 수 있겠군.
- ㉣ ‘달다²’ ㉤의 속담은 ‘달다’와 ‘쓰다’의 반의 관계를 이용한 것이군.
- ㉤ ‘달다¹’의 ㉢은 ‘달다²’ ㉢보다 서술어가 필수적으로 요구하는 문장 성분의 개수가 더 많군.

15. <보기>를 참고하여 ㉠~㉥에 대해 탐구한 결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보 기 >

문장은 동작이나 행위를 누가 하느냐에 따라 능동문과 피동문으로 나누어진다. 주어가 동작을 제힘으로 하는 문장을 능동문이라고 하고, 다른 주체에 의해 동작이 이루어지거나 영향을 받는 문장을 피동문이라고 한다.

	능동문	피동문
㉠	눈이 온 세상을 덮었다.	온 세상이 눈에 덮였다.
㉡	두 학생이 참새 네 마리를 잡았다.	참새 네 마리가 두 학생에게 잡혔다.
㉢	낙엽이 바람에 난다.	낙엽이 바람에 날린다.
㉣	해당 사례 없음.	오늘은 날씨가 갑자기 풀렸다.

- ㉠ ㉠의 피동문은 능동문에 비해 주어의 동작성이 잘 드러나지 않는다.
- ㉡ ㉡과 ㉢은 모두 능동문의 주어가 피동문에서 부사어로 나타나는 사례이다.
- ㉢ ㉢과 ㉣은 모두 능동문과 달리 피동문이 여러 가지 의미로 해석될 수 있다.
- ㉣ ㉣은 자동사를 피동사로 만들 수 있음을 보여 주는 사례이다.
- ㉤ ㉤은 피동문에 대응하는 능동문을 상정할 수 없는 경우가 있음을 보여 주는 사례이다.

16. ㉠~㉣을 현대 국어와 비교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보 기 >

[중세 국어] ㉠ 부테 目連(목련)이드려 ㉡ 니르샤딘

[현대 국어] 부처가 목련에게 이르시되

[중세 국어] 耶輸(야수) ㉢ 부텃 使者(사자) 왔다 ㉣ 드르시고

[현대 국어] 야수가 부처의 사자가 왔다는 말을 들으시고

[중세 국어] 내 딸 勝鬘(승만)이 聰明(충명)히니 부터웃 ㉤ 보스븐면

[현대 국어] 내 딸 승만이 충명하니 부처만 뵈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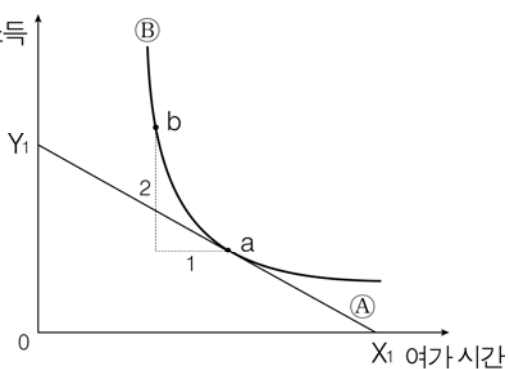
- 『석보상절』 -

- ① ㉠: 모음으로 끝나는 체언에 주격 조사 ‘이’가 결합했다는 점에서 현대 국어와 차이가 있다.
- ② ㉡: 고유어에서 두음 법칙이 적용되었다는 점에서 현대 국어와 공통적이다.
- ㉢: 관형격 조사로 ‘스’이 쓰였다는 점에서 현대 국어와 차이가 있다.
- ④ ㉣: 주체를 높이는 선어말 어미가 쓰였다는 점에서 현대 국어와 공통적이다.
- ⑤ ㉤: 객체를 높이는 선어말 어미가 쓰였다는 점에서 현대 국어와 차이가 있다.

[17~20]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하루 중 일을 하거나 여가에 ㉠ 쓸 수 있는 시간은 제한적이다. 소득도 개인에 따라 거둘 수 있는 범위가 제약되어 있다. 노동 공급의 결정 이론에서는 이렇듯 제약되어 있는 조건 하에서 개인의 노동 공급 결정이 자신의 효용을 극대화하는 방법으로 이루어진다고 설명한다. 이 이론에서는 여가와 노동이라는 두 가지 선택을 놓고 최적의 조합을 택하는 모형을 제시하고 있다. 노동 시간이 늘어날수록 소득도 증가하므로 여가와 노동 간의 선택 문제는 곧 여가와 소득 간의 선택 문제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점에서 노동 공급의 결정 모형을 ‘노동-여가 선택 모형’ 또는 ‘소득-여가 선택 모형’이라고 한다.

(나) X축을 여가 시간, Y축을 소득이라고 하면, 여가 시간과 소득이 제약되어 있는 범위 내에서 여가 시간과 소득을 선택할 수 있는 조합을 연결한 선인 X_1Y_1 을 오른쪽의 ㉡와 같이 그릴 수 있다. 예산제약선은 제한된 모든 자원을 활용하여 선택할 수 있는 두 재화의 조합을 연결한 선을 의미하는데, 이처럼 소득과 여가의 선택에도 적용될 수



있다. 예산제약선 X_1Y_1 에서 X_1 은 선택할 수 있는 여가 시간의 최댓값이고, Y_1 은 소득의 최댓값이다. 예산제약선의 기울기의 절댓값은 시간당 임금이 된다. 그리고 여가 시간을 나타내는 X축은 노동 시간에 대한 정보도 알려 줄 수 있다. 왜냐하면 총시간을 여가 아니면 노동에 사용하므로 총시간에서 여가 시간을 제하면 그 나머지가 노동 시간이 되기 때문이다.

(다) ‘소득-여가 선택 모형’에서의 선호도는 위의 ㉢와 같이 무차별곡선으로 나타낼 수 있다. 여기서 무차별곡선은 노동 공급자에게 동일한 효용을 주는 소득과 여가 시간의 조합을 서로 연결한 선을 의미한다. ‘소득-여가 선택 모형’에서의 무차별곡선은 원점에서 멀리 위치하고 있을수록 소득 효용과 여가 효용이 높은 조합을 나타낸다. ㉣의 각 점에서의 접선의 기울기는 여가 시간 한 단위의 한계효용*에 대한 소득의 한계효용의 비인 ‘한계대체율’을 나타낸다. 한계대체율은 동일한 효용을 유지하면서 여가 한 단위를 더 선택하기 위해 포기해야 하는 소득의 양을 의미한다. 가령 위의 무차별곡선 ㉢상의 b에서 a로 선택을 바꾸려면 여가 시간 한 단위를 늘리기 위해 소득 두 단위를 포기해야 한다. 이 경우에 한계대체율은 2이다.

(라) 노동 공급의 결정 이론에서는 위의 ㉡, ㉢와 같이 예산제약선과 무차별곡선이 주어질 때, 효용을 극대화하는 소득과 여가 시간의 최적 조합은 예산제약선과 무차별곡선이 접하는 점이다. 즉 a에서 효용을 극대화하는 노동 공급 결정이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시간당 임금이 상승하면 노동 공급이 어떻게 결정될까? 시간당 임금이 상승하면 예산제약선의 기울기가 급해진다. 동일한 노동 시간에 더 많은 소득을 얻게 되면, 여가 시간을 늘리고 노동 시간을 줄이는 ‘소득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 그런데 시간당 임금의 상승은 여가 시간을 줄여 노동 시간을 늘리는 ‘대체효과’가 나타나게 만들 수도 있다. 이는 소득효과와 대체효과 중 어느 것이 더 크게 나타나느냐에 따라 노동 시간을 늘릴 수도 있고 줄일 수도 있음을 의미한다.

(마) 노동 공급의 결정 이론은 노동 시장의 수요·공급을 이해하는 데에 바탕이 되는 시각을 제공해 주고 있다. 노동 공급의 결정 이론을 토대로 노동 시장에서 나타나는 노동 공급의 다양한 양상을 구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것이다. 또한 노동 공급의 결정 이론은 사회 보장 제도를 연구하는 데에도 중요한 기초를 제공해 주고 있다.

* 한계효용: 재화 한 단위를 더 소비할 때 추가되는 효용의 양.

17. (가)~(마)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가): 노동 공급의 결정 이론에서 다루는 핵심 내용을 개괄적으로 소개하고 있다.
- ② (나): 예산제약선의 개념과 함께 예산제약선의 다양한 변화 양상을 설명하고 있다.
- ③ (다): 무차별곡선의 개념과 함께 한계대체율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 ④ (라): 효용을 극대화하는 노동 공급 결정과 시간당 임금 상승 시의 노동 공급 결정 양상에 관해 설명하고 있다.
- ⑤ (마): 노동 공급의 결정 이론이 지닌 의의를 제시하고 있다.

국어 영역(B형)

제 1 교시

1

[1 ~ 3] 다음은 ○○고등학교 학생들이 실시한 토론의 일부이다. 물음에 답하시오.

사회자: 우리 학교 학교운영위원회에서는 다목적 강당 신축에 대해 심의하기에 앞서 학생들의 찬반 의견을 수렴한다고 합니다. 다목적 강당 신축 예정지는 학교 본관 동쪽으로, 강당은 운동장 일부와 그 주변 공간을 할애해 지어질 것이라고 하며, 각종 행사 진행이 가능한 공간 겸 실내 체육관으로 활용될 것이라고 합니다. 이에 ‘다목적 강당을 신축해야 한다.’라는 논제로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찬성 측부터 입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생 1: 다목적 강당 신축은 꼭 필요합니다. 눈이나 비가 내리던 날 체육 시간을 떠올려 보면 학생들은 그 필요성을 절감할 것입니다. 학생들이 스트레스를 풀고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는 체육 활동이 필요한데, 다목적 강당이 있다면 날씨에 구애받지 않고 언제든지 체육 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다목적 강당은 이렇다 할 체육 시설이 없는 지역 주민들이 방과 후 시간을 활용하여 생활체육 활동을 할 수 있는 공간이 될 수 있으며, 이렇게 지역 주민들과의 교류가 잦아지면 학교의 이미지도 더 좋아질 것입니다.

학생 2: 저는 다목적 강당 신축에 반대합니다. 제가 조사한 자료에 의하면 강당을 신축하는 데에는 최소 8개월에서 10개월 정도의 기간이 소요된다고 합니다. 공사는 주로 낮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소음이나 먼지가 많이 발생하여 학생들의 학습권 침해가 불가피합니다. 또한 강당이 신축된다면 학생들은 소중한 공간 하나를 잃게 됩니다. 그곳에는 학생들이 정성껏 가꾸어 온 화단과 야외 휴식 공간인 정자가 있는데 그 공간은 학생들에게 쉼터로 사랑받고 있습니다. 학생회에서 실시한 설문 조사에 따르면 학생들의 78%가 이 쉼터를 자주 이용한다고 합니다. 이런 공간이 사라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사회자: 두 분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이어서 양측의 반론을 들겠습니다.

학생 3: 다목적 강당 신축으로 체육 활동에 날씨 제약을 받지 않게 된다는 찬성 측의 주장은 저도 인정합니다. 하지만 강당을 신축하면 학교 운동장의 적지 않은 부분이 훼손됩니다. 그렇게 되면 운동장에서 축구 경기를 제대로 할 수 없고, 점심시간에 많은 학생들이 자유롭게 체육 활동을 할 수 있는 공간이 부족해집니다. 따라서 다목적 강당의 신축은 오히려 학생들의 체육 활동에 지장을 초래하는 측면이 더 큼니다. 또한 방과 후에 다목적 강당을 개방한다면 지역 주민들에게 도움을 줄 수도 있겠지만, 교내 안전사고 발생의 위험은 높아질 것입니다. 이웃 학교에서도 학교 시설 개방 이후 야간에 외부인들과 차량이 수시로 출입하면서 학생들의 안전이 위협받는 사례가 있었다고 합니다.

학생 4: 물론 공사 기간 동안 학습권이 다소 침해받을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장기적으로 본다면 그동안 장소 제약으로 인해 할 수 없었던 명사 초청 강연이나 학생 발표 대회, 그리고 실내 체육 수업 등이 가능해져서 오히려 학습 기회가 확대될 것입니다. 그리고 현재의 휴식 공간이 사라지는 것은 아쉽지만 다목적 강당을 새로운 의미의 휴식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점심시간에 작은 음악회와 같은 문화 공연 등을 한다면 다목적 강당은 학생들의 또 다른 쉼터가 될 것입니다.

사회자: 이제 최종 변론을 준비하기 위한 협의 시간을 갖겠습니다. 양측 발표자들께서는 최종 변론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 토론 참여자들의 말하기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사회자는 토론이 열리게 된 배경을 설명하며 논의를 시작하고 있다.
 - ② ‘학생 1’은 과거 경험을 자신의 주장에 대한 근거로 활용하고 있다.
 - ③ ‘학생 2’는 구체적인 수치를 활용하여 자신의 주장을 강화하고 있다.
 - ④ ‘학생 3’은 관련 사례를 근거로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하고 있다.
 - ⑤ ‘학생 4’는 주제와 관련된 용어의 개념을 언급하며 주장을 명확히 하고 있다.

- 다음 자료를 위 토론에 활용할 수 있는 방안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문화체육관광부가 ○○시에서 실시한 ‘생활체육 참여 실태 조사’에 따르면, 시민들이 선호하는 체육 시설은 학교 체육 시설, 공공 체육 시설, 민간상업 체육 시설 등의 순이었다. 특히 시민들은 학교 체육 시설을 이용한다면, 자녀와 함께 운동을 하기 위해 저녁 시간이나 주말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학교 시설은 교육 여건을 고려하여 교육 활동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개방하도록 되어 있다. 그런데 학교 시설 개방과 관리에 대한 책임이 전적으로 학교에 있어 그에 따른 부담 때문에 실제로 학교 체육 시설을 개방하는 곳은 25%에 불과한 실정이다.

- ① 학교 시설 개방의 책임 주체에 주목하여, 학생들의 야외 휴식 공간이 줄어들 수 있다는 반대 측 주장을 강화하는 자료로 활용한다.
- ② 학교 시설 개방의 전제 조건에 주목하여, 학교의 기본 목적은 학생 교육에 있다는 찬성 측 주장을 반박하는 자료로 활용한다.
- ③ 학교 시설 관리의 책임 주체에 주목하여, 강당 개방이 학교 시설 관리에 도움을 줄 수 있다는 반대 측 주장을 뒷받침하는 자료로 활용한다.
- ④ 시민들의 체육 시설에 대한 선호도에 주목하여, 학교가 지역 사회 주민과의 교류를 활성화할 수 있다는 찬성 측 주장을 강화하는 자료로 활용한다.
- ⑤ 시민들의 학교 체육 시설 이용 선호 시간대에 주목하여, 강당 개방을 통해 학생들의 학습 기회가 확대될 것이라는 찬성 측 주장의 근거 자료로 활용한다.

3. 위 토론에서 양측 모두가 공통적으로 인정하고 있는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학교와 지역 사회 간 교류가 확대되어야 한다.
- ② 학생들의 체육 활동을 위한 공간이 확보되어야 한다.
- ③ 학생들의 안전을 위해 학교 시설을 재정비해야 한다.
- ④ 학생들을 위한 새로운 문화 공간의 확충이 필요하다.
- ⑤ 학교 시설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주민들의 동의가 필요하다.

[4 ~ 5] 다음은 동아리 회의의 일부이다. 물음에 답하시오.

학생 1: 오늘은 학교 축제 준비에 대해 이야기해야 하지 않을까? 벌써 다음 달이 축제인데, 아무런 준비를 못 했잖아. ㉠ 이번엔 우리 도서관에서 어떤 활동을 하면 좋을까?

학생 2: 맞아. 작년엔 친구들이 함께하기 어려운 주제를 선정해서 호응이 적었잖아. 이번엔 흥미로운 주제를 잡아 제대로 준비해 보자. 뭐가 좋을까?

학생 3: 음……. 얼마 전 TV에서 책에 대한 특집 프로그램을 보았는데, 우리 선조들이 책을 어떻게 만들었는지에 대해 소개하는 거였어. 지금과 다르게 수작업으로 정성껏 책을 만드는 모습이 신기하더라구. ㉡ 그래서 말인데 이번 기회에 친구들에게 옛날 책을 소개해 보면 어떨까?

학생 1: 그래, 좋은 생각이야. 그러면 이번 축제에는 옛날 책을 소개하는 전시회를 열면 좋을 것 같아.

학생 2: 나도 좋아. 그러면 옛날 책을 직접 구해서 전시해 보자.

학생 3: ㉢ 근데 옛날 책은 아무래도 구하기 쉽지 않을 거야. 그러니까 옛날 책을 만드는 방법을 설명하고 사진 자료를 함께 전시해 보면 어때?

학생 1: 그거 좋네. 그런데, 전시만 하는 것은 너무 밋밋하지 않을까? 뭔가 친구들이 흥미를 느낄 만한 것이 있으면 좋겠는데? 체험 같은 것 말이야.

학생 2: 그럼. 전시회 한쪽에서 옛날 방식으로 책을 직접 만들어 보는 체험 코너를 진행해 보는 것은 어때?

학생 3: 옛날 책 만들기 체험? 그거 정말 좋은 생각이네!

학생 1: 나도 적극 찬성! ㉣ 그러면 이번 축제에는 옛날 책 만드는 방법을 사진과 함께 전시하고 직접 만드는 체험 코너도 마련해 보자. 그런데 옛날 책에 대해 공부도 하고, 준비할 게 많을 것 같은데?

학생 2: ㉤ 인터넷도 검색해 보고 도서관에도 가 보면 참고 자료가 있을 거야.

학생 3: 음……. 아까 말했던 TV 프로그램에서 ‘고서 박물관’이라는 곳도 나오던데. 어디, 한번 검색해 볼까?

학생 1: 그래, 찾아보자.

학생 3: (인터넷을 검색한 후) 여기 있다. 이것 좀 봐. 전화나 인터넷으로 사전 예약을 하면 고서 전문가가 전시물에 대해 직접 안내도 해 준다고 하네.

학생 2: 정말? 우리한테 딱 필요한 곳이네. 함께 찾아가 보자. 궁금한 점도 질문할 수 있을 것 같아.

학생 1: 응. 좋은 생각이네. 이번 주말에 찾아가 보자.

4. ㉠ ~ ㉤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 회의 참여자들에게 해결해야 할 문제를 제시하고 있다.
- ② ㉡: 회의 참여자들에게 문제 해결을 위한 대안을 제시하고 있다.
- ③ ㉢: 도출된 대안의 장점과 단점을 비교하여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 ④ ㉣: 논의된 의견을 바탕으로 해결 방법을 정리하여 제시하고 있다.
- ⑤ ㉤: 회의 참여자들에게 해결 방법을 실천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5. 다음은 동아리 회의 이후에 전문가와 인터뷰한 내용의 일부이다. 참여자들의 의사소통 방식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학 생: 안녕하세요? 저희는 사전 예약하고 전화로 연락드렸던 ○○고등학교 학생들입니다.

전문가: 네, 반갑습니다. 찾아오기 힘들지 않았나요?

학 생: (웃으며) 네, 홈페이지에 약도가 잘 나와 있어서 어렵지 않았어요.

전문가: 우리 선조들의 책을 전시하고 책 만들기 체험을 진행한다고요? 좋은 생각이네요. 학생들에게 우리 문화재에 대한 관심을 높일 방법이라고 봅니다.

학 생: 네, 옛날 책을 만드는 방법과 관련해서 궁금한 점도 여쭙고 조언도 듣고자 찾아 왔습니다.

전문가: 그럼, 궁금한 점부터 해결하고 박물관을 관람해 볼까요?

학 생: 네, 좋아요. 그런데 옛날 책 제작 방법 중에서 친구들에게 소개할 만한 방식이 있을까요?

전문가: 음……. ‘선장’이라는 방식을 추천하고 싶네요. 조선 시대에 대체로 책을 만들던 방식이죠.

학 생: 선장이요? 어떤 방식인가요?

전문가: 선장은 종이들을 끈으로 꿰매서 만드는 방식입니다. (그림 자료를 보여주며) 여기를 볼까요? 속지들은 반으로 접고 모은 뒤, 우측에 구멍을 뚫고 끈으로 고정시킵니다. 표지에는 문양을 새길 수 있어요. 그 다음에 표지와 속지를 끈으로 튼튼하게 꿰매는 겁니다.

학 생: 선생님, 표지의 문양은 어떻게 새기나요?

전문가: 네, (나무판 실물을 보여주며) 그림을 새긴 나무판에 밀랍을 바르고 이것을 표지에 대고 꼭 눌러주어 문양을 새기죠.

학 생: 그런데 밀랍을 바르는 이유가 있나요?

전문가: 네, 밀랍을 바르면 종이가 밀리지도 않고 무늬도 더 선명하게 찍히기 때문입니다.

학 생: 아, 그렇군요. 학생들이 만들기에 도움이 될 것 같네요.

전문가: 그럼요. 그럼 박물관을 돌아보면서 더 설명해 줄게요.

학생들: 네, 선생님.

① 학생은 전문가의 의견에 호응하면서 대화를 진행하고 있다.

② 학생은 전문가에게 추가적인 질문을 던져 화제와 관련한 정보를 듣고 있다.

③ 전문가는 화제와 관련된 자료를 제시하여 정보 전달의 효과를 높이고 있다.

④ 전문가는 학생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화제를 유추의 방식으로 전달하고 있다.

⑤ 전문가는 학생들이 계획한 활동을 확인하며 그에 대해 긍정적으로 반응하고 있다.

[6~8] 다음은 ‘감정노동자들이 겪는 문제점과 해결 방안’에 대해 청소년 신문에 기고할 목적으로 쓴 학생의 초고이다. 물음에 답하시오.

감정노동자는 자신의 솔직한 감정을 드러내지 못하고 고객을 응대해야 하는 사람으로, 판매나 상담 등 서비스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대표적이다. 그런데 얼마 전 우리나라 감정노동자들이 과도한 스트레스 상황에 처해 있다는 뉴스 진행자의 말을 듣고 그 심각성을 알게 되었다.

감정노동자들이 이러한 어려움을 겪게 된 원인은 고객들이 감정노동자를 단순한 서비스 제공자라고만 인식하여 그들에게 부당한 요구를 하는 사례가 많기 때문이다. 그리고 서비스업계의 과열된 경쟁으로 인해 기업은 고객에 대한 무조건적인 친절만을 강요할 뿐, 감정노동자들의 고통을 예방하거나 치료하는 데는 소홀하다. 또한 현재 근로기준법에는 감정노동과 관련된 세부적인 규정이 없어 감정노동자들의 권익이 보호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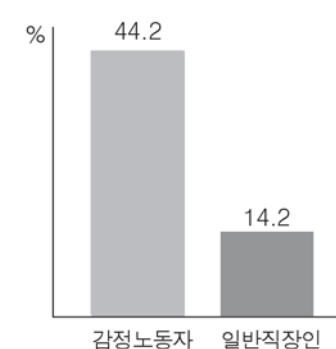
이러한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소비자들은 감정노동의 고충을 이해하고, 감정노동자들을 해당 서비스의 전문가로 인정해야 할 것이다. 또한 해당 기업은 감정노동자의 근무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적극적인 지원을 해야 한다. 더불어 정부는 감정노동자들이 안정적인 직장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 조속히 시행해야 한다.

감정노동자가 겪는 문제는 단지 그들만의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해당될 수 있는 문제이다. 특히 이는 청소년들이 앞으로 겪을 수도 있는 문제이다. 따라서 감정노동자들의 문제를 방지할 것이 아니라 사회 구성원들이 관심을 갖고 함께 해결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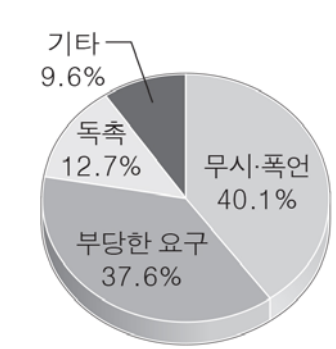
7. 다음은 초고를 작성한 후 추가로 수집한 자료이다. 이를 활용하여 초고를 수정·보완하고자 할 때,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가) 감정노동자 관련 통계 자료

1. 스트레스성 질병 발생 비율



2. 고객 응대 시 스트레스 요인



(나) 인터뷰

저희 회사는 직원들의 스트레스를 줄이기 위해, 폭언과 무리한 요구를 하는 고객에 대한 응대 매뉴얼을 만들어 소비자들의 부당한 행위에 직원들이 대응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한 ‘자율 헬스클럽, 정신 건강 상담실’ 등을 운영하여 직원들의 근무 환경을 개선했으며, 직원들의 업무 능력을 평가할 때 고객 평가에만 의존하기보다는 객관적이고 투명한 자체 기준을 마련했습니다. 이와 같은 노력의 결과 재작년 18.9%에 달하던 이직률이 올해에는 2.1%까지 줄어들었습니다.

- ○○회사 대표이사

(다) 신문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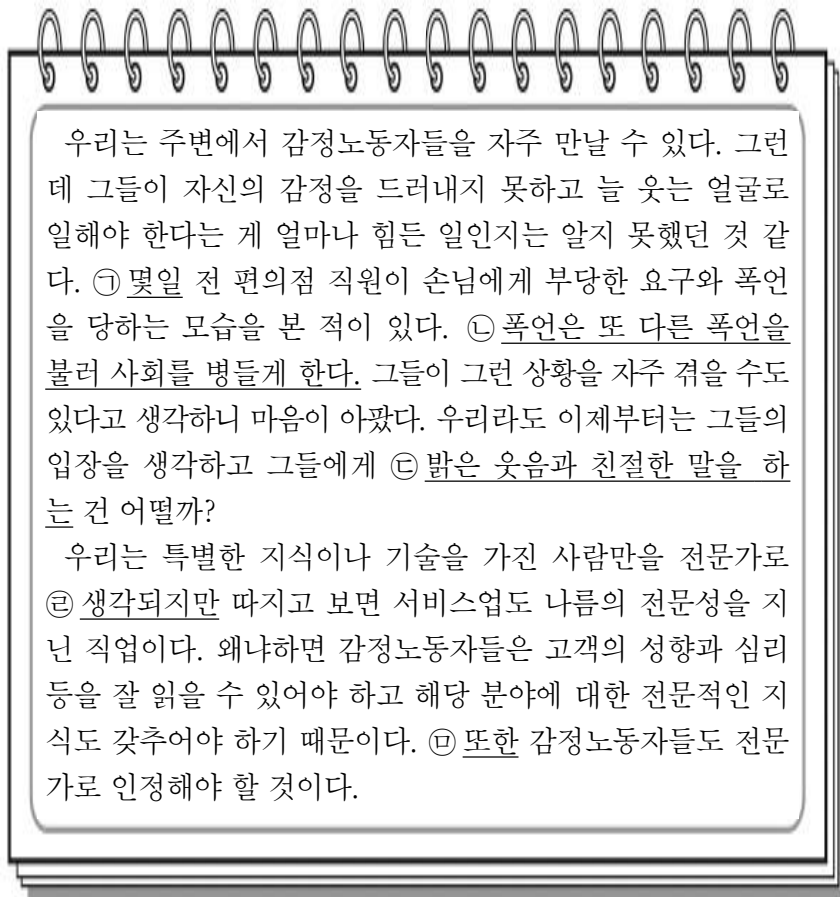
최근 감정노동자 보호를 위한 법률을 마련할 목적으로 공청회가 개최되었다. 공청회에서는 근로기준법 개정 관련 내용을 다루었는데, 특히 고객의 폭언과 폭행, 인격 무시 등에 대한 처벌 기준을 논의하였다. 이와 같은 내용이 개정안에 포함되면 소비자의 부당한 행위로부터 감정노동자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 △△신문

6. 학생의 초고에서 활용된 글쓰기 전략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인용을 통해 문제 상황의 심각성을 제시하고 있다.
- ② 문제의 원인을 분석하여 각각의 해결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 ③ 대상의 의미를 명확하게 전달하기 위하여 대조의 방법을 활용한다.
- ④ 예상 독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생소한 개념에 대한 예를 들고 있다.
- ⑤ 예상 독자에게 일어날 수 있는 상황을 제시하여 태도 변화를 촉구하고 있다.

8. 다음은 윗글을 읽은 학생이 교내 누리집에 올리기 위해 쓴 글이다. 이를 고쳐 쓰기 위한 방안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은 어문 규범에 맞지 않으므로 ‘며칠’로 고친다.
 ② ㉡은 글의 흐름을 자연스럽게 하기 위해 앞 문장과 순서를 바꾼다.
 ③ ㉢은 호응을 고려하여 ‘밝은 웃음을 짓고 친절한 말을 건네는’으로 바꾼다.
 ④ ㉣은 어법에 맞도록 ‘생각하지만’으로 고친다.
 ⑤ ㉤은 앞뒤 내용을 자연스럽게 이어주지 못하므로 ‘그러므로’로 바꾼다.

[9 ~ 10] 다음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수업 상황]

노인 생애 체험에 참가한 학생에게 선생님께서 작문 과제를 부여하셨다.

작문 과제 1

○ 노인 생애 체험 참여를 권유하는 짧은 글을 써 보자.

작문 과제 2

㉠ ~ ㉤을 고려하여 노인 생애 체험에 참가한 소감을 한 편의 글로 작성해 보자.

㉠ 노인 생애 체험에 참가하게 된 동기를 밝히고, ㉡ 체험 중 가장 관심이 있었던 내용을 제시할 것. ㉢ 프로그램을 통해 새롭게 알게 된 사실을 제시하며, ㉣ 체험을 통해 얻은 깨달음으로 끝맺고, ㉤ 노인 생애 체험 프로그램의 진행 순서에 따라 글을 전개할 것.

9. <보기>의 내용을 반영하여 [작문 과제 1]을 수행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보 기 >

- 노인은 풍부한 연륜을 지닌 삶의 스승이라는 점과, 세대 간 이해를 위한 노인 생애 체험의 필요성을 모두 언급할 것.
- 비유적 표현을 활용할 것.

- ① 어르신은 우리 인생길을 알려주는 귀중한 지도입니다. 그 지도는 여러분의 삶의 등대가 될 것입니다.
 ② 우리 사회에서 노인 분들은 지식과 문화를 전승해 주시는 분입니다. 노인 생애 체험에 당신을 초대합니다.
 ③ 혹시 의미 없는 생활로 바쁘신가요? 의미 있는 삶을 찾고 싶으시면 어르신에게 눈을 돌려 보세요. 노인 생애 체험은 당신의 마음을 열 것입니다.
 ④ 어르신의 지나온 세월은 나무의 나이테같이 우리에게 풍요로운 경험을 들려줍니다. 노인 생애 체험으로 가까워지는 세대 간의 정을 느껴 보세요.
 ⑤ 여러분이 거동이 불편한 할아버지, 할머니의 지팡이가 되어 보시는 건 어때요? 노인 생애 체험은 할아버지, 할머니와 하나가 되는 아름다운 당신을 만들어 드릴 것입니다.

10. 다음은 [작문 과제 2]를 수행한 글이다. ㉠ ~ ㉤ 중, 반영되지 않은 것은?

우리 할머니께서는 큰 소리로 말씀 드려도 잘 못 들어서서 안타까웠었다. 그런데 선생님께서 노인 생애 체험을 안내해 주셔서 이 활동에 참가하게 되었다.

이 프로그램은 체험에 대한 사전 강의, 노화 체험, 그리고 체험 나누기 시간으로 진행되었다. 참가했던 활동 중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은 청각 노화 체험이다. 이 체험은 소리를 막는 헤드폰을 쓴 후 친구와 서로 말해 보는 활동이다. 친구가 큰 소리로 말해도 하나도 들리지 않았다. 그런데 강사님께서 서로 얼굴을 마주 보고 입모양을 분명히 하면서 천천히 말해 보라고 하셨다. 그러자 친구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 수 있었고 할머니와 대화할 때도 어떻게 해야 할지를 알 수 있었다.

그리고 체험 전 사전 강의를 통해 어르신들과의 대화가 왜 어려운지 그 이유를 알았다. 나이가 들면 대뇌의 움직임이 젊을 때보다 활발하지 않아 소리가 들려도 상대방의 말을 이해하기가 어렵기 때문이었다. 체험 후에는 자신이 새롭게 안 사실과 체험 후 느낀 점을 서로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

이번 노인 생애 체험을 통해 우리에게서 사소한 일이지만 어르신에게는 힘든 일이 많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리고 어르신들에게 진정성 있는 보살핌이 필요함을 깨닫게 되었다.

- ① ㉠ ② ㉡ ③ ㉢ ④ ㉣ ⑤ ㉤

11. <보기>의 자료를 탐구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보 기 >

[표준발음법]

제18항
받침 ‘ㄱ(ㄲ, ㅋ, ㆁ, ㄷ), ㄷ(ㄱ, ㆁ, ㅈ, ㅊ, ㅌ, ㅎ), ㄴ(ㄲ, ㄷ, ㄴ, ㄹ)’은 ‘ㄴ, ㄹ’ 앞에서 [ㅇ, ㄴ, ㄹ]으로 발음한다.

제23항
받침 ‘ㄱ(ㄲ, ㅋ, ㆁ, ㄷ), ㄷ(ㄱ, ㆁ, ㅈ, ㅊ, ㅌ, ㅎ), ㄴ(ㄲ, ㄷ, ㄴ, ㄹ)’ 뒤에 연결되는 ‘ㄱ, ㄷ, ㄴ, ㅈ’은 된소리로 발음한다.

- ① ‘앞마당’은 18항이 적용되어 [암마당]으로 발음된다.
- ② ‘늦가을’은 23항이 적용되어 [느까을]로 발음된다.
- ③ ‘꽃망울’은 18항과 23항이 모두 적용되어 [꼰망울]로 발음된다.
- ④ ‘맛먹다’는 18항과 23항이 모두 적용되어 [만먹따]로 발음된다.
- ⑤ ‘홀낚시’는 18항과 23항이 모두 적용되어 [혼낙씨]로 발음된다.

12. ㉠ ~ ㉤에 들어갈 문장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보 기 >		
원래 문장	표현하려는 의미	수정한 문장
현우는 새로 산 옷을 입고 있다.	옷을 입는 동작이 진행 중임을 나타내고자 함.	㉠
영철이는 지수보다 야구 경기를 더 좋아한다.	영철이가 더 좋아하는 것은 지수가 아니라 야구 경기임.	㉡
친구들이 약속 장소에 나오지 않았다.	친구들이 일부만 참석함.	㉢
민수는 아침에 윤서가 여행에서 돌아왔다고 말했다.	돌아온 사실을 말한 시점이 아침임.	㉣
그는 내게 장미와 튤립 두 송이를 주었다.	받은 꽃의 개수가 세 송이임.	㉤

- ① ㉠: 현우는 새로 산 옷을 입고 있는 중이다.
- ② ㉡: 영철이는 지수를 좋아하는 것보다 야구 경기를 더 좋아한다.
- ③ ㉢: 친구들이 약속 장소에 다는 나오지 않았다.
- ④ ㉣: 윤서가 아침에 여행에서 돌아왔다는 것을 민수는 말했다.
- ⑤ ㉤: 그는 내게 장미 한 송이와 튤립 두 송이를 주었다.

13. <보기>에 제시된 수업 내용을 바탕으로 학생이 탐구한 결과로 적절한 것은?

< 보 기 >

선생님: 지난 시간에 부사화 접미사 ‘-이’와 ‘-히’의 표기에 대해 공부했습니다. 한글맞춤법 51항의 해설을 통해 ‘-하다’가 붙지 않는 용언의 어간이나 ‘ㅅ’받침 뒤에서는 ‘-이’로 적는다고 배웠는데, 여기에는 다음의 세 가지 경우가 더 제시되어 있습니다.

㉠ (첩어 또는 준첩어인) 명사 뒤
예) 살살이, 다달이

㉡ 부사 뒤
예) 더욱이, 히죽이

㉢ ‘ㅂ’ 불규칙 용언의 어간 뒤
예) 가벼이, 새로이

판서 내용을 참고하여, 다음의 단어들을 ㉠ ~ ㉤로 구분해 봅시다.

나날이, 오뚝이, 일찍이, 즐거이, 겹겹이

- | ㉠ | ㉡ | ㉢ |
|------------|----------|----------|
| ① 나날이, 오뚝이 | 일찍이 | 즐거이, 겹겹이 |
| ② 나날이, 즐거이 | 겹겹이 | 오뚝이, 일찍이 |
| ③ 나날이, 겹겹이 | 오뚝이, 일찍이 | 즐거이 |
| ④ 오뚝이, 겹겹이 | 일찍이, 즐거이 | 나날이 |
| ⑤ 겹겹이 | 오뚝이, 즐거이 | 나날이, 일찍이 |

14. <보기>에 제시된 국어사전의 정보를 완성한다고 할 때, ㉠~㉣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보 기 〉

주다

① 동사

- ① 【...에/에게 ...을】 물건 따위를 남에게 건네어 가지거나 누리게 하다. ㉠ 친구에게 선물을 주다.

반의어 주다 ↔ ㉡

- ② 남에게 어떤 자격이나 권리, 점수 따위를 가지게 하다.

㉢ 일등 항해사에게 가산점을 주다. / ㉣

- ③ 좋지 아니한 영향을 미치게 하다. ㉤ 동생과 싸웠다고 어머니가 나에게 핀잔을 주다. / ㉥

받다

① 동사

- ① 【...에서/에게서/...으로부터 ...을】 다른 사람이 주거나 보내오는 물건 따위를 가지다. ㉦ 남자 친구로부터 선물을 받다.

- ② 【...을】 공중에서 밑으로 떨어지거나 자기 쪽으로 향해 오는 것을 잡다. ㉧ 날아오는 공을 받다.

반의어 받다 ↔ ㉨

- ③ 【㉩】 흐르거나 쏟아지거나 하는 것을 그릇 따위에 담기게 하다. ㉪ 따끈한 차를 찻잔에 받다.

- ① ‘주다①①’의 뜻풀이와 용례로 보아 ㉠에 들어갈 말은 ‘받다①①’이다.
 ② ㉡에는 ‘약을 사 먹으라고 누나가 나에게 돈을 주다.’를 넣을 수 있다.
 ③ ㉣에는 ‘아무렇지도 않게 내뱉은 말이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다.’를 넣을 수 있다.
 ④ ‘받다①②’의 용례로 보아 ㉥에는 ‘던지다’를 넣을 수 있다.
 ⑤ ㉥에 들어갈 말은 ‘...을 ...에’이다.

15. <보기1>을 바탕으로 <보기2>의 ㉠~㉣에 대해 설명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기 1〉

지칭어와 호칭어, 높임 표현이 발달한 우리말에서는 특히 담화 상황에서 화자, 청자, 맥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다른 사람에게 그 대상을 가리킬 때 사용하는 말인 지칭어와 그 대상을 직접 부를 때 사용하는 말인 호칭어를, 화자와 청자, 담화에 언급된 대상의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선택해야 한다. 또한 높임 표현은 청자나 담화 속 주체와 객체의 높임 관계를 고려하여 어미, 조사, 어휘 등을 적절하게 사용해야 한다.

〈보기 2〉

혜연: 삼촌, 어서 오세요. 좀 늦으셨네요?

삼촌: 생각보다 차가 밀리더구나. 다들 오셨니?

혜연: 아니요. 차가 밀리는지 ㉠ 할머니께서도 아직 도착하지 못 하셨어요.

삼촌: ㉡ 어머니는 어디 계시니?

혜연: ㉢ 할아버지를 모시고 조금 전에 결혼식장에 들어가셨어요.

삼촌: 아침부터 너희 ㉣ 어머니께서 많이 바쁘셨겠네. 너도 언니 결혼식 때문에 옆에서 이것저것 도와주느라 힘들었지?

혜연: 아니에요. 그것보다 삼촌께서 이렇게 멀리서 와 주셔서 ㉤ 언니가 정말 기뻐할 것 같아요.

- ① ㉠에서는 화자가 자신을 기준으로 대상을 파악하여 지칭어를 사용하고 있군.
 ② ㉡에서 문장의 주체는 화자가 높여야 할 대상이므로 특수한 어휘를 통해 높임을 실현하고 있군.
 ③ ㉢에서 문장의 객체는 화자가 높여야 할 대상이므로 조사를 통해 높임을 실현하고 있군.
 ④ ㉣에서는 화자가 청자를 기준으로 대상을 파악하여 지칭어를 사용하고 있군.
 ⑤ ㉤에서는 청자가 화자보다 높은 대상이므로 종결어미를 통해 높임을 실현하고 있군.

16. <보기>의 ㉠~㉣에서 알 수 있는 중세국어의 특징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보 기 〉

㉠ 雙鵬(쌍조)이 혼 사래 ㉡ 빼니 絶世(절세) 英才(영재)를 邊人(변인)이 拜伏(배복) ㉢ 호사브니

[현대어 풀이]

두 마리 독수리가 한 살에 꿰이니, 절세의 영재를 변방의 사람들이 절하며 복종하니

雙鵲(쌍작)이 혼 ㉣ 사래 ㉤ 디니 曠世(광세) 奇事(기사)를 北人(북인)이 稱頌(칭송) 호사브니

[현대어 풀이]

두 마리 까치가 한 살에 떨어지니, 세상에 없는 기이한 일을 북녘 사람들이 칭송하니

— 「용비어천가(龍飛御天歌)」 <제23장> —

- ① ㉠을 보니 모음으로 끝난 체언 뒤에 목적격 조사로 ‘이’가 사용되었군.
 ② ㉡을 보니 음절의 초성에서 두 개 이상의 자음이 사용되었군.
 ③ ㉢을 보니 ‘△’, ‘ㅁ’, ‘.’ 등 현대 국어에서는 사용되지 않는 문자가 사용되었군.
 ④ ㉣에서 양성 모음 ‘ㅏ’와 ‘ㅑ’가 어울리는 것을 보니 모음조화가 지켜졌군.
 ⑤ ㉤에서 ‘이’ 앞의 ‘ㄷ’이 ‘ㅈ’으로 변하지 않은 것을 보니 구개음화 현상이 나타나지 않았군.

제 1 교시

국어 영역(B형)

[1~3] 다음은 토론의 일부이다. 물음에 답하시오.

사회자: 지금부터 ‘청소년의 팬덤 활동은 청소년에게 긍정적 영향을 준다.’라는 논제로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찬성 측에서 입론을 하신 후 반대 측에서 반대 신문을 해 주십시오.

찬성 1: 저희는 팬덤 활동이 청소년에게 긍정적 영향을 준다고 생각합니다. ‘팬덤’은 특정 인물이나 분야를 열정적으로 좋아하는 집단을 말합니다. 팬덤 활동을 통해 청소년들은 친구와 관심사를 공유하고 인간관계를 확장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일상의 답답함에서 벗어나 공연장이나 경기장에서 스타를 응원하며 삶의 만족감을 얻을 수 있습니다. 최근의 한 조사에 따르면 팬덤 활동을 하는 청소년들과 하지 않는 청소년들의 삶의 만족도를 비교한 결과 팬덤 활동을 하는 청소년들의 만족도가 두 배 이상 높게 나타났습니다. 또 요즘 팬덤은 대중문화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다양한 문화 운동을 하고 있어 청소년들은 팬덤 활동을 하며 문화 실천의 주체로 발전할 수도 있습니다. ㉠ 자신이 좋아하는 것을 좋다고 솔직하게 표현하며 건강하게 성장하는 청소년의 모습, 바람직하지 않습니까? 이상으로 입론을 마치겠습니다.

반대 2: 방금 조사 결과를 말씀하셨는데, 그 자료의 출처가 어딘가요?

찬성 1: 국내 유명 팬덤인 햇살 팬클럽에서 조사한 자료입니다.

반대 2: [A]

찬성 1: 저희는 자료에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사회자: 이번에는 반대 측에서 입론을 하신 후 찬성 측에서 반대 신문을 해 주십시오.

반대 1: 저희는 팬덤 활동이 청소년에게 부정적 영향을 준다고 생각합니다. 그 근거로는 첫째, 팬덤은 다른 팬덤에 대해 배타적인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청소년들이 팬덤 활동을 하면 인간관계가 확장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편협한 이기주의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둘째, 찬성 측에서는 팬덤 활동이 청소년에게 만족감을 준다고 하셨지만 그것은 스타에 대한 과도한 몰입이자 일종의 중독 현상으로 볼 수 있습니다. 셋째, 팬덤 참여자는 스타를 맹목적으로 숭배하기 때문에 문화 실천의 주체가 아니라 단순히 스타와 관련된 문화 상품을 소비하는 수동적 존재가 될 수 있습니다. 넷째, 최근 연하의 스타에게 열광하는 이모 팬덤, 삼촌 팬덤이 사회에 물의를 일으킨 것도 저희가 팬덤 활동을 반대하는 이유입니다. 이상으로 입론을 마치겠습니다.

찬성 1: 중독을 이야기하셨는데 어떤 의미로 사용하신 거죠?

반대 1: 중독은 어떤 대상에 너무 깊이 빠져서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없는 상태를 말하는 겁니다.

찬성 1: 그러면 정상적으로 생활하면서도 팬덤 활동을 열심히 하는 대부분의 청소년들은 해당이 안 되는 거죠?

반대 1: 중독된 청소년도 많을 겁니다.

1. 토론의 맥락을 고려할 때, ㉠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물음의 형식을 통해 자신의 주장이 옳음을 강조하는 발화이다.
- ② 실제 사례를 근거로 들어 자신의 주장이 정당함을 입증하는 발화이다.
- ③ 자신이 사용한 용어의 적절성에 대해 상대방의 의견을 묻는 발화이다.
- ④ 상대방의 견해를 일부 인정하면서도 자신의 입장을 재확인하는 발화이다.
- ⑤ 논제의 범위를 한정하기 위해 상대방에게 질문을 하고 답을 요구하는 발화이다.

2. <보기>는 토론 전에 실시한 반대 측의 협의 내용의 일부이다. ‘찬성 1’의 발언과 <보기>를 고려할 때, [A]에 들어갈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보 기>—

반대 1: 반대 신문은 어떻게 하려고 해?

반대 2: 음, 만일 찬성 측이 자료를 제시한다면 먼저 그것부터 점검해 봐야 하지 않을까?

반대 1: 어떤 식으로?

반대 2: 자료의 출처가 불확실하다면 자료의 신뢰성을 문제 삼아야겠지. 또 자료가 편파적일 수 있다면 그 점을 부각하려고 해.

- ① 출처도 명확하지 않은 자료를 신뢰할 수 있나요?
- ② 그 자료는 저희에게 유리하게 해석될 수도 있지 않을까요?
- ③ 그것은 최근에 조사한 자료가 아니기 때문에 지금 현실과는 안 맞지 않나요?
- ④ 그 자료는 팬덤 활동을 하고 있는 청소년만을 대상으로 조사한 것이 아닌가요?
- ⑤ 팬덤 활동을 하는 단체에서 조사한 것이라면 그 자료가 공정하다고 할 수 있을까요?

3. 다음은 배심원이 작성한 평가표의 일부이다. 평가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단계	평가 기준	토론자	평가 내용
입론	주장에 대한 근거가 타당한가?	찬성 1	- 친구와의 관심사 공유, 인간관계의 확장은 팬덤 활동의 긍정적 측면을 제시한 것이므로 타당함,.....① - 문화 실천의 주제로 발전할 수 있다는 점은 팬덤 활동의 긍정적 측면을 제시한 것이므로 타당함,.....②
		반대 1	- 팬덤 활동의 배타성, 스타에 대한 맹목적 숭배는 팬덤 활동의 부정적 측면을 제시한 것이므로 타당함,.....③ - 이모 팬덤과 삼촌 팬덤이 사회적 물의를 일으켰다는 것은 논제에 부합하는 부정적 사례이므로 타당함,.....④
반대 신문	상대의 논리적 문제점을 적절하게 지적했는가?	찬성 1	상대방이 사용한 '중독'의 의미를 팬덤 참여자에게 보편적으로 적용하는 데 무리가 있음을 지적한 것은 적절함,.....⑤

[4~5] 다음은 친구 간의 대화의 일부이다. 물음에 답하시오.

학생 1: 공연이 얼마 안 남았는데 우리 둘이 기타 화음을 좀 더 맞춰 봐야 할 것 같아.
 학생 2: ㉠ 아무래도 그렇겠지? 그럼 우리 토요일에 연습할까? 주중에는 방과 후에 내가 학생회 회의가 계속 있거든.
 학생 1: ㉡ (고개를 저으며) 안 될 것 같아. 나는 토요일에 공연 홍보지를 만들기로 약속이 잡혀 있어. 기타 연습은 주중에 했으면 했는데. 서로 시간이 안 맞네.
 학생 2: 아, 연습을 더 하긴 해야 하는데.....
 학생 1: 연습 시간을 맞추는 방법이 없을까?
 학생 2: 수요일과 금요일에 연습하는 건 어때? 내가 주말에 바쁘다고 하니까 내가 주중 회의 시간을 조정해 볼게. 그런데 그것만으로는 연습 시간이 부족할 것 같아. 너도 시간을 좀 조정해 봐.
 학생 1: 그래. 내가 토요일 오전까지 홍보지를 마무리하면 오후에는 같이 연습할 수 있을 텐데.
 학생 2: 토요일 오전에는 마무리할 수 있겠어?
 학생 1: 그런데 처음 해 보는 일이라 빨리 끝낼 수 있을지 모르겠어. 경험자가 도와주면 빨리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 너는 경험이 많고 잘 하잖아. 혹시.....
 학생 2: 응? 왜 그래?

학생 1: ㉣ 혹시 시간이 괜찮다면 홍보지 만드는 걸 좀 도와줄 수 있을까?

학생 2: 토요일 오전에 일을 끝내면 오후에는 연습을 할 수 있다는 말이지? 알았어. 그럼 내가 도와줄게.

학생 1: 그럼 수요일과 금요일 방과 후와 토요일 오후에 연습하도록 하자.

학생 2: 그래 좋아.

학생 1: 그럼 연습 장소는 어디가 좋을까? 이제부터는 강당에서 연습하는 게 어때? 무대 위에서 여러 번 연습을 해 봐야 공연 당일에 떨리지 않을 것 같아. 무대에서 연습하는 기회를 많이 가져야지.

[B] 학생 2: ㉤ 무대에서 연습하는 기회를 많이 갖자는 말이구나. 무대 연습도 꼭 필요하긴 해. 하지만 아직 우리는 화음도 제대로 맞춰 보질 못했잖아. 조용한 연습실에서 우리 둘이 화음을 맞춰 보고 연습도 충분히 해 보는 게 중요한 것 같아. 그래야 무대 위에서도 떨리지 않지.

학생 1: 그래 좋아.

4. ㉠~㉤의 말하기 방식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 질문하는 방식을 통해 상대방의 뜻에 동조하고 있음을 드러내고 있다.
- ② ㉡: 비언어적 표현과 언어적 표현을 통해 부정의 의미를 드러내고 있다.
- ③ ㉢: 상대방에게 자신을 낮추어 표현하는 것을 통해 겸손의 의도를 드러내고 있다.
- ④ ㉣: 상대방이 부담을 덜 느끼도록 표현하면서 부탁의 의도를 드러내고 있다.
- ⑤ ㉤: 상대방의 말을 재진술하여 상대방의 말을 제대로 알아들었음을 드러내고 있다.

5. [A]와 [B]에 대한 분석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A]에서는 '학생 1'과 '학생 2'가 서로의 요구를 수용함으로써 의견의 일치점을 찾았다.
- ② [B]에서 '학생 1'은 '학생 2'와의 의견 차이를 좁히기 위해 새로운 대안을 제시하였다.
- ③ [A]에서는 '연습 시간 축소'의 문제를, [B]에서는 '연습 장소 이동'의 문제를 해결하였다.
- ④ [A]에서는 대화 참여자 간의 공동의 문제를, [B]에서는 공동이 아닌 '학생 1' 개인과 관련된 문제를 중심 화제로 대화하였다.
- ⑤ [A]와 [B]에서는 각각 제시된 안들을 '학생 1'이 종합하였다.

[6~8] 신문에 기고를 하기 위해 (가)와 같은 계획을 세운 후, (나)의 자료를 수집하고 (다)를 작성하였다. 물음에 답하시오.

(가) 글쓰기 계획

[주제] 국외 문화재 환수를 위한 과제와 해결 방안

- 서론: 국외 문화재 환수와 관련된 최근 사례를 제시한다.
- 본론: 1. 국외 문화재 파악 및 환수 현황을 제시한다.
2. 국외 문화재 환수가 어려운 원인을 살펴본다.
3. 살펴본 원인을 바탕으로 해결책을 제시한다.
- 결론: 논의를 종합하고 기대 효과를 제시한다.

(나) 수집한 자료

국외 문화재 파악 및 환수 현황

(단위: 점)

	연도	소재국				계
		일본	미국	중국	기타	
국외 문화재 파악 현황	2011년	65,142	37,972	7,930	29,031	140,075
	2014년	67,708	43,558	8,278	36,616	156,160
국외 문화재 환수 현황	2011년	6,313	1,295	0	2,137	9,745 (정부 주도 9,080 민간 주도 665)
	2014년	6,408	1,399	0	2,139	9,946 (정부 주도 9,277 민간 주도 669)

※ 자료에 제시한 수치는 누적 통계임.

(다) 학생의 초고

최근 국외의 ○○ 미술관이 소장 중이던 조선 덕종어보가 우리나라로 공식 반환되었다. 이번 일은 자발적 반환이라는 점에서 매우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그러나 아직도 우리의 많은 문화재들은 여러 나라에 흩어져 환수되지 못하고 있다.

현재 국외 문화재의 환수 현황은 좋은 편이 아니다. ㉠ 자료를 보면 이를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원인 분석과 그에 따른 체계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국외 문화재 환수가 어려운 원인은 대외적 원인과 대내적 원인으로 살펴볼 수 있다. 대외적 원인으로는 상대국이 자발적으로 반환하려고 하지 않는다는 점을 들 수 있으며, 대내적 원인으로서는 국외 문화재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과 이해가 부족하다는 점을 들 수 있다.

국외 문화재의 환수가 효과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정부 간의 협상을 통해 기증을 받거나 구매 혹은 장기 대여를 하는 등 다양한 방식을 전략적으로 활용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민간 단체를 통한 기증과 같은 방식을 활용하는, 정부와 국내 민간 단체의 상호 협력 전략이 필요하다. 또한 국외 문화재 환수에 대한 국민들의 이해와 관심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국외 문화재에 대한 이해 자료 및 문화재 반환과 관련된 국제 규범을 담은 홍보 프로그램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

정부와 민간단체들이 힘을 모아 외국과 협상을 전개하고, 국민들은 국외 문화재 환수에 대해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야 한다. 이러한 노력들이 계속될 때 국외 문화재의 환수는 보다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다.

6. (가)를 구체화하여 (다)를 작성했다고 할 때, (다)에 반영되지 않은 것은?

- ① 덕종어보 환수와 관련된 내용을 언급하여 ‘서론’을 구체화한다.
- ② 국외 문화재 환수가 어려운 이유를 대외적 원인과 대내적 원인으로 나누어 제시하여 ‘본론’을 구체화한다.
- ③ 문화재 반환에 관련된 국제 규범 제정에 참여하는 것을 해결책으로 제시하여 ‘본론’을 구체화한다.
- ④ 정부와 민간단체의 상호 협력을 해결책의 하나로 제시하여 ‘본론’을 구체화한다.
- ⑤ ‘본론’에서 제시한 해결책을 통해 국외 문화재의 효과적 환수가 가능함을 기대 효과로 언급하여 ‘결론’을 구체화한다.

7. (나)에서 필요한 정보를 선별하여 자료를 제시한 후, ㉡을 바꾸어 쓰려고 한다.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2014년 국외 문화재 파악 현황>	그래프에서 국외 문화재 분포를 살펴보면 국외 문화재가 특정 국가에 편중되어 있다는 점에서 이를 확인할 수 있다. ㉠
<국외 문화재 환수 현황>	그래프에서 문화재 환수 주체의 상대적 비중을 보면 현재까지 문화재 환수가 정부 주도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이를 확인할 수 있다. ㉡
<국외 문화재 파악 및 환수 현황>	그래프에서 환수된 국외 문화재의 수량 변화를 살펴보면 아직도 국외에 남아 있는 문화재의 소재 파악이 어렵다는 점에서 이를 확인할 수 있다. ㉢
	그래프에서 변화량을 비교해 보면 파악된 국외 문화재의 수량은 크게 증가하였으나 환수된 국외 문화재의 수량은 그에 미치지 못했다는 점에서 이를 확인할 수 있다. ㉣

8. <보기>와 같은 입장을 가진 사람들을 설득하기 위해 (다)를 보완하는 방안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보 기>—

국외 문화재를 들여오는 데에는 많은 비용이 들어갈 뿐만 아니라 들여와서도 보관과 관리에 막대한 비용이 들어갈 수 있다. 이 점을 생각하면 국외 문화재를 꼭 환수해야 한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 ① 국외 문화재 환수 비용 내역을 추가하여 국외 문화재 환수가 어려움을 부각해야겠군.
- ② 문화재가 인류 공동의 재산이라는 점을 제시하여 국외 문화재를 통해 우리나라를 알릴 수 있는 방안을 추가해야겠군.
- ③ 문화재는 금전적 기준으로만 판단할 수 없는 역사적, 문화적 가치가 있다는 내용을 추가하여 환수의 당위성을 강조해야겠군.
- ④ 적은 비용으로 국외 문화재 환수에 성공한 사례를 제시하여 국외 문화재가 경제적 가치 창출과 직결될 수 있다는 점을 부각해야겠군.
- ⑤ 공공 기관의 구체적인 정책들을 추가하여 공공 기관에서 국외 문화재 환수를 추진해 나갈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함을 언급해야겠군.

[9~10] 다음은 한 학생이 봉사 활동을 하고 쓴 소감문의 초고이다. 물음에 답하시오.

내가 어렸을 적에 할아버지께서는 감을 수확할 때가 오면 ‘까치밥’이라 하시며 감을 서너 개 남겨 놓으셨다. 까치밥을 왜 남겨 두시느냐는 나의 질문에 할아버지께서는 몇 개 안 되지만 그것이 다른 생명들에게는 겨울을 날 힘이 될 수 있다고 하셨다. 할아버지께서는 ㉠ “사람 사는 게 그런 거야.”라고 말씀하시며 인자한 미소를 지으셨다. 그땐 그 말씀의 의미를 완전히는 알지 못했었다. ㉡ 얼마 전 뉴스를 통해 하루에 한 끼도 제대로 해결하지 못하는 어르신들의 사연을 들었다. 그 뉴스를 보고 문득 잊고 살았던 할아버지의 미소가 떠올랐다. ㉢ 그런데 뜻이 맞는 친구들과 혼자 사시는 어르신들을 위해 식사를 준비하여 전해 드리기로 했다. 우리는 정성을 다해 밥과 밑반찬을 준비해서 봉사 단체를 통해 소개받은 한 할머니를 찾아뵈었다. 우리는 찾아 줘서 고맙다며 반가워하시는 할머니께 식사를 대접해 드리며 조심스레 말문을 열었다. 음식을 드시는 할머니와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면서 나는 할머니께서 불편한 다리로 거동하시는 것을 알게 되었다. ㉣ 그렇게 불편하신 몸으로 집 안에서 홀로 하루 종일 계신다니 가슴이 아팠다. 할머니께서 식사를 마치신 후 우리는 집안일을 도와 드리려고 했지만, 할머니께서는 우리의 성의를 ㉤ 거부하시며 음식을 싸 와서 말뼉을 해 준 것만 해도 최고의 선물이라고 하시며 활짝 웃으셨다.

할머니와 헤어질 때 할머니께서는 아쉬워하시며 내 손을 잡아 주셨다. 그 따뜻한 감촉은 우리의 봉사가 단순히 음식만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마음까지 전하는 것임을 느끼게 해주었다. 그때 나는 비로소 ㉥ “사람 사는 게 그런 거야.”라고 하시던 할아버지의 마음을 확실히 알 수 있었다. 작은 봉사가 큰 기쁨을 준다는 것을 기억하며 나눔을 실천하도록 노력할 것을 다짐했다. ㉦ 그리고 부모님의 노후를 책임지려는 가족의 의무감과 효 의식의 중요성을 생각하게 되었다.

9. ㉠과 ㉥을 중심으로 파악한 윗글의 글쓰기 전략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개성적인 의미를 가졌던 ㉠을 관습적인 의미를 가진 ㉥으로 바꾸어 보편성을 드러낸다.
- ② 과거에 불완전하게 이해했던 ㉠과 체험을 통해 깨닫게 된 ㉥을 연결하여 주제를 심화한다.
- ③ 문제를 제기하는 말인 ㉠과 문제의 해결 방안을 제시하는 말인 ㉥을 대응시켜 논리성을 강화한다.
- ④ 정신적 가치를 중시하는 말인 ㉠과 물질적 가치를 중시하는 말인 ㉥을 비교하여 차이점을 부각한다.
- ⑤ 이성적으로 설명하는 말인 ㉠을 감성적으로 호소하는 말인 ㉥으로 바꾸어 그리움의 정서를 부각한다.

10. ㉡~㉥을 고쳐 쓰기 위한 방안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 문단 구성을 자연스럽게 하기 위해 이 부분에서 문단을 나누는 것이 좋겠어.
- ② ㉢: 접속어의 사용이 부적절하므로 ‘그래서’로 고치는 것이 좋겠어.
- ③ ㉣: 글의 흐름을 고려하여 바로 앞의 문장과 순서를 바꾸는 것이 좋겠어.
- ④ ㉤: 어휘의 사용이 적절하지 않으므로 ‘사양하시며’로 바꾸는 것이 좋겠어.
- ⑤ ㉥: 글의 통일성을 저해하므로 삭제하는 것이 좋겠어.

11. <보기>에 따라 표준 발음을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한 것은?

[3점]

<보 기>

〈표준 발음법의 ‘된소리되기’ 중 일부〉

- ㉠ 어간 받침 ‘ㄴ(ㄴ), ㄹ(ㄹ)’ 뒤에 결합되는 어미의 첫소리 ‘ㄱ, ㄷ, ㅂ, ㅈ’은 된소리로 발음한다.
- ㉡ 어간 받침 ‘ㄹ, ㅍ’ 뒤에 결합되는 어미의 첫소리 ‘ㄱ, ㄷ, ㅂ, ㅈ’은 된소리로 발음한다.
- ㉢ 관형사형 ‘-(으)ㄴ’ 뒤에 연결되는 ‘ㄱ, ㄷ, ㅂ, ㅈ’은 된소리로 발음한다. ‘-(으)ㄴ’로 시작되는 어미의 경우도 이에 준한다.

- ① ‘(가슴에) 품을 적에’와 ‘(머느리로) 삼고’에서의 된소리되기는 모두 ㉠에 따른 것이다.
- ② ‘(방이) 넓거든’과 ‘(두께가) 얇을지라도’에서의 된소리되기는 모두 ㉡에 따른 것이다.
- ③ ‘(신을) 신겠네요’와 ‘(땅을) 밟지도’에서의 된소리되기는 모두 ㉢에 따른 것이다.
- ④ ‘(남들이) 비웃을지언정’과 ‘(먼지를) 훑던’에서의 된소리되기는 각각 ㉠, ㉡에 따른 것이다.
- ⑤ ‘(물건을) 잊지만’과 ‘(자리에) 앉을수록’에서의 된소리되기는 각각 ㉠, ㉢에 따른 것이다.

12. <보기>의 선생님의 설명을 바탕으로 할 때, ㉠에 들어갈 말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 기>

학 생: ‘되어요, 돼요, 되요’ 중에서 어느 게 맞는지 궁금해요.
 선생님: “어간 모음 ‘ㅛ’ 뒤에 ‘-어’가 붙어서 ‘내’로 줄어드는 것은 ‘내’로 적는다.”라는 맞춤법 규정에 따르면 ‘되어요’는 어간 ‘되-’에 ‘-어요’가 결합된 것이므로 ‘돼요’로 줄어들 수 있어. 그러니까 ‘되어요, 돼요’는 맞는 말이지만 ‘되요’는 틀린 말이지. ‘(바람을) 쐬다, (턱을) 꺾다, (나사를) 죄다, (어른을) 뵈다, (명절을) 쇠다’ 등도 이 규정에 따라 적으면 돼.

학 생: 아, 그러면 ㉠

- ① ‘쐬어라’는 ‘쐬-’와 ‘-어라’가 결합된 것이므로 ‘쐬라’로 줄어들 수 있겠네요.
- ② ‘꺾-’와 ‘-느냐’가 결합될 때는 ‘어’가 들어갈 수 없으므로 ‘꽤느냐’는 틀린 말이겠네요.
- ③ ‘뵈도’는 ‘뵈-’와 ‘-어도’가 결합된 말이 줄어드는 것이겠네요.
- ④ ‘뵈-’가 ‘-어서’와 결합되면 ‘뵈서’로 줄어들 수 있겠네요.
- ⑤ ‘죄-’와 ‘-더라도’가 결합될 때는 ‘꽤더라도’로 적으면 틀린 것이겠네요.

13. 다음은 ‘사전 활용하기’ 학습 활동을 위한 자료이다. 이에 대해 탐구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굳다 [굳어, 굳으니, 굳는]

Ⅰ ㉠

- ㉠ 무른 물질이 단단하게 되다. ㉡ 시멘트가 굳다
- ㉢ 근육이나 뼈마디가 뻣뻣하게 되다. ㉣ 허리가 굳다

Ⅱ ㉢

- ㉢ 흔들리거나 바뀌지 아니할 만큼 힘이나 뜻이 강하다.
- ㉣ 굳은 결심 / 성을 굳게 지키다

반의어

㉠ ㉡ 녹다 ㉢ ㉣

녹다 [녹아, 녹으니, 녹는] ㉢

- ㉠ ㉡ 얼음이나 얼음같이 매우 차가운 것이 열을 받아 액체가 되다. ㉢ 얼음이 녹다 / 눈이 녹다
- ㉣ 고체가 열기나 습기로 말미암아 제 모습을 갖고 있지 못하고 물러지거나 물처럼 되다. ㉤ 엷이 녹다

㉡ 【...에】

- ㉡ 결정체(結晶體) 따위가 액체 속에서 풀어져 섞이다. ㉢ 소금이 물에 녹다
- ㉣ 어떤 물체나 현상 따위에 스며들거나 동화되다.

㉤ 우리 정서에 녹아 든 외국 문화

반의어

㉠ ㉢ 굳다 ㉡ ㉣

- ① ‘굳다’는 ‘녹다’와 달리 두 개의 품사로 쓰인다.
- ② ‘시멘트가 굳다’의 ‘굳다’와 ‘엷이 녹다’의 ‘녹다’는 반의 관계이다.
- ③ ‘굳다 Ⅱ’의 용례로 ‘마음을 굳게 단다’를 추가할 수 있다.
- ④ ‘녹다 ㉡ ㉣’의 용례로 ‘글에는 글쓴이의 생각이 녹아 있다.’를 추가할 수 있다.
- ⑤ ‘초콜릿이 순식간에 녹았다.’의 ‘녹다’는 ‘녹다 ㉡ ㉣’에 해당하므로 주어 외에도 다른 문장 성분을 필요로 한다.

14. <보기 1>의 ㉠~㉣ 중 <보기 2>와 같이 문장을 수정하는 데에 반영된 것만을 있는 대로 고른 것은?

—<보기 1>—

문장을 수정할 때는 아래와 같은 사항을 점검해야 한다.

㉠ 문장의 필수 성분이 다 갖추어져 있는가?
 ㉡ 조사가 적절하게 사용되었는가?
 ㉢ 어미가 적절하게 사용되었는가?
 ㉣ 불필요한 의미 중복 표현이 사용되지는 않았는가?

—<보기 2>—

수정 전	지난여름 청소년 문화 교류단에 참여하려는 학생들은 각 지역에 청소년들과 소통하고 답사함으로써 즐거운 추억을 만들 수 있었다.
↓	
수정 후	지난여름 청소년 문화 교류단에 참여한 학생들은 각 지역의 청소년들과 소통하고 유적지를 답사함으로써 즐거운 추억을 만들 수 있었다.

- ① ㉠, ㉢ ② ㉠, ㉣ ③ ㉡, ㉣
 ④ ㉠, ㉡, ㉢ ⑤ ㉡, ㉢, ㉣

15. 담화 상황을 고려할 때, <보기>의 ㉠~㉣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 기>—

A: 어제 낮엔 많이 바빴니? 전화를 바로 끊더라.
 B: 아니야, 끊은 게 아니라 ㉠ 끊어진 거야. 바로 전화 못해서 미안해. 표정이 심각해 보이는데 무슨 일 있었어?
 A: 아니, ㉡ 저기, 심각한 건 아니고. 어제 점심에 도서관에서 만나기로 했잖아. 기다려도 안 오길래 말이야.
 B: ㉢ 아차! 내가 먼저 얘기하려고 했는데 깜빡했네. 가려고 했는데 ㉣ 못 갔어.
 A: ㉤ 자세히 말해 볼래?
 B: 동생이 갑자기 아파서 병원에 데리고 가야 했거든.
 A: 그런 일이 있었구나. 동생은 좀 괜찮니?

- ① ㉠: 피동 표현을 사용하여 상황이 B의 의지와 무관하게 일어났음을 나타낸다.
 ② ㉡: 지시 대명사를 사용하여 B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는 곳으로 관심을 유도한다.
 ③ ㉢: 감탄사를 사용하여 A의 발화를 듣고 어떤 것을 갑자기 깨달았음을 나타낸다.
 ④ ㉣: 부정 부사 ‘못’을 사용하여 B에게 일어난 상황이 불가피했음을 나타낸다.
 ⑤ ㉤: 의문 표현을 사용하여 B에게 일의 까닭을 상세히 말해달라고 요청한다.

16. <보기 1>을 참고할 때, <보기 2>의 ㉠~㉣에 들어갈 말로 적절한 것은?

—<보기 1>—

중세 국어 체언 중에는 ‘ㅎ’을 끝소리로 가진 것들이 있다. 이러한 체언을 ‘ㅎ’ 종성 체언이라고 하는데 조사가 뒤따를 경우에 다음과 같이 나타난다.

뒤따르는 조사	‘ㅎ’ 종성 체언의 실현 양상
모음으로 시작하는 조사	‘ㅎ’은 뒤따르는 모음에 이어 적는다. 예: ㉠ (쌍+이) 줄어들 (땅이 질거늘)
‘ㄱ, ㄷ’으로 시작하는 조사	‘ㅎ’은 뒤따르는 ‘ㄱ’, ‘ㄷ’과 어울려 ‘ㄱ’, ‘ㄷ’으로 나타난다. 예: ㉡ (쌍+도) 뛰더니 (땅도 움직이더니)
관형격 조사 ‘ㅁ’	‘ㅎ’은 나타나지 않는다. 예: 다른 ㉢ (쌍+ㅁ) 風俗은 (다른 땅의 풍속은)

—<보기 2>—

중세 국어	현대 국어
㉠ (나랑+을) 아스 맛디고	나라를 아우에게 맡기고
㉡ (깊+ㅁ) 네거리예	길의 네거리예
㉢ (않+과) 밧	안과 밧

- | | ㉠ | ㉡ | ㉢ |
|---|-----|---|----|
| ① | 나라홀 | 깊 | 안과 |
| ② | 나라홀 | 깊 | 안과 |
| ③ | 나라홀 | 깊 | 안과 |
| ④ | 나라을 | 깊 | 안과 |
| ⑤ | 나라을 | 깊 | 안과 |

제 1 교시

국어 영역 (B형)

[1~2] 다음은 인터뷰 대화의 일부이다. 물음에 답하시오.

학생: 안녕하세요? 저는 ○○고등학교 학생 기자입니다. 저희가 이번에 왕의 식사인 수라에 관한 기사를 준비하는데, 궁금한 점이 많아서 교수님을 찾아뵙었습니다.

교수: 안녕하세요? 만나서 반가워요.

학생: 먼저 수라의 재료는 어떻게 마련했나요?

교수: 예전에는 조세를 물품으로도 냈었는데 그런 공납의 형태나 지방의 진귀한 토산물을 나라에 바치는 진상의 형태로 마련했어요.

학생: 그렇군요. 그러면 공납이나 진상의 경로는 어땠나요?

교수: 중앙 부서를 통해 궁중으로 공납되거나 관찰사와 같은 지방 관료들을 통해 직접 궁중으로 진상되었죠. (옛 문헌을 가리키며) 이게 고종 29년에 함경도 관찰사가 왕에게 올린 진상품을 기록한 문서인 진상 단자예요.

학생: 아, 그렇군요. 그럼 수라는 어떤 과정을 거쳐 만들어졌나요?

교수: 궁중으로 간 식재료는 사옹원의 설리 내관에게 보내진 다음, 반감이 받아서 음식으로 만들어졌지요.

학생: 좀 더 자세히 설명해 주시겠어요?

교수: 설리는 궁중 음식을 관리하던 내관이었고, 반감은 궁중 음식을 담당하는 남자 요리사들의 수장이었죠. 설리가 관리한 식재료로 반감의 지휘 하에 음식이 만들어졌던 거죠. 이렇게 만들어진 음식은 최고의 맛을 냈고, 다양한 모양의 식기류에 담겼죠. (사진을 보여 주며) 사진을 보니 쉽게 이해가 되시죠?

학생: 네, 정말 그렇군요. 그렇다면 수라의 종류와 구성은 어땠나요?

교수: 시간대에 따라 아침 식사인 조수라, 점심 식사인 주수라, 저녁 식사인 석수라가 있었죠. 또한 세끼 수라 이외에 드시는 간식, 조수라 전에 가볍게 드시는 쌀죽인 죽수라도 있죠. 한편 수라는 밥을 기본으로 하여 다양한 기본 밑반찬으로 구성되었죠.

학생: 아, 그렇군요. 수라는 종류가 정말 다양했네요. 그런데 저는 수라가 왕권의 상징이라고 알고 있는데, 그런가요?

교수: 그렇지 않아요. 수라상을 한 번 차리기 위해서는 많은 사람의 피와 땀이 어려야 하죠. 이것은 왕권의 상징이라기보다는 오히려 임금이 백성들의 수고와 정성을 한 번 더 생각하고, 백성들에게 좋은 정치를 하라는 의미로 보는 것이 적절합니다.

학생: 결국 수라에는 선정에 대한 바람이 담겨 있었군요.

교수: 그렇지요. 평소에 저는 왕의 식사인 수라에 대해 많은 관심을 가지면 좋겠다고 생각해 왔는데, 이번 인터뷰가 여러분에게도 그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1. 위 대화 참여자들의 의사소통 방식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교수는 자신의 경험을 언급하면서 화제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 ② 교수는 화제와 관련이 있는 구체적인 자료를 보여 주며 답변의 신뢰성을 높이고 있다.
- ③ 교수는 학생의 요청에 따라 화제와 관련한 내용을 추가적으로 설명하고 있다.
- ④ 학생은 교수의 답변에 긍정적으로 반응함으로써 공감하며 듣는 태도를 드러내고 있다.
- ⑤ 학생은 교수에게 질문을 하여 자신의 배경지식이 맞는지 확인하고 있다.

2. 위 내용을 바탕으로 교지의 기사를 작성하기 위해 나눈 대화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시원: 오늘은 지난 회의에서 결정한 편집 지침에 따라 교지 기사를 어떻게 쓸지 논의해 보자. 먼저 표제는 글 전체의 내용을 포함하는 의문형 문장으로 제시하기로 했지?

민지: 그럼 인터뷰 내용이 수라가 만들어지는 과정과 의미니까 ‘강한 왕권의 상징, 수라를 아시나요?’로 하면 되겠네. ①

시원: (회의록을 살펴보면) 다음으로 기사의 내용은 인터뷰 때 질문한 순서대로 구성하기로 했어.

석준: 그러면 교수님과의 인터뷰 때 질문한 순서대로 수라 재료의 마련 방법, 공납과 진상의 경로, 수라가 만들어진 과정, 수라의 종류와 구성을 서술하고, 마지막으로 수라의 의미를 서술하면 되겠어. ②

시원: 또 친구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부족한 내용은 정보를 추가하여 설명하기로 했지?

민지: 수라상에는 다양한 기본 밑반찬이 있었다고 했는데, 인터뷰에서는 그것들이 무엇이었는지 구체적이지 않아. 그래서 그 기본 밑반찬에는 무엇이 있었는지 조사하여 기사에 추가했으면 좋겠어. ③

시원: 그리고 전달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 시각적 자료도 활용하기로 했어.

석준: 최고의 맛을 낸 수라와 그것이 다양한 모양의 식기류에 담긴 모습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사진을 싣기로 하자. ④

시원: 기사의 끝 부분에는 전문가의 당부를 포함하기로 했어.

석준: 그러면 수라에 대한 학생들의 관심을 기대한다는 교수님의 말씀을 기사의 마무리 부분에 싣도록 하자. ⑤

[3~5] 다음은 토론의 일부이다. 물음에 답하시오.

사회자: 우리는 거짓말을 하면 안 된다는 것을 꼭 지켜야 할 도덕규범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때로는 선의의 거짓말처럼 예외를 인정할 때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의사가 시한부 환자에게 희망을 주기 위해 병세가 호전됐다고 말하는 것이 이에 해당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선의의 거짓말을 허용해야 한다.'라는 논제로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찬성 측에서 입론을 한 후에 반대 측에서 입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성 측: 선의의 거짓말을 허용해야 한다고 봅니다. 거짓말을 하는 것은 상식적으로는 바람직한 행위가 아니지만, 거짓말의 결과가 유익함과 행복을 준다면 거짓말을 허용해도 된다고 봅니다. 어떤 행위의 결과가 좋다면 선한 행위라고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반대 측: 저는 선의의 거짓말이라고 하더라도 도덕규범에 어긋나기 때문에 허용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도덕규범을 지키는 것은 선택이 아니라 의무입니다. 또한 도덕규범에 예외를 허용하기 시작하면 결국 도덕은 무너질 것입니다. 칸트는 「인류애를 위하여 거짓말할 권리에 대해서」라는 논문에서 친구를 죽이려는 암살자가 쫓아와 친구가 집 안으로 달아나지 않았느냐고 물었을 때에도 거짓말을 해서는 안 된다고 했습니다.

사회자: 이제 찬성 측의 반론을 듣고, 이어서 반대 측의 반론을 듣겠습니다.

찬성 측: 저도 칸트의 논문을 보았습니다. 그렇지만 친구를 해치려는 자가 쫓아와 친구의 행방을 묻는다면 거짓말을 해서라도 친구를 지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위험으로부터 친구를 지키는 것이 더 좋은 결과를 가져오기 때문입니다. 암살자에게 쫓겨 위험에 처한 친구의 행방을 사실대로 말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반대 측: 행위의 결과에 주목하여 거짓말을 허용하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행위의 결과가 어떨지는 아무도 미리 알 수 없습니다. 즉 선의의 거짓말이 어떤 문제를 가져올지 누구도 알 수 없는 것입니다.

3. 위 토론의 논제의 성격을 이해한 것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어떤 행위가 바람직한지를 판단하고 자신의 판단이 더 타당함을 밝혀야 하는 논제이다.
- ② 어떤 상황에 대한 사실 관계를 확인하고 그 사실 관계의 정확성을 밝혀야 하는 논제이다.
- ③ 어떤 문제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나누고 그 중 실현 가능한 해결책을 모색해야 하는 논제이다.
- ④ 어떤 문제 해결 방법이 더 유용한지를 판단하고 다른 방법과의 절충 방안을 밝혀야 하는 논제이다.
- ⑤ 어떤 입장이 충돌하는 상황에서 서로의 안을 평가하고 자신에게 경제적 이익이 되는 지점을 찾아야 하는 논제이다.

4. <보기>의 ㉠, ㉡을 활용하여 토론의 논거를 보강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보 기> —

- 사탕을 약으로 위장하여 환자에게 먹게 했을 때, 병세가 호전되거나 유익한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 이러한 현상을 '㉠플라시보 효과'라고 한다.
- 의사가 환자를 위해 위약(偽藥)*을 투여한 사실을 환자가 알게 되어 의사와 환자 간의 신뢰가 깨졌을 경우, 환자의 건강 상태가 악화되는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 이러한 현상을 '㉡노시보 효과'라고 한다.

* 위약: 환자에게 심리적 효과를 얻도록 하려고 주는 가짜 약.

- ① 찬성 측: 선의의 거짓말은 상호 간의 신뢰를 지킬 수 있다는 주장의 근거로 ㉠을 활용해야겠어.
- ② 찬성 측: 결과가 유익하다면 수단은 도덕적이지 않아도 된다는 주장의 근거로 ㉡을 활용해야겠어.
- ③ 반대 측: 도덕규범을 지키는 것이 의무라는 주장의 근거로 ㉠을 활용해야겠어.
- ④ 반대 측: 유익한 결과를 얻기 위해서는 도덕규범을 지켜야만 한다는 주장의 근거로 ㉠을 활용해야겠어.
- ⑤ 반대 측: 행위의 결과가 어떨지 알 수 없기 때문에 거짓말을 하면 안 된다는 주장의 근거로 ㉡을 활용해야겠어.

5. 위 토론을 들은 청중들의 듣기 전략에 따른 반응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듣기 전략	청중의 반응
토론 내용에 공감하며 듣는다.	→ ○ 찬성 측의 주장처럼 나도 산타클로스의 선물이라는 거짓말 때문에 즐거웠던 경험이 있어. ①
논지의 일관성을 파악하며 듣는다.	→ ○ 찬성 측은 반론에서 상대방의 논거로 자신의 주장을 펼친다는 점에서 일관성이 없어. ... ②
토론자의 준비 상황을 추리하며 듣는다.	→ ○ 반대 측은 논거를 찾기 위해 학자의 논문도 읽어 보며 준비했어. ③
사회자의 역할 준수 여부를 평가하며 듣는다.	→ ○ 사회자는 논제를 명확하게 설명하고, 양측에 발언 기회를 공정하게 부여하고 있어. ... ④
토론자의 발언을 바탕으로 자신의 사고를 점검하며 듣는다.	→ ○ 반대 측 주장을 들으니, 지금까지 좋게만 생각했던 선의의 거짓말이 문제가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 ⑤

[6~8] 다음은 ‘인문학 발전 방안’에 대해 글을 쓰기 위해 계획한 개요와 이를 바탕으로 작성한 초고이다. 물음에 답하시오.

□ 개요

- 서론: 현황 제시 ㉠
- 본론
 - 1. 현황이 지닌 문제 ㉡
 - 2. 인문학의 중요성을 간과하게 된 원인
 - 사회적 차원 ㉢
 - 개인적 차원 ㉣
 - 3. 인문학 발전 방안
 - 사회적 차원
 - 개인적 차원
- 결론: 인문학 발전을 위한 노력 당부 ㉤

□ 학생이 작성한 초고

최근에 대학가를 비롯해서 지역의 문화 센터 등에서 역사와 철학 관련 교양 강연이 성황을 이루고 있다. 서점에서는 인문학 관련 서적이 작년 대비 20% 이상 판매가 늘어나는 등 인문학 열풍이 불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전문가들은 이런 인문학 열풍 현상이 일시적일 수 있다는 것을 우려하며 인문학에 대한 관심이 더욱 필요하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 현대인은 급변하는 사회 속에서 수많은 선택의 상황에 놓이게 되고, 그 상황에서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런데 전문가들은 이런 인문학에 대한 일시적인 관심으로는 그 답을 얻기가 어렵다고 보았다. 또한 우리 사회는 아직 인문학적 기반이 약하다는 것을 지적했다.

우리 사회가 인문학의 중요성을 간과하게 된 원인을 사회적 차원에서 접근해 볼 수 있다. 인문학에 대한 깊이 있는 교육이 인문학 전공자에 국한되어 있다는 점과 학교 교육에서 취업이나 입시를 중시하여 실질적인 인문학적 소양을 갖추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약하다는 것이 문제의 원인이라고 볼 수 있다.

①따라서 정부는 인문학이 발전할 수 있도록 정책을 수립해야 하고, 사람들은 인문학의 중요성을 알아야 한다.

인문학 발전을 위한 근본적인 대책이 마련되지 않는다면 우리 사회의 바람직한 모습을 찾아갈 수 있는 사회적 기반이 약화되고 인간다운 삶을 실현하는 것은 어려워질 수 있다. 따라서 정부와 사회 구성원 모두는 인문학이 삶의 지혜를 주는 학문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6. 학생의 초고에 사용된 글쓰기 전략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글의 시작 단계에서 사례를 들어 현황을 보여 주고 있다.
 - ② 현황의 장단점을 객관적으로 비교하여 이해를 높이고 있다.
 - ③ 전문가의 의견을 활용하여 신뢰성을 확보하고 있다.
 - ④ 문제 상황이 나타나게 된 원인을 분석하여 제시하고 있다.
 - ⑤ 글의 마무리 단계에서 문제 개선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7. ㉠~㉤ 중, 학생의 초고에 반영되지 않은 것은?
- ① ㉠ ② ㉡ ③ ㉢ ④ ㉣ ⑤ ㉤

8. <보기>를 활용하여 <조건>에 따라 ㉠을 수정·보완한 것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보 기>

- (가) 프랑스의 대학에서는 컴퓨터 전공자들이 미디어 관련법에 대해 여러 사람들과 토론하는 것이 자연스럽다. 왜냐하면 프랑스는 고등학교 교과에 철학 과목을 두어 인문학이 기초 학문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기 때문이다.
- □□ 일보(신문 기사 중에서) -
- (나) 생존이나 생계 문제만이 현실이라고 생각하고 인문학을 단순히 처세의 도구로 여기거나 현실과 무관한 학문이라고 인식하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자기 삶의 의미를 알고 삶을 포괄적으로 이해하는 사람은 어려운 상황을 헤쳐 나갈 길을 찾을 수 있습니다. 인문학은 우리가 삶의 굴곡에서 좌절하거나 포기하지 않도록 도와주는 에너지원이 된다는 것을 이해했으면 좋겠습니다.
- △△ 대학 인문학 강연의 일부 -

<조 건>

- (가)에 드러난 시사점을 찾아 ㉠을 구체화할 것.
- (나)로부터 핵심 생각을 찾아 ㉠에 추가할 것.

- ① 따라서 정부는 인문학을 필수 과목으로 지정해야 한다. 그리고 언론 매체에서도 대중들의 인문학적 소양을 키울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 ② 따라서 정부는 인성 교육을 강화할 수 있도록 교육을 혁신해야 한다. 그리고 인성 교육의 중요성을 사람들이 인식할 수 있도록 홍보 활동을 강화해야 한다.
- ③ 따라서 정부는 인문학이 기초 학문의 역할을 하도록 교육과정을 개선해야 한다. 그리고 사람들은 인문학이 삶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 바탕이 될 수 있다는 중요성을 인식해야 한다.
- ④ 따라서 정부는 학교 교육과정을 개선하여 인문학을 교양 과목으로 편성해야 한다. 그리고 사람들은 어려움에 좌절하지 말고 언젠가는 이겨낼 수 있다는 긍정적인 가치관을 지녀야 한다.
- ⑤ 따라서 정부는 인문학적 상상력과 과학 기술의 창조력을 지닌 창의 융합형 인재를 양성해야 한다. 그리고 기업에서도 사원 선발 시 인문학적 소양을 갖춘 사람들을 선발하도록 해야 한다.

[9~10] 다음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수업 상황]

선생님이 학생들에게 자신을 변화시킨 책에 대한 글쓰기 과제를 부여하였다.

학생 1의 작문 과제

(가) 책을 읽으면서 들었던 생각을 메모해 보자.

(나) 메모한 내용을 모두 반영하고, 비유적 표현을 활용하여 한 단락으로 써 보자.

학생 2의 작문 과제

㉠~㉣을 고려하여 한 편의 글을 작성해 보자.

㉠자신의 경험을 들어 글을 시작하고, ㉡책을 읽게 된 계기를 밝히며, ㉢책을 통해 얻은 깨달음과 ㉣책의 내용과 관련하여 주변 사람들에게 바라는 점을 제시하고, ㉤다짐하는 내용으로 끝을 맺을 것.

9. 다음은 **학생 1의 작문 과제**의 (가)를 수행하기 위해 작성한 메모이다. (나)를 고려하여 쓴 ‘학생 1’의 글로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 거울의 특징
- 성찰이 필요한 이유
- 내가 바라는 나의 모습



- ① 사람은 저마다 다른 능력이 있다. 자신의 능력을 찾기 위해서는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 자세를 지녀야 한다고 생각했다.
- ② 거울은 깨끗해야 사물을 왜곡 없이 비출 수 있다. 바른 마음가짐을 위해서는 끊임없이 자신을 바로잡으려는 자세가 필요하다.
- ③ 거울은 사물의 모습을 반대로 비추고 있다. 나도 나의 마음과는 반대로 행동하고 있지 않은지 반성하게 되었다. 마음과 행동이 일치하는 행복한 삶을 살고 싶다.
- ④ 거울은 사람의 모습을 비춘다. 자신의 모습이 어떠한지를 알아야 자신이 가야할 길이 어디인지를 알 수 있다. 나를 점검하여 나침반처럼 가야할 방향을 정확히 아는 사람이 되고 싶다.
- ⑤ 사람이 바르게 성장하기 위해서는 자신을 돌아보는 여유가 있어야 한다. 인생을 돌아보는 과정에서 우리는 우리의 삶을 황금빛 가을 들녘처럼 풍요롭게 만들 수 있는 방법을 찾게 된다.

10. 다음은 **학생 2의 작문 과제**를 수행한 ‘학생 2’의 글이다.

㉠~㉣ 중, 반영되지 않은 것은?

몇 달 전 한 친구가 내가 해 준 충고 때문에 상처를 받았다고 나에게 말했다. 나도 그 친구의 말에 서운함을 느꼈고, 그 이후 서로 어색해지면서 둘 사이가 멀어졌다. 이 문제로 고민하던 나에게 상담 선생님께서 책 한 권을 추천해 주셔서 읽게 되었다.

책 속에서 글쓴이는 상대방을 위로하고 공감하는 긍정적인 말은 상대의 마음 밭에 꽃나물을 심어 향기를 선물하는 것이고, 상대를 무시하고 비하하는 부정적인 말은 상대의 마음 밭에 가시나물을 심어 상처를 내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었다. 나는 이 글을 읽고 당시에 내가 한 말이 친구에게 향기가 아닌 상처를 주었다는 사실을 깨닫고 뒤늦게 미안함을 느꼈다.

앞으로는 이 책에 제시된 공감의 대화, 긍정의 대화 방법을 익혀 바람직한 언어생활을 습관화하여 타인과 조화로운 관계를 만들어야겠다고 다짐했다.

- ① ㉠ ② ㉡ ③ ㉢ ④ ㉣ ⑤ ㉤

11. <보기>를 통해 부정 표현의 특성에 대해 탐구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보 기> —

- ㄱ. 나는 수학 공부를 안 했다.
나는 수학 문제가 어려워서 못 풀었다.
- ㄴ. 여기에는 이제 해가 비치지 {않는다/못한다}.
- ㄷ. 그녀를 만나지 {*않아라/*못해라/마라}.
- ㄹ. 그는 결코 그 일을 {*했다/안 했다}.
- 그는 분명히 그 일을 {했다/안 했다}.
- ㅁ. 교실이 {안/*못} 깨끗하다.

*비문법적 표현.

- ① ㄱ을 보니, ‘안’ 부정문은 ‘의지 부정’을 나타내고, ‘못’ 부정문은 ‘능력 부정’을 나타내는군.
- ② ㄴ을 보니, 행동 주체의 의지를 부정할 때는 ‘긴 부정문’만 쓸 수 있군.
- ③ ㄷ을 보니, 명령문의 부정 표현은 보조 용언 ‘말다’를 활용하여 사용하는군.
- ④ ㄹ을 보니, 어떤 부사는 반드시 부정 표현과 함께 쓰여야 하는군.
- ⑤ ㅁ을 보니, 형용사를 부정할 때에는 부사 ‘못’을 사용하여 부정 표현을 나타낼 수 없군.

12. <보기>는 국어사전의 일부이다. 이를 탐구한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 기>

번(番)

I ☐ ㉠

차례로 숙직이나 당직을 하는 일. ㉠번을 서다.

II **의존명사**

① 일의 ☐ ㉡ 을/를 나타내는 말. ㉠둘째 번.

② 일의 횟수를 세는 단위. ㉠여러 번.

한-번(-番)

I **명사**

((주로 ‘한번은’ 꼴로 쓰여)) 지난 어느 때나 기회. ㉠한번은 그런 일도 있었지.

II **부사**

① ((주로 ‘-어 보다’ 구성과 함께 쓰여)) 어떤 일을 시험 삼아 시도함을 나타내는 말. ㉠한번 해 보다. / 한번 먹어 보다.

② 기회 있는 어떤 때에. ㉠우리 집에 한번 놀러 오세요. / ☐ ㉢ / 한번 찾아뵙게요.

③ ((☐ ㉣ 바로 뒤에 쓰여)) 어떤 행동이나 상태를 강조하는 뜻을 나타내는 말. ㉠춤 한번 잘 춘다. / 공 한번 잘 찬다.

- ① ㉠, ㉢에 들어갈 말은 모두 ‘명사’이겠군.
- ② ㉡에 들어갈 말은 ‘차례’이겠군.
- ③ ㉢에는 ‘시간 날 때 낚시나 한번 갑시다.’를 넣을 수 있겠군.
- ④ ‘한-번 I’과 달리 ‘한-번 II’는 문장에서 자립하여 쓰일 수 없겠군.
- ⑤ ‘난 제주도에 한 번 가 봤어.’에서 ‘번’은 ‘번 II-②’의 뜻으로 쓰였겠군.

13. 다음은 <보기>의 한글 맞춤법 규정을 참고하여 두 친구가 나눈 대화의 일부이다. ㉠~㉥ 중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 기>

제27항 둘 이상의 단어가 어울리거나 접두사가 붙어서 이루어진 말은 각각 그 원형을 밝히어 적는다.
예 꽃잎, 헛웃음

제28항 끝소리가 ‘ㄹ’인 말과 탄 말이 어울릴 적에 ‘ㄹ’ 소리가 나지 아니하는 것은 아니 나는 대로 적는다.
예 따님(딸-님), 화살(활-살)

제29항 끝소리가 ‘ㄹ’인 말과 탄 말이 어울릴 적에 ‘ㄹ’ 소리가 ‘ㄷ’ 소리로 나는 것은 ‘ㄷ’으로 적는다.
예 손가락(술~), 사흘날(사흘~)

우진: 수업 시간에 선생님께서 ‘꽃잎’은 [꼰닙]이라고 발음을 하지만 합성어는 원형을 밝혀 적기에 ‘꽃잎’이라고 적어야 한다고 하셨는데, 어떤 예가 또 있을까?

정인: ㉠‘칼날’을 [칼랄]이라고 발음하지만 ‘칼날’로 표기하는 것도 이에 해당하겠지. 그런데 ‘소나무’는 합성어인데 왜 ‘술나무’라고 적지 않을까?

우진: ㉡‘술’의 끝소리가 ‘ㄹ’이고 ‘나무’와 어울릴 때 ‘ㄹ’이 탈락하여 소리가 나지 않기 때문이지. ‘ㄹ’이 탈락하는 다른 예가 뭐가 있을까?

정인: 다른 예로는 ‘마소, 아드님’이 있어.

우진: 그래, 그런데 ‘마소’와 ‘아드님’은 단어 형성법이 다르네.

정인: ㉢‘마소’는 ‘말’과 ‘소’가 합성어를 이루는 과정에서 ‘ㄹ’이 탈락한 것이고, ㉣‘아드님’은 파생어로 명사 ‘아들’과 접미사 ‘-님’이 결합하면서 ‘ㄹ’이 탈락한 것이지.

우진: 그런데, ‘손가락’은 ‘술’과 ‘가락’이 합성된 말인데 왜 ‘순가락’이라고 적을까?

정인: ㉤본래 끝소리가 ‘ㄹ’인 말과 탄 말이 어울릴 적에 ‘ㄹ’ 소리가 ‘ㄷ’ 소리로 나는 것은 ‘ㄷ’으로 적도록 한 것이지. ‘여닫이’도 이에 해당해.

- ① ㉠ ② ㉡ ③ ㉢ ④ ㉣ ⑤ ㉤

14. <보기>의 표준 발음 자료를 탐구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 기>

제23항 받침 ‘ㄱ(ㄱ, ㅋ, ㆁ, ㄷ, ㄷ, ㄷ, ㄷ, ㄷ), ㄷ(ㄷ, ㅌ, ㅌ, ㅌ, ㅌ), ㅌ(ㅌ, ㅌ, ㅌ, ㅌ, ㅌ)’ 뒤에 연결되는 ‘ㄱ, ㄷ, ㅌ, ㅌ, ㅌ’은 된소리로 발음한다. ㉠

제24항 어간 받침 ‘ㄴ(ㄴ), ㄹ(ㄹ)’ 뒤에 결합되는 어미의 첫소리 ‘ㄱ, ㄷ, ㅌ, ㅌ’은 된소리로 발음한다. ㉡ 다만, 피동, 사동의 접미사 ‘-기-’는 된소리로 발음하지 않는다. ㉢

제27항 관형사형 ‘-(으)ㄹ’ 뒤에 연결되는 ‘ㄱ, ㄷ, ㅌ, ㅌ, ㅌ’은 된소리로 발음한다. ㉣ [붙임] ‘-(으)ㄹ’로 시작되는 어미의 경우에도 이에 준한다. ㉤

- ① ㉠에 따르면 ‘꽃다발이 예쁘다.’에서 ‘꽃다발’의 표준 발음은 [꼰따발]이겠군.
- ② ㉡에 따르면 ‘아기를 꼭 껴안고 갔다.’에서 ‘껴안고’의 표준 발음은 [껴안꼬]이겠군.
- ③ ㉢에 따르면 ‘감기를 옮기다.’에서 ‘옮기다’의 표준 발음은 [옴기다]이겠군.
- ④ ㉣에 따르면 ‘여기 외엔 갈 데가 없다.’에서 ‘갈 데가’의 표준 발음은 [갈떼가]이겠군.
- ⑤ ㉤에 따르면 ‘사랑할수록 참아야지.’에서 ‘사랑할수록’의 표준 발음은 [사랑할수록]이겠군.

제 1 교시

국어 영역(B형)

[1~2] 다음은 친구 간 대화의 일부이다. 물음에 답하시오.

지호: 오늘 들은 [A] ‘마음을 움직이는 심리학’ 특강 재미있더라.
 승우: 처음엔 들을 생각 없더니, 너 정말 집중하면서 듣던데.
 지호: 그러게. 우리 반 애들 대부분이 신청하길래 따라서 신청한 거였는데 잘한 것 같아.
 승우: (웃으며) 뭔가를 결정할 때 다수의 사람들이 하는 행동 쪽으로 마음이 움직인다는 특강 내용이 딱 네 얘기였구나.
 지호: 그러네. ㉠년 특강에서 들었던 내용과 관련된 경험 없어?
 승우: 당연히 있지. 한정판으로 나온 상품이라고 하면 웬지 사야 할 것 같은 기분이 들더라고. 이것도 특강 내용과 관련되는 거잖아.
 지호: ㉡ 한정판으로 나온 상품이라..... 맞아. 한정된 것이어서 일부 사람들만 누릴 수 있다고 하면 사람의 마음이 움직일 수 있다는 거잖아. 특강에서 말한 희소성의 원리네.
 승우: 맞아. 그런데 강의는 재미있게 잘 들었는데 어째 좀 피곤하다. 어제 잠을 못 자서 그런가?
 지호: 왜? ㉢아, 아까 반장이 그러던데 너 이번 학기에 동아리 부장 돼서 학술제 준비로 바쁘다고 하던데 그것 때문에 할 일이 많은 모양이구나.
 승우: 응. 처음 해 보는 일이라 그런지 할 일도 많고 어렵네.
 지호: ㉣내가 작년에 학술제 준비를 해 봐서 아는데 일이 많아서 혼자 하긴 벅차지. 그 마음 충분히 이해해. 내가 작년에 해 본 경험도 있으니까 도와줄게.
 승우: 진짜? 정말 고맙다.
 지호: ㉤아! 그리고 보니 이것도 오늘 들은 특강 내용과 관련되는구나.
 승우: 우와, 그러네. 상대방과 공통된 경험이 있으면 상대방과 공감대를 형성하게 되어 마음이 움직일 수 있다는 그 내용.
 지호: 맞아. 정말로 얻은 게 많은 특강이었어.

1. ㉠~㉤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 질문을 통해 특강에서 들은 내용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승우의 경험을 묻고 있다.
- ② ㉡: 승우 말의 일부를 단서로 하여 승우의 경험이 특강과 관련되는 내용임을 확인하고 있다.
- ③ ㉢: 반장의 말을 통해 얻은 승우에 대한 정보를 바탕으로 승우의 상황을 추측하고 있다.
- ④ ㉣: 자신의 경험에 비추어 승우가 처한 상황에 공감하고 있다.
- ⑤ ㉤: 특강에서 들은 말을 인용하여 승우의 상황에 대한 자신의 이해를 확인하고 있다.

2. <보기>는 [A]의 일부이다. <보기>의 [가]에 들어갈 학생의 대답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보 기>—

강사: 오늘 특강 잘 들으셨나요? ‘다수가 보이는 경향, 희소성, 상대방과의 공통된 경험’이 사람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다는 이야기였는데요. 지금 제시하는 사례를 특강 내용과 연결 지어 말해 볼 학생 있나요?

[사례]

“경희루 내부 특별 관람 사전 예약제가 실시된다는 소식을 듣고 예약을 해서 와 보게 되었습니다. 평소 문화재에 관심이 없었는데 한시적으로 개방되는 데다가 특별 관람 가능 인원이 소수로 제한되어 있다는 소식을 들으니까 웬지 경희루를 관람해 보고 싶은 마음이 들더라고요.”

학생:

[가]

강사: 좋아요. 제시된 사례를 특강 내용과 잘 연결했네요.

- ① 경희루 내부 개방으로 문화재에 대해 평소 갖고 있던 관심이 더욱 커졌다는 내용이니까 희소성의 원리를 보여 준다고 생각합니다.
- ② 경희루를 관람해 보고 싶던 차에 사전 예약제 실시 소식을 듣고 예약을 했다는 내용이니까 다수의 사람들이 하는 행동을 따라하려는 심리를 보여 준다고 생각합니다.
- ③ 한시적으로 개방되는 경희루의 관람 인원이 소수로 제한되어 있다는 소식에 경희루를 관람하고 싶은 마음이 들었다는 내용이니까 희소성의 원리를 보여 준다고 생각합니다.
- ④ 특별 관람 신청을 사전 예약제로 받는다는 소식에 경희루를 관람해 보고 싶은 마음이 들었다는 내용이니까 사전 예약한 사람들과 공감대를 형성하려는 심리를 보여 준다고 생각합니다.
- ⑤ 경희루가 한시적으로 개방된다는 소식에 경희루를 관람해 보고 싶은 마음이 들었다는 내용이니까 상시적으로 문화재를 관람하는 사람들과의 공통된 경험을 통해 공감대를 형성하려는 심리를 보여 준다고 생각합니다.

[3~5] 다음은 두 마을 간의 협상이다. 물음에 답하시오.

○○군에서는 전국적 규모의 축제를 기획하면서 개최 장소를 A 마을과 B 마을 중에서 선정하고자 하였다. 그런데 두 마을이 공동 개최에 합의하였고, 이에 따라 A 마을의 대표 A와 B 마을의 대표 B가 후속 협상을 하게 되었다.

A: 오늘은 우리가 지난번 협상에서 다루지 못한 축제 공식 명칭에 대하여 논의를 했으면 하는데, 어떠세요?

B: 좋습니다. 저희도 같은 생각입니다.

A: 그러면 저희의 입장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축제 공식 명칭은 두 마을의 이름을 병기하되 저희 마을 이름을 먼저 표기했으면 합니다.

B: 글쎄요. 저희도 저희 마을 이름이 앞섰으면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개최지로 저희가 유력했던 상황에서 사실상 저희의 양보로 공동 개최가 가능했습니다. 따라서 명칭과 관련해서는 저희의 의견을 수용해 주십시오.

A: 공동 개최와 관련해 잘못 생각하신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B 마을도 공동 개최가 이익이 된다고 판단하여 합의한 것 아닙니까? 그러니 축제 명칭은 각자의 축제 유치 의도를 고려하되 세부 조건을 조율해서 정하는 것이 옳다고 봅니다.

B: 무슨 뜻인지요?

A: 저희가 알아본 바로는 B 마을은 축제 유치를 통한 경제 활성화에 관심이 있다고 알고 있는데, 맞죠?

B: 그렇습니다.

A: 그런데 이미 유명한 B 마을과는 달리 저희는 저희 마을을 전국에 알리는 것이 일차적 목표입니다. 그러니 축제 명칭은 저희가 원하는 대로 하면서 경제적인 면에서는 B 마을에 유리하도록 협상의 세부 조건을 구성하자는 것입니다.

B: 글쎄요. 축제 명칭에서 앞쪽에 표기되는 것은 그 의미가 큼니다. 저희 마을의 인지도가 이미 높다고 하더라도.....

A: 명칭에서 저희 마을 이름을 앞세우는 대신 원하는 조건이 있으면 말씀하시죠.

B: 말씀하신 대로 저희는 경제적 이득이 중요합니다. 따라서 첫째, 명칭보다는 홍보 효과가 적지만 저희 마을 특산품을 축제 캐릭터로 만들겠습니다. 둘째, 공동 개최를 하게 되면 행사들을 서로 나누어 진행하게 될 텐데요, 저희가 전체 행사 중 60%를 가져가겠습니다. 이 조건들이 충족되지 않는다면 축제 공식 명칭과 관련하여 합의할 수 없습니다.

A: B 마을 특산품을 캐릭터로 만들면서 행사를 60%까지 가져간다는 것은 지나친 요구라고 생각합니다. 행사 배분 비율은 공동 개최에 걸맞게 50%를 원칙으로 합시다.

B: 그 제안은 저희 마을 주민들의 동의를 얻기 어려울 것입니다. 지금도 공동 개최에 대한 반대가 많거든요. 차라리 저희 마을이 유치하지 못하게 되더라도 단독 개최를 다시 추진하겠습니다.

A: 지난번 합의를 일방적으로 파기하는 것은 같은 ○○군 마을끼리 온당치 않습니다. 단독 개최를 하더라도 저희 마을

의 도움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행사 배분 비율은 양보하기 어렵습니다. 그 대신에 B 마을이 원하는 다른 조건을 추가하시는 게 어떨까요?

B: 좋습니다. 이렇게 하죠. 행사 배분은 동일하게 50%씩 하고, 행사 선택은 하나씩 교대로 하되, 저희 마을부터 선택을 시작하는 것으로 하는 겁니다. 그래야 수익성이 높은 행사를 저희 마을에서 가져갈 수 있으니까요.

A: 음. 저희 마을 이름을 먼저 표기하는 것으로 하고 그 정도 조건이면 받아들일 수 있겠네요. 그렇게 합시다.

3. 위 협상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A는 지난 협상에서 논의하지 못한 사안을 언급함으로써 의제를 제시하였군.
- ② A는 의견을 조율하는 과정에서 협상 전에 알아본 B 마을에 대한 정보를 활용하고 있군.
- ③ B는 A가 제안한 세부 조건이 협상 결렬을 초래할 수 있음을 내비치며 A의 새로운 제안을 이끌어 내었군.
- ④ B는 A의 양보할 수 없는 지점을 고려하여 자신이 제안한 세부 조건을 수정하여 제시하였군.
- ⑤ A와 B가 의견을 조율하는 과정에서 지난 협상에서 합의된 사안이 수정되었군.

4. 위 협상에 나타난 A의 말하기 방식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의제 타결의 시급함을 강조하며 상대방의 협력을 촉구하고 있다.
- ② 연쇄적인 질문을 통해 갈등 상황의 원인이 양측 모두에게 있음을 강조하고 있다.
- ③ 상대방의 의견이 적절하지 않다고 언급하며 자신의 제안에 동의할 것을 유도하고 있다.
- ④ 자신이 처한 상황을 설명하며 감정에 호소하여 상대방의 무조건적인 양보를 요청하고 있다.
- ⑤ 가정적 진술을 통해 상대방이 내세운 근거의 신뢰성을 문제 삼으며 자신의 의견이 정당함을 피력하고 있다.

5. 위 협상에서 A와 B가 합의에 이를 수 있었던 요인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 ① A와 B 모두 상대방의 양보로 축제의 공동 개최가 가능했다고 인식했기 때문이다.
- ② A는 축제 명칭을, B는 행사 배분 비율을 상대방의 입장을 고려하여 양보했기 때문이다.
- ③ A는 행사 선택의 순서에서, B는 축제 캐릭터와 관련해서 최초의 입장을 고수하지 않고 양보했기 때문이다.
- ④ A 마을의 인지도 향상과 B 마을의 경제적 이득 증대를 모두 실현할 수 있는 방안이 도출되었기 때문이다.
- ⑤ A가 바라는 효과적인 축제 홍보와 B가 바라는 마을의 화합 증진을 모두 실현할 수 있는 방안이 도출되었기 때문이다.

[6~8] 다음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작문 상황]

- 글의 목적: ‘도움 오작교’ 제도의 도입 제안
- 글의 독자: 학생회 임원들

[학생의 초고]

지금까지 우리 학교 학생들이 누군가를 돕는 활동은 교외 봉사 활동을 위주로 이루어져 왔다. 하지만 학생들은 주변 친구들과 서로 도움을 주고받는 활동도 필요하다고 여긴다. 이러한 요구에 대해 학생회는 귀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이에 교내에서 학생들이 서로 도움을 나눌 수 있도록 연결해 주는 ‘도움 오작교’ 제도의 도입을 학생회에 제안하고자 한다.

‘도움 오작교’ 제도는 도움을 주고 싶은 학생과 도움을 받고 싶은 학생을 서로 연결해 주는 제도이다. 이 제도를 운영하기 위해 우선 학생회에서는 홈페이지에 ‘도와줄게요’와 ‘도와줘요’ 게시판을 개설한다. 도움을 줄 수 있는 학생은 ‘도와줄게요’에, 도움이 필요한 학생은 ‘도와줘요’에 도움의 내용을 등록한다. 그러면 학생들은 필요한 게시판에 들어가서 목록을 검색하여 주고받을 도움을 찾아 누군가를 돕거나 누군가에게 도움을 받는다.

이 제도가 성공적으로 정착되기 위해서는 한 가지 유의해야 할 점이 있다. 학생회에서는 학생들이 자기가 도와줄 수 있는 일을 등록할 때, 반드시 도움을 받고 싶은 일도 함께 등록하게 해야 한다는 것이다. 작고 사소하다고 생각하는 일이라도 상관 없다. 그것이 다른 이와 도움을 나눌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 제도를 통해 학생들은 자신이 누군가에게 도움이 됨을 느낌으로써 자존감을 높일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친구들과 도움을 주고받으며 서로 간의 관계를 더욱 돈독히 할 수 있을 것이다.

우리 학교와 상황이 유사했던 다른 학교의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우리 학교에서도 서로 도움을 나누고자 하는 학생들의 마음을 실행으로 이어 주는 제도의 도입이 필요하다. 따라서 [A] 우리에게는 교내 상황을 인식하고 대안을 제시할 수 있는 학생회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 학생회는 학생들의 관심사를 명확하게 파악해야 할 것이다.

6. 다음은 학생이 글을 쓰기 전에 떠올린 생각이다. 학생의 초고에 반영되지 않은 것은?

[학생이 떠올린 생각]

- ‘도움 오작교’ 제도의 도입을 제안하는 글의 목적을 분명하게 밝혀야겠어.
- ‘도움 오작교’ 제도는 사람과 사람 사이를 연결해 준다는 ‘오작교’라는 이름에서 착안하였음을 제시해야겠어.
- ‘도움 오작교’ 제도의 운영을 위해 학생회에서 해야 할 일과 참여하는 학생이 할 일을 각각 제시해야겠어.
- ‘도움 오작교’ 제도를 시행할 때 학생회가 어떤 점에 유의해야 하는지를 설명해야겠어.
- ‘도움 오작교’ 제도의 시행을 통해 얻을 수 있는 기대 효과를 언급해야겠어.

- ① ㄱ ② ㄴ ③ ㄷ ④ ㄹ ⑤ ㅁ

7. <보기>의 자료를 활용하여 학생이 자신의 초고를 보완하고자 할 때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보 기>

(가) 우리 학교 신문의 기사 일부

전교생을 대상으로 한 설문 조사 결과, 우리 학교 학생들의 도움 나누기 활동은 주로 교외 봉사 활동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런데 교내의 도움 나누기 활동도 필요하다는 학생들의 의견이 많은 것으로 나타나, 현재의 도움 나누기 활동에 대한 개선이 요구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와 관련하여 2학년 K 군은 “의외로 학교생활에서 도움을 필요로 하는 친구들이 많거든요. 교내의 친구들과 도움을 주고받는 기회가 있으면 좋겠습니다.”라고 밝혔다.

(나) 이웃 학교의 사례

○○고등학교에서는 학생들의 요구에 따라 2012년 3월 교내에서 도움이 필요한 학생과 도움을 주려는 학생을 서로 연결해 주는 제도를 처음으로 도입하였다. 제도 도입 첫째 42%의 학생들이 참여하였고, 2015년 8월 현재 88%의 학생들이 참여하고 있다. 제도 시행 전 교내 학생들 간의 도움 나누기가 미미했던 것에 비해 제도 시행 이후에는 학생들 간의 도움 나누기가 매우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다) 전문가 의견

“사람은 자신이 속한 공동체 안에서 수행할 역할이 있다는 것을 인식했을 때 그 집단에 속해 있다는 느낌이 커지며 공동체의 구성원으로 보람된 생활을 할 수 있게 됩니다.”

- (가)를 활용하여, 학생들은 주변 친구들과 서로 도움을 주고받고 싶어 한다는 내용을 뒷받침하는 근거를 제시한다.
- (나)를 활용하여, 서로 도움을 나누고자 하는 학생들의 마음을 실행으로 이어 주는 제도의 도입이 필요하다는 내용을 뒷받침하는 근거를 제시한다.
- (다)를 활용하여, ‘도움 오작교’ 제도를 도입하면 학교에 대한 학생들의 소속감이 더 높아질 수 있다는 내용을 추가한다.
- (가)와 (나)를 활용하여, 우리 학교에 ‘도움 오작교’ 제도가 도입되면 정착될 가능성이 높다는 내용을 추가한다.
- (나)와 (다)를 활용하여, 학생들에게 과도하게 의무를 부여하게 되면 참여율이 낮아질 수 있다는 ‘도움 오작교’ 제도 시행상의 유의점과 관련된 내용을 구체화한다.

8. <보기>는 학생의 초고에 대한 교사의 조언이다. <보기>에 따라 [A]를 고쳐 쓸 때 가장 적절한 것은?

<보 기>

“설득하는 글은 필자가 자신의 주장을 독자에게 이해시키고 더 나아가 그 주장을 믿고 따르게 할 목적으로 작성하는 글이야. 너의 초고를 보니 제안하는 내용을 분명하게 드러내면서 글을 마무리하면 더 좋겠구나. [A] 부분에서는 네 주장을 강조하고 이와 관련된 전망을 제시하는 것이 좋겠어.”

- ① 학생회는 빠른 시일 내에 ‘도움 오작교’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 학교는 이 제도를 철저하게 관리하고 학생들에게 홍보해야 한다.
- ② 학생회는 학교의 구성원들에게 ‘도움 오작교’ 제도 시행에 협조해 줄 것을 요청해야 한다. 학교의 모든 구성원들의 협조 없이는 이 제도가 도입될 수 없다.
- ③ 학생회는 ‘도움 오작교’ 제도를 적극적으로 도입하고 학생들의 참여를 유도해야 한다. 이 제도가 정착되면 서로 도움을 주고받는 활동이 활발하게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한다.
- ④ 학생회는 학생들의 도움 나누기 활동을 권장하여 ‘도움 오작교’ 제도의 연결 횟수가 지금보다 늘어나게 해야 한다. 이렇게 될 때 학생들은 의미 있는 삶을 누릴 수 있게 된다.
- ⑤ 학생회는 ‘도움 오작교’ 제도 도입에 대한 찬성과 반대의 의견에 모두 귀를 기울여야 한다. 학생회가 이러한 역할을 수행할 때 우리의 학교생활이 행복해질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

- [9~10] 다음은 작문 과제와 그에 따라 작성한 학생의 글이다. 물음에 답하시오.

[작문 과제]

자신의 평소 생활을 되돌아보고 느낀 점을 글로 써 보자.

[학생의 글]

아침부터 비가 내려 친구와 만나기로 한 약속을 미루었다고 내가 불멘소리를 하니, 옆에 있던 동생이 “저번엔 비가 오는데도 친구 만나러 갔잖아.”라고 한다. 생각해 보니 지난번 비가 오는 날은 그 친구를 만나, 비가 오니 시원하다는 이야기를 나누며 길을 걷기도 하고, 평소 가 보고 싶었던 곳을 돌아다니며 활기찬 하루를 보냈다. 반면 오늘은 같은 상황인데도 활동하기에 불편하다고 불평을 하며 약속을 미루고 집에서 아무것도 하지 않은 채 시간을 보내려고 했다. 같은 상황인데도 왜 나의 행동이 다르게 나타났을까?

문득 어떤 책에서 읽은 두 농부의 이야기가 떠올랐다. 두 농부가 열심히 밭을 일구고 있는데 갑자기 비가 쏟아졌다. 한 농부는 “비가 오니 오늘은 더 이상 일을 못하겠군.” 하면서 불평을 했고, 다른 농부는 “비가 오니 땅이 부드러워져 일하기가 수월하겠군.” 하며 좋아하더라는 이야기였다. 두 농부는 같은

상황이었지만 서로 다른 하루를 보냈던 것이다.

내 마음에도 긍정의 농부와 부정의 농부가 살고 있다. 내 마음속 부정의 농부가 나타났을 때에는 나에게 의미가 있었을 활동이라도 좀처럼 하지 않으려 했다. 하지만 긍정의 농부가 나타났을 때에는 평소 하고 싶었으나 머뭇거렸던 일들도 의욕적으로 시도하게 되었고 활기찬 하루를 보내게 되었다. 나는 긍정적 마음으로 상황을 바라보고 활기찬 시간을 보내는 것이 훨씬 더 낫다고 생각했다. 긍정적 마음으로 상황을 바라보는 농부처럼 내가 내 앞에 놓인 상황을 긍정의 마음으로 바라보고자 노력한다면 내 생활에 생기가 돌게 된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9. 학생의 글에서 글쓴이가 사용한 글쓰기 방법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긍정적 마음이 갖는 사회적 의의를 제시하고 그것의 전통적 의미와 현대적 의미를 대조한다.
- ② 긍정적 마음에 대한 다양한 관점을 제시하고 긍정적 마음이 갖는 장점을 병렬적으로 나열한다.
- ③ 긍정적 마음과 관련된 개인적 경험을 제시하고 교훈적 성격의 일화를 자신의 깨달음과 연결한다.
- ④ 긍정적 마음이 생활에 도움이 되는 사례를 제시하고 바람직한 생활 태도를 담은 가족의 조언과 연결한다.
- ⑤ 긍정적 마음이 갖는 실용적 가치를 제시하고 긍정적 마음의 행동으로 실천하는 과정을 단계적으로 나눈다.

10. 학생의 글에 나타난 핵심 내용을 비유적으로 표현할 때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긍정의 비가 내려 용서의 꽃을 피우다.
- ② 긍정의 거름을 주어 활력의 나무를 키우다.
- ③ 긍정의 농부와 부정의 농부가 함께 살아가다.
- ④ 긍정의 마음으로 친구와의 우정에 대해 생각하다.
- ⑤ 긍정의 자세는 이웃과 소통하는 삶을 위해 필요하다.

11. <보기>의 표준 발음법을 바르게 적용한 것은?

<보 기>

㉠ 받침 ‘ㄷ, ㅌ’이 조사의 모음 ‘ㅣ’와 결합되는 경우에는, [ㅈ, ㅊ]으로 바꾸어서 뒤 음절 첫소리로 옮겨 발음한다. 예) 발이[바치]

㉡ 받침 ‘ㄷ, ㅌ(ㅌ)’이 접미사의 모음 ‘ㅣ’와 결합되는 경우에는, [ㅈ, ㅊ]으로 바꾸어서 뒤 음절 첫소리로 옮겨 발음한다. 예) 미단이[미다지]

㉢ 받침 ‘ㄷ’ 뒤에 접미사 ‘히’가 결합되어 ‘티’를 이루는 것은 [치]로 발음한다. 예) 묻히다[무치다]

- ① ‘같이 걷다’의 ‘같이’는 ㉠에 따라 ‘ㅌ’을 [ㅊ]으로 바꿔 [가치]로 발음해야겠군.
- ② ‘술이나 냄비를 준비하다’의 ‘술이나’는 ㉠에 따라 ‘ㅌ’을 [ㅊ]으로 바꿔 [소치나]로 발음해야겠군.
- ③ ‘그것은 팔이다’의 ‘팔이다’는 ㉡에 따라 ‘ㅌ’을 [ㅊ]으로 바꿔 [파치다]로 발음해야겠군.
- ④ ‘자전거에 받히다’의 ‘받히다’는 ㉡에 따라 ‘티’를 [치]로 바꿔 [바치다]로 발음해야겠군.
- ⑤ ‘우표를 붙이다’의 ‘붙이다’는 ㉢에 따라 ‘티’를 [치]로 바꿔 [부치다]로 발음해야겠군.

12. <자료>의 밑줄 친 발음 표시 부분을 맞춤법에 맞게 표기할 때에 적용되는 원칙을 <보기>에서 찾아 바르게 짝지은 것은?

<자 료>

㉠ 이것은 유명한 책이 [아니요].

㉡ 영화 구경 [가지요].

㉢ 이것은 [설탕이요], 저것은 소금이다.

<보 기>

○ 용언의 어간과 어미는 구별하여 적는다.

• 종결형에서 사용되는 어미 ‘-오’는 ‘요’로 소리 나는 경우가 있더라도 그 원형을 밝혀 ‘오’로 적는다. …… ㉠

이리로 오시오. (○) 이리로 오시오. (×)

• 연결형에서 사용되는 ‘이요’는 ‘이오’로 적는다. …… ㉡

이것은 책이요, 저것은 붓이다. (○)

이것은 책이오, 저것은 붓이다. (×)

○ 어미 뒤에 덧붙는 조사 ‘요’는 ‘요’로 적는다. …… ㉢

읽어 읽어요 먹을게 먹을게요

- ① ㉠-㉠ ② ㉠-㉡ ③ ㉡-㉢ ④ ㉢-㉠ ⑤ ㉢-㉡

13. <보기>를 참고할 때 밑줄 친 서술어의 문형 정보를 바르게 추출한 것은? [3점]

<보 기>

서술어의 필수적 문장 성분은 사전의 문형 정보에 제시되어 있다. 이러한 문형 정보를 추출하는 과정을 ‘지내다’의 예로 간략히 보이면 아래와 같다.

[‘지내다’의 문형 정보 추출 과정]

예문	• 민수가 요즘에 조용하게 <u>지낸다</u>. • 할아버지가 노년에 편하게 <u>지내신다</u>.
↓	
문장 성분 분석	• 주 어: 민수가, 할아버지가 • 부사어: 요즘에, 조용하게, 노년에, 편하게
↓	
필수적 문장 성분 추출	• 주 어: 민수가, 할아버지가 • 필수적 부사어: 조용하게, 편하게
↓	← 주어 제외
문형 정보	【-게】

예문	문형 정보
① • 이 나라는 국토가 대부분 산으로 <u>되어</u> 있다. • 요즘에 가족으로 된 지갑이 인기다.	→ 【...으로】
② • 모두 그 속임수에 아무렇지 않게 <u>넘어</u> 갔다. • 제 꾀에 자기가 자연스럽게 <u>넘어</u> 간 꼴이다.	→ 【-게】
③ • 나는 언니와 옷 때문에 <u>다투</u> 기도 했다. • 그는 누군가와 한밤중에 <u>다투</u> 곤 했다.	→ 【...에】
④ • 가방에 지갑이 사은품으로 <u>떨려</u> 있다. • 그 책에 단어장이 부록으로 <u>떨려</u> 있다.	→ 【...으로】
⑤ • 옷에서 때가 깨끗하게 <u>빠</u> 졌다. • 청바지에서 물이 허영게 <u>빠</u> 졌다.	→ 【-게】

14. <자료>와 같이 문장을 수정할 때 고려한 사항을 <보기>의 ㉠~㉣에서 고른 것은?

<보 기>

- ㉠ 주어와 서술어의 호응
 • 너희가 기억할 것은 좋은 지도자는 실패하더라도 좌절하지 않는다.
 → 너희가 기억할 것은 좋은 지도자는 실패하더라도 좌절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 ㉡ 부사어와 연결 어미의 호응
 • 그는 아무리 돈이 많아서 그것을 쓸 줄 모른다.
 → 그는 아무리 돈이 많아도 그것을 쓸 줄 모른다.
- ㉢ 목적어의 누락
 • 상대방의 함정에 빠진 그들은 머리를 모아 궁리하기 시작했다.
 → 상대방의 함정에 빠진 그들은 머리를 모아 탈출 방법을 궁리하기 시작했다.
- ㉣ 피동의 중복
 • 그것은 오래전에 불려지던 노래이다.
 → 그것은 오래전에 불리던 노래이다.

<자 료>

- 그 프로그램을 쓰면 비록 초보자일수록 누구나 쉽게 표와 그래프 등을 그려서 작성할 수 있다.
 → 그 프로그램을 쓰면 비록 초보자일지라도 누구나 쉽게 표와 그래프 등을 그려서 문서를 작성할 수 있다.

- ① ㉠, ㉡ ② ㉠, ㉢ ③ ㉡, ㉣ ④ ㉡, ㉣ ⑤ ㉢, ㉣

15. 밑줄 친 부분이 <보기>의 ㉠에 해당하는 예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 기>

일반적으로 의문문은 화자가 청자에게 질문에 대한 대답을 요청하는 문장인데, 화자가 청자에게 행동을 요청할 때 쓰이기도 한다. 청유문은 화자가 청자에게 함께 행동할 것을 요청하는 문장이다. 그러므로 이 문장 유형들은 ㉠ 화자가 청자에게 요청을 할 때 쓰이는 것이라는 점에서 공통적이다.

- ① [A: 괜찮다면, 우리 여기서 잠깐 기다릴래요?
 B: 좋아요. 10분만 더 기다려요.
- ② [A: 다친 곳은 어떤가? 한번 보세.
 B: 보시다시피 많이 좋아졌습니다.
- ③ [A: 저기요. 먼저 좀 내립시다.
 B: 아, 예. 저도 여기서 내려요.
- ④ [A: 저 혹시, 모자를 벗어 주실 수 있을까요?
 B: 제가 방해가 되었군요. 미안합니다.
- ⑤ [A: 어디 보자. 내가 다 챙겼나?
 B: 거기서 혼자 뭐 해요. 빨리 나와요.

16. <자료>에 나타난 중세 국어의 특징을 탐구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자 료>

[중세 국어] 五欲은 누네 도흔 빗 보고져 귀에 도흔 소리
 듣고져 고해 도흔 내 만고져 이배 도흔 맛 먹고져 모매
 도흔 옷 닙고져 홀 씨라

- 『석보상절』 -

[현대어 풀이] 오욕은 눈에 좋은 빛 보고자, 귀에 좋은 소리
 듣고자, 코에 좋은 냄새 맡고자, 입에 좋은 맛 먹고
 자, 몸에 좋은 옷 입고자 하는 것이다.

- ① ‘五欲은’이 ‘오욕은’에 대응되는 것을 보니, 보조사 ‘은’이 있었군.
- ② ‘누네 도흔 빗 보고져’가 ‘눈에 좋은 빛 보고자’에 대응되는 것을 보니, ‘누네 도흔 빗’은 목적어로 쓰였군.
- ③ ‘귀에’가 ‘귀에’에 대응되는 것을 보니, 부사격 조사 ‘에’가 있었군.
- ④ ‘도흔’이 ‘좋은’에 대응되는 것을 보니, ‘도흔’은 용언의 관형사형이었군.
- ⑤ ‘먹고져’가 ‘먹고자’에 대응되는 것을 보니, ‘-고져’는 종결어미로 쓰였군.

- [17~20]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왜?’라는 질문에 대한 답으로 제시되는 ‘설명’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하고자 과학철학에서는 여러 가지 설명 이론을 제시해 왔다.

처음으로 체계적인 설명 이론을 제시한 험펠에 따르면 설명은 몇 가지 요건을 충족하는 논증이어야 한다. 기본적으로 논증은 전제로부터 결론이 논리적으로 도출되는 형식을 띤다. 따라서 설명을 하는 부분인 설명항은 전제에 해당하며 설명되어야 하는 부분인 피설명항은 결론에 해당한다. 험펠에 따르면 설명은 세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첫째, 설명항에는 ‘모든 사람은 죽는다.’처럼 보편 법칙 또는 보편 법칙의 역할을 하는 명제가 하나 이상 있어야 한다. 둘째, 보편 법칙이 구체적으로 적용되는 맥락을 나타내는 ‘소크라테스는 사람이다.’와 같은 선행 조건이 설명항에 하나 이상 있어야 한다. 셋째, 피설명항은 설명항으로부터 ‘건전한 논증’을 통해 도출되어야 한다. 이때 건전한 논증은 ‘논증의 전제가 모두 참’이라는 조건과 ‘논증의 전제가 모두 참이라면 결론도 반드시 참’이라는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논증이다. 이처럼 험펠의 설명 이론은 피설명항이 보편 법칙의 개별 사례로서 마땅히 일어날 만한 일이었음을 보여 주기 위한 설명의 요건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1~3] 다음은 토의의 일부이다. 물음에 답하시오.

사회자 : 최근 우리 △△군을 찾는 관광객의 수가 부쩍 줄었습니다. 이로 인해 지역 주민들의 수입이 크게 감소하여 지역 주민들이 많이 우려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 지역 관광 산업이 위축된 원인과 그 해결 방안에 대해 논의하겠습니다. 주민 대표, 지자체 대표, 관광학과 교수님께서 자리를 함께해 주셨습니다. 주민 대표님께서도 요즘 우리 지역의 관광 산업이 얼마나 위축됐다고 보십니까?

주민 대표 : 우리 지역의 주요 관광지는 ○○동굴입니다. 최근 3년 동안 ○○동굴을 찾는 관광객의 수가 30 %나 감소했습니다. 이전에는 동굴을 찾는 관광객들이 많아서 주말에는 빈방을 찾기가 어려웠는데, 요즘에는 주말에도 빈방이 너무 많습니다. [A] 음식점들도 손님이 없어 수입이 크게 줄었습니다. 지역 신문의 보도에 따르면 작년에 비해 관광 관련 업소의 폐업률이 25 %나 증가했다고 합니다. 지역의 경기 침체가 매우 심각한 상황입니다.

사회자 : 지역 경제의 침체가 심각할 정도로 관광 산업이 위축되었다는 말씀이시군요. 이러한 문제가 발생한 원인은 무엇일까요? 이번에는 김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시죠.

김 교수 : 관광 산업이 위축된 것은 이곳을 찾던 관광객들이 인근 지역으로 발길을 돌렸기 때문입니다. 이 지역의 관광 산업은 다른 유인 요소가 거의 없어 ○○동굴에 대한 의존도가 너무 높습니다. 그리고 제반 시설이 낙후되어 관광객들의 불만이 높아 평판이 나빠졌습니다. 또한 이 지역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가 부족한 것도 한 원인으로 볼 수 있습니다. [B]

사회자 : 동굴에 대한 지나친 의존도, 제반 시설의 낙후, 홍보 부족 등이 주요 원인이라는 말씀이시군요. 주민 대표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주민 대표 : 지자체의 실질적 지원이 부족한 것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지자체에서는 동굴과 연계한 관광 단지 조성 및 편의 시설 확충 등을 약속만 하고 실천하지 않았습니 다. 관광 산업의 활성화에 쓰이는 예산도 예전보다 줄어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C]

사회자 : 저도 최근에 ○○동굴을 다녀온 적이 있는데요, 제 생각에도 편의 시설을 더 늘려야겠더군요. 지자체에서는 이 문제와 관련하여 어떤 입장이신가요?

지자체 대표 : 저희가 1년 동안 쓸 수 있는 예산은 한정되어 있는데, 최근 하천 정비 사업으로 인해 관광 산업 활성화에는 예산을 많이 배정하지 못했습니다. 대신에 저희는 새로운 문화 산업을 개발하여 외부 투자를 유치하고 그것을 통해 관광 산업을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D]

사회자 : 이번에는 김 교수님께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어떤 방안이 필요한지 말씀해 주십시오.

김 교수 : 특화된 관광 프로그램을 마련하는 것이 가장 시급합니다. 이 지역과 마찬가지로 동굴에 대한 의존도가 높았던 인근 □□군의 경우 최근에 지역 특산물을 이용한 전통 음식 체험 프로그램을 마련해 관광객들의 큰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군의 특색 있는 자연환경을 활용한 레저 프로그램을 새롭게 개발해 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사회자 : 좋은 말씀인 것 같네요. 주민 대표께서는 이러한 김 교수님의 해결책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주민 대표 : [E]

1. ‘사회자’의 발화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질문을 통해 자신이 이해한 내용을 확인하고 있다.
- ② 토의의 배경을 언급하며 토의 주제를 제시하고 있다.
- ③ 토의 참여자의 발언 내용을 요약하며 토의를 진행하고 있다.
- ④ 토의 흐름에 따라 다음에 발언할 토의 참여자를 지정하고 있다.
- ⑤ 토의 참여자의 발언에 자신의 경험을 토대로 견해를 덧붙이고 있다.

2. [A]~[E]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A] : 지역의 관광 산업이 위축된 현황을 구체적 수치로 제시하고 있다.
- ② [B] : 문제의 원인을 여러 측면에서 제시하고 있다.
- ③ [C] : 현재 상황이 초래할 수 있는 부정적 결과를 예측하여 문제 해결의 시급성을 강조하고 있다.
- ④ [D] : 주민 대표가 지적한 문제에 대한 지자체의 입장을 밝히고 새로운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 ⑤ [E] : 인근 지역의 사례를 근거로 들어 자신의 견해를 뒷받침하고 있다.

3. ‘주민 대표’가 토의 과정에서 드러낸 자신의 문제의식과 관련 지어 말한다고 할 때, [E]에 들어갈 발언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 ① 위축된 지역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는 새로운 관광 프로그램을 지역 주민들이 주도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 ② 새로운 관광 프로그램이 개발되면 지역 주민들에게도 관광 산업에 대한 적극적인 관심을 불러일으키는 좋은 계기가 될 것 같습니다.
- ③ 지역의 자연환경을 활용한 관광 프로그램 개발은 자칫 환경을 훼손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 ④ 우리 지역의 특색 있는 자연환경을 이용하기보다는 인근 지역처럼 지역 특산물을 활용한 음식 문화 축제를 개최하는 것이 더욱 좋다고 생각합니다.
- ⑤ 지자체의 적극적인 지원 없이 새로운 프로그램을 개발하기는 어렵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지자체의 적극적인 예산 지원과 약속 이행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4~5] 다음은 인터뷰 대화이다. 물음에 답하시오.

학생 : 안녕하세요? 저는 ○○고등학교 학생 기자 김민희입니다. 이번에 △△박물관에서 특별 기획전으로 ‘마야 문명 특별전’을 한다고 해서 ‘마야 문명’ 관련 기사를 써 보려고 오늘 학예 연구사님을 찾아뵙게 되었습니다. 혹시 일하시는 데 방해가 된 건 아닐까요?

연구사 : ㉠(웃으며) 만나서 반가워요. 크게 바쁜 일은 없으니까 염려 마세요.

학생 : 감사합니다. 먼저 마야 문명이 어떤 문명이었는지부터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연구사 : 마야 문명은 기원전에 발생해 기원후 1,500년 무렵까지 메소아메리카에서 꽃피었던 문명입니다.

학생 : 메소아메리카는 구체적으로 어느 지역인가요?

연구사 : 오늘날의 멕시코, 과테말라, 온두라스, 엘살바도르 등이 위치한 중앙아메리카 지역 일대를 메소아메리카라고 합니다. 그런데 ㉡혹시 마야인들이 자기 고유의 문자를 가지고 있었다는 사실은 알고 있나요?

학생 : 그건 잘 모르고 있었는데요.

연구사 : 그럼 이 소책자를 먼저 보세요. 마야 문자는 일종의 상형 문자였는데, 매우 아름답고 장식적이어서 그 자체가 하나의 예술품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어요.

학생 : ㉢와! 정말 아름답네요. 연구사님 말씀처럼 하나의 조각 작품을 보는 것 같아요. 참, ㉣수업 시간에 들었는데, 마야 문명은 0의 개념을 사용하는 등 수학과 과학에 대한 이해가 깊었다고 하더라고요. 이에 대해 말씀해 주시겠어요?

연구사 : 맞아요. 마야 문명에서는 0의 개념을 이해하고 20진법을 사용하는 등 수학, 의학, 건축술 등의 분야가 발전해 있었고 뛰어난 경제 제도도 갖추고 있었어요. 또한 천문학도 발전하여, 지구가 돌면서 태양 주위를 돌고 있다는 것도 잘 알고 있었어요. 뿐만 아니라 일식과 월식 등도 잘 이해하고 있었답니다. 이를 토대로 매우 정확한 달력을 만들어 사용하기도 했어요. 아마 종말론과 관련하여 마야 달력에 대한 이야기는 많이 들어 봤을 거예요.

학생 : 네, 저도 들어본 적이 있어요. 그런데 ㉤그 달력이 왜 종말론과 연결되었던 것인지 더 말씀해 주시겠어요?

연구사 : 마야 달력은 태양의 주기를 정확하게 계산해 정밀하게 만든 달력이었는데, 2012년 12월 동지 무렵까지만 기록되어 있어서 한때 종말론을 유행시켰던 겁니다. 물론 대다수의 학자들은 달력의 한 주기가 끝나면 다시 새로운 주기가 시작되는 것이지 이것 자체가 종말을 예언한 것은 아니라며 그런 주장을 일축했어요.

학생 : 그랬었군요. 그런데 이처럼 뛰어난 문명이 왜 우리에게 잘 알려지지 않았던 것일까요?

연구사 : 아무래도 서구 중심의 역사 속에서 오랫동안 가려져 왔기 때문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번에 ‘마야 문명 특별전’을 기획하게 된 겁니다. 이번 전시회를 통해 마야 문명에 대해 학생들이 더 큰 관심을 가질 수 있으면 좋겠네요. 친구들에게 많이 알려 주길 부탁드립니다.

학생 : 말씀을 들어 보니 많은 친구들이 와서 보면 정말 유익하겠네요. 저도 꼭 와서 보도록 할게요. 오늘 좋은 말씀 많이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4. ㉠~㉤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 : 상대방이 가질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언어적·비언어적 표현을 함께 사용하고 있다.
- ② ㉡ : 설명하려는 내용과 관련 있는 상대방의 배경지식을 확인하고 있다.
- ③ ㉢ : 상대방의 설명에 긍정적으로 반응하여, 공감하며 듣는 태도를 드러내고 있다.
- ④ ㉣ : 자신의 학습 경험을 환기하여 상대방의 발언 내용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 ⑤ ㉤ : 질문의 형식을 통해 앞에서 언급된 내용과 관련하여 궁금한 점에 대해 설명을 요청하고 있다.

5. 위 내용과 <보기>를 바탕으로 교지의 기사를 작성하기 위해 나눈 의견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보 기 >

< 인터뷰를 다녀온 후 결정한 기사 작성 지침 >

- 표제는 비유적 표현을 활용하여 주제가 인상적으로 전달 되도록 제시한다.
- 기사의 내용은 인터뷰한 내용이 전체적으로 잘 반영되도록 구성한다.
- 인터뷰 과정에서 언급된 생소한 지역의 명칭은 구체적으로 풀어서 설명한다.
- 인터뷰한 내용 중 시각화가 필요한 내용은 시각 자료를 함께 신도록 한다.
- 인터뷰 과정에서 전문가가 당부한 내용이 기사 내용에 포함되도록 한다.

- ① 세준 : 우리에게 잘 알려져 있지 않았던 마야 문명을 소개하는 것이니까 표제는 ‘고대 문명의 숨은 보석, 마야 문명을 찾아서’로 하면 좋을 것 같아.
- ② 정훈 : 인터뷰한 내용은 크게 고대 문명의 일반적 특징과 마야의 역사에 대한 것으로 볼 수 있으니까 기사 내용도 이에 따라 두 부분으로 나누어 구성하면 좋겠어.
- ③ 수연 : ‘메소아메리카’가 어느 지역인지 모르는 친구들이 많을 테니까 이 지역에 속하는 국가들을 구체적으로 함께 언급해주는 게 좋겠어.
- ④ 보미 : ‘마야 문자’와 관련된 내용은 시각화를 통해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으니까 소책자에 나와 있는 사진을 함께 신도록 하는 게 좋겠어.
- ⑤ 민희 : 학생들이 마야 문명에 대해 더 많은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해 달라고 한 학예 연구사님의 말씀을 기사의 마무리 부분에 실으면 좋겠어.

[6~8] 다음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작문 상황

- 시사성 있는 화제를 찾아 설득하는 목적의 글을 써 보자.

(나) 학생의 초고

얼마 전 초등학교 6학년 학생이 갑자기 의식을 잃고 쓰러진 50대 남성을 심폐 소생술로 살린 일이 화제가 되었다. 이 학생이 어른의 생명을 구할 수 있었던 것은 사건 발생 며칠 전 학교에서 심폐 소생술 교육을 ㉠ 받았다.

심폐 소생술은 심장의 기능이 정지하거나 호흡이 멈추었을 때 실행하는 응급 처치로, 심장 정지가 발생한 후 4~5분 이내에 실시하면 그렇지 않은 경우에 비해 환자의 생존율은 2~3배나 높아진다. 따라서 심장 정지 환자의 생사를 결정하는 것은 현장 목격자가 심폐 소생술을 시행했는지 ㉡ 여지에 달려 있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경우 심장 정지 환자 중 현장 목격자에 의해 심폐 소생술이 시행된 비율은 6.5%로, 미국 33.3%, 일본 34.8%, 스웨덴 55.0%에 비해 매우 낮다.

위 학생의 사례처럼 심폐 소생술은 어린 학생들도 쉽게 익힐 수 있다. 그럼에도 우리나라의 심폐 소생술 시행 비율이 낮은 이유는 무엇 때문일까? 학생과 일반인이 받는 심폐 소생술 교육 현황을 살펴보면 그 이유를 짐작할 수 있다. ㉢ 심폐 소생술 교육은 비용 대비 그 효과는 매우 크다고 할 수 있다. 학교에서는 ‘학교보건법’에 따라 의무적으로 심폐 소생술을 교육하고 있다. 보건복지부 자료에 따르면 2014년 기준으로 초등학교 5·6학년의 96.7%, 중학교 2학년의 94.8%, 고등학교 1학년의 91.4%가 심폐 소생술 교육을 받았다. ㉣ 그리고 일반인의 심폐 소생술 교육 참여율은 학생들에 비해 훨씬 낮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시간이 없거나 교육 받을 장소가 마땅치 않기 때문이라고 답했다.

우리나라 국민의 가장 큰 사망 원인은 암이고 심장 질환이 그 뒤를 잇고 있다. 인구 10만 명 당 52.5명이 심장 질환 환자로, 그 비율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따라서 일반인 모두 심폐 소생술을 ㉤ 국민으로써 지녀야 할 기본 소양으로 인식하고, 심폐 소생술 교육에 참여해야 한다. 또한 ㉥ 정부에서는 일반인들의 심폐 소생술 교육 참여를 유도하는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

6. 학생의 초고에 사용된 글쓰기 전략이 아닌 것은?

- ① 내용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구체적 통계 수치를 제시한다.
- ② 문제 상황의 심각성을 드러내기 위해 비교의 방법을 활용한다.
- ③ 독자의 흥미와 관심을 유도하기 위해 화제와 관련한 구체적 사례를 활용한다.
- ④ 주장의 타당성을 높이기 위해 문제 원인에 대한 전문가의 의견을 제시한다.
- ⑤ 문제 해결의 필요성을 강조하기 위해 화제와 관련한 현재 상황을 제시한다.

7. <보기>의 자료를 활용하여 <조건>에 따라 ㉦을 보완할 때,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 < 보 기 > —

[자료 1] 스웨덴은 1983년부터 일반인을 대상으로 심폐 소생술 교육을 실시하였다. 이때 여러 공공 기관이나 직장 등 원하는 장소와 원하는 시간을 선택하여 교육을 받도록 한 결과, 참여율이 크게 향상되었다.

[자료 2] 우리나라에서는 국가 기관뿐 아니라 민간단체들도 일반인을 대상으로 심폐 소생술을 교육하고 있다. 그런데 이 단체들이 사용하는 교재가 제각각이어서 잘못된 정보가 담긴 경우도 많았다. 또 교육 시간, 활용 기자재 및 교육 방법이 서로 달라 일관성이 없었다.

— < 조 건 > —

- [자료 1]로부터 핵심 내용을 도출하여 ㉦에 활용할 것.
- [자료 2]에서 확인할 수 있는 시사점을 ㉦에 드러낼 것.

- ① 민간단체가 일반인의 심폐 소생술 교육을 주도하도록 하고, 정부는 참여하는 단체들의 자율성을 적극적으로 보장할 필요가 있다.
- ② 일반인의 심폐 소생술 교육을 의무화하되, 정부는 일반인이 원하는 시간과 장소를 택해 교육을 받을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 ③ 일반인의 심폐 소생술 교육 이수를 독려하기 위해서 공공 기관부터 의무적으로 심폐 소생술 교육을 받도록 정부가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
- ④ 일반인의 심폐 소생술 교육 참여율을 높이려면 일반인의 의식 변화가 필요하므로, 일반인을 대상으로 심폐 소생술 교육의 중요성에 대한 홍보를 강화해야 한다.
- ⑤ 국가 차원에서 일반인이 손쉽게 심폐 소생술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되, 이를 위해서는 다수의 기관이 교육을 시행해야 하므로 교육 프로그램의 표준화가 필요하다.

8. (나)를 고쳐쓰기 위한 방안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 호응 관계를 고려하여 ‘받았기 때문이다’로 고친다.
- ② ㉡: 단어의 쓰임이 부적절하므로 ‘여건’으로 고친다.
- ③ ㉢: 문단의 통일성을 해치므로 삭제한다.
- ④ ㉣: 문장의 연결이 자연스럽지 못하므로 ‘그러나’로 고친다.
- ⑤ ㉤: 조사의 사용이 적절하지 않으므로 ‘국민으로써’로 고친다.

[9 ~ 10] 다음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수업 상황]

‘밤샘 책 읽기 행사’에 참여한 학생들에게 선생님이 작문 과제를 부여하였다.

작문 과제 1

‘밤샘 책 읽기 행사’에서 읽은 책들 중 가장 인상 깊었던 내용을 중심으로 독서 감상문을 써 보자.

작문 과제 2

‘밤샘 책 읽기 행사’에 참여한 소감을 한 편의 글로 작성해 보자.

9. 다음은 [작문 과제 1]을 수행하기 위해 작성한 개요이다. ㉠과 ㉡를 중심으로 파악한 글쓰기 전략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서두: ‘밤샘 책 읽기 행사’에서 읽은 책들 중에서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이카로스’의 이야기가 가장 인상적이었다.

본문 1: 이카로스는 밀랍으로 만든 날개를 달고 하늘을 날게 되었다. 그는 너무 높이 날지 말라는 아버지의 조언을 잊고 더 높은 곳에 오르고 싶은 자신의 욕망을 좇아 태양 가까이 올라가다 그만 날개가 태양에 녹아 바다로 추락하여 죽고 만다.

본문 2: 이 이야기는 자연의 법칙을 거스르는 인간의 ㉠ ‘무모한 도전’은 결국 파멸을 가져오고 만다는 교훈을 준다. 하지만 이것은 주어진 환경에 굴하지 않고 자신의 한계를 넘어서고자 한 ㉡ ‘무한 도전’이었다고 할 수 있다. 비록 그 한계를 넘지 못하고 실패할지라도 그런 도전이 없었더라면 인류의 역사는 진보하지 못했을 것이다.

결말: 나도 나의 한계를 정해 놓고 현실에 안주하기보다 한계를 뛰어넘기 위한 도전을 멈추지 말아야겠다.

- ① 문제점을 안고 있는 ㉠과 문제의 원인이 되는 ㉡를 연결시켜 인물의 행동이 초래한 결과를 분석한다.
- ② 관습적 의미를 담고 있는 ㉠과 개성적인 의미를 지닌 ㉡를 종합하여 자신의 지나온 삶에 새로운 의미를 부여한다.
- ③ 물질적인 가치를 중시하는 ㉠을 정신적인 가치를 중시하는 ㉡와 비교하여 인물의 행동에 나타난 문제점을 부각한다.
- ④ 부정적인 의미를 지닌 ㉠ 대신 긍정적인 의미를 지닌 ㉡의 의미를 인물의 행위에 부여하여 글쓴이가 앞으로 가져야 할 태도와 연결한다.
- ⑤ 관념적으로 이해했던 ㉠을 자신의 체험을 통해 재고해 봄으로써 ㉡라는 새로운 의미를 도출하여 글쓴이와 공동체의 관계를 새롭게 모색한다.

10. 다음은 [작문 과제 2]를 수행하기 위해 세운 계획과 이것을 반영한 학생의 글이다. ㉠ ~ ㉤ 중 반영되지 않은 것은?

< 작문 계획 >

- ㉠ ‘밤샘 책 읽기 행사’에 참가하게 된 동기를 밝힌다.
- ㉡ 행사의 일정에 따라 내용을 전개한다.
- ㉢ 행사의 진행과 관련하여 주최 측에 바라는 점을 제시한다.
- ㉣ 행사에 참여하여 얻은 깨달음을 제시한다.
- ㉤ 후배들에게 행사 참여를 권유하는 내용을 포함시킨다.

얼마 전 담임 선생님의 안내로 ‘밤샘 책 읽기 행사’를 알게 되었다. 처음에는 책을 읽는데 꼭 밤까지 새야 하나 하는 생각에 망설였지만, 그래도 친구들과 함께 독서 체험을 함으로써 즐거운 추억을 쌓을 수 있고 독서에 대한 흥미를 더욱 높일 수 있을 것 같아 이 행사에 참여하게 되었다.

이 행사는 오후 4시에 시작해 다음날 새벽 6시까지 진행되었는데, 독서 퀴즈, 저자와의 대화, 자유 독서 등의 순서로 이어졌다. 이 행사에서 가장 흥미로웠던 것은 저녁 식사 후에 진행된 ‘저자와의 대화’ 시간이었다. 우리 학교 졸업생이면서 최근 베스트셀러 작가가 된 소설가 김○○ 선배가 함께해 주었는데, 이 시간을 통해 한 편의 소설을 쓰기 위해 얼마나 많은 준비와 노력이 필요한지 알 수 있게 되었다. 특히 소설가는 이야기의 단순한 생산자가 아니라, 우리 사회에서 소외되어 살아가는 힘없는 이웃들의 대변자가 되어야 한다는 말씀에 큰 감동을 받았다.

또한 그동안 읽고 싶었던 『그리스 신화』를 이 기회에 읽을 수 있어서 보람이 있었다. 그 밖에 독서 퀴즈도 재미있었고, 조별로 함께한 야식 시간도 즐거웠다. 다만 야식으로 나온 음식들이 너무 식어서 모두들 불만스러워했는데, 다음에는 주최 측이 더 세심하게 준비해서 이런 점은 개선되면 좋겠다.

이번 ‘밤샘 책 읽기 행사’는 나에게 매우 뜻깊은 시간이었다. 그동안 입시 준비로 바빠서 책 한 권 읽기도 쉽지 않았고 생각했었는데, 이번 행사를 통해 독서는 시간이 남아서 하는 것이 아니라 없는 시간도 내서 해야 하는 것임을 새삼 느낄 수 있었다. 후배들에게도 내년에 있을 ‘밤샘 책 읽기 행사’에 꼭 참여해 볼 것을 권하고 싶다.

- ① ㉠ ② ㉡ ③ ㉢ ④ ㉣ ⑤ ㉤

11. <보기>의 설명에 따라 학습지를 풀 결과 중, 바르지 않은 것은?

- < 보기 > -

선생님: 본용언과 보조 용언은 띄어 쓰는 것이 원칙이지만 경우에 따라 붙여 쓰는 것도 허용하고 있어요. 그렇지만 앞말에 조사가 붙거나 앞말이 합성 동사인 경우에 그 뒤에 오는 보조 용언은 띄어 써야 해요. 예를 들어, ‘도와드리다’의 경우 ‘드리다’가 보조 용언이니까 ‘도와 드리다’로 쓰는 것이 원칙이지만 ‘도와드리다’도 허용하는 것이지요. 그럼 선생님 설명을 얼마나 잘 이해했는지 확인해 볼까요?

학습지

* 다음은 보조 용언이 쓰인 문장이다. 띄어쓰기에 맞는 표현을 모두 찾아 ○표 하시오.

- | | |
|---------------------------------|-----|
| ○ 활활 타던 불이 (꺼져 갔다 / 꺼져갔다). | … ① |
| ○ 의자를 뒤로 (밀어내 버렸다 / 밀어내버렸다). | … ② |
| ○ 네가 그 일에 (덤벼들어 보아라 / 덤벼들어보아라). | … ③ |
| ○ 책을 여러 번 (읽어도 보았다 / 읽어도보았다). | … ④ |
| ○ 공책에 (기록해 두었다 / 기록해두었다). | … ⑤ |

12. <보기>를 바탕으로 하여 단어들의 표기 원리를 이해한 것으로 적절한 것은?

- < 보 기 > -

<한글 맞춤법의 ‘접미사가 붙어서 된 말’ 중 일부 >

- ㉠ 어간에 ‘-이’나 ‘-음/-ㅁ’이 붙어서 명사로 된 것 중, 어간의 뜻을 유지하는 경우에는 그 어간의 원형을 밝히어 적는다. (예) 길이, 믿음
- ㉡ 어간에 ‘-이’나 ‘-음’이 붙어서 명사로 바뀐 것이라도 그 어간의 뜻과 떨어진 것은 그 어간의 원형을 밝히어 적지 아니한다. (예) 목거리(병의 일종), 거름(비료)
- ㉢ ‘-이’나 ‘-음/-ㅁ’ 이외의 모음으로 시작된 접미사가 붙어서 다른 품사로 바뀐 것은 그 어간의 원형을 밝히어 적지 아니한다. (예) 나머지, 올가미

- ① ‘맞다’에서 파생된 ‘마중’은 어간의 원형을 밝히어 적은 것으로, ㉠에 따른 것이다.
- ② ‘걸다’에서 파생된 ‘걸음’은 어간의 원형을 밝히어 적지 않은 것으로, ㉡에 따른 것이다.
- ③ ‘막다’에서 파생된 ‘마개’는 어간의 원형을 밝히어 적지 않은 것으로, ㉢에 따른 것이다.
- ④ ‘넘다’에서 파생된 ‘너머’는 어간의 원형을 밝히어 적지 않은 것으로, ㉣에 따른 것이다.
- ⑤ ‘놀다’에서 파생된 ‘노름’은 어간의 원형을 밝히어 적지 않은 것으로, ㉤에 따른 것이다.

13. <보기 1>을 참고할 때, <보기 2>의 ㉠~㉤ 중, 표준 발음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 < 보기 1 > -

표준 발음법

제5항 ‘ㅈ ㅉ ㅋ ㆁ 과 내 ㅅ ㅆ ㅈ ㅉ ㆁ’는 이중 모음으로 발음한다.

- 다만 1. 용언의 활용형에 나타나는 ‘저, 쩌, 처’는 [저, 쩌, 처]로 발음한다.
- 다만 2. ‘예, 례’ 이외의 ‘ㄷ’은 [ㄷ]로도 발음한다.
- 다만 3. 자음을 첫소리로 가지고 있는 음절의 ‘ㄴ’은 [ㄴ]로 발음한다.
- 다만 4. 단어의 첫음절 이외의 ‘의’는 [의]로, 조사 ‘의’는 [의]로 발음함도 허용한다.

- < 보기 2 > -

- 긍정적인 마음을 ㉠ 가져야[가져야]한다.
- ㉡ 협의[협비]를 거쳐서 결정한 사안이다.
- 젊은이들에게 ㉢ 희망[희망]과 용기를 불어넣다.
- 문화 유적에는 조상들의 ㉣ 지혜[지혜]가 담겨 있다.
- ㉤ 우리의[우리]에 힘을 합치면 못할 일이 뭐가 있겠어요?

- ① ㄱ ② ㄴ ③ ㄷ ④ ㄹ ⑤ ㅁ

14. <보기>의 국어사전 자료를 탐구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 보 기 > -

배¹ [배] 명

「1」 사람이나 동물의 몸에서 위장, 창자, 콩팥 따위의 내장이 들어 있는 곳으로 가슴과 엉덩이 사이의 부위.

¶ 배가 나오다.

「2」 긴 물건 가운데의 볼록한 부분.

¶ 배가 부른 마대 자루.

배² [배] 명

사람이나 짐 따위를 싣고 물 위로 떠다니도록 나무나 쇠 따위로 만든 물건.

『 배를 띄우다.

배³(倍) [배:] 명

(주로 고유어 수 뒤에 쓰여) 일정한 수나 양이 그 수만큼 거듭됨을 이르는 말.

¶ 힘이 세 배나 들다.

- ① ‘배¹’은 하나의 표제어 아래 여러 뜻을 지니고 있으므로 다의어라고 볼 수 있겠군.
- ② ‘배¹’의 「2」의 용례로는 ‘배가 불룩한 돌기둥’을 들 수 있군.
- ③ ‘배²’를 활용한 속담으로 ‘사공이 많으면 배가 산으로 간다’를 들 수 있군.
- ④ ‘배³’은 소리의 길이에 의해 ‘배¹’, ‘배²’와 의미가 변별될 수 있겠군.
- ⑤ ‘배¹’, ‘배²’, ‘배³’은 모두 의미적 연관성이 있으므로 사전에 각각 등재하는군.

15. <보기>의 ㉠ ~ ㉤은 모두 중의적인 문장이다. 괄호의 의미만을 나타내도록 수정한 방법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 보 기 >
- ㉠ 교실에 학생들이 다 오지 않았다.
(→ 학생들이 한 명도 오지 않았다는 의미로)
- ㉡ 현규와 숙희는 어제 결혼하였다.
(→ 현규가 숙희의 남편이 되었다는 의미로)
- ㉢ 이것은 선생님의 그림이다.
(→ 그림 속 인물이 선생님이라는 의미로)
- ㉣ 아버지께서 귤과 사과 두 개를 가져오셨다.
(→ 과일 세 개 중 두 개가 사과라는 의미로)
- ㉤ 그녀는 밝은 표정으로 환영하는 사람들에게 인사했다.
(→ 표정이 밝은 사람은 그녀라는 의미로)

- ① ㉠: ‘않았다’를 ‘못했다’로 바꾼다.
② ㉡: ‘현규와 숙희는’을 ‘현규는 숙희와’로 교체한다.
③ ㉢: ‘선생님의’를 ‘선생님을 그린’으로 교체한다.
④ ㉣: ‘귤과 사과 두 개’를 ‘귤 한 개와 사과 두 개’로 바꾼다.
⑤ ㉤: ‘밝은 표정으로’를 ‘사람들에게’의 뒤로 옮긴다.

16. <보기>의 중세 국어 자료에 나타나는 특징을 탐구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보 기 >

善愼慧響 ㉠ 니르샤디 五容百帛 ㉡ 銀은도노로 다섯 줄기를 사아지라
俱궁夷잉 묻즈븍샤디 ㉢ 므스게 ㉣ 쓰시리
善愼慧響 ㉤ 對甞答답호샤디 부텃기 받즈보리라
- ‘월인석보’ 권 1(1459년) -

[현대어 풀이]
선혜가 이르시되 “오백 은돈으로 다섯 줄기를 사고 싶다.”
구이가 물으시되 “무엇에 쓰시리?”
선혜가 대답하시되 “부처께 바치리라.”

- ① ㉠을 통해 두음 법칙이 적용되지 않았음을 알 수 있군.
② ㉡을 통해 조사가 결합할 때 모음 조화가 지켜졌음을 알 수 있군.
③ ㉢을 통해 이어 적기가 사용되었음을 알 수 있군.
④ ㉣을 통해 초성자의 서로 다른 자음을 가로로 나란히 붙여 쓰는 방식이 사용되었음을 알 수 있군.
⑤ ㉤을 통해 객체를 높이는 선어말 어미가 사용되었음을 알 수 있군.

[17 ~ 20]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음악에서는 시간이 중요하다. 음악은 시간의 경과에 따라 진행되기 때문이다. 전통적 음악에서는 시간이 한 방향으로 진행되었다. 이러한 시간의 흐름은 선적인 것으로 어떤 목적을 향해 한 방향으로 흐른다는 점에서 목적론적 시간성으로 일컬어진다. 그런데 20세기에 들어 음악 미학에 급격한 변화가 나타나면서 목적론적 시간성에서 ㉠ 벗어난 음악들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이러한 음악을 보여 준 대표적인 예술가로 치머만과 케이지를 들 수 있다.

치머만은 과거, 현재, 미래가 우주적 차원에서는 연속성을 띠며 진행하지만 정신적 차원에서는 그렇지 않다는 생각에 이르러, 시간을 ‘공’ 모양을 하고 있는 것으로 인식했다. 이는 시간이 선적인 진행에서 벗어나 과거, 현재, 미래의 순서가 ㉡ 달라질 수 있으며, 또한 동시적으로 진행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였다. 이처럼 시간의 여러 시점(時點)들이 동시적으로 존재한다는 치머만의 생각은 그가 다원적 사고를 추구했음을 보여 준다. 그는 하나의 시간 대신 여러 개의 시간 층을 병치시켜 복합적인 시간성을 드러냈다.

복합적인 시간성은 그의 ‘다원적 작곡 기법’으로 구현되었다. 그는 이 기법을 음악에 나타나는 여러 가지 시간의 층이 ㉢ 겹친 것으로 설명하였다. 그는 자신의 대표작인 ‘병사들’에서 역사적으로 의미 있는 음악가들의 악곡 일부를 그대로 자신의 작품에 가져다 쓰는 콜라주 기법을 ㉣ 써서 서로 다른 시간의 층을 동시에 보여 주었다. 여기에서 한 발 더 나아가 서로 다른 독립적인 박자와 템포를 동시에 한 작품에 사용하여 서로 다른 시간의 층을 더욱 도드라지게 하였다. 그 결과 시간의 순차적인 진행은 해체되어 여러 시간이 복잡하게 엉키게 되었다. 이를 두고 치머만은 ‘모든 음악적 사건들의 동시대성’을 드러낸 것이라고 말하였다. 이러한 방식은 작품 속에 특정한 주제 의식을 드러내는 것을 거부한 것으로, 후대에 나타난 포스트모더니즘의 다원주의적 사고에 영향을 주었다.

20세기 현대 음악에서 새로운 차원의 시간성을 보여 주는 또 한 명의 인물은 케이지이다. 그는 음악의 시간성 측면에서 전통적 개념을 송두리째 흔드는 새롭고 흥미진진한 시도를 보여 주었다. 그의 대표작 ‘4분 33초’에서 연주자는 무대에 등장하여 4분 33초라는 시간 동안 한 음도 연주하지 않는다. 그동안 그 시간은 예기치 않은 관객들의 기침 소리, 종이 만지는 소리, 웅성거리는 소리 등 다양한 소리들로 채워진다. 이러한 방식을 통해 그는 작가의 의도나 목적에 의해 구조화된 시간성, 박자 구조에 따라 나타난 음악의 예측 가능한 시간성이라는 전통적 의미의 시간성을 부정하는 ‘우연성의 음악’을 구현하였다. 이는 음악의 시간이 전통적 음악에서처럼 음악가의 논리적 조정을 통해서만 구성되지는 않게 되었음을 의미한다.

케이지는 그의 작품에서 ㉤ 유일하게 한 번만 존재하는 음악의 시간성을 표현했다. 이러한 그의 음악은 비의도적이라는 의도 외에는 아무 의도 없이 만든 음악으로, 완성보다는 과정에 치중하는 비결정성을 띠는 것이었다. 비결정성을 띠는 음악은 예측할 수 없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실험적이며, 똑같이 반복될 수 없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유일하다. 지금까지 음악을 시간의 연속성으로 이해했다면, 이제 그 연속성은 완전히 뒤죽박죽되었다. 음악의 시간성이 작품의 구조와 관련이 있는 만큼, 그의 음악에서는 전통적 시간성이 ㉢ 무너졌다고 볼 수 있다.

[1~2] 다음은 라디오 대담의 일부이다. 물음에 답하시오.

진행자: 오늘은 남한산성의 유네스코 세계 문화유산 등재 1주년을 맞아 남한산성의 문화유산으로서의 가치를 알아보고자 문화 해설사 ○○○님을 모시고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해설사: 네. 안녕하십니까?

진행자: 남한산성은 오랜 역사 속에서 한 번도 함락된 적이 없는 곳이라고 알고 있는데 사실인가요?

해설사: 맞습니다. 험준한 자연 지형에 적합한 축성술로 성벽을 쌓았기 때문에 적이 공격하기 쉽지 않았습니다.

진행자: 자연에 축성 기술을 접목한 조상들의 지혜네요.

해설사: 그렇습니다. 『택리지』에는 남한산성이 그러한 이유로 큰 전란에도 함락되지 않았다는 기록이 남아 있죠.

진행자: 그렇군요. 그럼 오늘 대담의 주제와 관련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남한산성은 문화유산으로서 어떤 가치를 지니고 있나요?

해설사: 남한산성의 가치로는 먼저 시대별 축성술을 보여 주는 표본이라는 점을 들 수 있습니다.

진행자: 남한산성이 시대별 축성술의 표본이라는 것은 어떤 의미인가요?

해설사: 그것은 하나의 성에서 시대별 축성술의 특징을 볼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남한산성은 신라 시대에 처음 쌓은 주장성을 조선 시대에 이르기까지 조금씩 증축한 성이기 때문입니다.

진행자: 예전에 남한산성에 갔을 때 보니까 성벽을 쌓은 돌의 종류나 쌓은 방식이 조금씩 다르던데 방금 말씀하신 시대별 특징 때문인 것으로 볼 수 있나요?

해설사: 맞습니다. 예를 들어 조선 시대 이전의 성벽은 옥수수알 모양으로 다듬은 돌로 쌓았고 조선 영조 때의 성벽은 크기와 형태가 다양한 돌을 이어 붙이듯이 쌓았습니다. 이처럼 남한산성에서는 시대별로 다른 축성술을 한눈에 볼 수 있죠.

진행자: 청취자 여러분도 남한산성에 가시면 성벽의 돌들을 유심히 살펴보면 좋겠네요. 그럼 시대별 축성술과 관련된 또 다른 특징에 대해 이야기를 나눠 보겠습니다.

1. [A]~[E]에 나타난 대담 참여자의 말하기 방식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A]: 진행자는 대담의 취지를 밝히며 대담에서 소개될 내용의 순서를 안내하고 있다.
- ② [B]: 해설사는 소개할 내용과 관련된 진행자의 배경지식을 물은 후 용어의 개념을 설명하고 있다.
- ③ [C]: 해설사는 문헌의 내용을 인용하여 진행자 말의 일부를 수정하고 있다.
- ④ [D]: 진행자는 해설사가 말한 내용이 진행자 자신의 경험과 관련이 있는지 질문을 통해 확인하고 있다.
- ⑤ [E]: 진행자는 해설사의 말을 요약한 후 다음에 나눌 이야기를 안내하고 있다.

2. <보기>는 위에 제시된 대담 내용을 바탕으로 학생들이 나눈 대화이다. 이 대화를 고려할 때, ㉠과 ㉡에 들어갈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보 기>

학생 1 이번 남한산성 답사의 홍보 포스터를 어떻게 만들지 생각해 봤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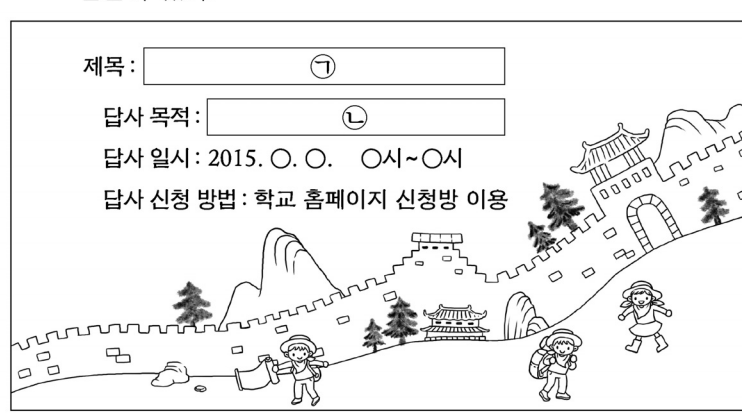
학생 2 응. 포스터 초안을 만들어 봤는데 한번 봐. 포스터 제목은 의인법을 활용했고 답사 목적은 대담의 핵심 내용을 바탕으로 만들어 봤어.

제목: ㉠

답사 목적: ㉡

답사 일시: 2015. ○. ○. ○시~○시

답사 신청 방법: 학교 홈페이지 신청방 이용



- ① ㉠: 우리나라 축성술의 꽃, 남한산성
㉡: 남한산성 축성술에 담긴 과학적 원리에 대해 알아보기
- ② ㉠: 남한산성이 들려주는 시대별 축성술 이야기
㉡: 남한산성을 답사하며 시대별 축성술의 특징을 살펴보기
- ③ ㉠: 우리 함께 타임머신을 타고 남한산성으로 떠나요!
㉡: 남한산성에 얹힌 항전의 역사를 확인해 보기
- ④ ㉠: 세계 속에 우뚝 선 우리의 건축 문화, 남한산성
㉡: 유네스코 세계 문화유산으로 등재되기까지의 과정을 통해 남한산성에 대한 자부심을 느껴 보기
- ⑤ ㉠: 남한산성의 돌, 신라 시대 축성술의 비밀을 간직하다
㉡: 옛 주장성을 완벽히 재현해 낸 축성술을 중심으로 남한산성에 담긴 조상들의 지혜를 배워 보기

[3~5] 다음은 연설 의뢰서와 이에 따라 행한 연설이다. 물음에 답하시오.

[연설 의뢰서]

저는 20××년 세계 □□ 사이클 대회 A시 유치 위원회 위원장입니다. 지난 대회 우승자인 ○○○ 선수께 개최지 결선 투표를 위한 지지 연설을 부탁드립니다. 투표단은 대부분 사이클에 애정을 지닌 선수 출신들로, 전문 지식을 갖추고 있으며 개최지가 대회 취지에 잘 부합하는지를 중시 한다는 점을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사이클 선수 ○○○입니다. 새로운 역사를 만드는 자리에 섰다고 생각하니 무척 설렘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세계 □□ 사이클 대회의 취지는 전 세계적으로 사이클을 활성화하는 데 있습니다. 하지만 그동안 개최된 마흔두 번의 대회 중 사이클 강국인 유럽과 북미가 아닌 곳에서 개최된 적은 단 두 번뿐이었습니다. 우리 A시는 사이클 비인기 지역인 아시아의 도시이고 경쟁 도시는 유럽의 도시입니다. 흔히 사이클 비인기 지역의 도시가 대회를 개최하는 것이 대회의 취지를 실현하는 데 부적합하다고 합니다. 하지만 달리 생각해 보면 대회를 통해 사이클에 대한 A시의 시민들, 나아가 아시아 각국 시민들의 관심을 증폭할 수 있으므로 사이클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개최지로서 좋은 여건을 갖췄습니다. 사이클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고 사이클 인구도 빠르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경쟁 도시는 시민의 지지가 낮지만 우리는 90퍼센트가 넘는 시민의 합의를 이끌어 냈고 정부도 재정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사이클 전용 경기장에 비해 도로 경기장이 노후화됐다는 우려도 있지만, 선수로 출전해 본 제 경험에 비추어 볼 때 A시의 도로 경기장은 천혜의 자연조건을 갖추고 있어 정비만 하면 최적의 경기장이 될 것이라 자신합니다.

이미 많은 분들이 인정하신 것처럼 우리는 각종 국제 대회를 성공리에 개최하여 전 세계인의 찬사를 받은 바 있습니다. 이러한 경험은 이번 대회도 충분히 잘 치를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사실을 뒷받침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동안 사이클 회원국과의 친선을 도모하고 사이클 활성화에 앞장서면서 세계 사이클 협회와의 약속을 지켜 왔습니다. 이전 대회의 유치에는 성공하지 못했지만, 세계 우호 증진에 힘쓰겠다는 당시의 공약대로 사이클 전용 경기장이 없는 해외 도시들의 청소년을 초청하여 지도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해 왔습니다. 개최지로 확정되면 이러한 신뢰를 바탕으로 대회 준비에 매진하겠습니다.

여러분처럼 저도 사이클을 사랑합니다. 여러분과 마찬가지로 사이클 없는 제 삶은 상상할 수 없습니다. 이제 제 꿈은 A시에서 열리는 대회에 전 세계 젊은이들이 참가하는 모습을 보는 것입니다. 이것은 A시 모든 시민들의 꿈이기도 합니다. 이 꿈이 꼭 실현될 수 있도록 지지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3. 연설 의뢰서의 내용을 바탕으로 세운 계획 중 연설에 나타나지 않은 것은?

- ① 대회 유치를 위해 청중을 설득해야 하므로 A시가 선정되어야 하는 이유를 밝혀야겠어.
- ② 청중이 대회의 취지를 중시하므로 A시가 대회 취지를 잘 실현할 수 있음을 강조해야겠어.
- ③ 청중이 사이클에 애정이 있을 것이므로 청중과의 공통점을 내세워 공감대를 형성해야겠어.
- ④ 청중에게 신뢰감을 주어 지지를 얻어야 하므로 A시 도로 경기장에 대해 설명할 때 선수로서의 경험을 내세워야겠어.
- ⑤ 청중이 전문 지식이 있으므로 A시 사이클 전용 경기장의 내부 구조가 경기력 향상에 도움이 된다는 점을 설명해야겠어.

4. 연설자가 연설에 사용한 전략과 구체적 내용이 바르게 연결된 것은? [3점]

전략	강점 부각	약점에 대한 인식 전환
예상 평가 항목		
대회 취지 부합성	㉠	㉡
대회 개최 여건	㉢	㉣
대회 운영 능력	㉤	

- ① ㉠: 대회 개최가 A시 시민들 간의 우호 증진에 도움이 된다는 점에서 대회 취지에 부합함을 보여 준다.
- ② ㉡: 사이클 비인기 지역에서의 대회 개최가 사이클 저변 확대에 기여할 수 있다는 점을 부각한다.
- ③ ㉢: 경기 시설에 대한 우려를 언급한 후 개선 방안을 제시하여 부정적 시각을 차단한다.
- ④ ㉣: 개최지 선정의 불공평성을 근거로 내세워 대회 유치의 타당성을 주장한다.
- ⑤ ㉤: 자료를 인용하여 사이클 강국이 아닌 곳에서도 대회를 성공적으로 운영했던 사실을 강조한다.

5. A시의 경쟁 도시를 지지하는 청중이 위 연설을 반박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A시의 경쟁 도시 시민의 지지가 낮다고 한 것은 근거를 제시하지 않았으므로 타당하지 않습니다.
- ② A시가 국제 대회 개최 경험이 많다고 한 것은 성공 여부를 밝히지 않았으므로 높은 점수를 줄 수 없습니다.
- ③ 정부의 지원 여부를 밝히지 않고 지지를 호소한 것은 재원 마련에 대한 확신을 주지 못하므로 신뢰할 수 없습니다.
- ④ 해외 청소년 대상 사이클 프로그램 운영에 대해 언급한 것은 사이클 활성화의 사례가 되므로 A시의 지지자를 늘리는 결과를 가져올 것입니다.
- ⑤ A시에서 사이클이 비인기 종목이라고 언급한 것은 대회 개최에 대한 주민들의 무관심을 보여 주므로 A시가 자격이 없음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6~8] (가)에 따라 글을 쓰기 위해 (나)의 인터뷰를 실시하고, (다)의 자료를 수집하였다. 물음에 답하시오.

(가) 작문 상황 및 계획

- 작문 상황: 일회용품을 즐겨 쓰고 쉽게 버리는 등 값싸고 편리한 것을 추구하는 소비 생활이 가져오는 결과를 소비자들이 알고 소비 생활의 관점을 바꾸기를 촉구하는 글을 쓰려 한다.
- 주제문: 환경 친화를 우선시하는 소비 생활을 하자.
- 개요
 - I. 서론
 - II. 현재의 소비 생활
 - 저렴한 가격의 제품 구매㉠
 - 편의성을 추구하는 제품 구매 및 사용㉡
 - 제품의 원료가 되는 자원의 고갈㉢
 - 생산 및 유통, 소비 과정에서의 환경오염㉣
 - III. 대안: 환경 친화를 우선시하는 소비 생활
 - 1. 실천 방법
 - 가. 환경 친화적인 제품의 구매
 - 나. 제품 사용 시 환경에 끼칠 영향을 고려함
 - 2. 기대 효과
 - 가. 소비자가 환경 보전에 참여함
 - 나. 생산 및 유통 과정의 변화
 - IV. 결론: 소비 생활의 관점 개선 촉구 및 제언

(나) 인터뷰

질문자: 제도적으로 환경 친화적 소비를 돕는 것이 있나요?

전문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우선 생산, 유통, 폐기 과정에서의 환경 친화적 제품에 대해 공인된 표지를 부여하는 제도를 들 수 있습니다.

질문자: ㉠ 제품에 환경 표지를 붙이는 것이 어떤 효과가 있을까요?

전문가: 소비자에게는 제품의 친환경성 정보를 전달하여 소비자 스스로의 선택에 따라 환경 보전에 참여하게 할 수 있고, 기업에는 소비자의 선호에 부응하여 환경 친화적 제품을 생산하도록 유도할 수 있습니다.

질문자: ㉢ 구체적인 표지에는 어떤 것이 있나요?

전문가: 생산 및 유통 과정에서 오염을 상대적으로 적게 일으키거나 자원을 절약할 수 있는 제품이라고 인증하는 것도 있고, 제품의 생산 및 유통 과정에서 환경에 끼치는 영향을 도표나 그래프 등을 활용하여 직접 표시해서 소비자가 판단하도록 하는 것도 있습니다.

(다) 신문 기사

최근 친환경적 소비를 실천하는 소비자들이 점차 늘어남에 따라 기업들도 이를 고려하여 제품을 개발하고 출시하는 사례가 서서히 증가하고 있다. ○○ 기업은 제품의 생산, 유통 및 폐기에 이르는 전 과정에서 발생하는 온실 가스 배출량을 동종 제품의 평균보다 줄인 음료수를 개발하고 동종 제품 중 최초로 환경 친화 제품임을 인정받아 환경 표지를 붙여 출시하였다.

6. (가)의 개요를 수정·보완하는 과정에서 II의 내용을 항목화하려고 한다. 정보 간의 관계와 내용 전개를 고려할 때, ‘항목’과 ‘내용’을 연결한 것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항목	내용
① 1. 양상	— ㉠, ㉡
2. 문제점	— ㉢, ㉣
② 1. 현황	— ㉠, ㉡
2. 종류	— ㉢, ㉣
③ 1. 실태	— ㉠, ㉡
2. 원인	— ㉢, ㉣
④ 1. 목적	— ㉠, ㉡, ㉢
2. 필요성	— ㉣
⑤ 1. 대책	— ㉠, ㉡, ㉢
2. 심각성	— ㉣

7. ㉠, ㉢의 공통된 기능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작문 목적을 고려하여 상대방의 답변 내용에 대해 자신의 의견을 제시한다.
- ② 글의 주제와 관련하여 상대방의 답변 내용과 관련된 추가 정보를 요구한다.
- ③ 작문 내용과 관련하여 상대방의 답변 내용을 간략히 정리한다.
- ④ 예상 독자를 고려하여 상대방의 답변 내용의 구체적 사례를 요구한다.
- ⑤ 예상 독자의 성향과 관련하여 상대방의 답변 내용에 대해 비판적 태도를 표출한다.

8. (나), (다)를 활용하여 (가)의 III을 구체화하는 방안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① III-1-가에서는 (나)를 활용하여 소비자가 제품의 생산 및 유통 과정과 관련된 친환경성을 판단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한다.
- ② III-1-가에서는 (다)를 활용하여 동종 제품 가운데 더 환경 친화적인 제품을 선택하는 방법으로 환경 표지가 활용될 수 있음을 제시한다.
- ③ III-2-가에서는 (나)를 활용하여 환경 표지가 붙은 제품을 구입하고 사용하면 소비자가 환경 보전에 참여하게 되는 효과가 있음을 제시한다.
- ④ III-2-나에서는 (다)를 활용하여 환경 친화적 소비가 생산 및 유통 과정의 변화를 가져올 수 있음을 제시한다.
- ⑤ III-2-나에서는 (나)와 (다)를 활용하여 친환경적 제품 생산이 기업 이미지 제고를 통해 소비 생활에 변화를 가져올 수 있음을 제시한다.

[9~10] 다음은 학생이 쓴 글의 초고이다. 물음에 답하시오.

오늘 아침엔 다른 날보다 일찍 잠이 깨었다. 무엇을 할까 잠시 망설이다가 학교까지 걸어가 보기로 했다. 길을 걷는 동안 버스가 빠른 속도로 곁을 스쳐 갔다. 어제까지는 나도 그 속에 앉아 바쁘게 오고 가느라 느긋함을 느끼지 못했다는 것이 떠올랐다. 하지만 오늘은 걸어가면서 주변을 천천히 둘러볼 수 있었다. 걸어가다 보니 새들이 나뭇가지에 앉아 지저귀는 소리가 조그맣게 들려왔다. 걸어서 등교하지 않았다면 듣지 못했을 것이라는 생각을 하니 뿌듯한 마음에 발걸음이 더 가벼워졌다.

아침 햇살을 받으며 반짝이고 있는 나뭇잎들을 보면서 걷다가 문득 ‘어, 한 나무에서 돌아난 나뭇잎들인데 빛깔이 다르네!’라는 생각이 들었다. 발걸음을 멈추고 나무를 자세히 올려다 보니 수많은 나뭇잎들이 모두 조금씩 다른 빛깔을 지니고 있었다. 그리고 이 다른 빛깔들이 서로 어울려 조화를 이루고 있는 모습에서 아름다움을 느꼈다. 가을에 나무가 아름다운 것은 다양한 빛깔의 나뭇잎들이 서로 조화를 이루고 있기 때문이었다.

나는 가을의 아침을 나무들과 함께 걸으며 나의 생활을 돌아보았다. 문득 친구들이 떠올랐다. 나와 생각이 다른 친구들과 함께 있으면 불편했던 일, 내 의견에 반대하는 친구들에게 반감을 가졌던 일들이 생각났다. 그리고 그런 모습으로 살아왔던 나 자신이 부끄러워졌다. 사람들이 살아가는 모습이 저마다 다른 것은 삶의 빛깔이 조금씩 다르기 때문이다.

9. 학생이 초고를 쓰는 과정에서 소재로부터 떠올린 생각 중 초고에 반영되지 않은 것은?

- | | | |
|--------|---|---------------------------------------|
| ① 버스 | → | 바쁘게 오고 가느라 마음의 여유를 갖지 못했음을 떠올리게 하는구나. |
| ② 새 소리 | → | 이전에 주목하지 못했던 것을 인식하는 기쁨을 느끼게 하는구나. |
| ③ 나뭇잎들 | → | 서로 다른 모습에서 다양성의 가치를 발견하게 하는구나. |
| ④ 가을 | → | 아름다움을 위해서는 인내가 필요함을 알게 하는구나. |
| ⑤ 친구들 | → | 생각의 차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던 기억을 떠올리게 하는구나. |

10. 다음은 학생이 초고를 쓰고 스스로 점검한 내용이다. 초고의 마지막에 추가할 문장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초고의 마지막 부분이 완결된 것 같지 않아서 끝에 문장 하나를 추가해야겠어. 둘째 문단에서 쓴 내용으로부터 개인과 사회의 바람직한 관계를 이끌어 내어 앞으로 가져야 할 내 삶의 자세에 대한 내용으로 글을 마무리해야겠어.

- ① 사회가 아름다운 하나의 빛깔을 가지려면 구성원들이 서로의 빛깔 차이를 줄여 가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 ② 빠르게 변화하는 사회 속에서 정체성을 잃지 않기 위해 나의 고유한 빛깔을 소중하게 간직하고 살아가야겠다.
- ③ 다양한 삶의 빛깔들로 이루어진 아름다운 세상을 위해 사람들의 서로 다른 삶의 빛깔을 인정하며 살아야겠다.
- ④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에게 각자의 빛깔을 드러낼 기회를 줄 때 사회는 더욱 아름다운 빛깔을 지니게 될 것이다.
- ⑤ 사람들과의 관계에 소홀했던 나의 태도를 바꾸기 위해 좀 더 적극적으로 사람들에게 다가서는 삶의 빛깔을 지녀야겠다.

11. <보기>에 따라 겹받침의 표준 발음에 대하여 단계별로 학습하였다. 각 예에 적용된 내용과 그 발음이 모두 바른 것은? [3점]

- <보 기> —
- 겹받침이 모음으로 시작된 조사나 어미, 접미사와 결합되는 경우에는 뒤엎것만을 뒤 음절 첫소리로 옮겨 발음한다. 이 경우, ‘ㅅ’은 [ㅆ]으로 발음한다. ㉠
 - 겹받침 ‘ㄱ, ㄴ, ㄷ, ㄹ, ㅁ, ㅂ, ㅅ, ㅈ’은 어말 또는 자음 앞에서 각각 [ㄱ, ㄴ, ㄷ, ㄹ, ㅁ, ㅂ, ㅅ, ㅈ]으로 발음한다. ㉡
 - 이 후에는 다음과 같이 발음한다.
 - [ㄱ, ㄴ]은 ‘ㄴ, ㄹ’ 앞에서 각각 [ㅇ, ㄴ]으로 발음한다. ㉢
 - [ㄱ, ㄴ] 뒤에 연결되는 ‘ㄱ, ㄷ, ㄹ, ㅅ, ㅈ’은 각각 [ㄱ, ㄷ, ㄹ, ㅅ, ㅈ]으로 발음한다. ㉣
 - [ㄱ, ㄴ]은 ‘ㅎ’과 결합되는 경우, 두 음을 합쳐서 각각 [ㅋ, ㆁ]으로 발음한다. ㉤

	예	적용 내용	발음
①	여덟+이	㉠	[여더리]
②	몹+을	㉠	[목슬]
③	흙+만	㉡, ㉢	[흑만]
④	값+까지	㉡, ㉣	[갑까지]
⑤	답+하고	㉡, ㉤	[다카고]

12. <보기>는 한글 맞춤법 제1항이 파생어와 합성어에 적용된 예를 찾아본 것이다. ㉠~㉣에 들어갈 예로 적절한 것은?

<보 기>

제1항 한글 맞춤법은 표준어를 ㉠ 소리대로 적되, ㉡ 어법에 맞도록 함을 원칙으로 한다.

	파생어	합성어
㉠만 충족한 경우	㉠	㉡
㉡만 충족한 경우	㉢	㉣
㉠, ㉡ 모두 충족한 경우	㉤	줄자(줄+자), 눈물(눈+물)

- ① ㉠: 이파리(잎+아리), 얼음(얼+음)
- ② ㉡: 마소(말+소), 낮잠(낮+잠)
- ③ ㉢: 웃음(웃+음), 바가지(박+아지)
- ④ ㉣: 옷소매(옷+소매), 밥알(밥+알)
- ⑤ ㉤: 꿈(꾸+口), 사랑니(사랑+이)

13. <보기>의 ㉠~㉣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 기>

(엄마와 아들이 둘이서 걸어가며)

아들: 엄마, 올해 마지막 날 엄마와 쇼핑 나와서 참 좋아요.

엄마: ㉠ 엄마도 영수랑 같이 나오니까 참 좋다.

아들: 어, 저거 뭐지? 엄마, 저 옷 가게 광고판 좀 보세요.

엄마: 뭐? ㉡ 저거?

아들: 네, ㉢ 저거요. ‘2015년 12월 30일, ㉣ 오늘 하루만 50% 할인’이라고 쓰여 있는데요.

엄마: 그래? 그러면 ㉤ 어제였네. ㉥ 누나 옷 사야 되는데.

아들: 엄마, 그 옆 가게는 오늘까지 할인하는데요. 그런데 제 옷도 사 주시면 안 돼요?

엄마: 그래. 알았어, ㉦ 우리 아들. ㉧ 영수도 옷 사 줘야지.

아들: 와, 잘됐다. 다음 주 여행 갈 때 입고 가야겠다.

- ① ㉠과 ㉥은 청자의 관점에서 사용한 지칭어이다.
- ② ㉠과 ㉦은 현재의 담화 상황에 참여하고 있는 사람을 가리킨다.
- ③ ㉡과 ㉢은 동일한 대상을 가리킨다.
- ④ ㉢과 ㉤은 동일한 날을 가리킨다.
- ⑤ ㉤과 ㉧은 화자와 청자를 제외한 제삼자를 가리킨다.

14. 다음은 ‘사전 활용하기’ 학습 활동을 위한 자료이다. 이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같이[가치]

① ㉠

① 둘 이상의 사람이나 사물이 함께.
 ㉡친구와 같이 사업을 하다

② 어떤 상황이나 행동 따위와 다름이 없이.
 ㉢예상한 바와 같이 주가가 크게 떨어졌다.

② ㉢

① ‘앞말이 보이는 전형적인 어떤 특징처럼’의 뜻을 나타내는 격 조사.
 ㉣얼음장같이 차가운 방바닥

② 앞말이 나타내는 그때를 강조하는 격 조사.
 ㉤새벽같이 떠나다

같이-하다[가치-] ㉦ 【(…과)…을】

① 경험이나 생활 따위를 얼마 동안 더불어 하다.
 =함께하다①.
 ㉡친구와 침식을 같이하다/평생을 같이한 부부

② 서로 어떤 뜻이나 행동 따위를 동일하게 가지다.
 =함께하다②.
 ㉢그와 의견을 같이하다/견해를 같이하다

- ① ‘같이’의 품사 정보와 뜻을 보니, ‘같이’는 부사로도 쓰이고 부사격 조사로도 쓰이는 말로군.
- ② ‘같이’의 뜻풀이와 용례를 보니, ‘같이㉡①’의 용례로 ‘매일같이 지하철을 타다’를 추가할 수 있겠군.
- ③ ‘같이’와 ‘같이하다’의 표제어 및 뜻풀이를 보니, ‘같이하다’는 ‘같이’에 ‘하다’가 결합한 복합어로군.
- ④ ‘같이하다’의 문형 정보 및 용례를 보니, ‘같이하다’는 두 자리 서술어로도 쓰일 수 있고, 세 자리 서술어로도 쓰일 수 있군.
- ⑤ ‘같이하다’의 뜻풀이와 용례를 보니, ‘평생을 같이한 부부’의 ‘같이한’은 ‘함께한’으로 교체하여 쓸 수 있겠군.

15. 다음 중 문법적으로 가장 정확한 문장은?

- ① 그는 자기가 창안한 사회 이론을 더욱 발전해 사회 문제의 해결에 기여하고자 하였다.
- ② 참관인 자격으로 회의에 참석한 두 사람은 눈짓을 주고받은 후 조용히 회의장을 빠져나갔다.
- ③ 유럽은 18세기 후반부터 약 100년 동안 생산 기술의 발달과 그에 따라 사회 조직의 큰 변화를 겪었다.
- ④ 이 책의 저자가 독자에게 말하려는 요점은 모름지기 사람은 남을 위하여 자기를 희생할 줄도 알아야 한다.
- ⑤ 그의 작품들은 엇비슷해서 학생들이 작품 이름의 혼동이나 각 작품의 이야기 줄거리를 잘 기억하지 못했다.

16. <보기>를 바탕으로 중세 국어의 특징을 탐구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 기〉

王(왕)이 니르샤디 大師(대사) ㉠ 혼산 일 아니면 뉘 혼 거시
잇고 ㉡ 仙人(선인)이 솔보디 大王(대왕)하 이 ㉢ 南堀(남굴)스
仙人(선인)이 혼 썩를 길어 내니 양지 端正(단정)하야
㉣ 世間(세간)애 ㉤ 쉽디 몬흐니 그 썩 흐닐 ㉥ 時節(시절)에
자취마다 ㉦ 蓮花(연화)ㅣ 나느니이다

- 「석보상절」 -

[현대어 풀이]

왕이 이르시되 “대사 하신 일 아니면 누가 한 것입니까?”
선인이 아뢰되 “대왕이시여, 이 남굴의 선인이 한 딸을 길러
내니 모습이 단정하여 세상에 (모습을 드러내기가) 쉽지 못하니
그 딸 움직일 시절에 자취마다 연꽃이 납니다.”

- ① ㉠에서는 주체인 ‘대사’를 높이기 위한 선어말 어미가 쓰였군.
- ② ㉡의 ‘이’와 ㉢의 ‘ㅣ’는 격 조사의 종류가 달라서 서로 다른 형태로 나타난 것이군.
- ③ ㉣을 보니 ‘스’는 현대 국어의 ‘의’에 해당하는 관형격 조사로 쓰였군.
- ④ ㉤과 ㉥을 보니 모음 조화에 따라 형태를 달리하는 부사격 조사가 있었군.
- ⑤ ㉦과 현대 국어의 ‘쉽지’를 비교해 보니 ‘-디’에서는 구개음화가 확인되지 않는군.

[17~20]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우리 삶에서 운이 작용해서 결과가 달라지는 일은 흔하다. 그러나 외적으로 드러나는 행위에 초점을 맞추는 ‘의무 윤리’든 행위의 ㉠ 기반이 되는 성품에 초점을 맞추는 ‘덕의 윤리’든, 도덕의 문제를 다루는 철학자들은 도덕적 평가가 운에 따라 달라져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 이들의 생각처럼 도덕적 평가는 스스로가 통제할 수 있는 것에 대해서만 이루어져야 한다. 운은 자신의 의지에 따라 통제할 수 없어서, 운에 따라 누구는 도덕적 이게 되고 누구는 아니게 되는 일은 공평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런데 ㉡ 어떤 철학자들은 운에 따라 도덕적 평가가 달라지는 일이 실제로 일어난다고 주장하고, 그런 운을 ‘도덕적 운’이라고 부른다. 그들에 따르면 세 가지 종류의 도덕적 운이 ㉢ 거론된다. 첫째는 태생적 운이다. 우리의 행위는 성품에 의해 결정되며 이런 성품은 태어날 때 이미 결정되므로, 성품처럼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요인이 도덕적 평가에 ㉣ 개입되는 불공평한 일이 일어난다는 것이다.

둘째는 상황적 운이다. 똑같은 성품이더라도 어떤 상황에 처하느냐에 따라 그 성품이 발현되기도 하고 안 되기도 한다는 것이다. 가령 남의 것을 탐내는 성품을 똑같이 가졌는데 결핍된 상황에 처한 사람은 그 성품이 발현되는 반면에 풍족한 상황에 처한 사람은 그렇지 않다면, 전자만 비난하는 것은 공평하지 못하다는 것이다. 어떤 상황에 처하느냐는 통제할 수 없는 요인이기 때문이다.

셋째는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결과에 의해 도덕적 평가가 좌우되는 결과적 운이다. 어떤 화가가 자신의 예술적 이상을 달성하기 위해 가족을 버리고 멀리 떠났다고 해 보자. 이 경우 그가 화가로서 성공했을 때보다 실패했을 때 그의 무책임함을 더 비난하는 것을 ‘상식’으로 받아들이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도덕적 운을 인정하는 철학자들은 그가 가족을 버릴 당시에는 예측할 수 없었던 결과에 의해 그의 행위를 달리 평가하는 것 역시 불공평하다고 생각한다.

그들의 주장에 따라 도덕적 운의 존재를 인정하면 불공평한 평가만 할 수 있을 뿐인데, 이는 결국 도덕적 평가 자체가 불가능 해짐을 의미한다. ㉤ 도덕적 평가가 불가능한 대상은 강제나 무지와 같이 스스로가 통제할 수 없는 요인에 의해 결정되는 것에만 국한되어야 한다. 그런데 도덕적 운의 존재를 인정하면 그동안 도덕적 평가의 대상이었던 성품이나 행위에 대해 도덕적 평가를 내릴 수 없는 난점에 직면하게 되는 것이다.

하지만 관점을 바꾸어 도덕적 운의 존재를 부정하고 도덕적 평가가 불가능한 경우를 강제나 무지에 의한 행위에 ㉥ 국한한다면 이와 같은 난점에서 벗어날 수 있다. 도덕적 운의 존재를 부정하기 위해서는 도덕적 운이라고 생각되는 예들이 실제로는 도덕적 운이 아님을 보여 주면 된다. 우선 행위는 성품과는 별개의 것이므로 태생적 운의 존재가 부정된다. 또한 나쁜 상황에서 나쁜 행위를 할 것이라는 추측만으로 어떤 사람을 ㉦ 편하하는 일은 정당하지 못하므로 상황적 운의 존재도 부정된다. 끝으로 어떤 화가가 결과적으로 성공을 했든 안 했든 무책임함에 대해서는 똑같이 비난받아야 하므로 결과적 운의 존재도 부정된다. 실패한 화가를 더 비난하는 ‘상식’이 통용되는 것은 화가의 무책임한 행위가 그가 실패했을 때보다 성공했을 때 덜 부각 되기 때문이다.

17. ㉠과 글쓴이의 견해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과 달리 글쓴이는 도덕적 평가는 ‘상식’을 존중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 ② ㉡은 글쓴이와 달리 운은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 ③ ㉢과 글쓴이는 모두 같은 성품을 가진 사람은 같은 행위를 한다고 생각한다.
- ④ ㉣과 글쓴이는 모두 도덕의 영역에서는 운에 따라 도덕적 평가가 달라지는 일은 없다고 생각한다.
- ⑤ ㉤과 글쓴이는 모두 도덕적 운의 존재를 인정하는 것은 도덕적 평가를 불공평하게 만든다고 생각한다.

[1 ~ 3] 다음은 토의의 일부이다. 물음에 답하시오.

사회자: 지금까지 ○○동 마을 도서관의 운영과 관련된 문제점을 알아보았습니다. 도서관 이용자가 대부분 학생들로 한정되어 있다는 점을 지적해 주셨습니다. ㉠ 그럼 이 문제의 원인과 해결 방안에 대해 이야기를 나눠 보겠습니다. 먼저 김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세요.

김 교수: 마을 도서관 이용자가 다양하지 않은 이유는 마을 도서관의 기능이 장서 열람과 개인 학습 공간으로 제한되어 있고 운영 시간도 짧기 때문입 [A]
니다. 따라서 다양한 주민들이 더 많이 사용할 수 있도록 도서관의 기능을 다양화하고 운영 시간도 연장해야 한다고 봅니다.

사회자: ㉡ 도서관의 기능을 다양화해야 한다고 하셨는데, 어떤 사례가 있을까요?

김 교수: □□ 마을 도서관은 다양한 교양 강좌 프로그램 등 평생 학습 공간으로서의 기능을 강화하여 큰 호응을 얻었습니다. ◇◇ 마을 도서관에서는 지역 [B]
의 생활 정보가 모이고 교류되는 장으로 도서관을 발전시켜 가고 있습니다.

사회자: ㉢ 제가 아는 어느 마을 도서관에서는 마을 주민들이 만든 미술 작품을 도서관에 전시할 수 있도록 공간을 제공해 주더라고요. 그럼 도서관장님의 말씀도 들어 보겠습니다.

도서관장: 저도 김 교수님의 말씀에 동감합니다. 하지만 제한된 예산으로 도서관의 기능을 다양화하는 것은 지금 당장 실행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도서관 운영 시간을 연장하는 방안을 먼저 검토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도서관 운영 시간이 오후 6시까지인데, 운영 시간을 10시까 [C]
지로 연장해 달라는 민원이 많았습니다. 도서관 운영 시간을 연장하면 늦게 퇴근하는 주민들도 도서관을 이용할 수 있어서 더 많은 주민들이 도서관을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사회자: ㉣ 도서관장님께서서는 김 교수님의 말씀에 동의하지만, 실현 가능성이 더 있는 도서관 운영 시간 연장부터 검토하겠다는 말씀이지요? 청중의 질의가 들어왔습니다.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청중: 김 교수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마을 도서관에서 어린이나 노인들처럼 특정 연령층을 고려한 프로그램 [D]
을 운영한 사례들도 있나요?

김 교수: △△ 마을 도서관에서는 노인들이 취미 생활을 즐길 수 있는 노인 전용 사랑방과 미취학 어린이들이 어머니들과 함께 놀이를 즐기면서 책을 [E]
볼 수 있는 어린이 전용 열람실을 갖추고 있습니다.

사회자: ㉤ 여건이 된다면 우리 ○○동 마을 도서관에서도 추진해 볼 만한 사례라는 생각이 드네요. 도서관장님의 말씀과 관련해서 좀 더 논의하겠습니다. 도서관 직원

을 대표해서 나와 주신 분 말씀해 주시죠.

직원 대표: 저는 ○○동 마을 도서관의 직원 대표입니다. 도서관 운영 시간을 연장할 필요성에 대해서는 저희도 충분히 공감합니다. 하지만 주민들의 요구대로 4시간이나 근무 시간을 연장하는 것은 직원들의 피로감을 고려했을 때 무리가 있습니다. 또 늦은 시간에 퇴근을 하게 되면 대중교통을 이용하기가 어려운 점도 문제입니다. 이에 대한 도서관장님의 생각이 어떠신지요?

도서관장: 연장해야 할 근무 시간을 확정해 놓은 것이 아니므로 근무 시간은 조정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원활한 도서관 운영을 전제로, 연장 근무를 하는 방식을 조정할 수도 있습니다.

(하락)

1. ㉠ ~ ㉤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 지금까지 논의한 내용과 관련해 논의해야 할 사안을 안내하고 있다.
- ② ㉡: 토의 참여자의 발화 내용 중 일부 내용과 관련된 추가 정보를 요청하고 있다.
- ③ ㉢: 토의 참여자의 발화 내용에 자신이 알고 있는 사례를 덧붙이고 있다.
- ④ ㉣: 토의 참여자가 발화한 내용을 질문의 형식으로 확인하고 있다.
- ⑤ ㉤: 토의 참여자가 제시한 방안을 실천하는 데 우려되는 점을 언급하고 있다.

2. [A] ~ [E]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A]: '사회자'의 요청에 따라 문제의 원인과 해결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 ② [B]: '사회자'의 요청에 따라 해결 방안에 해당하는 사례를 소개하고 있다.
- ③ [C]: 현실적인 여건을 고려하여, '김 교수'가 제시한 방안 중 일부를 검토하고 있음을 밝히고 있다.
- ④ [D]: '김 교수'의 발언을 듣고 추가적으로 알고 싶은 사례의 제시를 요청하고 있다.
- ⑤ [E]: 사례를 든 후, 청중이 제기한 문제점을 보완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3. 토의 내용을 바탕으로 다음과 같이 선생님이 제시한 학습 활동을 수행한 결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선생님: ‘○○동 마을 도서관’의 운영 시간 연장을 쟁점으로 ‘도서관장’과 ‘도서관 직원 대표’가 협상을 진행한다고 할 때, 양측 대표가 제시할 내용을 구상해 보세요. 협상 참여자들은 자신의 요구를 관철하기 위한 방안들을 제시하거나, 상대방의 요구를 수용하는 데 필요한 조건들을 제시하면서 협상을 진행하게 됩니다.

협상 참여자	협상에서 제시할 내용
도서관장	근무 시간을 2시간만 연장하는 방안을 제시한다. ㉠
	연장 근무를 격일제로 돌아가며 분담하는 방안을 제시한다. ㉡
	퇴근 시 교통의 편의를 위한 교통 수단 지급 방안을 제시한다. ㉢
직원 대표	연장 근무를 수용하는 조건으로 도서 대출 기간의 축소를 요구한다. ㉣
	늘어난 운영 시간에는 주민 자원 봉사자의 협조를 받는 방안을 검토해 줄 것을 요구한다. ㉤

① ㉠ ② ㉡ ③ ㉢ ④ ㉣ ⑤ ㉤

- [4~5] 다음은 학생이 수업 시간에 한 발표이다. 물음에 답하시오.

여러분, ‘드론 촬영’에 대해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반응을 살핀 후) 네, 생각보다 아는 분이 적군요. 드론은 무선 전파로 조종할 수 있는 무인항공기로, (실물 드론을 보여 주며) 촬영에는 이런 드론이 사용되는데, 보시다시피 프로펠러가 여러 개여서 ‘멀티콥터’ 혹은 ‘쿼드콥터’라고도 불립니다. 드론은 본래 군사용으로 개발되었지만, 현재는 여러 분야에서 널리 사용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드론 촬영에 대해 아는 분이 많지 않은 것 같아 이번 시간에는 드론 촬영이 무엇이고 어떤 특징을 지니고 있는지에 대해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항공 촬영이 무엇인지는 알고 계시죠? (대답을 듣고) 네, 대부분 알고 계신 듯하니 그 부분은 따로 설명 드리지 않고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드론 촬영은 카메라를 장착한 드론을 무선 조종하여 촬영하는 것으로 일반 항공 촬영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둘을 좀 더 자세히 비교해 보자면, 우선 드론은 헬기에 비해 훨씬 낮은 고도에서 비행이 가능한 데다 소음으로 인한 제약이 적어 근접 촬영이 가능합니다. 화면을 잠깐 보시죠. (두 개의 영상을 보여 준 후) 앞엿것은 일반 항공 촬영 영상이고, 뒤엿것이 바로 드론 촬영 영상입니다. 두 영상의 차이가 느껴지시나요? (대답을 듣고) 네, 말씀하신 대로 드론

촬영 영상이 일반 항공 촬영 영상에 비해 피사체 가까워서 찍은 역동적이고 다채로운 화면을 보여 주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앞서 보여 준 드론을 잠시 작동시킨 후) 또 이처럼 실내 촬영도 가능하지요.

드론 촬영의 또 다른 장점으로 비행 절차의 간편성을 들 수 있습니다. 그 때문에 사고 현장과 같이 신속하게 촬영해야 하는 상황에서 뛰어난 기동력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또한 헬기 등 유인 항공 촬영을 위해서는 고도로 훈련된 조종사와 많은 비용이 필요하지만, 드론 촬영은 상대적으로 조종 기술을 익히기가 쉽고 비용이 적게 들어 최근 방송이나 영화 등에서 활발히 사용되고 있습니다. 올해 입학식 때 보여 주었던 학교 소개 영상 기억하시나요? 학교를 상공에서 촬영하여 멋진 모습을 보여 주었는데, 그것도 드론으로 촬영한 영상이었답니다.

지금까지 드론 촬영의 장점을 중심으로 드론 촬영에 대해 말씀 드렸습니다. 앞으로 방송이나 영화 등을 보실 때 오늘 들은 발표 내용을 떠올리면서 드론 촬영 영상을 확인해 보시면 방송이나 영화를 더 잘 즐기실 수 있을 것입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4. 위 발표 내용으로 보아, 발표를 위해 학생이 고려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실물 자료를 제시하여 청중의 관심을 유발한다.
 ② 영상 매체를 활용하여 관련 정보를 생생하게 전달한다.
 ③ 장점과 함께 문제점도 제시하여 균형 있는 발표가 되도록 한다.
 ④ 청중이 공유하는 경험을 환기하여 발표 내용의 이해를 돕는다.
 ⑤ 질문을 던져 사전 지식을 확인하고 그에 따라 발표 내용을 조절한다.

5. 위 발표에 대한 청중의 평가로 적절한 것은?

- ① 드론 촬영 기술과 관련된 과학적 원리를 설명해 주어서 발표 내용을 이해하기 쉬웠어.
 ② 드론 촬영과 일반 항공 촬영과의 차이를 분명히 드러내어 중심 내용이 부각되었군.
 ③ 드론 촬영과 관련된 정보의 출처를 구체적으로 밝혀서 발표 내용에 믿음이 갔어.
 ④ 드론과 관련된 다양한 산업 분야를 알려주어 진로 선택에 도움이 되었어.
 ⑤ 드론 촬영의 절차를 순서대로 상세하게 안내하여 이해도를 높였군.

[6~8]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글의 조직 계획]

- 처음
 - 공유경제의 개념㉠
 - 공유경제의 출현과 확산 배경㉡
- 중간
 - 공유경제의 목적㉢
 - 공유경제의 대표적 유형㉣
 - 공유경제 출현 이전과 이후의 차이점
 - 공유경제에서 공유가 이루어지는 과정㉤
- 끝
 - 공유경제의 장점과 긍정적 전망

[초 고]

최근 신문의 경제면에 자주 등장하는 용어 중 하나인 ‘공유경제’란 개인이나 단체 소유의 다양한 자원을 다른 사람들이 함께 사용할 수 있도록 개방하는 것을 말한다. 경제 침체가 오래 지속되면서, ㉠ 지나친 과잉 생산과 과소비를 자제하고 물건을 여럿이 공유해서 사용하려는 움직임이 생겨났다. 이는 스마트폰의 발달 및 사회관계망서비스(SNS)의 확산과 같은, 언제 어디서나 정보와 지식을 교환할 수 있게 해 주는 기술의 발달과 맞물려 널리 확산되었다.

이러한 공유경제의 목적은 공유와 협력을 통해 물건에 대한 접근권을 ㉡ 확보함으로써 공동의 이익을 창출하는 데 있다. 공유경제의 출현 이전에는 어떤 물건을 사용하려면 그에 대한 독점적 소유권이 필요했고, 이를 위해 많은 비용을 지불해야 했다. ㉢ 그리고 공유경제의 출현으로 사람들은 더 적은 비용을 들고고도 필요한 만큼만 그 물건을 사용할 수 있게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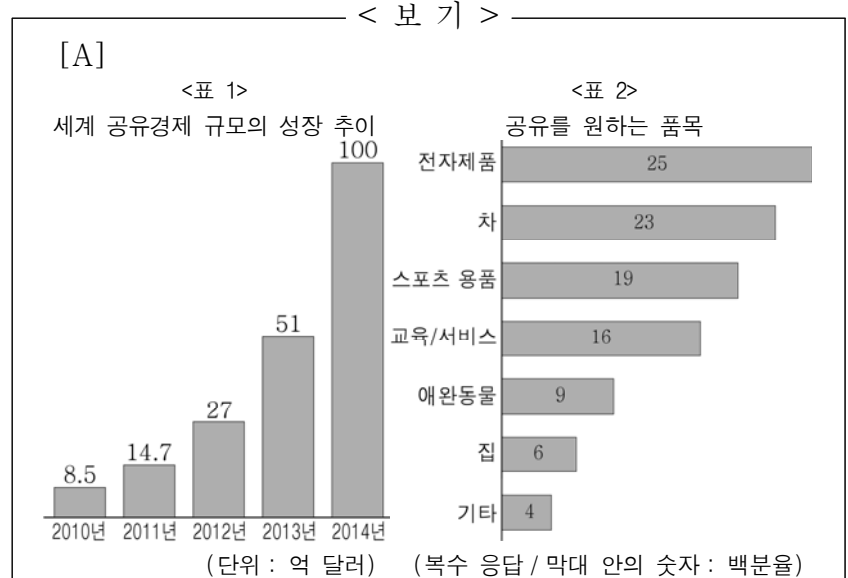
그렇다면 공유경제에서 공유는 어떤 과정으로 이루어질까? 우선 공유할 물건이 있어야 한다. 자주 쓰지 않는 악기, 매일 사용하지는 않는 사무실 등이 공유의 대상으로 활용되는데, 공유할 수 있는 물건의 범위가 점차 늘어나는 추세이다. ㉣ 사생활 침해로 인한 사회문제가 심각해지면서 SNS를 꺼리는 경우가 많다. 다음은 이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과의 연결로, 이 연결은 주로 SNS나 공유경제 업체를 통해 이루어진다. 이렇게 SNS나 업체에 의해 서로 ㉤ 연결한 사람들끼리 비용이 합의되면 공유가 이루어진다.

공유경제는 공동의 이익 추구를 가능하게 한다. 가까운 미래에 공유경제는 주도적인 경제 체제로 사람들의 삶에 큰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인다.

6. ‘글의 조직 계획’의 ㉠~㉤ 중 ‘초고’에 반영되지 않은 것은?

- ① ㉠ ② ㉡ ③ ㉢ ④ ㉣ ⑤ ㉤

7. <보기>의 자료를 활용하여 ‘초고’를 수정·보완하고자 할 때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B] 신문 기사

체력 단련을 위해 고가의 운동 기구를 구입한 ◇◇◇씨. 하지만 ◇◇◇씨는 이 기구만 보면 마음이 답답하다. ‘거금을 들여 구입했지만 아주 가끔씩만 쓰게 되는데, 누군가와 함께 사용하면 부담을 덜 수 있지 않을까?’

이러한 문제의식이 바로 공유경제의 출발점이다. 우리나라에서는 자동차 공유를 내건 ○○와 같은 공유경제 업체가 이미 성업 중이다. 사람들은 자동차를 구입하지 않아도 ○○를 통해 원하는 장소에 원하는 차종이 있는지를 확인한 후 원하는 시간 동안 자동차를 사용할 수 있다. 자동차를 구입하는 것보다 비용이 훨씬 덜 드는 것은 물론이다.

공유경제 전문가 △△△씨는 “공유경제는 알뜰한 소비를 촉진하고 공동체의 형성에 기여하며, 기존 자원을 활용하여 자원의 낭비를 막고 환경오염을 방지할 수 있다.”라고 밝히면서, 공유경제에 대한 사람들의 관심과 참여를 촉구했다.

- ① [A]의 <표 1>을 활용하여 첫 번째 문단에서 공유경제가 널리 확산되고 있다는 내용을 구체화한다.
- ② [B]에 제시된 ‘신문 기사’의 도입부를 활용하여 두 번째 문단에서 공유경제 출현 이전의 상황에 대한 사례로 언급한다.
- ③ [A]의 <표 2>를 활용하여 세 번째 문단에서 공유 가능한 품목의 예를 추가한다.
- ④ [B]에 제시된 자동차 공유 사례를 활용하여 세 번째 문단에서 언급한 공유경제 활동의 단계를 품목별로 세분화한다.
- ⑤ [B]에 제시된 전문가의 인터뷰를 인용하여 마지막 문단에서 언급한 공유경제의 장점과 관련된 내용을 구체화한다.

8. ㉠~㉤를 고쳐 쓰기 위한 방안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 : 의미의 중복을 피하기 위해 ‘지나친’을 삭제한다.
- ② ㉡ : 조사의 사용이 잘못되었으므로 ‘확보함으로써’로 고친다.
- ③ ㉢ : 앞뒤 내용을 고려하여 ‘그러나’로 고친다.
- ④ ㉣ : 글 전체의 통일성을 고려하여 삭제한다.
- ⑤ ㉤ : 문장 성분 간의 호응을 고려하여 ‘연결된’으로 고친다.

[9~10] 다음은 학생이 쓴 글의 초고이다. 물음에 답하시오.

햇볕이 따뜻한 아침, 도서관으로 향하는 길이었다. 좁은 골목길에서 아버지와 아들이 걸어가는 모습을 보았다. 아들이 아버지를 배웅 나온 모양이었다. 날이 춥지도 않은데 아버지의 커다란 장갑이 아들의 손에 끼어져 있었다. 혹여나 춥지 않을까 장갑을 벗어 준 아버지의 마음을 떠올리니 나의 마음도 따뜻해졌다. 그러다 나는 아버지와 아들이 걸어가는 뒤로 생긴 그림자를 보게 되었다. 아버지의 그림자가 유난히 커 보였다. ‘아버지가 짊어지는 생활의 무게가 참 크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

그 순간, 나와 아버지의 모습이 떠올랐다. 나는 배웅은커녕 아침 인사도 거를 때가 많았다. 오늘 아침에는 아버지께서 식탁에서 신문을 보고 계셨는데, 아버지의 돋보기안경이 유난히 두꺼워 보였다. 나를 키우시느라 아버지께서는 자신은 제대로 챙기지도 못하시며 젊음을 다 보내신 것이다. 아버지의 돋보기안경이 아버지의 희생의 흔적인 것 같아 마음이 아팠다.

나는 갑작스레 아버지의 목소리가 듣고 싶어졌다. 신호가 몇 번이나 울렸는데도 아버지께서는 전화를 받지 않으셨다. 북적거리는 지하철에서 전화 벨소리도 듣지 못하고 계시나 보다. 아버지는 집과 직장을 오가는 지하철을 얼마나 타셨던 걸까. 아버지께서 오랜 세월 우리를 위해 힘든 출근길을 마다하지 않으셨다는 생각이 드니 가슴이 뭉클해졌다. 그래서 나는 아버지께 내 마음을 담아 문자 메시지를 보냈다.

9. 학생이 초고를 쓰는 과정에서 소재로부터 떠올린 생각 중, 초고에 반영되지 않은 것은?

	〈소재〉	→	〈떠올린 생각〉
①	장갑	→	자식을 걱정하는 아버지의 따뜻한 마음
②	그림자	→	아버지로서 짊어져야 하는 삶의 무게
③	신문	→	가정과 사회에서 아버지가 맡고 있는 역할
④	돋보기안경	→	나를 위해 희생하며 사신 아버지의 삶
⑤	지하철	→	힘겹게 출근길을 오가시는 아버지의 고단한 삶

10. 다음은 학생이 초고를 쓰고 스스로 점검한 내용이다. 초고의 마지막에 추가할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초고의 끝 부분이 완결되지 않은 것 같아. 아버지께 보낸 문자 메시지의 내용을 보니, 나를 위해 헌신하신 아버지의 모습을 비유적으로 표현하여 아버지께 감사한 마음을 잘 드러내고 있는 것 같아. 이 문자 메시지를 글에 넣어 주는 것도 좋겠어.

- ① “아버지께서 물려주신 마음의 재산을 소중하게 잘 지킬게요. 늘 다른 사람을 배려하며 살겠습니다.”라고.
- ② “제게 아버지는 어두운 바다의 등대 같은 존재입니다. 제가 나아갈 길을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 ③ “어린 시절 아버지와 추억이 저에게는 가장 소중해요. 아버지께서 주신 사랑을 잊지 않고 보답하겠습니다.”라고.
- ④ “아버지로부터 성실한 삶의 가치에 대해 배웠습니다. 오늘도 감사하는 마음으로 주어진 일을 열심히 해 나갈게요.”라고.
- ⑤ “제게 아버지는 바람을 막아 주고 그들을 만들어 주는 나무 같은 존재입니다. 아버지께서 제게 주신 사랑에 감사합니다.”라고.

11. <보기>의 (가)~(다)에 들어갈 내용으로 적절한 것은? [3점]

선생님: 지난 시간에 배운 음운의 변동에 대해 잘 기억하는지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낫다’와 ‘낱다’가 활용될 때 공통적으로 일어나는 음운 변동은 무엇일까요?

학 생: 둘 다 음운의 (가) 현상이 일어납니다.

선생님: 맞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가끔 혼동해서 틀리곤 하지요. (가) 현상이 일어나는 용언들 가운데 불규칙 활용을 하는 것은 모두 음운 변동이 표기에 반영되는 반면, 규칙 활용을 하는 것은 표기에 반영되기도 하고 반영되지 않기도 합니다. ‘낫다’와 ‘낱다’는 다음 중 어떤 유형에 해당할까요?

표기 반영 여부 활용 유형	반영	미반영
규칙 활용	㉠	㉡
불규칙 활용	㉢	

학 생: ‘낫다’는 (나), ‘낱다’는 (다)에 해당됩니다.

- | | | | |
|---|-----|-----|-----|
| | (가) | (나) | (다) |
| ① | 축약 | ㉠ | ㉢ |
| ② | 탈락 | ㉡ | ㉠ |
| ③ | 탈락 | ㉢ | ㉡ |
| ④ | 교체 | ㉡ | ㉢ |
| ⑤ | 교체 | ㉢ | ㉡ |

12. 밑줄 친 말 가운데 <보기>의 [A]의 사례로 추가하기에 적절하지 않은 것은?

< 보 기 >		
합성어의 품사는 합성어를 구성하는 어근의 품사와 관계없이 새로운 품사가 되기도 하지만, [A]일차적으로 직접 구성 성분* 분석을 했을 때 맨 끝 구성 성분의 품사에 따라 결정되는 경우가 많다. 그 사례는 아래와 같다.		
단어	직접 구성 성분 분석	단어의 품사
큰집	큰(형용사) + 집(명사)	명사
본받다	본(명사) + 받다(동사)	동사
⋮	⋮	⋮
* 직접 구성 성분: 어떤 언어 단위를 층위를 두고 분석할 때 일차적으로 분석되어 나오는 성분.		

- ① 입학했던 때가 엇그제 같은데 어느새 3학년이구나.
- ② 그는 농구는 몰라도 축구 실력만큼은 납달랐다.
- ③ 아침에 늦잠이 들어 하마터면 지각할 뻔했다.
- ④ 길을 가는데 낮선 사람이 알은척을 했다.
- ⑤ 하루빨리 여름방학이 왔으면 좋겠다.

13. <보기>를 참고할 때, 다음 중 ‘이어진문장’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 보 기 >	
‘우리는 자유와 평화를 원한다.’라는 문장은 서술어가 하나 뿐이어서 홑문장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우리는 자유를 원한다.’와 ‘우리는 평화를 원한다.’라는 두 홑문장이 결합된 이어진문장 이다. 이때의 ‘와/과’는 접속 조사로, ‘자유’와 ‘평화’를 같은 자격으로 이어준다. 한편, ‘와/과’는 ‘빠르기가 번개와 같다.’나 ‘그는 당당히 적과 맞섰다.’처럼 비교의 대상이나 행위의 상대임을 나타내는 격 조사로도 쓰이는데, 이때는 서술어가 하나이면 홑문장이 된다.	

- ① 나는 시와 소설을 좋아한다.
- ② 그녀는 집과 도서관에서 공부했다.
- ③ 고향의 산과 하늘은 예전 그대로였다.
- ④ 성난 군중이 앞문과 뒷문으로 들이닥쳤다.
- ⑤ 그 사람과 나는 오래 전부터 서로 사귀어 왔다.

14. <보기>를 바탕으로 ‘속’과 ‘안’에 대해 탐구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보 기 >	
ㄱ. 건물 {속/안}으로 들어간다. ㄴ. 한 시간 {속/안}에 돌아올게. ㄷ. 병어리 냉가슴 앓듯 혼자 {속/안}을 썩었다. ㄹ. 오랜만에 과식했더니 {속/안}이 더부룩하다. 외국에 살아도 우리나라 {속/안}의 일을 훤히 안다. ㅁ. 걸으려는 태연한 척하지만 속 으로는 겁을 먹었다. 어제는 바깥에 나가지 않고 온종일 집 안 에 있었다. * 는 부자연스러운 쓰임	

- ① ㄱ을 보니 ‘속’과 ‘안’은 ‘사물이나 영역의 내부’라는 공통 의미를 지닌 유의어로군.
- ② ㄴ을 보니 ‘속’과 달리 ‘안’은 시간적 범위를 한정할 때 쓰이는군.
- ③ ㄷ을 보니 ‘안’과 달리 ‘속’은 관용구에 사용되어 사람의 마음을 가리킬 때 쓰이는군.
- ④ ㄹ을 보니 ‘속’은 추상적인 대상, ‘안’은 구체적인 대상의 내부를 가리키는군.
- ⑤ ㅁ을 보니 ‘속’은 ‘걸’, ‘안’은 ‘바깥’과 각각 반의 관계에 있군.

15. <보기>는 문법적으로 바르지 않은 문장 유형 중 일부이다. <보기>의 어느 경우에도 해당하지 않는 것은?

< 보 기 >	
○ 높임 표현이 적절하게 사용되지 않은 경우 ○ 연결어미가 의미에 맞게 사용되지 않은 경우 ○ 피동 표현이 중복되어 과도한 피동이 된 경우 ○ 목적어에 대응하는 서술어가 잘못 생략된 경우	

- ① 고등학생이라면 모름지기 그 정도는 다 할 줄 안다.
- ② 예상치 못했던 결과가 나온다면 실망할 필요가 없다.
- ③ 그 복지 시설은 지금 민간에 위탁 운영되어지고 있다.
- ④ 특별한 일이 없을 때는 텔레비전이나 라디오를 듣는다.
- ⑤ 이것은 어머니가 외할머니한테 생신 선물로 드린 것이다.

국어 영역

제 1 교시

1

[1 ~ 3] 다음은 학생들의 토의이다. 물음에 답하시오.

사회자: 우리 학교는 여러 직업인들을 초청해 직업 세계를 알아보는 진로 콘서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프로그램에 대한 학생들의 만족도가 그다지 높은 편은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은 ‘진로 콘서트에 대한 학생 만족도를 높이는 방안은 무엇인가?’라는 주제로 토의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먼저 진로 콘서트의 만족도가 높지 않은 원인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생 1: 저는 진로 콘서트 프로그램을 준비할 때 학생들이 원하는 직업군에 대한 의견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다 보니 자신이 듣고 싶은 강연이 없는 학생들은 만족도가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학생 2: 물론 그런 점도 있지만, 진로 콘서트가 직업 소개에만 그치는 일방적인 강연 중심으로 이루어진다는 것도 문제입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해당 직업에 대해 깊이 있게 탐색하기 어려워 진로 콘서트에 대해 만족하지 못한 것으로 보입니다.

사회자: 네, 준비 단계에서부터 학생들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다는 문제가 있었고, 일방적인 강연 중심이어서 학생들의 만족도가 낮았다는 의견을 주셨는데요. 지금부터는 이에 대한 대안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생 1: 우선 진로 콘서트를 실시하기 전에, 학생들이 관심 있어 하는 직업군에 대한 설문 조사를 실시해서 그 결과를 강사 선정에 반영했으면 좋겠습니다.

학생 2: 제 생각에는 강연에 체험을 곁들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인근에 있는 ○○고등학교도 체험을 포함한 진로 프로그램을 진행하면서부터 학생들의 만족도가 높아졌다고 합니다.

사회자: 네, 잘 들었습니다. 지금부터, 말씀해 주신 대안을 실행했을 때 예상되는 결과를 바탕으로 각 대안을 평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학생 2: 설문 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강사 선정에 반영한다면 학생들의 만족도가 지금보다는 높아질 것 같습니다. 그런데 강사 섭외의 어려움이나 학교의 여건 등으로 인해 소수의 의견이 반영되지 못할 수도 있으므로 이런 학생들을 위한 방안도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학생 1: 저는 강연에 체험을 곁들이자는 의견이 지금의 문제를 개선하는 데 어느 정도는 기여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그 체험이 교내에서만 이루어진다면 직업을 깊이 있게 탐색하는 데는 한계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직업 현장에 찾아가 체험을 할 수 있게 하는 연계 프로그램을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회자: 좋은 의견을 제시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논의된 대로 준비 단계에서 설문 조사를 실시하고, 기존 프로그램에 체험 활동을 곁들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학교의 여건 등으로 인해 반영되기 어려운 소수 학생들의 의견을 반

영하는 방안과, 연계 프로그램 구성에 대한 세부적 방안은 [후속 토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에 대한 논의는 다음 토의 시간에 진행하고, 우리들의 의견을 종합하여 학교에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 위 토의 참여자들의 발언을 다음과 같이 분석한다고 할 때, 적절하지 않은 것은?

	학생 1	학생 2
문제 원인 분석	프로그램 준비 단계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문제의 원인을 밝히고 있다. …………… ①	프로그램이 실시되는 시기의 측면에서 문제의 원인을 제시하고 있다. …………… ②
대안 도출	프로그램 참여 학생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방법을 제안하고 있다. …………… ③	실제 사례를 근거로 기존 프로그램의 보완 방법을 제안하고 있다. …………… ④
대안 평가	‘학생 2’가 제안한 대안이 가진 한계를 언급하며 이를 보완하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 ⑤	‘학생 1’의 의견이 완전한 대안이 될 수 없음을 지적하며 보완의 필요성을 언급하고 있다.

2. 위 토의에 드러난 사회자의 역할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토의 참여자들 사이의 의견 충돌을 조정한다.
- ② 토의 참여자의 발언 내용을 요약하여 정리한다.
- ③ 다음에 토의할 내용을 안내하며 토의를 마무리한다.
- ④ 논의해야 할 내용을 제시하며 토의를 원활하게 진행한다.
- ⑤ 토의 참여자들이 논의해야 할 주제를 언급하며 토의를 시작한다.

3. <보기>는 위 토의의 [후속 토의]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수집한 자료이다. 이를 활용하여 이끌어 낼 수 있는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 보 기 〉

○○시 교육지원청은 예산 부족과 적은 참여 인원으로 인해 개별 학교 차원에서는 개설하기 어려운 학업, 적성, 진로, 봉사 등 여러 분야의 프로그램을 학교 간 연합을 통해 운영하고 있다. 그 결과 학생들의 다양한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었고, 영역별 거점 학교를 선정하여 프로그램 운영의 효율성과 전문성까지 확보할 수 있게 되었다.

- ① 학교 간 연합을 통해 참여 인원을 확보할 수 있다는 점에 주목하여 소수 의견을 반영한 프로그램 개설이 가능함을 제시해야겠어.
- ② 다양한 교육에 대한 욕구를 가진 학생들의 특성에 주목하여 학생들이 선호하는 직업군에 대한 설문 조사가 필요함을 제시해야겠어.
- ③ 학교 간 연합으로 예산 부족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점에 주목하여 연계 프로그램에서 강연의 비중을 높일 수 있음을 제시해야겠어.
- ④ 영역별 거점 학교를 선정하여 프로그램의 전문성을 구현할 수 있다는 점에 주목하여 교내에서 기존의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음을 제시해야겠어.
- ⑤ 학교 간 연합 프로그램이 봉사 분야에서도 운영될 수 있다는 점에 주목하여 진로 중심 체험 프로그램에서 봉사 중심 체험 프로그램으로 전환하는 것이 바람직함을 제시해야겠어.

[4~5] 다음은 지역 방송국의 텔레비전 방송 대담의 일부이다. 물음에 답하시오.

진행자: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최근 새로운 형태의 도서관 서비스인 ‘사람책’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이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고자 시립 도서관 관장님을 모시게 되었습니다. 관장님, 안녕하세요?

전문가: 네, 반갑습니다.

진행자: 선생님, ‘사람책’이라는 말이 저한테는 조금 생소한데요. 사람책에 대해 간단히 소개해 주시겠어요?

전문가: 여러분들은 사람책에 대해 얼마나 알고 계신가요? (청중의 반응을 살피며) 모르시는 분들도 많은 것 같네요. ‘사람책’은 사람이 도서관 자료처럼 스스로 지식이나 스토리를 가진 하나의 콘텐츠가 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책을 읽어주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책 그 자체가 되는 것이죠.

진행자: 그런데 사람이 책이 된다는 것이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전문가: 네, 그럼 우리 도서관의 예를 들어볼까요? 우리 도서관에는 생활 속 법률 이야기를 들려주는 법대 교수 정○○ 씨, 자신의 경험담을 바탕으로 연애 상담을 해 주는 한○○ 씨 등 여러 사람책들이 있습니다. 이용자는 이러한 사람책과 직접 만나 자신이 필요로 하는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거죠.

진행자: 말씀을 듣고 보니 꼭 해당 분야의 전문가만 사람책이 될 수 있는 건 아닌가 보네요.

전문가: 네, 그렇습니다. 도서관의 심사를 거쳐야 하긴 하지만, 일종의 재능기부 형식으로 누군가에게 자신의 경험이나 지식을 전하고 싶다면 누구나 사람책이 될 수 있습니다.

진행자: 그런데 사람책을 이용하는 사람들은 많이 있나요?

전문가: 네, 실제로 사람책에 대한 이용자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사람책과 활발히 상호 작용하면서 궁금증을 즉각적으로 해결할 수 있어서 이용자들의 만족도가 높기 때문입니다.

진행자: 그렇군요. 저도 사람책을 한번 이용해 보고 싶은데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전문가: 직접 도서관에 방문하거나 우리 도서관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신청하시면 됩니다. 사람책마다 신청 기간과 이용 가능한 인원이 정해져 있으니, 신청하실 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진행자: 신청 방법이 생각보다는 간단하네요. 지금까지 좋은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방청객 여러분 중에서 오늘 대담 내용 외에 사람책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청객: _____ ㉠

4. 위 대담 참여자의 의사소통 방식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진행자는 대담이 이루어지게 된 배경을 제시하며 대담을 시작하고 있다.
- ② 진행자는 전문가에게 추가 정보를 요구하는 질문을 하며 대담을 이어나가고 있다.
- ③ 진행자는 전문가의 발언 일부를 재진술하여 자신이 이해한 내용이 맞는지를 확인하고 있다.
- ④ 전문가는 사례를 바탕으로 설명하여 진행자의 이해를 돕고 있다.
- ⑤ 전문가는 중심 화제에 대한 청중의 배경지식을 묻은 후 용어의 개념을 설명하고 있다.

5. 위 대담의 내용을 고려할 때, ㉠에 들어갈 수 있는 말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사람책을 선정하는 심사 기준은 무엇인가요?
- ② 사람책 이용자의 만족도가 높은 이유는 무엇인가요?
- ③ 우리 시에 사람책을 이용할 수 있는 도서관이 또 있나요?
- ④ 사람책을 이용하는 횟수나 시간에는 어떤 제한이 있나요?
- ⑤ 우리 시의 시립 도서관이 보유한 사람책에는 또 어떤 분들이 있나요?

[6~8] 다음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 ‘우리나라 도시광산 산업의 활성화 방안’에 관한 글을 신문에 기고하고자, (가)와 같이 개요를 작성하고 (나)를 썼다.

(가) 글의 개요

서론: 도시광산 산업의 성장 배경
본론: 1. 우리나라 도시광산 산업의 실태
2. 우리나라 도시광산 산업이 활성화되지 못한 원인
3. 우리나라 도시광산 산업의 활성화 방안
결론: 도시광산 산업의 활성화에 따른 기대 효과 및 의의 [A]

(나) 글의 초고

첨단 전자제품의 원료인 천연 광물 자원은 매장량이 한정되어 있는 데 비해 그 수요는 갈수록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폐전자제품으로부터 금속을 추출하여 산업 원료로 재공급하는 도시광산 산업이 선진국을 중심으로 급속히 성장하고 있다. 자원을 재활용하는 도시광산 산업은 경제적 가치가 높고 환경친화적이어서 미래 산업의 하나로 각광받고 있다.

이런 추세에 발맞추어 많은 우리 기업들이 도시광산의 미래 가치에 주목하여 본격적으로 투자에 나서기도 했다. 그러나 최근 들어 관련 사업에서 철수하는 기업들이 늘어나는 등 우리나라는 도시광산 산업이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다.

그 원인으로는 먼저 원료가 되는 폐전자제품 확보가 어렵다는 점을 들 수 있다. 국내 폐전자제품의 발생량은 꾸준히 증가하지만 자원으로서의 폐전자제품과, 배출 방법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이 부족하여 수거율은 오히려 감소하고 있다. 또 다른 원인은 독일, 일본 등 선진국과 비교할 때 우리나라의 도시광산 기술 수준이 낮다는 점이다. 이는 그동안 도시광산 산업이 고도의 기술 기반 산업으로 인식되지 못하여 기술 개발과 이에 대한 투자가 부족했기 때문이다.

이러한 문제점들을 개선하기 위해서 정부는 폐전자제품의 경제적 가치와 배출 방법에 대해 적극적으로 홍보해야 한다. 이를 통해 국민들의 인식을 개선하고 폐전자제품의 수거율을 높이는 등 도시광산 산업의 원료를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어야 한다. 그리고 기업과 관련 단체 등은 도시광산 산업이 기술 집약적 산업임을 인식하여 기술 개발에 지속적으로 투자할 필요가 있다. 동시에 각 주체들 간 연계를 통해 전문적인 연구 시스템을 구축하여 체계적으로 기술 개발을 할 필요가 있다.

[B]

6. (가)의 ‘서론’과 ‘본론’을 구체화하여 (나)를 작성했다고 할 때, (나)에 반영되지 않은 것은?

- ① 천연 광물 자원의 매장량과 수요의 불균형을 언급하며 ‘서론’을 구체화한다.
- ② 우리나라 도시광산 산업에 투자한 외국 기업들의 손실을 언급하며 ‘본론’을 구체화한다.
- ③ 도시광산 산업의 원료 확보 측면과 기술 수준 측면에서 원인을 분석하여 ‘본론’을 구체화한다.
- ④ 도시광산 산업과 관련한 정부의 적극적인 홍보를 해결책으로 제시하여 ‘본론’을 구체화한다.
- ⑤ 도시광산 산업에 대한 관련 주체들의 인식 전환을 해결책으로 제시하여 ‘본론’을 구체화한다.

7. <보기>의 자료를 활용하여 (나)를 보완하고자 할 때,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보 기 〉

(ㄱ) 신문 기사

폐휴대전화 한 대에서 추출되는 희소금속을 금액으로 환산하면 평균 3,217원이다. 만약 이를 폐기하지 않고 도시광산 산업 원료로 활용한다면 한 해 370억 원에 달하는 희소금속을 얻을 수 있다. 그런데 일본, 유럽 등의 선진국에서는 국민 1인당 연평균 폐전자제품의 수거량이 4~6kg인 데 비해 우리나라는 2kg 정도에 그치고 있다.

— ○○신문

(ㄴ) 인터뷰 내용

“우리나라에서는 폐촉매, 폐인쇄회로와 같은 도시광산 산업의 원료 대부분이 폐기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공장 설립에도 많은 제약이 따르고, 도시광산 산업 원료를 수입할 때 관세도 물어야 해서 사업에 어려움이 많습니다.”

— 도시광산 업체 대표

(ㄷ) 연구 자료

- 도시광산 산업 선진국인 일본은 이미 수십 년 전부터 도시광산 산업 기술 개발에 지속적으로 투자함으로써 높은 수준의 기술을 보유하게 됨.
- 일본의 도시광산 금 축적량은 6,800톤으로 세계 금 매장량의 16%에 달하며 화폐 가치로 약 200조 원 규모로 추정됨.

- ① (ㄱ)을 활용하여, 도시광산 산업의 원료 확보가 어렵다는 내용을 뒷받침하는 근거로 제시한다.
- ② (ㄴ)을 활용하여, 대부분의 도시광산 산업 원료를 폐기물로 지정한 제도를 도시광산 산업이 활성화되지 못하는 원인으로 추가한다.
- ③ (ㄷ)을 활용하여, 도시광산 기술 개발에 대한 지속적인 투자가 필요하다는 내용을 뒷받침하는 근거로 제시한다.
- ④ (ㄱ)과 (ㄴ)을 활용하여, 우리나라 도시광산 기술 수준을 높이기 위해 관련 제도 개선이 필요함을 해결 방안으로 추가한다.
- ⑤ (ㄱ)과 (ㄷ)을 활용하여, 도시광산 산업이 경제적 가치를 지닌 산업이라는 내용을 뒷받침하는 근거로 제시한다.

8. (가)의 [A]에 따라 작성한 [B]의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도시광산 산업은 새로운 성장 산업으로서의 무한한 잠재력을 지니고 있다. 그러므로 도시광산 산업에 대한 관련 주체들의 적극적인 관심이 필요한 시점이다.
- ② 국가적인 차원에서 도시광산 산업에 투자하는 것은 매우 가치 있는 일이다. 따라서 우리나라도 도시광산 산업에 대한 선진국 수준의 투자가 이루어져야 한다.
- ③ 도시광산 산업이 활성화되면 폐자원으로 전력 생산이 가능해 경제적 이익을 얻을 수 있다. 그러므로 정부는 폐자원을 수거하기 위한 다양한 방법을 고민해야 할 것이다.
- ④ 관련 기관들은 도시광산 산업을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도시광산 산업 기술 개발에도 주력해야 한다. 그렇게 되면 우리나라의 도시광산 산업도 더욱 활성화되어 미래 산업으로 성장할 것이다.
- ⑤ 도시광산 산업이 활성화되면 금속 자원의 안정적인 확보가 가능하고 폐기물로 인한 환경오염도 줄일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도시광산 산업은 경제적, 환경적 측면에서 매우 중요한 산업이라 할 수 있다.

[9~10] 다음은 작문 과제에 따라 작성한 학생의 초고이다. 물음에 답하시오.

[작문 과제]

생활 속의 체험을 바탕으로 자기를 성찰하는 글을 써 보자.

[학생의 초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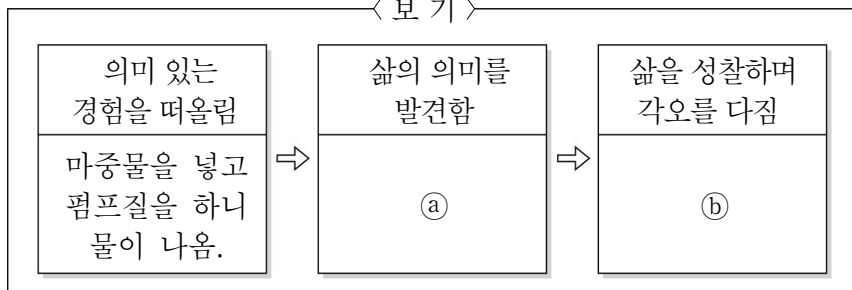
지난 여름, 친구의 할머니 댁에 간 적이 있었다. 그 곳에는 ㉠ 눈에 익지 않은 낯선 물건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 중에서 가장 인상 깊었던 것은 마당 한 쪽에 있는 오래된 펌프였다. 나는 호기심에 펌프질을 해 보았지만 아무리 애를 써도 삐걱거리는 소리만 날 뿐 물은 나오지 않았다. 그 모습을 보시던 할머니께서는, 물이 나오게 하려면 먼저 약간의 물을 펌프에 ㉡ 넣어 주어야 한다고 하시며 물 한 바가지를 담아 오셨고, 이 물을 ‘마중물’이라고 하셨다. 할머니 말씀대로 그 물을 펌프에 붓고 다시 펌프질을 하자 잠시 후 물이 팔팔 쏟아져 나왔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생각해 보니 펌프가 ㉢ 쏟아내기 위해 마중물이 필요한 것처럼 우리도 꿈을 이루기 위한 마중물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나는 그 마중물이 꿈을 이루기 위한 준비의 시간이라고 생각했다. 만약 우리가 준비의 시간 없이 미래를 맞이한다면 마중물 없는 펌프와 무엇이 다를까? 더 의미 있는 미래를 맞이하기 위한 마중. 바로 그런 준비의 시간이 우리의 인생에도 반드시 필요한 것이다.

때로는 공부하고 싶지 않을 때가 있다. 그럴 때마다 나는 텔레비전을 보며 의미 없이 시간을 보내곤 했다. ㉣ 아버지께서는 꿈을 잃지 않는 것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말씀하셨다. 하지만 지나고 나서 생각해 보면 그 시간들이 늘 후회스러웠다. 앞으로 이런 상황을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서는 ‘지금 이 순간’을 내 인생의 마중물로 여겨야겠다. 당장 목이 ㉤ 말르다고 마중물을 마셔버리면 더 많은 물을 끌어올릴 수 없듯이, 순간의 편안함만을 추구하고 지금의 시간을 그냥 흘려보낸다면 내가 원하는 멋진 미래는 결코 오지 않을 것이다. 나의 꿈을 이루기 위해 마중물과 같은 이 시간을 소중히 여기며 지금의 생활에 더욱 충실해야겠다.

9. ‘작문 과제’를 <보기>와 같은 사고 과정에 따라 수행했다고 할 때, ‘학생의 초고’에서 확인할 수 있는 ㉠과 ㉡의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보 기 〉



- ① ㉠: 우리에게도 미래를 위한 준비의 시간이 필요함.
㉡: 의미 없이 보냈던 시간을 돌아보며 현재에 충실하고자 함.
- ② ㉠: 마중물을 마셔버리면 물을 끌어올릴 수 없음.
㉡: 펌프질을 하며 지금이 내 인생의 마중물임을 깨달음.
- ③ ㉠: 준비 없이 미래를 맞이하는 것은 어려움.
㉡: 반복되는 일상을 떠올리며 인생의 마중물을 찾기로 함.
- ④ ㉠: 순간의 편안함만을 추구한 나를 돌아봄.
㉡: 할머니의 말씀을 듣고 꿈을 정하지 못한 자신을 반성함.
- ⑤ ㉠: 펌프질을 할 때는 마중물이 필요함.
㉡: 나태했던 생활을 후회하며 새로운 삶의 의지를 다짐.

10. ㉠ ~ ㉤을 고쳐 쓰기 위한 의견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 의미의 중복을 피하기 위해 ‘낯선’을 삭제해야겠어.
② ㉡: 높임의 대상을 고려하여 ‘넣어 주셔야 한다고 하며’로 고쳐야겠어.
③ ㉢: 필요한 문장 성분이 생략되어 있으므로 목적어 ‘물’을 추가해야겠어.
④ ㉣: 글의 흐름에 어긋나는 문장이므로 삭제해야겠어.
⑤ ㉤: 맞춤법에 어긋나므로 ‘마르다고’로 고쳐야겠어.

11. <보기 1>은 문법 수업의 한 장면이다. <보기 1>을 참고하여 <보기 2>를 탐구한 것으로 옳지 않은 것은? [3점]

〈보기 1〉

선생님: 표준 발음법에 대한 이해는 올바른 발음 생활뿐만 아니라 국어를 로마자로 표기하려고 할 때도 많은 도움을 줍니다. 국어의 로마자 표기는 표준 발음에 따라 적는 것을 원칙으로 하기 때문입니다.

[표준 발음법]

제13항 홀받침이나 쌍받침이 모음으로 시작된 조사나 어미, 접미사와 결합되는 경우에는, 제 음가대로 뒤 음절 첫 소리로 옮겨 발음한다.

제15항 받침 뒤에 모음 ‘ㅏ, ㅑ, ㅓ, ㅕ, ㅗ, ㅛ’들로 시작되는 실질 형태소가 연결되는 경우에는, 대표음으로 바꾸어서 뒤 음절 첫소리로 옮겨 발음한다.

제17항 받침 ‘ㄷ, ㅌ(ㅌ)’이 조사나 접미사의 모음 ‘ㅣ’와 결합되는 경우에는, [ㅈ, ㅊ]으로 바꾸어서 뒤 음절 첫소리로 옮겨 발음한다.

제18항 받침 ‘ㄱ(ㄱ, ㅋ, ㆁ), ㄷ(ㄷ, ㅌ, ㄴ), ㄹ(ㄹ, ㄴ)’은 ‘ㄴ, ㄹ’ 앞에서 [ㅇ, ㄴ, ㄹ]으로 발음한다.

제29항 합성어 및 파생어에서, 앞 단어나 접두사의 끝이 자음이고 뒤 단어나 접미사의 첫 음절이 ‘이, 야, 여, 요, 유’인 경우에는, ‘ㄴ’ 소리를 첨가하여 [니, 나, 너, 뇨, 뉴]로 발음한다.

〈보기 2〉

덧이다, 웃어른, 굳이, 집일, 색연필

- ① ‘덧이다’를 로마자로 표기하려면, 표준 발음법 제13항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겠군.
- ② ‘웃어른’을 로마자로 표기하려면, 표준 발음법 제15항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겠군.
- ③ ‘굳이’를 로마자로 표기하려면, 표준 발음법 제17항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겠군.
- ④ ‘집일’을 로마자로 표기하려면, 표준 발음법 제13항, 제18항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겠군.
- ⑤ ‘색연필’을 로마자로 표기하려면, 표준 발음법 제18항, 제29항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겠군.

12. <보기>의 한글 맞춤법 규정을 적용한 것으로 옳지 않은 것은?

〈 보 기 〉

제19항 어간에 ‘-이’나 ‘-음/-ㅁ’이 붙어서 명사로 된 것과 ‘-이’나 ‘-히’가 붙어서 부사로 된 것은 그 어간의 원형을 밝히어 적는다.㉠

[붙임] 어간에 ‘-이’나 ‘-음’ 이외의 모음으로 시작된 접미사가 붙어서 다른 품사로 바뀐 것은 그 어간의 원형을 밝히어 적지 아니한다.㉡

제20항 명사 뒤에 ‘-이’가 붙어서 된 말은 그 명사의 원형을 밝히어 적는다.㉢

[붙임] ‘-이’ 이외의 모음으로 시작된 접미사가 붙어서 된 말은 그 명사의 원형을 밝히어 적지 아니한다.㉣

제21항 명사나 혹은 용언의 어간 뒤에 자음으로 시작된 접미사가 붙어서 된 말은 그 명사나 어간의 원형을 밝히어 적는다. ...㉤

- ① ‘다듬이’로 표기하는 것은 ㉠의 규정을 적용한 것이군.
- ② ‘마개’를 ‘막에’로 표기하지 않는 것은 ㉡의 규정을 적용한 것이군.
- ③ ‘삼밭이’를 ‘삼바리’로 표기하지 않는 것은 ㉢의 규정을 적용한 것이군.
- ④ ‘귀머거리’로 표기하는 것은 ㉣의 규정을 적용한 것이군.
- ⑤ ‘덮개’로 표기하는 것은 ㉤의 규정을 적용한 것이군.

13. 다음은 ‘사전 활용하기’ 학습 활동을 위한 자료이다. 이에 대한 이해로 옳지 않은 것은?

하다01

① 「동사」 【...을】

- ① 사람이나 동물, 물체 따위가 행동이나 작용을 이루다.
 ▶ 운동을 하다./사랑을 하다.
- ② 먹을 것, 입을 것, 빨감 따위를 만들거나 장만하다.
 ▶ 나무를 하다./밥을 하다.
- ③ 표정이나 태도 따위를 짓거나 나타내다.
 ▶ 어두운 얼굴을 하다.

② 「보조동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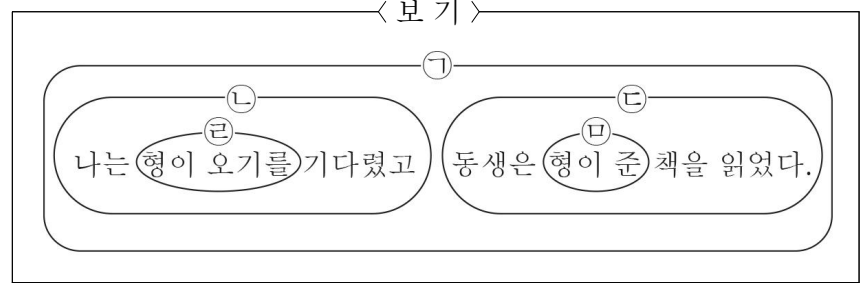
- ① (동사나 형용사 뒤에서 ‘-게 하다’ 구성으로 쓰여)앞말의 행동을 시키거나 앞말이 뜻하는 상태가 되도록 함을 나타내는 말.
 ▶ 숙제를 하게 하다./노래를 부르게 하다./몸을 청결하게 하다.

-하다02 「접사」

- ① (일부 명사 뒤에 붙어)동사를 만드는 접미사.
 ▶ 운동하다./사랑하다.
- ② (일부 명사 뒤에 붙어)형용사를 만드는 접미사.
 ▶ 건강하다./순수하다.
- ③ (의성·의태어 이외의 일부 성상 부사 뒤에 붙어)동사나 형용사를 만드는 접미사. ▶ 달리하다./빨리하다.
- ④ (몇몇 의존 명사 뒤에 붙어)동사나 형용사를 만드는 접미사.
 ▶ 체하다./척하다./듯하다.

- ① ‘하다01①’은 두 개 이상의 의미를 갖는 다의어이겠군.
- ② ‘하다01②’는 ‘하다01①’과는 달리 혼자 쓰이지 못하고 다른 용언 뒤에 붙어 사용되겠군.
- ③ ‘-하다02’는 앞 단어에 붙어 품사를 바꾸는 기능을 하겠군.
- ④ ‘하다01①②’의 용례로 ‘새 옷을 한 벌 했다.’를 추가할 수 있겠군.
- ⑤ ‘물에 빠질 뻔하다.’의 ‘뻔하다’는 ‘-하다02②’의 용례라고 할 수 있겠군.

14. <보기>의 ㉠ ~ ㉤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은, ㉡과 ㉣이 대등하게 연결된 이어진문장이다.
- ② ㉡은, ‘나는’의 서술어인 ㉢을 안고 있다.
- ③ ㉡과 ㉣은, 각각 ‘주어-서술어’의 관계가 두 번 이상 나타난다.
- ④ ㉢과 ㉣은, ‘주어-서술어’의 관계가 한 번씩만 나타난다.
- ⑤ ㉣은, ‘책’을 수식하는 관형어 역할을 하면서 ㉣에 안겨 있다.

15. <보기 1>을 바탕으로 <보기 2>의 ㉠ ~ ㉤을 이해한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기 1〉

선생님: 담화에서 화자가 자신의 의도를 직접 드러내고자 하는 상황이라면 종결 표현과 화자의 의도를 일치시켜 명시적으로 표현합니다. 반면 명령이나 요청 등과 같이 청자에게 부담을 주거나 예의에 어긋날 수 있는 상황이라면 화자의 의도와는 다른 종결 표현을 사용하거나, ‘저기’, ‘만’, ‘좀’과 같은 언어 표현을 사용하여 완곡하게 표현합니다.

〈보기 2〉

어머니: (지연을 토닥이며) ㉠ 저기, 지연아 이제 좀 일어나라.

지 연: (힘없이 일어나며) ㉡ 엄마, 선생님께 학교에 조금 늦을 거 같다고 전화해 주시겠어요?

어머니: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어디 아프니?

지 연: 네, 그런 것 같아요. 열도 좀 나고요.

어머니: ㉢ 그럼 선생님께 전화 드리고 엄마랑 병원에 가자.

지 연: 네, 그렇게 해야 할 것 같아요.

소 연: (거실에서 큰 소리로) 지연아, 학교 늦겠다. ㉣ 빨리 가라.

어머니: 소연아! ㉤ 동생이 아프다니까 조금만 작은 소리로 말해주면 참 좋겠다.

- ① ㉠: 명령의 의도를 ‘저기’, ‘좀’ 등의 언어 표현을 사용하여 표현함으로써 청자에게 부담을 주려 하지 않고 있군.
- ② ㉡: 요청의 의도를 의문형 종결 표현을 사용하여 완곡하게 표현하고 있군.
- ③ ㉢: 화자의 의도와 종결 표현을 일치시켜 청유의 의도를 직접 드러내고 있군.
- ④ ㉣: 화자의 명령에 대한 청자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화자의 의도와 종결 표현을 일치시키지 않고 있군.
- ⑤ ㉤: 명령의 의도를 평서형 종결 표현과 ‘만’과 같은 언어 표현을 사용하여 부드럽게 표현하고 있군.

제 1 교시

국어 영역

[1~2] 다음은 강연의 일부이다. 물음에 답하시오.

학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타이포그래피 디자이너 ○○○입니다. 이렇게 진로 축제에 초청받아 타이포그래피에 대해 소개하게 되어 무척 기쁩니다.

타이포그래피는 원래 인쇄술을 뜻했지만 지금은 그 영역이 확대되어 문자로 구성하는 디자인 전반을 가리킵니다. 타이포그래피에는 언어적 기능과 조형적 기능이 있는데요, 그 각각을 나누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타이포그래피의 언어적 기능은 글자 자체가 가지고 있는 의미 전달에 중점을 두는 기능을 말합니다. 의미를 정확하게 전달하기 위해서는 가독성을 높이는 일이 무엇보다 중요하지요. (화면의 ‘작품 1’을 가리키며) 이것은 여러분들도 흔히 보셨을 텐데요, 학교 앞 도로의 바닥에 적혀 있는 ‘어린이 보호구역’이라는 글자입니다. 운전자에게 주의하며 운전하라는 의미를 전달해야 하므로 이런 글자는 무엇보다도 가독성이 중요하겠지요? 그래서 이 글자들은 전체적으로 크면서도 세로로 길게 디자인하여 운전 중인 운전자에게 글자가 쉽게 인식될 수 있도록 제작한 것입니다.

이어서 타이포그래피의 조형적 기능을 살펴보겠습니다. 타이포그래피의 조형적 기능이란 글자를 재료로 삼아 구체적인 형태의 외형적 아름다움을 전달하는 기능을 말합니다. (화면의 ‘작품 2’를 가리키며) 이 작품은 ‘등’이라는 글씨의 받침 글자 ‘ㅇ’을 전구 모양으로 만들었어요. 그리고 받침 글자를 중심으로 양쪽에 사선을 그려 넣고 사선의 위쪽을 검은색으로 처리했어요. 이렇게 하니 마치 갓이 씌워져 있는 전등에서 나온 빛이 아래쪽을 환하게 밝히고 있는 그림처럼 보이지요. 이렇게 회화적 이미지를 첨가하면 외형적 아름다움뿐만 아니라 글자가 나타내는 의미까지 시각화하여 전달할 수 있습니다.

(화면의 ‘작품 3’을 가리키며) 이 작품은 ‘으’라는 글자 위아래를 뒤집어 나란히 두 개를 나열했어요. 그러니까 꼭 사람의 눈과 눈썹을 연상시키네요. 그리고 ‘ㅇ’ 안에 작은 동그라미를 세 개씩 그려 넣어서 눈이 반짝반짝 빛나고 있는 듯한 모습을 표현했습니다. 이것은 글자의 의미와는 무관하게 글자의 형태만을 활용하여 제작자의 신선한 발상을 전달하기 위한 작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작품들을 하나씩 보여 드리며 타이포그래피를 소개해 드렸는데요, 한번 정리해 봅시다. (화면에 ‘작품 1’, ‘작품 2’, ‘작품 3’을 한꺼번에 띄워 놓고) ㉠ 줌 전에 본 작품들은 타이포그래피의 어떤 기능에 중점을 둔 것일까요?

1. 위 강연자의 말하기 방식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청중과 공유했던 경험을 직접 제시하여 강연의 목적을 밝히고 있다.
 - ② 청중이 강연 내용을 신뢰할 수 있도록 객관적인 통계 자료를 활용하고 있다.
 - ③ 청중에게 구체적인 사례를 제시하고 이를 분석하면서 강연의 중심 내용을 설명하고 있다.
 - ④ 청중이 희망하는 직업들의 특징을 서로 대비함으로써 강연 내용의 활용 가치를 강조하고 있다.
 - ⑤ 청중이 던진 질문에 답변을 함으로써 강연 내용에 대한 청중의 궁금증을 해소해 주고 있다.
2. 위 강연을 고려할 때, ㉠에 대한 대답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작품 1’은 운전자가 쉽게 읽을 수 있도록 글자를 제작하였으므로 타이포그래피의 언어적 기능에 중점을 둔 것이라 할 수 있어요.
 - ② ‘작품 2’는 글자가 나타내는 의미와 상관없이 글자를 작품의 재료로만 활용하고 있으므로 타이포그래피의 조형적 기능에 중점을 둔 것이라 할 수 있어요.
 - ③ ‘작품 3’은 회화적 이미지를 활용하여 글자의 외형적 아름다움을 표현했으므로 타이포그래피의 언어적 기능에 중점을 둔 것이라 할 수 있어요.
 - ④ ‘작품 1’과 ‘작품 2’는 모두 글자의 색을 화려하게 사용하여 의미를 정확하게 전달하고 있으므로 타이포그래피의 언어적 기능에 중점을 둔 것이라 할 수 있어요.
 - ⑤ ‘작품 2’와 ‘작품 3’은 모두 글자의 외형적 아름다움을 통해 글자의 의미 전달을 돕고 있으므로 타이포그래피의 조형적 기능에 중점을 둔 것이라 할 수 있어요.

[3~5] 다음은 학생들 간의 토의이다. 물음에 답하시오.

학생 1 : 이번 모둠 과제를 하려면 먼저 『○○의 이해』를 같이 읽어야 하잖아. 내용이 많고 어려워 보이는데 시간도 많지 않아서 걱정이네. 어떻게 하면 좋을지 같이 이야기해 보자. 일단 사회는 내가 볼게.

학생 2 : 매주 정해진 분량을 각자 읽고 매주 한 명씩 돌아가면서 책의 내용에 대해 발표를 한 후 질의응답을 하는 방식이 좋겠어. 그러면 발표자는 자신이 맡은 부분의 내용을 깊이 이해할 수 있게 될 거야.

학생 3 : 그럴 경우 발표자 외의 다른 사람들은 책을 읽어야 하는 책임감이 덜할 수도 있어. 그래서 말인데, 자유 토의 방식은 어떨까? 구성원들 모두가 매주 정해진 분량의 책을 충분히 잘 읽어 와서 자유롭게 이야기를 나누는 거야.

학생 1 : ㉠ 발표와 질의응답, ㉡ 자유 토의라는 두 가지 방안이 나왔네. 그럼 어느 방안이 좋을지 말해 보자.

학생 4 : 발표와 질의응답 방식으로 하면 책을 깊이 이해할 수 있어. 친구들이 우리 눈높이에서 설명을 해 주니까 이해도 쉬울 거고, 모르는 부분이 있어도 서로 부담 없이 질문으로 해결할 수 있잖아.

학생 5 : 그런데 발표자가 내용을 잘못 이해하면 나머지 모두가 오해를 할 위험이 있어. 자유 토의 방식은 모두가 책을 꼼꼼히 읽고 서로 의견을 나누니까 책을 더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지. [A]

학생 2 : 하지만 모든 사람이 매주 정해진 분량의 책을 꼼꼼하게 다 읽어 와야 하는 것은 솔직히 부담이 돼.

학생 3 : 나는 조금 부담이 되더라도 책을 꼼꼼히 읽고 다른 사람과 자유롭게 많은 이야기를 나누고 싶어.

학생 4 : 하지만 자유 토의 방식은 중심점 역할을 하는 사람을 따로 정하지 않아서 토의가 활발히 진행되기가 쉽지 않아. 이에 반해 발표와 질의응답 방식은 발표자가 그 역할을 하면서 논의가 활발해질 수 있어.

학생 2 : 그리고 자유 토의 방식으로 할 경우, 책을 안 읽고 오는 사람이 있다면 문제가 돼. 책을 읽고 온 사람들은 활발히 참여하겠지만 안 읽고 온 사람은 소외될 수도 있어. 그러다 한두 명씩 빠지다 보면 모임이 어려워질 거야.

학생 3 : 그건 발표와 질의응답 방식도 마찬가지야. 발표자가 준비를 제대로 해 오지 않으면 모임을 할 수가 없잖아. [B]

학생 4 : 하지만 그런 상황이 생길 수도 있다는 부담감이 발표자에게 오히려 책임감을 부여하게 되지.

학생 1 : 자, 그러면 둘 중에 어느 것이 좋을지 결정해 볼까?

학생 3 : 음, 생각해 보니까 자유 토의 방식은 준비에 시간이 많이 필요할 것 같아. 다들 책 내용 모두를 이해하고 싶지만 현실적으로는 책을 꼼꼼하게 다 읽을 시간적 여유가 없을 것 같아. 안 그래?

학생 5 : 그러면 발표와 질의응답 방식이 좋겠다는 거지? 내 생각도 마찬가지야. 다들 책 읽기 모임을 처음 하는 상황이라 토의를 하는 것도 익숙하지 않을 거고.

학생 1 : 그러면 발표와 질의응답 방식으로 해 보는 게 어때? 문제점도 나타나겠지만, 그것들은 차츰 개선해 나가 보도록 하자. 모두 동의하지? [C]

학생들 : (모두 동의를 표한다.)

3. 위 토의의 맥락을 고려할 때, ㉠과 ㉡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은 모임마다 주도적인 역할을 하는 특정인이 사전에 결정된다.
- ② ㉡은 준비 과정에서 각 참여자의 역할이 같다.
- ③ ㉠과 ㉡ 모두에서는 참여자들이 의견을 상호 교환한다.
- ④ ㉠과 ㉡ 모두에서는 매주 모임에서 참여자들이 다룰 분량이 정해져 있다.
- ⑤ ㉠은 참여자들이 사전에 모여서 책을 함께 읽는 방식이고, ㉡은 책을 각자 읽는 방식이다.

4. [A], [B]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A]에서는 특정 방안의 단점을 언급한 후 다른 방안의 장점을 제시하고 있다.
- ② [A]에서는 특정 방안의 문제점을 해결할 방안을 언급한 후 다른 방안이 지닌 문제점을 말하고 있다.
- ③ [A]에서는 특정 방안의 장점을 인정한 후 다른 방안이 그 장점을 더 발전시킬 수 있음을 언급하고 있다.
- ④ [B]에서는 특정 방안의 한계를 언급한 후 그 방안의 의의를 제시하고 있다.
- ⑤ [B]에서는 특정 방안의 장단점을 언급한 후 단점을 보완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고 있다.

5. 위 토의의 흐름으로 볼 때, [C]의 의의를 가장 잘 설명한 것은? [3점]

- ① 토의에서 결정된 사항을 이행하기 위한 세부 계획을 결정하였다.
- ② 예상되는 문제점의 보완을 전제로 특정 방안을 실행하는 데에 합의하였다.
- ③ 최적화된 결과를 도출하기 위해 제삼의 방안을 절충안으로 결정하였다.
- ④ 소수 의견 존중을 전제로 특정 방안을 유연하게 실행하는 데에 합의하였다.
- ⑤ 오류 가능성을 줄이기 위해 특정 방안에 대한 전문가의 의견을 구하는 데에 합의하였다.

[6~7] (가)는 동생이 작성한 메모이고, (나)는 동생이 누나와 나눈 대화이다. 물음에 답하시오.

(가) 자기소개서 작성 계획을 구상한 메모

- 작문 상황: ○○ 향토 문화원 학생 해설 도우미에 지원
- 목적: 선발 담당자에게 나를 알림. ㉠
- 예상 독자 분석: 학생 해설 도우미 선발 담당자는 나의 학교생활이 궁금할 것임. ㉡
- 내용 생성
 - 나에게 가장 의미 있는 활동 경험 ㉢
 - 나의 성장 배경 ㉣
- 조직 방법: 경험의 목록을 나열하여 제시함. ㉤

(나) 자기소개서 작성 계획을 조정하기 위한 대화

동생: ○○ 향토 문화원에서 우리 지역의 향토 문화를 설명해 줄 학생 해설 도우미를 모집한대. 관심 있는 분야라 지원하고 싶어서 자기소개서 작성 계획을 구상해 보았는데 잘 안 돼. 이 메모를 좀 봐 줘.

누나: (메모를 확인한 후) 음, 단순히 자기를 알리는 것만으로는 목적으로서 좀 부족한 것 같아. 네가 해설 도우미 선발 담당자라면 어떤 점이 궁금할 것 같아? 단순히 학교생활을 궁금해할까?

동생: 해설 도우미를 선발해야 하는 입장이라면..... 아, 내가 해설 도우미로 적합한지가 궁금하겠지.

누나: 그럼 해설 도우미로 적합하다는 것이 무슨 뜻일까? 공고문의 내용을 잘 고려해 봐.

동생: 공고문에 따르면 고등학생을 해설 도우미로 선발해서 초등학생에게 지역의 향토 문화를 설명해 주는 활동을 하게 한대.

누나: 향토 문화를 해설하려면 향토 문화에 대한 관심이나 이해 정도, 설명 능력이 필요할 것 같고, 해설 대상인 초등학생과의 친화력도 중요할 거야. 이런 점을 어떻게 드러낼 수 있을까?

동생: 음, 그러면 역사 문화 연구 동아리 활동, 보고서 발표 대회 참가 경험, 복지 센터 보조 교사 활동, 학생회 봉사 부장 활동, 나의 성장 배경을 쓰면 좋겠는데.

누나: 그것들을 모두 쓰지 말고 필요한 것들을 선별해서 활용하면 좋을 거야.

동생: 그러면 우리나라 역사와 문화를 탐구하고 지역의 문화재를 탐방했던 역사 문화 연구 동아리, 청중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었던 보고서 발표 대회, 초등학생을 돌보았던 복지 센터 보조 교사 활동을 쓰면 되겠네. 그럼, 선택한 내용을 어떻게 조직하면 좋을까?

누나: 단순히 너의 경험들을 나열하기보다는 경험의 의미를 경험 내용과 연관 지어 조직하면 글의 의도가 잘 전달될 거야. 그리고 글 전체를 처음, 중간, 끝 부분으로 나누고 [중간 부분]에서 경험과 관련된 내용들을 쓰면 좋겠어.

동생: 고마워 누나. 이제 잘 써 볼게.

6. (나)를 고려할 때, (가)의 ㉠~㉤에 대한 조정 방안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 선발 담당자에게 자신이 학생 해설 도우미로 적합함을 보이는 것으로 목적을 구체화한다.
- ② ㉡: 공고문을 토대로 예상 독자의 주된 관심사를 학생 해설 도우미로서의 요건 충족 여부로 재설정한다.
- ③ ㉢: ‘의미 있는 활동’ 중 학생 해설 도우미로서의 자질을 보여 줄 수 있는 활동에 초점을 맞춘다.
- ④ ㉣: 자신의 친화력을 드러낼 수 있는 소재로 성장 배경 대신 학급 내의 교우 관계에 초점을 맞춘다.
- ⑤ ㉤: 선별된 각 경험의 내용과 그 의의를 함께 제시한다.

7. (나)를 고려하여 [중간 부분]을 작성하려 할 때 내용을 구체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경험	내용 구체화 방안
① 역사 문화 연구 동아리 활동	동아리 활동으로 우리나라 역사와 문화를 탐구하는 과정에서 얻은 지식을 우리 지역의 역사와 문화에도 적용할 수 있는 안목을 갖게 되었음을 서술한다.
② 역사 문화 연구 동아리 활동	동아리에서 지역 문화재를 탐방하는 활동을 진행하면서 자연스럽게 우리 지역의 향토 문화에 대하여 관심을 갖게 되었음을 서술한다.
③ 보고서 발표 대회 참가	보고서 발표를 준비하면서 기른 설명 능력이 우리 지역의 문화를 쉽게 설명할 수 있는 능력으로 이어질 것임을 서술한다.
④ 복지 센터 보조 교사 활동	복지 센터 보조 교사로서 초등학생을 돌보는 활동을 진행하면서 초등학생과 친밀감을 형성할 수 있는 방법을 터득하게 되었음을 서술한다.
⑤ 복지 센터 보조 교사 활동	보조 교사 활동을 학업과 병행하면서 겪었던 어려움을 호소함으로써 문화 해설 도우미 활동에서 겪을 수 있는 어려움을 충분히 극복할 수 있음을 서술한다.

[8~10] 다음은 기사 요청서와 그에 따라 학생이 작성한 기사의 본문 개요 및 초고이다. 물음에 답하시오.

○ 학교 신문 편집부의 기사 요청서

우리 학교의 역사적 상징물인 소나무들이 옮겨져 미리내 솔숲이 조성되기까지의 과정과 그 의의를 중심 내용으로 하는 특집 기사를 작성해 주세요. 예상 독자는 본교 학생들입니다.

○ 본문의 개요

- 1문단: 미리내 솔숲 개방 행사 안내㉠
 2문단: 체육관 신축으로 인한 소나무 처리 문제 발생㉡
 3문단: 소나무 처리 문제에 대한 학생들과 동문들의 우려㉢
 4문단: 소나무 기증을 통한 소나무 처리 문제의 해결㉣
 5문단: 기증한 소나무들로 솔숲을 조성하게 된 계기㉤
 6문단: 소나무 기증의 의의와 솔숲에 거는 기대

○ 기사 초고

우리 학교의 역사적 상징물, 시민의 솔숲으로 부활

<부제>

<전문>

우리 학교의 역사적 상징물인 소나무의 기증으로 조성된 미리내 솔숲이 이번 주 토요일부터 일반 시민에게 개방된다.

<본문>

우리 학교 이름을 딴 미리내 솔숲의 개방을 축하하는 행사가 토요일 오전 10시부터 솔숲이 위치한 시민 공원에서 열린다. 솔숲 개방 행사에는 우리 학교 상징물인 소나무에 깊은 애정을 갖고 있는 재학생과 동문 선배들 그리고 지역 주민들이 ㉠ 참석하였다.

우리 학교와 역사를 함께해 온 소나무들로 솔숲이 조성되기까지 우여곡절이 있었다. 지난해 3월, 우리 학교에서는 실내 체육 활동을 위해 체육관을 ㉡ 새로 신축하기로 결정하였다. 그런데 체육관을 지을 터에 이미 자리 잡은 소나무들을 옮길 만한 마땅한 장소가 없어 베어 버려야 할 상황에 처했다.

이 소식을 접한 학생회와 동문회에서는 소나무들을 베어 버리는 것에 대해 우려를 표시했고, 학교의 오랜 역사를 상징하는 소나무를 당장 베어 버리기보다는 몇 달만이라도 대안을 모색해 보기로 학교 측과 ㉢ 합의했다.

학생회에서는 여러 대안을 모색하던 중 시민 공원에 소나무를 기증하자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 비단 시민 공원에서도 솔숲을 조성할 소나무가 필요하다는 소나무 기증 의사를 반겼고, 솔숲의 터가 정리되는 대로 솔숲을 조성하겠다고 답변했다. 결국 우리 학교는 구성원들 간의 논의를 거쳐 지난해 9월 소나무들을 시민 공원에 기증하였다.

현재 우리 학교 소나무들은 새 보금자리인 시민 공원에서 시민들을 맞이할 준비를 하고 있다. 소나무를 관리하고 있는 전문가의 말에 따르면, 소나무들은 학교에 있을 때처럼 건강하게 새 터에 잘 적응하고 있다고 한다. 이러한 이유로 시민 공원에서는 예정보다 빨리 솔숲을 시민들에게 개방하기로 결정하였다.

이처럼 우리 학교 이름을 딴 미리내 솔숲의 조성은 교내의 소나무 처리 문제가 지역 사회와의 협조를 통해 슬기롭게 ㉤ 해결되어졌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학생회장은 “학생들은 학교의 역사적 상징물인 소나무들과 이별하는 것을 매우 아쉬워했습니다. 하지만 소나무 기증을 통해 우리 학교의 건학 이념인 ‘나눔’과 ‘협력’을 실천할 수 있다는 점에 공감하게 되었고 이번 기증으로 시민들의 쉼터가 마련되었다는 것에 자긍심을 가지게 되었습니다.”라고 말했다. 앞으로 우리 학교의 상징물인 소나무들이 지역 사회의 상징물로 거듭나기를 기대한다.

8. 개요의 ㉠~㉤ 중, <본문>에 반영되지 않은 것은?

- ① ㉠ ② ㉡ ③ ㉢ ④ ㉣ ⑤ ㉤

9. <보기>는 글쓰기 과정에서 학생이 떠올린 생각이다. 이에 따라 작성했을 <부제>로 가장 적절한 것은?

<보 기>

기사 내용 중 학생회장의 말을 바탕으로 예상 독자에게 소나무 기증의 의의가 잘 전달되도록 <부제>를 정해야겠어.

- ① 우리 학교 소나무들로 조성된 미리내 솔숲, 드디어 이번 주 토요일에 개방
 ② 지역 사회에 쉼터 제공, 소나무 기증이 우리 학교 학생들에게 나눔과 협력의 정신 일깨워
 ③ 미리내 솔숲, 공공 녹지 조성과 나무 생태 보전이라는 시민 공원의 설립 취지 잘 살려
 ④ 우리 학교의 역사적 상징물, 지역 주민들에게 나무 기증의 중요성 알리는 계기로 작용
 ⑤ 지역 사회와의 협력의 산물, 우리 학교의 역사적 상징물이 지역 사회의 상징물이 되기까지

10. 기사 초고의 ㉠~㉤에 대한 점검 결과와 수정 방안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점검 결과	수정 방안
①	㉠: 행위의 시간 표현이 잘못되었다.	→ ‘참석할 예정이다’로 수정한다.
②	㉡: 의미상 불필요한 표현이다.	→ 의미 중복을 피하기 위해 삭제한다.
③	㉢: 문장에서 행위의 주체가 드러나 있지 않다.	→ ‘시민 공원은’을 주어로 추가한다.
④	㉣: 부사의 사용이 부적절하다.	→ ‘때마침’으로 수정한다.
⑤	㉤: 피동 표현이 불필요하게 중복되고 있다.	→ ‘해결되었다는’으로 수정한다.

[11~12] 다음은 용언의 활용에 관한 탐구 활동과 자료이다.
 <대화 1>과 <대화 2>는 학생의 탐구 활동이고, <자료>는 학생들이 수집한 학술 자료이다. 물음에 답하시오.

<대화 1>

A: ‘(길이) 좁다’와 ‘(이웃을) 돕다’는 어간의 끝이 ‘ㅁ’으로 같잖아? 그런데 ‘좁다’는 ‘좁고’, ‘좁아’로 활용하고 ‘돕다’는 ‘돕고’, ‘도와’로 활용하여, 모음으로 시작하는 어미 앞에서의 활용형이 달라.

B: 그러고 보니 ‘(신을) 벗다’와 ‘(노를) 젓다’도 어간의 끝이 ‘ㅅ’으로 같은데, ‘벗다’는 ‘벗어’로 활용하고 ‘젓다’는 ‘저어’로 활용해서, 모음으로 시작하는 어미 앞에서의 활용형이 달라.

A: 그렇구나. 어간의 끝이 같은데도 왜 이렇게 다르게 활용하는 걸까? 우리 한번 같이 자료를 찾아보고 답을 알아볼래?

<자료>

현대 국어 ‘좁다’와 ‘돕다’의 15세기 중엽의 국어에서의 활용형을 보면, ‘좁다’는 ‘좁고’, ‘조바’처럼 자음과 모음으로 시작하는 어미 앞 모두에서 어간이 ‘좁-’으로 나타난다. 그러나 ‘돕다’는 자음으로 시작하는 어미 앞에서는 ‘돕고’처럼 어간이 ‘돕-’으로, 모음으로 시작하는 어미 앞에서는 ‘도바’처럼 어간이 ‘돌-’으로 나타난다. 다음으로 현대 국어 ‘벗다’와 ‘젓다’의 15세기 중엽의 국어에서의 활용형을 보면, ‘벗다’는 ‘벗고’, ‘버서’처럼 자음과 모음으로 시작하는 어미 앞 모두에서 어간이 ‘벗-’으로 나타난다. 그러나 ‘젓다’는 자음으로 시작하는 어미 앞에서는 ‘젓고’처럼 어간이 ‘젓-’으로, 모음으로 시작하는 어미 앞에서는 ‘저서’처럼 어간이 ‘절-’으로 나타난다. 당시 국어의 음절 끝에는 ㄱ, ㄴ, ㄷ, ㄹ, ㅁ, ㅂ, ㅅ, ㅇ의 8개의 소리가 올 수 있었기에 ‘돕고’의 ‘ㅁ’과 ‘젓고’의 ‘ㅅ’은 각각 ‘빙’이 ‘ㅁ’으로 교체되고 ‘△’이 ‘ㅅ’으로 교체된 것을 표기한 것이다. 그리고 ‘도바’와 ‘저서’는 ‘빙’과 ‘△’이 뒤 음절의 첫소리로 연음된 것을 표기한 것이다.

그런데 ‘빙’, ‘△’은 15세기와 16세기를 지나면서 소실되었다. 먼저 ‘빙’은 15세기 중엽을 넘어서면서 ‘도바>도와’, ‘더버>더워’에서와 같이 ‘ㅂ’ 또는 ‘ㅅ’ 앞에서는 반모음 [ɸ/ɸ̞[w]]로 바뀌었고, ‘도보시니>도오시니’, ‘셔볼>셔울’에서와 같이 ‘ㅇ’ 또는 ‘ㄱ’이 이어진 경우에는 모음과 결합하여 ‘ㅁ’ 또는 ‘ㅂ’로 바뀌었으나, 음절 끝에서는 이전과 다름없이 ‘ㅁ’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은 16세기 중엽에 ‘아스>아으’, ‘저서>저어’에서와 같이 사라졌으며, 음절 끝에서는 이전과 다름없이 ‘ㅅ’으로 나타났다. 이런 변화를 겪은 말 중에 ‘셔울’, ‘도오시니’, ‘아으’는 18~19세기를 거쳐 ‘셔울’, ‘도우시니’, ‘아우’로 바뀌어 오늘날에 이르렀다.

<대화 2>

A: 자료를 보니 ‘빙’, ‘△’이 사라지면서 ‘도바’가 ‘도와’로, ‘저서’가 ‘저어’로 활용형이 바뀌었네.

B: 그럼 ‘(고기를) 굽다’가 ‘구워’로 활용하고, ‘(밥을) 짓다’가 ‘지어’로 활용하는 것도 같은 거겠네!

A: 맞아. 그래서 현대 국어에서는 ‘굽다’하고 ‘짓다’가 불규칙 활용을 하게 된 거야.

11. 위 탐구 활동과 자료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현대 국어의 ‘도와’, ‘저어’와 같은 활용형은 어간의 형태가 달라지는 불규칙 활용에 해당하는군.
- ② 15세기 국어의 ‘도바’가 현대 국어에서 ‘도와’로 나타나는 것은 ‘빙’이 어간 끝에서 ‘ㅁ’으로 바뀐 결과이군.
- ③ 15세기 국어의 ‘저서’가 현대 국어에서 ‘저어’로 나타나는 것은 ‘△’의 소실로 어간의 끝 ‘ㅅ’이 없어진 결과이군.
- ④ 15세기 국어의 ‘돕고’와 현대 국어의 ‘돕고’는, 자음으로 시작하는 어미 앞에서 어간의 모양이 달라지지 않았군.
- ⑤ 15세기 국어의 ‘젓고’와 현대 국어의 ‘젓고’는, 자음으로 시작하는 어미 앞에서 어간의 모양이 달라지지 않았군.

12. 위 탐구 활동과 자료에 따라, 현대 국어 용언들의 15세기 중엽 이전과 17세기 초엽에서의 활용형을 바르게 추정한 것은?

		15세기 중엽 이전			17세기 초엽		
		-게	-아/-어	-은/-은	-게	-아/-어	-은/-은
①	(마음을) 굽다	굽게	고바	고븐	굽게	고와	고운
②	(선을) 굶다	굶게	그서	그슨	굶게	그서	그슨
③	(자리에) 눕다	눅게	누버	누븐	눅게	누워	누은
④	(머리를) 빗다	빗게	비서	비슨	빗게	비서	비슨
⑤	(손을) 잡다	잡게	자바	자븐	잡게	자바	자븐

13. <보기>의 ㉠~㉣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보 기>	
㉠	맑+네 → [망네]
㉡	낮+일 → [난닐]
㉢	꽃+말 → [꼇말]
㉣	글+고 → [글꼬]

- ① ㉠: ‘값+도 → [갑또]’에서처럼 음절 끝에 둘 이상의 자음이 오지 못하기 때문에 일어난 음운 변동이 있다.
- ② ㉡, ㉢: ‘입+니 → [임니]’에서처럼 인접하는 자음과 조음 방법이 같아진 음운 변동이 있다.
- ③ ㉡: ‘물+약 → [물랏]’에서처럼 자음이 교체된 음운 변동이 있다.
- ④ ㉡, ㉢: ‘팔+죽 → [판죽]’에서처럼 음절 끝에 올 수 있는 자음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일어난 음운 변동이 있다.
- ⑤ ㉣: ‘읽+지 → [일치]’에서처럼 자음이 축약된 음운 변동이 있다.

14. <보기>의 ㉠~㉣에 해당하는 예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 기>—

(가)~(다)는 관형절을 안은 문장이고 [A]~[C]는 안긴 문장인 관형절을 완결된 문장으로 바꾼 것이다. 이를 보면 (가)의 ‘동생’, (나)의 ‘책’, (다)의 ‘도서관’은 완결된 문장 [A], [B], [C]에서 뒤에 붙는 조사와 함께 각각 ㉠ 주어, ㉡ 목적어, ㉢ 부사어로 기능을 하고 있다.

(가) 어제 책만 읽은 동생에게 오늘은 쉬라고 했다.

[A] 동생이 어제 책만 읽었다.

(나) 아이가 읽은 책은 동화책이다.

[B] 아이가 책을 읽었다.

(다) 형이 책을 읽은 도서관은 집 근처에 있다.

[C] 형이 도서관에서 책을 읽었다.

- ① ㉠ [어제 결혼한 그들에게 나는 미리 선물을 주었다.
누나를 많이 닮은 친구를 우리는 오늘도 만났다.
- ② ㉠ [나무로 된 탁자에 동생이 낙서를 하고 있다.
그들은 시대에 뒤떨어진 생각을 여전히 하고 있다.
- ③ ㉡ [두 사람이 어제 헤어진 공원이 지금 공사 중입니다.
나는 어제 부모님이 시키신 일을 오늘에야 다 끝냈다.
- ④ ㉡ [친구가 나에게 준 옷이 나는 마음에 든다.
누나는 털실로 짠 장갑도 내게 주었습니다.
- ⑤ ㉢ [아이들이 운동장에서 공을 찬 주말을 기억해 보세요.
그는 관중이 쓰레기를 남긴 경기장을 열심히 청소했다.

15. <보기>의 ㉠에 해당하는 예로 적절한 것은?

—<보 기>—

합성어는 어근과 어근이 결합하여 형성되는데, 어근들의 결합 방식에 따라 다음과 같이 둘로 나눌 수 있다.

- 통사적 합성어: 어근들의 결합 방식이 일반적인 문장 구성 방식과 같은 합성어
- ㉠ 비통사적 합성어: 어근들의 결합 방식이 일반적인 문장 구성 방식과 다른 합성어

- ① 아이들이 뛰노는 소리가 밖에서 들렸다.
- ② 서로 몰라볼 정도로 세월이 많이 흘렀다.
- ③ 저마다의 타고난 소질을 계발하는 것이 중요하다.
- ④ 지난날부터 공부를 열심히 했더니 자신감이 생겼다.
- ⑤ 망치질을 자주 하다 보니 손바닥에 굳은살이 박였다.

[16~19]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인간의 신경 조직을 수학적으로 모델링하여 컴퓨터가 인간 처럼 기억·학습·판단할 수 있도록 구현한 것이 인공 신경망 기술이다. 신경 조직의 기본 단위는 뉴런인데, ㉠ 인공 신경망에서는 뉴런의 기능을 수학적으로 모델링한 퍼셉트론을 기본 단위로 사용한다.

㉡ 퍼셉트론은 입력값들을 받아들이는 여러 개의 ㉢ 입력 단자와 이 값을 처리하는 부분, 처리된 값을 내보내는 한 개의 출력 단자로 구성되어 있다. 퍼셉트론은 각각의 입력 단자에 할당된 ㉣ 가중치를 입력값에 곱한 값들을 모두 합하여 가중합을 구한 후, 고정된 ㉤ 임계치보다 가중합이 작으면 0, 그렇지 않으면 1과 같은 방식으로 ㉦ 출력값을 내보낸다.

이러한 퍼셉트론은 출력값에 따라 두 가지로만 구분하여 입력값들을 판정할 수 있을 뿐이다. 이에 비해 복잡한 판정을 할 수 있는 인공 신경망은 다수의 퍼셉트론을 여러 계층으로 배열하여 한 계층에서 출력된 신호가 다음 계층에 있는 모든 퍼셉트론의 입력 단자에 입력값으로 입력되는 구조로 이루어진다. 이러한 인공 신경망에서 가장 처음에 입력값을 받아들이는 퍼셉트론들을 입력층, 가장 마지막에 있는 퍼셉트론들을 출력층이라고 한다.

㉧ 어떤 사진 속 물체의 색깔과 형태로부터 그 물체가 사과인지 아닌지를 구별할 수 있도록 인공 신경망을 학습시키는 경우를 생각해 보자. 먼저 학습을 위한 입력값들 즉 학습 데이터를 만들어야 한다. 학습 데이터를 만들기 위해서는 사과 사진을 준비하고 사진에 나타난 특징인 색깔과 형태를 수치화해야 한다. 이 경우 색깔과 형태라는 두 범주를 수치화하여 하나의 학습 데이터로 묶은 다음, ‘정답’에 해당하는 값과 함께 학습 데이터를 인공 신경망에 제공한다. 이때 같은 범주에 속하는 입력값은 동일한 입력 단자를 통해 들어가도록 해야 한다. 그리고 사과 사진에 대한 학습 데이터를 만들 때에 정답인 ‘사과이다’에 해당하는 값을 ‘1’로 설정하였다면 출력값 ‘0’은 ‘사과가 아니다’를 의미하게 된다.

인공 신경망의 작동은 크게 학습 단계와 판정 단계로 나뉜다. 학습 단계는 학습 데이터를 입력층의 입력 단자에 넣어 주고 출력층의 출력값을 구한 후, 이 출력값과 정답에 해당하는 값의 차이가 줄어들도록 가중치를 갱신하는 과정이다. 어떤 학습 데이터가 주어지면 이때의 출력값을 구하고 학습 데이터와 함께 제공된 정답에 해당하는 값에서 출력값을 뺀 값 즉 오차 값을 구한다. 이 오차 값의 일부가 출력층의 출력 단자에서 입력층의 입력 단자 방향으로 되돌아가면서 각 계층의 퍼셉트론별로 출력 신호를 만드는 데 관여한 모든 가중치들에 더해지는 방식으로 가중치들이 갱신된다. 이러한 과정을 다양한 학습 데이터에 대하여 반복하면 출력값들이 각각의 정답 값에 수렴하게 되고 판정 성능이 좋아진다. 오차 값이 0에 근접하게 되거나 가중치의 갱신이 더 이상 이루어지지 않게 되면 학습 단계를 마치고 판정 단계로 전환한다. 이때 판정의 오류를 줄이기 위해서는 학습 단계에서 대상들의 변별적 특징이 잘 반영되어 있는 서로 다른 학습 데이터를 사용하는 것이 좋다.

제 1 교시

국어 영역

[1~2] 다음은 인터뷰 대화의 일부이다. 물음에 답하시오.

학생: ○○ 과학관 연구관님 안녕하세요? 제가 이번에 술에 대해서 발표를 하려고 하는데 도움을 받기 위해 찾아뵙게 되었습니다. [A]

연구관: 네, 안녕하세요. 술의 어떤 점이 궁금하세요?

학생: 먼저 금속으로 만든 술은 언제부터 사용되었는지 알고 싶고, 술에 특별한 의미가 있었는지도 궁금합니다.

연구관: 기록에 따르면 하나라 때에 금속으로 술을 만들었고, 우리나라에서는 고조선 유적지에서 금속으로 만든 술이 발견될 정도로 역사가 오래되었답니다. 역사에 등장하는 술은 나라와 왕의 업적을 의미하여 신성하게 여겨지기도 했습니다. [B]

학생: 그렇군요. 그런데 무쇠로 만든 술에는 어떤 종류가 있나요?

연구관: 한국 고고학 사전에 따르면 무쇠술은 형태에 따라 정과 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정은 다리가 세 개이고 주둥이가 약간 넓게 퍼진 모양이고, 부는 다리가 없고 주둥이가 좁은 술이랍니다. 사진 자료를 찾아서 보면 이해가 빠를 겁니다.

학생: 네. 저는 민간에서 두루 사용하던 무쇠술은 밥을 짓는 데만 사용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가요?

연구관: 물론 무쇠술을 밥을 짓는 데 사용한 것은 맞습니다. 그렇지만 무쇠술은 밥을 짓는 용도 외에도 국을 끓이거나 반찬을 만들 때와 소죽을 끓이는 데도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술뚜껑은 전을 부치는 도구로 이용하기도 했습니다. [C]

학생: 아, 그렇군요. 그런데 무쇠술로 지은 밥맛이 최고라고 하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연구관: 혹시 열의 대류와 전도에 대해 알고 있나요?

학생: 네, 과학 시간에 배워 알고 있습니다.

연구관: 무쇠술로 지은 밥이 맛있는 이유는 열의 대류와 전도에 있습니다. 무쇠술은 바닥이 가장 두껍고 위로 올라가면서 점차 얇아지게 만들어져 있어서 열을 받으면 술 전체에 열이 빠르고 고르게 전달됩니다. 그리고 뚜껑이 무거워 내부 압력이 적당하고 오랫동안 높은 온도를 유지시켜 준답니다. 이처럼 무쇠술에는 여러 가지 과학 기술이 담겨 있기 때문에 밥알이 단단하고 찰기 있어 맛이 있는 겁니다. [D]

학생: 무쇠술은 과학적 원리가 담긴 훌륭한 발명품이었네요.

연구관: 그렇습니다. 현대의 발전된 과학 기술은 이런 전통 기술이 있어서 가능했다고 봅니다. 참, 한술밥 먹는 사이라는 말이 있는데 이는 서로 허물없이 지내며 기쁨과 슬픔을 함께한 관계를 뜻합니다. 학생도 한술밥을 먹는 친구들과 깊은 관계를 맺으며 지냈으면 좋겠네요. [E]

학생: 네. 선조들이 물려주신 문화는 유용할 뿐만 아니라 삶의 지혜도 담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1. [A]~[E]에 나타난 대화 참여자의 말하기 방식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A]: 학생은 인터뷰의 취지를 밝히며 인터뷰의 절차를 소개하고 있다.
- ② [B]: 연구관은 학생이 이해하기 쉽게 비유를 사용하여 핵심 정보를 설명하고 있다.
- ③ [C]: 연구관은 학생이 알고 있는 내용에 추가적인 정보를 제공하여 보충을 해 주고 있다.
- ④ [D]: 연구관은 과학적 개념을 정의하며 학생의 질문에 대해 답하고 있다.
- ⑤ [E]: 연구관이 학생의 태도를 우회적으로 지적하고 학생은 자신의 태도를 반성하고 있다.

2. 인터뷰 내용을 바탕으로 ‘술에 대해서’라는 주제로 발표하려고 한다. 발표 계획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술의 역사와 술에 담긴 의미
 - 하나라와 고조선 시대에 금속 재료로 된 술을 사용했다는 기록 자료의 출처와 유물 자료를 구체적으로 제시한다. ㉠
 - 술으로 나라와 왕의 업적을 나타낸 역사적 사례를 보충하여 제시한다. ㉡
- 무쇠술의 종류와 무쇠술의 용도
 - 무쇠술인 정과 부를 각각 시각 자료로 제시한다. ㉢
 - 무쇠술이 밥을 짓는 제한된 용도로 쓰인 이유를 구체적으로 제시한다. ㉣
- 무쇠술에 담긴 과학적 원리
 - 과학 시간에 배운 열의 대류와 전도의 개념을 언급하며 무쇠술의 과학적 원리를 설명한다. ㉤

- ① ㉠ ② ㉡ ③ ㉢ ④ ㉣ ⑤ ㉤

[3~5] 다음은 연설 의뢰서와 이에 따라 행한 연설이다. 물음에 답하시오.

[연설 의뢰서]

저는 □□시 의회 의원입니다. 이번에 우리 시에서는 □□ 동물원 폐쇄를 두고, 주민들의 의견이 나뉘어 주민 투표를 통해 이를 결정하려고 합니다. 평소 동물원을 폐쇄해야 한다고 주장해 오신 ○○○ 정책 국장님께 투표단을 대상으로 동물원 폐쇄를 지지하는 연설을 부탁드립니다. 투표단은 □□시의 주민들로, 동물원 폐쇄에 대한 정당성을 따져 보고자 한다는 점을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동물 보호 연대 정책 국장으로 동물 보호 관련 연구를 하고 있는 ○○○입니다. 저는 그간 여러 학술 대회와 세미나에서 동물 보호와 관련된 논문을 다수 발표했습니다. 저도 여러분과 같은 □□시의 시민으로서 요즘 우리 시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동물원 폐쇄 문제에 대해 여러분들처럼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먼저, 여러분께 한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청중과 시선을 맞추며) 여러분들은 동물원의 동물 쇼를 보며 혹시 동물들이 고통을 받고 있다고 생각해 본 적은 없으신가요? (청중의 반응을 보고) 실제로 동물 쇼를 하는 동물들이 다양한 고통에 시달린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쇼를 하는 동물뿐 아니라 우리 안에 갇힌 동물이 받는 고통도 큰 문제입니다. 이와 같은 이유로 코스타리카는 세계 최초로 동물원 폐쇄를 결정했습니다. 코스타리카는 2014년부터 동물원을 식물원으로 전환하고, 동물원에 있던 동물들을 야생으로 돌려보내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10년 후엔 동물원이 없는 최초의 국가가 된다고 합니다. 이처럼 우리 시의 동물원도 폐쇄해야 한다고 봅니다.

동물원을 폐쇄하는 것에 반대하는 분들은 동물원이 멸종 보호종을 보호하기 위해서 필요하다거나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하십니다. 그런데 멸종 보호종을 보호하기 위해서라면 보호 센터를 운영하면 됩니다. 또한 동물원을 폐쇄하지 않고 계속 운영했을 때, 지역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된다고 볼 수 없습니다.

프린스턴 대학의 피터 싱어 교수의 책 『동물 해방』에는 ‘어떤 존재들이 쾌락과 고통을 느낀다는 점에서 인간과 같다면 그들은 인간과 동등한 도덕적 배려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는 생명의 주체인 동물 역시 고통받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권리를 보장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해 생각해 보았을 때, 동물은 구조나 보호가 필요한 경우가 아니라면, 어떤 방식으로든 가둬 두지 말아야 합니다. (목소리에 힘을 주며) 이런 의미에서 저는 우리 □□시의 동물원이 폐쇄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동물이 고통받지 않고 살 수 있는 세상을 위해 여러분의 지지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3. 연설 의뢰서의 내용을 바탕으로 세운 계획 중 연설에 나타나지 않은 것은?

- ① □□시의 시민이라는 청중과의 공통점을 바탕으로 공감대를 형성해야겠어.
- ② 동물원을 폐쇄해야 한다는 입장을 일관성 있게 유지하여 주장의 설득력을 확보해야겠어.
- ③ 동물원 폐쇄를 위해 청중을 설득해야 하므로 동물원을 폐쇄해야 하는 이유를 밝혀야겠어.
- ④ 청중에게 신뢰감을 주어야 하므로 화제와 관련된 분야의 전문성을 갖추고 있음을 드러내야겠어.
- ⑤ 청중이 동물원 폐쇄의 정당성을 따져 보고자 하므로 동물원 폐쇄가 경제적 이익과 직결됨을 강조해야겠어.

4. [A]~[C]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A]: 시사적 사례를 들어 우리나라가 동물원을 폐쇄하는 최초의 국가가 되어야 함을 강조하고 있다.
- ② [A]: 상황에 적절한 반언어적 표현을 사용하여 현재 □□시의 동물원의 수가 필요 이상으로 많음을 강조하고 있다.
- ③ [B]: 구체적인 통계 자료에 근거하여 예상되는 반론을 분석하고 있다.
- ④ [B]: 멸종 보호종 보호 센터 운영의 장점과 단점을 분석하여 예상되는 반론에 대한 재반박의 근거를 마련하고 있다.
- ⑤ [C]: 화제와 관련된 책의 일부를 인용해서 동물에 대한 도덕적 관점을 제시하며 주장을 강화하고 있다.

5. 동물원 폐쇄에 반대하는 입장의 청중이 위 연설을 반박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코스타리카의 사례는 동물원 폐쇄와 관련이 없어서 설득의 근거 자료로 활용할 수 없습니다.
- ② 동물원 폐쇄 시 멸종 보호종을 보호할 수 있는 방안을 밝히지 않았으므로 동물원 폐쇄에 찬성할 수 없습니다.
- ③ 동물원을 폐쇄하지 않고 계속 운영했을 때, 지역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주장에 대한 구체적 근거가 제시되지 않았으므로 설득력이 부족합니다.
- ④ 피터 싱어 교수의 생각은 동물원을 폐쇄하지 말자는 입장에 가깝기 때문에 설득의 근거 자료로 활용할 수 없습니다.
- ⑤ 동물의 권리를 밝히지 않고 동물원 폐쇄에 대해 지지를 호소한 것은 동물을 보호해야 하는 이유를 충분히 설명하지 못하므로 설득력이 부족합니다.

[6~8] 다음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 **작문 과제:** 시사적 화제에 대해 조사하여 글 쓰기

■ **학생의 초고**

얼마 전 지하철역에 심정지로 쓰러져 있던 남성을 지나가던 시민이 구했다는 ㉠ 아름다운 미담을 들었다. 이 시민은 구급 대원이 도착하기 전에 신속하게 심폐 소생술을 시행했고, 그 결과 소중한 생명을 살리는 기적을 만들었다. 이처럼 심폐 소생술은 존각을 다투는 심정지 환자를 살리는 데 아주 중요한 응급 처치 방법이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심정지 환자의 수가 해마다 증가하고 있지만 심폐 소생술의 시행률은 저조하다.

한 연구 기관의 설문 조사 결과에 따르면, 우리나라에서 일반인들이 심폐 소생술 시행을 꺼리는 가장 큰 원인은 심폐 소생술 시행 방법에 대해 잘 모른다는 것이었다. 이는 심폐 소생술 교육을 받을 기회가 적거나, 이론 위주의 교육으로 인해 심폐 소생술에 대한 실습 교육을 충분히 받지 못했기 때문이다. ㉡ 그래서 다른 원인은 실습 교육을 받았다고 해도 오랜 기간이 지나도록 재교육을 받지 못해 심폐 소생술을 잘 할 수 있을지 ㉢ 염려되어져 부담감을 느낀다는 것이었다.

심정지 환자를 가장 먼저 발견하는 사람은 대부분 일반인이라고 한다. 따라서 일반인들이 심폐 소생술에 대한 자신감을 갖고 이를 시행할 수 있게 하려면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심폐 소생술 교육을 확대하고 심폐 소생술에 대한 실습 교육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 그러나 심정지는 예측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다음으로 교육을 받은 지 1~2년 이상 경과하면 시행 능력이 현저히 떨어지기 때문에 교육 경험자에 대한 재교육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심폐 소생술을 ‘4분의 기적’이라고 한다. 이는 심정지 환자 발생 시 신속한 초기 대응이 중요하다는 것이다. 그 이유는 심정지 발생 후 이른 시간 내에 심폐 소생술을 시행하면 환자의 심장을 다시 뛰게 ㉤ 할 수 있다. 이처럼 갑작스레 위험에 처한 사람들을 한 명이라도 더 구하기 위해서는 심폐 소생술 교육 방법의 개선과 지속적인 재교육이 반드시 필요하다.

6. 다음은 학생이 글을 쓰기 전에 떠올린 생각이다. ‘학생의 초고’에 반영된 것은?

[학생이 떠올린 생각]

- ㉠ 독자의 흥미를 끌기 위해 잘 알려진 우화로 글을 시작한다.
- ㉡ 문제의 원인을 밝히기 위해 ‘나’가 직접 설문 조사한 내용을 제시한다.
- ㉢ 글을 체계적으로 조직하기 위해 문제의 원인과 그에 대한 해결 방안을 제시한다.
- ㉣ 해결 방안이 구체성을 지니도록 전문가의 의견을 인용한다.
- ㉤ 주장을 강조하기 위해 속담을 사용해 글을 마무리한다.

① ㉠ ② ㉡ ③ ㉢ ④ ㉣ ⑤ ㉤

7. ‘학생의 초고’를 수정·보완하는 과정에서 <보기>를 활용하는 방안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보 기>

(가) 신문 기사

심정지 환자는 일반인에 의해 발견되는 경우가 90%에 달한다. 그래서 미국의 경우 심정지 환자에 대한 신속한 초기 대응을 위해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한 심폐 소생술 실습 교육을 강조하고 있다. 그 결과 미국은 심정지 발생 후 생존하여 회복하게 되는 환자의 비율이 10%로, 우리나라의 4%에 비해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

(나) 통계 자료

- 1. 국내 심정지 환자 발생 현황 (인구 10만 명 당)
- 2. 2014년 4개국 심폐 소생술 시행률 비교



3. 응급 상황에서 심폐 소생술 시행을 꺼리는 원인

원인	응답(%)
심폐 소생술 교육을 받은 적이 없어서	48.3
심폐 소생술 방법이 잘 기억나지 않아서	38.8
심리적으로 당황해서	12.9

(다) 국내 전문가와의 인터뷰 내용

“스웨덴은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심폐 소생술 교육을 실시할 때 전체 교육 시간의 65% 이상을 실습 교육에 할애하고 있어요. 또한 미국은 실습 교육 이후에도 지속적인 재교육을 위해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여러 매체를 통한 반복적인 교육이 심폐 소생술 시행률을 높인다는 연구 결과도 있어요. 이처럼 교육 체계가 잘 갖추어진 나라들은 심폐 소생술 시행률이 우리나라에 비해 매우 높은 수준이죠.”

- ① (가)를 활용하여, 셋째 단락에서 언급한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심폐 소생술에 대한 실습 교육 강화가 필요하다는 내용의 구체적 근거를 제시한다.
- ② (나)-3을 활용하여, 둘째 단락에서 언급한 일반인들이 심폐 소생술을 꺼리는 원인 중 재교육이 부족해 심폐 소생술 시행 능력이 떨어지는 것이 가장 큰 요인이라는 점을 부각한다.
- ③ (다)를 활용하여, 셋째 단락에서 언급한 심폐 소생술 교육 경험자에 대한 재교육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주장의 근거를 제시한다.
- ④ (가)와 (다)를 활용하여, 심폐 소생술에 대한 실습 교육을 강조하는 외국의 교육 사례를 셋째 단락에 추가한다.
- ⑤ (나)-1과 (나)-2를 활용하여, 첫째 단락에서 언급한 우리나라는 심정지 환자의 수가 해마다 증가하고 있지만 심폐 소생술 시행률은 저조하다는 내용의 구체적 근거를 제시한다.

8. ㉠~㉤를 고쳐 쓰기 위한 방안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 단어의 의미가 중복되므로 ‘아름다운’을 삭제해야겠어.
- ② ㉡: 문장 간의 연결 관계를 고려하여 ‘그러나’로 고쳐야겠어.
- ③ ㉢: 피동 표현이 중복되므로 ‘염려되어’로 고쳐야겠어.
- ④ ㉤: 글의 흐름에서 벗어나는 내용이므로 삭제해야겠어.
- ⑤ ㉣: 문장 성분 간의 호응이 되지 않으므로 ‘할 수 있기 때문이다’로 고쳐야겠어.

[9~10] 다음은 학생이 쓴 글의 초고이다. 물음에 답하시오.

어제 학교에서 수업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던 중, 길에 핀 몇 송이의 꽃들이 우연히 눈에 들어왔다. 그 꽃들은 잘 자랄 수 있도록 만들어진 화단이 아닌 보도블록 사이에 피어 있었다. 힘든 상황에서도 피어나기 위해 최선을 다했을 꽃들로부터 나는 감동을 받았고, 또 꽃들이 서로의 줄기를 지탱 하듯 자란 모습을 보며 수업 시간에 배웠던 ‘담쟁이’라는 시의 구절이 떠오르며 감동이 더해졌다. ‘㉠ 한 뺨이라도 꼭 여럿이 함께 손을 잡고 올라간다 / 푸르게 절망을 다 덮을 때까지’라는 구절이었다. 이처럼 [A]

이와 관련하여 얼마 전에 있었던 동아리 발표 대회에서 상을 받았던 생각이 났다. 발표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여러 갈등을 겪으며 포기하고 싶은 순간도 있었다. 하지만 동아리 부장으로서 책임감을 가지고 내 뜻대로 똑심 있게 일을 추진했기에 상을 받을 수 있었다고 생각했었다. 그런데 나와 함께 발표를 열심히 준비하던 동아리 부원들의 모습이 떠오르면서 얼굴이 화끈거렸다. 시의 구절처럼, 발표를 위해 힘든 과정을 견디며 함께 노력했던 동아리 부원들이 없었다면 좋은 결과를 얻지 못했을 것이다. 발표를 포기하려 했던 힘든 상황을 이겨낼 수 있었던 것은 나 하나의 힘이 아닌 모두가 함께 노력하는 ㉡ 협력에 있었다. 이러한 협력의 의미를 이제야 깨닫게 된 것이다.

9. 학생의 글에 사용된 글쓰기 방법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협력에 대한 다양한 관점을 제시하고 협력이 갖는 장점과 단점을 비교한다.
- ② 협력과 관련된 정서적 체험을 제시하고 이와 관련한 자신의 경험을 깨달음과 연결한다.
- ③ 협력이 갖는 실용적 가치를 제시하고 그것이 갖는 전통적 의미와 현대적 의미를 대조한다.
- ④ 협력이 갖는 사회적 의미를 제시하고 일반적인 협력의 진행 과정을 순차적으로 보여 준다.
- ⑤ 협력을 개인적 차원과 사회적 차원의 해석으로 나누어 제시하고 그 해석에 따라 의미가 다른 이유를 설명한다.

10. [A]에 들어갈 글을 작성하고자 할 때, <조건>에 따라 쓴 것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조 건> —

- 첫 번째 문장은 ㉠의 일부를 직접 인용하면서 꽃들의 상황과 연관 지어 쓸 것.
- 두 번째 문장은 ㉡에 대해 직유법을 사용하여 쓸 것.

- ① 꽃들도 ‘한 뺨이라도 꼭 여럿이’처럼 서로 협력하며 어려움을 견뎌 냈을 것이다. 서로를 위한 양보는 모두를 발전시키는 원동력인 것이다.
- ② 꽃들도 서로 의지하며 ‘푸르게 절망을 다 덮을 때까지’ 어려움을 이겨낸 것이다. 무엇보다 삶의 다양한 가치를 아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닐까.

③ 꽃들도 척박한 환경이 아니라 좋은 환경에 놓였어도 함께 하는 자세가 중요했을 것이다. 아무리 좋은 여건에 놓였더라도 협력하는 자세가 중요하지 않을까.

④ 꽃들이 보도블록 사이에 필 수 있었던 것도 ‘꼭 여럿이 함께 손을 잡고’ 시련을 이겨 냈기 때문이다. 흠어지면 약하지만 뭉치면 단단해지는 눈 같은 협력의 힘이 어려운 상황을 이겨 내게 하는 것이 아닐까.

⑤ 꽃들이 필 수 있었던 것도 긍정적인 자세를 지니고 있었기에 가능했을 것이다. 매우 힘들고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긍정적인 마음을 가질 때 햇살처럼 웃을 수 있는 밝고 희망찬 미래를 맞이하게 될 것이다.

11. <보기>의 ㉠~㉣의 밑줄 친 부분과 동일한 음운 변동이 일어나는 예가 모두 바르게 제시된 것은?

— <보 기> —

국어에는 자음군 단순화, 구개음화, 비음화, 된소리되기, 거센소리되기 등의 음운 변동이 있다.

- ㉠ 우리는 자리를 옮겨서[움겨서] 밥을 먹었다.
- ㉡ 그녀는 내 말을 굳이[구지] 따지려 들지는 않았다.
- ㉢ 그는 정계에 입문하여[임문하여] 활동을 시작했다.
- ㉣ 나는 말을 더듬지[더듬찌] 않고 또박또박 대답했다.
- ㉤ 그는 듬직한[듬지칸] 성품으로 주변에 친구가 많았다.

- ① ㉠의 예: 굽기다, 급하다
- ② ㉡의 예: 미닫이, 뺨대다
- ③ ㉢의 예: 집문서, 만누이
- ④ ㉣의 예: 껴안다, 꿈같이
- ⑤ ㉤의 예: 굽히다, 한여름

12. <보기>의 밑줄 친 부분에 해당하는 예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보 기> —

국어의 조사 중에는 주로 체언 뒤에 결합하여 문법적인 관계를 나타내는 격 조사와 체언, 부사, 활용 어미 따위에 붙어서 어떤 특별한 의미를 더해주는 보조사가 있다.

- ① ‘국수라도 먹으렴.’에서의 라도
- ② ‘영어야 철수가 도사지.’에서의 야
- ③ ‘그 과자를 먹어든 보았다.’에서의 든
- ④ ‘일을 빨리만 하면 안 된다.’에서의 만
- ⑤ ‘그는 아이처럼 순진하다.’에서의 처럼

13. <보기>의 ㉠~㉣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보 기> —

높임법은 화자가 높이려는 대상이 누구인지에 따라 주체 높임법, 상대 높임법, 객체 높임법으로 구분된다. 주체 높임법은 주어가 나타내는 대상인 주체를 높이는 것이며, 상대 높임법은 대화의 상대인 청자를 높이거나 낮추는 것이고, 객체 높임법은 문장의 목적어나 부사어가 나타내는 대상인 객체를 높이는 것이다.

㉠ 할머니께서 책을 읽고 계신다.
㉡ 누나는 어머니께 모자를 선물로 드렸다.
㉢ 할아버지께서 월요일 오후에 병원에 가신다.
㉣ (선생님과의 대화 중) 선생님, 제가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 (아버지와의 대화 중) 아버지, 저는 아버지를 예전부터 존경해 왔습니다.

- ① ㉠은 주체인 ‘할머니’를 높이는 데에 ‘께서’와 ‘계시다’를 사용하고 있다.
- ② ㉡은 객체인 ‘어머니’를 높이는 데에 ‘께’와 ‘드리다’를 사용하고 있다.
- ③ ㉢은 주체인 ‘할아버지’를 높이는 데에 ‘께서’와 ‘-시-’를 사용하고 있다.
- ④ ㉣은 주체인 ‘선생님’을 높이는 데에 ‘말씀’을 사용하고 있다.
- ⑤ ㉤은 상대인 ‘아버지’를 높이는 데에 ‘-습니다’를 사용하고 있다.

14. 다음은 ‘사전 활용하기’ 학습 활동을 위한 자료이다. 이에 대해 탐구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이르다¹ [이르러, 이르니] ㉠ 【...에】
① 어떤 장소나 시간에 닿다. ㉠목적지에 이르다
② 어떤 정도나 범위에 미치다. ㉠결론에 이르다

이르다² [일러, 이르니] ㉡
① 【...에게 ...을】 【...에게 -고】 무엇이라고 말하다.
㉠나는 아이들에게 내가 알고 있는 것을 모두 일러 주었다. ㉡아이들에게 주의하라고 이르다.
② 【...을 -고】 어떤 대상을 무엇이라고 이름 붙이거나 가리켜 말하다. ㉠이를 도루묵이라 이른다.

이르다³ [일러, 이르니] ㉢ 【...보다】 【-기에】
대중이나 기준을 잡은 때보다 앞서거나 빠르다.
㉠그는 여느 때보다 이르게 학교에 도착했다. ㉡아직 포기하기엔 이르다.

- ① ‘이르다¹①’과 ‘이르다¹②’의 유의어로 ‘다다르다’가 있겠군.
- ② ‘이르다¹’과 ‘이르다²’와 ‘이르다³’은 서로 동음이의 관계이겠군.
- ③ ‘이르다¹’은 규칙 활용을 하지만 ‘이르다²’와 ‘이르다³’은 불규칙 활용을 하겠군.
- ④ ‘이르다¹’과 ‘이르다²’는 움직임을 나타내는 단어이고, ‘이르다³’은 성질 혹은 상태를 나타내는 단어이겠군.
- ⑤ ‘이르다³’의 용례로 ‘올해는 예년보다 첫눈이 이른 감이 있다.’를 추가할 수 있겠군.

15. 다음은 잘못된 문장 표현을 고쳐 쓴 것이다. 적절하지 않은 것은?

○ 단어의 사용이 잘못된 경우
예) 나이가 많고 작음은 큰 의미가 없다.
→ 나이가 크고 작음은 큰 의미가 없다. ①

○ 조사의 쓰임이 잘못된 경우
예) 우리는 아버지에 생신을 축하하려고 모였다.
→ 우리는 아버지의 생신을 축하하려고 모였다. ②

○ 어미의 사용이 잘못된 경우
예) 집에 가던지 학교에 가던지 해라.
→ 집에 가든지 학교에 가든지 해라. ③

○ 문장 성분 간의 호응이 잘못된 경우
예) 그것은 결코 우연한 일이었다.
→ 그것은 결코 우연한 일이 아니었다. ④

○ 문장 성분이 과도하게 생략된 경우
예) 그녀는 노래와 춤을 추고 있다.
→ 그녀는 노래를 부르며 춤을 추고 있다. ⑤

16. <보기>의 중세 국어 자료에서 나타난 특징을 탐구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보 기> —

[중세 국어]
나라히 파망(破亡)호니 :파·과 ㅁ·롬:썌 잇고
·жат ·앗 보·믹 ·플·와 나모:썌 가·팻도·다
시절(時節)·을 감탄(感嘆)·호니 고·지 ·눗·므를 썌·리게 ·코
여·회여·슈를 슬·후니 :새 ㅁ·스·물 :놀·래·다
봉화(烽火) | :석·드·를 나·세·사·니
자·빋 음서(音書)·는 만금(萬金)·이 ·스·도·다
— 초간본 『분류두공부시언해』 중에서 —

[현대어 풀이]
나라가 망하니 산과 강만 있고
성 안의 봄에 풀과 나무만이 깊어 있도다.
시절을 감탄하니 꽃이 눈물을 뿌리게 하고
헤어져 있음을 슬퍼하니 새가 마음을 놀라게 한다.
봉화가 석 달을 이어지니
집의 편지는 만금보다 값지도다.

- ① ‘보·믹’는 현대 국어의 ‘봄에’에 대응하는 것을 보니 끊어 적기를 하였군.
- ② ‘플·와’가 현대 국어의 ‘풀과’에 대응하는 것을 보니 방점이 쓰였군.
- ③ ‘썌·리게’가 현대 국어의 ‘뿌리게’에 대응하는 것을 보니 단어의 첫머리에 서로 다른 자음이 함께 사용되었군.
- ④ ‘ㅁ·스·물’이 현대 국어의 ‘마음을’에 대응하는 것을 보니 현대 국어에서 사용되지 않는 ‘ㅁ’, ‘ㅆ’가 사용되었군.
- ⑤ ‘드·를’이 현대 국어의 ‘달을’에 대응하는 것을 보니 모음 조화가 지켜졌군.

제 1 교시

국어 영역

[1~2] 다음은 강연의 일부이다. 물음에 답하시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방금 소개받은 요리 연구가 ○○○입니다.
‘맛있는 꽃’이라는 강연 제목에서 짐작하셨을 텐데 오늘 제 강연은 먹는 꽃, 즉 식용 꽃에 대한 것입니다. 여러분, 꽃을 먹는 것이라고 생각해 본 적이 있나요? 재스민 차 드셔 본 분은요? 아, 몇 분이 고개를 끄덕여 주셨어요. 그래요, 여러분이 마시는 차 중에는 말린 꽃잎을 재료로 한 것들이 있습니다. 또 꽃은 소스나 샐러드의 재료로도 자주 쓰인답니다. 화면을 보시죠. 장미 꽃잎을 올린 샐러드가 참 예쁘지 않습니까? 이외에도 팬지꽃, 호박꽃도 샐러드나 소스 재료로 쓰인답니다. 이렇게 꽃을 음식 재료로 쓰는 이유는 꽃잎의 화려한 색과 은은한 향기가 식욕을 자극하고 입맛을 돋우는 효과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전통 음식에도 꽃을 넣은 게 있는데요, 혹시 꽃을 넣은 전통 음식을 먹어 본 학생이 있으면 손을 들어 볼까요? (손을 든 학생을 가리키며) 네, 어떤 음식을 먹어 보았나요? (학생: 강연을 듣다 보니, 어렸을 적 할머니께서 진달래꽃으로 화전을 만들어 주셨던 것이 생각나요.) 네, 좋은 예를 들어 주었네요. 이 학생에게 다 함께 박수를 쳐 주세요. 고맙습니다. 우리 조상들은 오래전부터 꽃으로 다양한 음식을 만들어 먹었습니다. 예를 들어 봄철에는 여럿이 모여 진달래 화전을 만들어 먹었고, 가을이면 국화차를 마시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은 꼭 드려야겠네요. 철쭉꽃은 화전 재료로 쓰이는 진달래꽃과 비슷하게 생겼지만 절대 드시면 안 됩니다. 독성이 있으니까요. 철쭉꽃뿐만 아니라 아네모네, 은방울꽃 같은 것들도 독성이 있답니다. 그러니 꽃을 먹기 전에 독성이 있는 꽃인지 꼭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꽃에는 농약이나 오염 물질이 묻어 있는 경우가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그리고 꽃에 따라서는 꽃가루가 알레르기를 일으키는 것도 있으니 이런 꽃은 암술, 수술, 꽃받침을 제거하고 꽃잎만 드셔야 해요. 특히 진달래꽃은 수술에 약한 독성이 있으므로 반드시 이를 제거하고 물에 씻어야 한답니다.

1. 강연자의 말하기 방식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질문을 통해 청중의 경험을 이끌어 내어 강연의 내용과 연결 짓고 있다.
 - ② 강연 중간 중간에 자신이 말한 내용을 요약하여 청중의 이해를 돕고 있다.
 - ③ 설명 대상에 대한 역사적 사건을 제시하여 청중의 흥미를 유발하고 있다.
 - ④ 자신의 과거 경력을 소개하여 청중이 강연 내용에 대해 신뢰감을 갖게 하고 있다.
 - ⑤ 강연 진행 순서를 처음에 안내하여 청중이 강연 내용을 예측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2. 다음은 강연을 들은 학생이 작성한 학습 활동지이다. 학생의 듣기 활동을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학습 활동지	
○ 듣기 전후에 떠올린 생각	
〈듣기 전〉	
• 어떤 꽃을 먹을 수 있을까?	]...㉠
• 꽃을 재료로 하는 음식에는 무엇이 있을까?	
〈듣기 후〉	
• 진달래꽃과 철쭉꽃의 형태적 차이점은 무엇일까?㉡	]...㉢
• 학교 화단의 꽃은 함부로 음식 재료로 쓰면 안 되겠군.㉣	
• 동아리 행사로 무엇을 할지 아직 정하지 못해 걱정했는데, 꽃을 재료로 한 음식 만들기를 하면 좋을 것 같아.	
○ 강연을 듣고 정리한 내용	
• 꽃을 재료로 한 음식: 꽃잎 차, 샐러드, 화전 등	]...㉤
• 식용 가능: 장미꽃, 팬지꽃, 호박꽃, 진달래꽃, 국화꽃 ※ 농약이나 오염 물질 없는 것, 꽃잎만 섭취	
• 식용 불가: 철쭉꽃, 아네모네, 은방울꽃	

- ① ㉠과 ㉢을 함께 고려할 때 듣기 전 떠올렸던 질문에 대한 답을 강연에서 찾았음을 확인할 수 있다.
- ② ㉡에서는 들은 내용이 사실과 부합하는지 점검했음을 확인할 수 있다.
- ③ ㉣에서는 들은 내용을 강연자가 직접 언급하지 않은 대상에 적용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다.
- ④ ㉤에서는 들은 내용을 자신의 문제 해결에 활용하려 함을 확인할 수 있다.
- ⑤ ㉤에서는 들은 내용을 정보 간의 관련성이 드러나도록 범주화하여 정리했음을 확인할 수 있다.

[3~5] 다음은 학생들의 토의이다. 물음에 답하시오.

사회자: 이번 교내 학생 연설의 주제는 ‘사이버 언어폭력 근절을 위해 노력합시다’이고 오늘 ㉠우리가 할 토의 주제는 ‘사이버 언어폭력 근절을 위한 교내 학생 연설을 어떻게 할 것인가’야. 지금부터 ㉡우리가 할 연설에 대해 토의해 보는데 먼저 연설을 시작할 때 친구들의 ㉢주의를 집중하게 하는 방법에 대해 얘기해 볼까?

학생 1: 우선 연설을 할 장소와 연설을 들을 친구들의 특성을 감안해야 해. 연설 장소가 넓은 강당이고, 주제에 대한 관심의 정도가 제각각인 친구들이 대상이니 인기가요를 틀어 친구들의 주의를 끄는 게 어떨까?

학생 2: 글쎄, 그 방법은 이미 다른 친구들이 여러 번 쓴 방법이라 더 이상 친구들의 주의를 집중시키기 어려워. 가볍고 재미있는 이야기로 시작하는 건 어때?

학생 3: 연설 분위기를 부드럽게 하는 데에는 도움이 되겠지만 우리 연설 주제를 고려할 때 적합하지 않아. 주제와 관련 있는 내용이면 좋겠어. 그래서 말인데, 연설을 시작할 때 연설 주제에 적합한 시를 낭송한 후 사이버 언어폭력의 개념과 사이버 언어폭력 근절의 시급성을 언급하자.

학생 1: 응. 시 낭송은 참신한 방식이니 친구들의 주의를 끄는 데 도움이 되겠네. 주제와도 관련이 있으니 연설 내용 이해에도 도움이 될 거고.

학생 2: 그래. 생각해 보니 그 방법이 좋겠다.

사회자: 그럼, 이제는 사이버 언어폭력 근절을 위해 노력하자는 우리의 ㉣주장을 뒷받침하기에 적절한 근거와 그 제시 순서에 대해 논의해 보자.

학생 1: 사이버 언어폭력 문제의 핵심은 피해자가 극심한 고통을 겪게 된다는 것이므로 이 점을 첫째 근거로 제시하자. 순식간에 확산되는 사이버 언어폭력으로 인한 피해자의 고통을 핵심 근거로 들어야 해. 피해 사례를 다룬 언론 보도 자료를 보여 주면 친구들이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게 될 거야.

학생 2: 피해자가 겪는 고통을 핵심 근거로 보는 네 의견에는 동의해. 그런데 친구들이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내용을 첫째 근거로 제시하면 어떨까? 가해자는 별다른 죄의식 없이 사이버 언어폭력을 저지르지만 사이버 언어폭력은 처벌받게 되는 범죄 행위라는 점을 첫째 근거로 들어 경각심을 불러일으키자. 관련 법 조항을 자료로 제시하면 더 효과가 있을 거야.

학생 3: 친구들에게 경각심을 준다는 점에서 좋은 근거라고 생각해. 그런데 먼저 친구들이 이 문제에 공감하도록 하는 게 어떨까? 누구나 사이버 언어폭력의 피해자가 될 수 있다는 점을 첫째 근거로 제시하면 친구들이 이 문제에 쉽게 공감할 수 있을 거야. 사이버 언어폭력으로 인한 피해자가 급증하고 있다는 통계 자료를 인용하면서 더 이상 방관해서는 안 된다는 내용으로 호소하는 거지.

학생 1: 지금까지 제안된 근거와 자료는 다 적절하다고 생각되니 모두 채택하자. 단, 순서는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할 수 있도록 하는 핵심 근거, 문제에 공감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 경각심을 불러일으킬 수 있도록 하는 근거의 순으로 제시하면 좋겠어.

학생 2: 좋은 생각이야. 그렇게 하자. 연설 마지막엔 친구들의 행동 변화를 촉구하는 내용으로 마무리하자.

학생 3: 좋아. 나도 동의해.

사회자: 그럼, 지금까지 ㉤합의된 토의 내용을 반영하여 연설 계획을 정리해 볼게. 이제, 토의를 마치자.

3. ㉠과 ㉡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에서는 ㉡을 들을 청중의 특성이 고려되고 있다.
- ② ㉠에서는 ㉡이 행해지는 공간적 상황이 고려되고 있다.
- ③ ㉠에서는 ㉡에서 다룰 근거의 제시 순서가 논의되고 있다.
- ④ ㉠에서는 ㉡의 내용을 효과적으로 전달할 방법이 모색되고 있다.
- ⑤ ㉠에서는 ㉡의 마무리 부분에서 활용할 비언어적 표현 방법이 논의되고 있다.

4. [A]에 나타난 참여자들의 발화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 ① 학생 1은 청중의 주의 집중 효과 측면에서 ㉢에 대한 학생 3의 제안이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하였다.
- ② 학생 2는 청중의 주의 집중 효과 측면에서 ㉢에 대한 학생 1의 제안이 적절하다고 판단하였다.
- ③ 학생 3은 연설 주제와의 부합 여부 측면에서 ㉢에 대한 학생 2의 제안이 적절하다고 판단하였다.
- ④ 학생 2는 핵심 근거로서의 적합성 측면에서 ㉣에 대한 학생 1의 제안이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하였다.
- ⑤ 학생 3은 청중의 경각심을 유발하는 측면에서 ㉣에 대한 학생 2의 제안이 적절하다고 판단하였다.

5. 사회자가 ㉤에 따라 연설 계획을 세운다고 할 때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사이버 언어폭력 행위는 처벌 대상임을 관련 법 조항을 들어 주장의 근거로 제시해야겠어.
- ② 청중의 주의를 집중시키기 위해 연설을 시작할 때 주제와 관련된 시 작품을 활용해야겠어.
- ③ 사이버 언어폭력 피해자가 극심한 고통을 겪고 있음을 언론 보도 사례를 활용해 주장의 근거로 제시해야겠어.
- ④ 사이버 언어폭력 가해자가 늘어날수록 가해자가 별다른 죄의식 없이 사이버 언어폭력을 저지른다는 것을 주장의 근거로 제시해야겠어.
- ⑤ 누구나 사이버 언어폭력의 피해자가 될 수 있음을 사이버 언어폭력 피해자 관련 통계 자료를 인용해 주장의 근거로 제시해야겠어.

[6~8] 다음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교지 편집부의 요청 내용>

우리 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정보 통신 기술의 발달에 따른 우리나라 농업의 미래’에 대해 글을 써 주세요.

<글을 쓰기 전에 떠올린 생각>

- 예상되는 미래 농업의 모습을 제시해야겠어. ㉠
- 농업의 중요성에 대해 언급하며 글을 시작해야겠어. ㉡
- 농업에 도입될 정보 통신 기술에 대해 언급해야겠어. ㉢
- 농업 발전을 위한 정보 통신 기술 관련 정책이 어떻게 변화할지 설명해야겠어. ㉣
- 정보 통신 기술의 발달로 해결할 수 있는 현재 농업의 문제 상황을 제시해야겠어. ㉤

<초고>

인류 역사에서 가장 오래된 산업이자 인류의 운명과 함께할 산업은 무엇일까? 신석기 시대 이래 지속적으로 발전되어 온 농업은 인류의 생존과 직결된 가장 기본적인 산업이다. 이제 농업은 정보 통신 기술 기반의 빅데이터 활용 기술과 환경 제어 기술의 발달과 함께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

[A] 기상과 병충해 같은 농업 관련 정보를 수집, 처리, 활용하는 빅데이터 활용 기술이 농업에 도입되면 농산물의 생산량을 적절하게 조절하는 것이 가능해져 농가가 안정적인 수익을 올릴 수 있다. 지금까지는 농산물을 기를 때 기상 상태나 병충해와 같은 외부 환경으로 인한 피해가 생산량에 미치는 영향이 컸기 때문에 생산량을 예측하고 조절하는 것이 어려웠다. 이로 인해 농산물 가격이 폭등하거나 폭락하는 경우가 많았다. 농업과 관련된 빅데이터가 더 많이 축적되고 이를 실시간으로 활용할 수 있게 된다면 계획적인 생산과 체계적인 관리가 가능해질 것이다. 실제로 농업 관련 빅데이터를 활용해 농사를 지은 농가의 생산성이 향상된 사례도 있다.

[B] 재배 환경 정보를 실시간으로 수집·처리하여 최적화된 정보에 따라 재배 환경을 조절하고 자동 재배 시설을 제어하는 기술이 도입되면 실내에서의 대규모 농업도 가능해진다. 온도와 습도, 이산화탄소 농도, 빛의 양 등 농작물 성장에 필수적인 요소들을 자동으로 조절해 주는 시설이 완비된 식물 공장이 확산되면 농업은 이전과 달리 장소의 제약에서 벗어날 수 있다. 또한 식물 공장을 고층 건물 형태로 지으면 공간이 한정된 도시에서도 좋은 품질의 농작물을 대량으로 생산할 수 있다. 도심 곳곳의 고층 건물에서 층마다 농산물을 재배하는 모습을 영화가 아닌 현실에서 보게 될 것이다.

발달된 정보 통신 기술이 농업에 도입되면 농가는 안정적인 수익을 올릴 수 있고, 도시의 고층 건물에서도 대규모로 농작물을 재배하는 것이 가능할 것이다. 어업과 같은 전통적인 산업에서도 농업과 유사한 발전 양상을 보일 것이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 농업은 계속 발전할 것이다.

6. ㉠~㉤ 중 <초고>에 반영되지 않은 것은?

- ① ㉠ ② ㉡ ③ ㉢ ④ ㉣ ⑤ ㉤

7. <보기>는 학생이 초고를 쓰기 위해 수집한 자료의 일부이다.

㉦~㉨의 활용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보 기>

- 과수원 농사를 짓는 ㉦○○농가는 빅데이터를 활용한 관리 시스템을 도입한 이후 생산량은 25% 이상 향상되었고, 운영비는 10% 이상 줄어들었다. ... (중략) ... 기상 관련 정보가 축적될수록 ㉧가뭄 피해, 수해, 냉해를 최소화할 수 있다. - 『□□농업신문』 -
- 도시에서 농작물을 인공적으로 생산하는 식물 공장이 ㉨미래 식량 위기의 대안으로 급부상되고 있다. 식물 공장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 첫째, ㉩한정된 공간에서의 토지 이용 효율이 높다. 둘째, 환경 조절 장치를 통해 ㉪농작물이 자라는 데 필수적인 환경을 인위적으로 조절한다. - 과학 잡지 『△△△』 -

- ① ㉦의 정보를 이용하여 [A]에서 정보 통신 기술 도입의 긍정적 사례로 제시하였다.
- ② ㉧의 현상을 포괄하여 [A]에서 생산량의 예측과 조절이 어려웠던 원인을 제시하는 데 활용하였다.
- ③ ㉨의 규모를 예측하여 [B]에서 식물 공장의 경제적 효과를 제시하는 데 활용하였다.
- ④ ㉩의 실현 가능한 모습을 구체화하여 [B]에서 식물 공장의 형태에 대한 정보로 제시하였다.
- ⑤ ㉪의 요소들을 찾아 [B]에서 식물 공장의 시설에 대한 정보를 제시하는 데 활용하였다.

8. <보기>는 초고를 읽은 편집부의 검토 의견과 이에 따라 학생이 고쳐 쓴 글이다. [가]에 들어갈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보 기>

[편집부의 검토 의견]

초고 잘 읽었습니다. ([가])을 고려하여 마지막 문단을 고쳐 주시면 좋겠습니다.

[고쳐 쓴 글]

발달된 정보 통신 기술이 농업에 도입되면 농가는 안정적인 수익을 올릴 수 있고, 도시의 고층 건물에서도 대규모로 농작물을 재배하는 것이 가능할 것이다. 물론 이와 같은 기대가 실현되기 위해서는 높은 초기 투자 비용 등 많은 문제점들을 해결해야 한다. 이러한 문제점들을 하나씩 해결해 나갈 때 우리 농업은 계속 발전할 수 있을 것이다.

- ① 수식 관계가 어긋나는 문장, 정보 통신 기술 적용의 확장 가능성
- ② 글의 흐름에 어긋나는 문장, 정보 통신 기술 적용의 확장 가능성
- ③ 글의 흐름에 어긋나는 문장, 미래를 낙관적으로만 바라보고 있는 문제점
- ④ 주술 호응이 어긋나는 문장, 미래를 낙관적으로만 바라보고 있는 문제점
- ⑤ 주술 호응이 어긋나는 문장, 전통 산업을 사양 산업으로만 인식하고 있는 문제점

[9~10] (가)와 (나)는 동일한 작문 과제를 수행한 두 학생의 글이다. 물음에 답하시오.

작문 과제

다음 자료에서 이끌어 낸 의미를 바탕으로 ㉠ ‘원활한 의사소통을 위해 필요한 태도’에 대한 글을 써 보자.

<자료>

소리는 저 혼자서 완성하는 것이 아닙니다. ‘일고수 이명창’이라는 말이 있듯 북장단으로 소리를 이끌고 추임새로 흥을 돋우어 주는 북재비가 없다면 제 목소리는 무용지물이지요. 일단 판소리가 시작되면 북재비인 △△△ 씨와 저는 완벽한 호흡으로 공연을 완성해 나갑니다. 이를 위해서는 물론 수많은 연습을 통해 호흡을 맞춰 보는 과정이 필요하지요.

- ○○○ 명창과의 인터뷰 -

(가)

소리꾼과 북재비의 판소리 공연 모습에서 내가 상담 선생님을 찾아뵈었을 때의 상황이 떠올랐다. 선생님께서는 마치 북재비의 역할을 하듯 나를 북돋워 주신다. 내 감정 상태를 있는 그대로 인정해 주시고 내 말에 맞장구를 쳐 주심으로써 속 깊은 이야기를 마음껏 꺼낼 수 있도록 도와 주신다.

[A]

그런데 나는 그런 태도가 부족해 부끄럽다. 친동생을 대할 때 그의 말을 잘 들어 주고 스스로 마음을 드러내도록 도와주기보다는 동생의 생각을 지레짐작하고 내 잣대를 내세워 입바른 소리부터 한다. 그러다 보면 제대로 된 대화는커녕 관계가 서먹해지고 심지어 다투게 될 때도 있다. 늘 후회하면서도 말이다.

가족 간의 원활한 의사소통을 위해서는 서로가 하고 싶은 말을 잘 할 수 있도록 잘 들어 주고 도와주는 태도가 필요한 것이다.

(나)

소리꾼과 북재비가 완벽한 호흡을 통해 공연을 완성해 나간다고 하는 것을 보니, 의사소통 방법에 대한 책에서 읽었던 내용이 떠올랐다. 원활한 의사소통은 서로를 잘 이해하는 것에서 비롯되는데, 이를 위해서는 꾸준한 대화를 통해 교감하려는 태도가 필요하다고 한다. 이는 마치 소리꾼과 북재비가 완벽한 호흡을 이루기 위해 오랜 시간 함께하며 교감하는 것과 같다고 생각했다.

[B]

친구 간에 말 몇 마디 주고받지도 않고 선불리 자신과 마음이 통하지 않는다고 여기고 이내 마음을 닫아 버릴 때가 있다. 그것이 때로 오해나 갈등으로 이어지기도 하는데 나 역시 그런 경우가 있어 부끄럽다. 물론 처음부터 마음이 통하는 친구 사이가 되기는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닫힌 마음을 열고 서로를 이해하기 위한 노력과 과정이 필요한 것이다.

㉠

9. [A], [B]를 통해 두 학생의 작문 수행 과정을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자료의 내용을 [A]에서는 상담 경험과, [B]에서는 독서 경험과 관련지었다.
- ② 자료에서 이끌어 낸 의미를 [A]에서는 가족과의 의사소통 상황에, [B]에서는 친구와의 의사소통 상황에 적용하였다.
- ③ [A]에서는 ‘북재비’의 역할에, [B]에서는 ‘소리꾼’과 ‘북재비’가 완벽한 호흡을 이루기 위해 필요한 과정에 주목하였다.
- ④ [A]와 [B] 모두 자료에서 이끌어 낸 의미와 관련하여 자신을 반성하였다.
- ⑤ [A]와 [B] 모두 의사소통 상황에서 발생한 문제가 해결되었던 사례를 주변에서 찾아 제시하였다.

10. ㉠에 들어갈 내용을 <조건>에 따라 쓴 것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조 건>

- 비유적 표현을 사용할 것.
- ㉠에 대하여 (나)에 언급된 핵심 내용을 제시하고, 이를 실천할 때 얻을 수 있는 효과를 제시할 것.

- ① 좋은 친구는 어둠을 밝혀 주는 등불과 같다. 내가 어려운 일에 부딪혔을 때 용기를 잃지 않고 내 앞에 놓인 길을 찾아 나서는 데 빛이 되기 때문이다.
- ② 상대방과 말이 통하지 않는다고 실망할 필요는 없다. 대화를 통해 서로를 이해하기 위한 노력을 아끼지 않는다면 원활한 의사소통이 가능할 것이다.
- ③ 대화는 서로의 마음을 열어 주는 열쇠이다. 대화를 지속적으로 나누며 교감해 나간다면 대면대면하던 사이도 언젠가는 마음이 통하는 사이가 될 것이다.
- ④ 서로 잘 이해하는 사이라고 해서 오해가 전혀 없을 수는 없다. 서로 간에 오해가 생기더라도 그것을 해결하려 노력한다면 서로를 더 잘 이해하게 될 것이다.
- ⑤ 좋은 친구 사이가 되는 데에 지름길은 없다. 선불리 내가 먼저 다가서려 하기보다는 너그러운 마음으로 기다린다면 친구가 먼저 마음을 열고 내게 다가올 것이다.

[11~12]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여러 형태소로 이루어진 단어나 여러 단어들로 이루어진 문장은 그 구조를 명확히 파악하기 어렵다. 가령, ‘민물고기’가 합성어인지 파생어인지를 판별하기 어렵고 “언니가 찾던 책이 여기 있구나.”와 같은 문장에서 주어가 무엇인지를 파악하기 쉽지 않다. 이처럼 복잡한 단어나 문장의 구조를 명확히 파악하기 위한 효과적인 방법으로 직접 구성 요소 분석이 있다.

직접 구성 요소란 어떤 말을 직접 이루고 있는 두 부분으로 나누었을 때 나오는 두 요소이다. 위의 ‘민물고기’에서는 ‘민물’과 ‘고기’가 직접 구성 요소가 된다. 이 분석은 ‘민물’에 대해서도 더 적용할 수 있다. 이렇게 직접 구성 요소를 분석해 보면 한 단어에 합성과 파생 과정이 모두 있는 ‘민물고기’는 파생어가 아닌 합성어임을 알 수 있다.

직접 구성 요소 분석 시에는 특히 두 가지를 고려해야 한다. 첫째, 직접 구성 요소로 분석되는 말이 실제로 존재하는가 하는 점이다. 가령, ‘살얼음’은 ‘살-’과 ‘얼음’으로 분석해야 하는데, 만약 ‘살얼-’과 ‘-음’으로 분석하면 ‘살얼다’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잘못된 분석이 된다. 둘째, 직접 구성 요소들과 그 전체 구성의 의미가 서로 통하는가 하는 점이다. ‘벽돌집’을 직접 구성 요소로 나누면 ‘벽돌’과 ‘집’이 분석된다. 이를 ‘벽’과 ‘돌집’으로 나누면 ‘벽돌로 만든 집’이라는 의미를 갖지 못한다.

긴 문장도 직접 구성 요소 분석을 통해 그 구조를 알 수 있다. 일반적으로 문장에는 주어와 서술어가 나타나므로, 문장의 직접 구성 요소는 주어와 서술어가 된다. 그런데 서술어는 홀로 나오기도 하지만 주어 이외의 필수 성분과 결합하여 나오는 경우도 있다. 따라서 “내 동생은 엄마의 칭찬을 많이 받았다.”는 첫 분석 층위에서 주어 ‘내 동생은’과 ‘엄마의 칭찬을 많이 받았다’로 그 직접 구성 요소가 분석된다. 또 ‘엄마의 칭찬을 많이 받았다’는 한 층위 아래에서 ‘엄마의 칭찬을’과 ‘많이 받았다’로 나뉜다. 또한 ‘내 동생’의 직접 구성 요소는 ‘내’와 ‘동생’인데, 이처럼 꾸미는 말과 꾸밈을 받는 말이 인접하면 그 두 요소는 바로 위 층위의 말을 이루는 직접 구성 요소가 된다. 이렇게 직접 구성 요소를 분석해 보면 “언니가 찾던 책이 여기 있구나.”에서 ‘언니가’는 관형사절 속에 포함된 주어일 뿐이며 문장 전체의 주어, 즉 가장 위 층위에 있는 직접 구성 요소는 ‘언니가 찾던 책이’임을 알 수 있다.

11. <보기>는 윗글을 바탕으로 진행된 학습 활동이다. ㉠~㉡에 대한 이해로 적절한 것은?

<보 기>

학 생: ‘민물고기’에 있는 접두사 ‘민-’은 ‘민물고기’의 직접 구성 요소가 아니라, ‘민물’을 직접 구성 요소로 분석할 때 나오는 것이군요. 이제 왜 ‘민물고기’가 파생어가 아니라 합성어인지 알겠어요.

선생님: 직접 구성 요소 분석에 대해 잘 이해했구나. 그럼 아래의 단어들도 분석해 보자.

㉠ 나들이웃	㉡ 눈웃음	㉢ 드높이다
㉣ 집집이	㉤ 놀이터	

- ① ㉠은 그 직접 구성 요소 중 하나가 합성어인 합성어이다.
- ② ㉡은 그 직접 구성 요소 중 하나가 파생어인 합성어이다.
- ③ ㉢은 그 직접 구성 요소 중 하나가 합성어인 파생어이다.
- ④ ㉣은 그 직접 구성 요소 중 하나가 파생어인 파생어이다.
- ⑤ ㉤은 그 직접 구성 요소 중 하나가 합성어인 파생어이다.

12. 윗글의 관점에서 <보기>의 ㉦~㉨를 분석한 것으로 옳지 않은 것은?

<보 기>

㉦ 지회는 목소리가 곱다.

㉧ 소포가 도착했다고 들었다.

㉨ 동수가 미애에게 선물을 주었다.

㉩ 그가 익명의 기부자임이 밝혀졌다.

㉪ 인생은 짧고 예술은 길다는 말은 명언이다.

- ① ㉦은 ‘지회는’과 ‘목소리가 곱다’로 분석되겠군.
- ② ㉧은 ‘소포가’와 ‘도착했다고 들었다’로 분석되겠군.
- ③ ㉨은 ‘동수가’와 ‘미애에게 선물을 주었다’로 분석되겠군.
- ④ ㉩은 ‘그가 익명의 기부자임이’와 ‘밝혀졌다’로 분석되겠군.
- ⑤ ㉪은 ‘인생은 짧고 예술은 길다는 말은’과 ‘명언이다’로 분석되겠군.

13. <보기>의 ㉦~㉨에 쓰인 ㉠, ㉡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보 기>

용언은 어간에 어미가 붙어 다양한 의미를 나타내며 활용된다. 어미는 ㉠ 선어말 어미와 ㉡ 어말 어미로 나뉜다. 어말 어미는 다시 종결 어미, 연결 어미, 전성 어미로 나뉜다. 용언의 활용형에서 선어말 어미는 없는 경우가 있어도 어말 어미는 반드시 있어야 한다.

㉦ 민수가 그 나무를 심었구나!

㉧ 저기서 청소하는 아이가 내 동생이야.

㉨ 그 친구가 설마 그 음식을 다 먹었겠니?

㉩ 그가 나에게 권한 책은 이미 읽은 책이다.

㉪ 주말에 바람은 불겠지만 비는 오지 않을 것이다.

- ① ㉦에는 과거 시제를 나타내는 ‘-었-’이 ㉠로 쓰였고, 감탄형 종결 어미 ‘-구나’가 ㉡로 쓰였다.
- ② ㉧에는 ㉠은 없고 동사의 현재 시제를 나타내는 관형사형 전성 어미 ‘-는’이 ㉡로 쓰였다.
- ③ ㉨에는 과거 시제를 나타내는 ‘-었-’과 주체의 의지를 나타내는 ‘-겠-’이 ㉠로 쓰였고, 의문형 종결 어미 ‘-니’가 ㉡로 쓰였다.
- ④ ㉩에는 ㉠은 없고 동사의 과거 시제를 나타내는 관형사형 전성 어미 ‘-은’이 ㉡로 쓰였다.
- ⑤ ㉪에는 추측의 의미를 나타내는 ‘-겠-’이 ㉠로 쓰였고, 대등적 연결 어미 ‘-지만’이 ㉡로 쓰였다.

14. <보기>의 ㉠~㉤에 들어갈 말을 올바르게 짝지은 것은? [3점]

〈보 기〉	
㉠	영희 어머니께서는 “네 동생은 착해.”라고 말씀하셨다.
㉡	영희 어머니께서는 내 동생이 착하다고 말씀하셨다.
㉢은 영희 어머니의 발화를 그대로 옮긴 직접 인용이고, ㉣은 영희 어머니의 발화를 풀어 쓴 간접 인용이다. 그런데 직접 인용을 간접 인용으로 바꿀 때나 간접 인용을 직접 인용으로 바꿀 때는 인용절 속의 어미, 인용 조사, 대명사, 지시 표현, 높임 표현 등에 변화가 생길 수 있다.	
직접 인용	아들이 어제 저에게 “내일 사무실에 계십시오.”라고 말했습니다.
↓	
간접 인용	아들이 어제 저에게 (㉠) 사무실에 (㉡) 말했습니다.
직접 인용	언니는 어제 “나의 휴대 전화에 메시지를 꼭 남겨라.”라고 나에게 말했다.
↓	
간접 인용	언니는 어제 (㉢) 휴대 전화에 메시지를 꼭 (㉣) 나에게 말했다.

	㉠	㉡	㉢	㉣
①	오늘	있으라고	자기의	남기라고
②	어제	계시라고	자기의	남겨라고
③	오늘	있으라고	나의	남겨라고
④	오늘	계시라고	자기의	남겨라고
⑤	어제	계시라고	나의	남기라고

15. <보기>의 밑줄 친 부분에서 알 수 있는 중세 국어의 문법적 특징을 설명한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 기〉	
(가) <u>하늘</u> 버리 눈 곧 디니이다	<용비어천가> (현대어 풀이: 하늘의 별이 눈과 같이 떨어집니다.)
(나) 王이 부터를 <u>請흐스불쇼셔</u>	<석보상절> (현대어 풀이: 왕이 부처를 청하십시오.)
(다) 어마니물 <u>아라보리로소니잇가</u>	<월인석보> (현대어 풀이: 어머니를 알아보겠습니까?)
(라) <u>내</u> 이를 위흐야	<훈민정음언해> (현대어 풀이: 내가 이를 위해서)
(마) 그 물 <u>미퇴</u> 金물에 잇느니	<월인석보> (현대어 풀이: 그 물 밑에 금모래가 있는데)

- ① (가): 무정 명사에 결합되는 관형격 조사 ‘스’이 쓰였다.
 ② (나): 객체를 높이는 선어말 어미 ‘-슬-’이 쓰였다.
 ③ (다): 판정 의문문의 ‘-아’ 계열 의문형 어미가 쓰였다.
 ④ (라): 모음으로 끝나는 체언 뒤에 주격 조사 ‘ㅣ’가 쓰였다.
 ⑤ (마): 높이지 않는 유정 명사에 결합되는 관형격 조사 ‘의’가 쓰였다.

[16~18]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 (가) 산촌(山村)에 눈이 오니 돌길이 못쳐세라
 시비(柴扉)를 여지 마라 날 츠즈리 뉘 이스리
 밤둥만 일편명월(一片明月)이 괴 벗인가 흐노라 <1수>
- (나) 셋그래 기나 즈르나 기동이 기우나 트나
 수간모옥(數間茅屋)*을 죽은 줄 웃지 마라
 어즈버 만산 나월(滿山蘿月)*이 다 니 거신가 흐노라 <8수>
- (다) 한식(寒食) 비 온 밤에 봄빛치 다 퍼졌다
 무정(無情)흔 화류(花柳)도 재를 아라 피엿거든
 엇더타 우리의 님은 가고 아니 오노고 <17수>
- (라) 어지밤 비 온 후(後)에 석류(石榴)곶지 다 피엿다
 부용 당반(芙蓉塘畔)*에 수정렴(水晶簾)을 거더 두고
 늘 향한 김흔 시름을 못내 푸러 흐노라 <18수>
- (마) 창(窓)밖기 위석버석 님이신가 이러 보니
 혜란 혜경(蕙蘭蹊徑)*에 낙엽(落葉)은 무스 일고
 어즈버 유한흔 간장(肝腸)이 다 끈칠까 흐노라 <19수>
 - 신희, 『방옹시여(放翁詩餘)』 -

- * 수간모옥: 방이 몇 칸 되지 않는 작은 초가.
 * 만산 나월: 산에 가득 자란 덩굴 풀에 비친 달.
 * 부용 당반: 연꽃이 피어 있는 연못가.
 * 혜란 혜경: 난초가 자라난 지름길.

16. 윗글의 표현상 특징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가)에서는 대상과의 문답을 통해 시상을 심화하고 있다.
 ② (나)에서는 과거와 현재를 대비하여 화자의 삶의 태도를 암시하고 있다.
 ③ (다)에서는 선경후정의 전개 방식을 통해 화자의 내면을 드러내고 있다.
 ④ (라)에서는 대상에 감정을 이입하여 심리적 변화를 우회적으로 표출하고 있다.
 ⑤ (마)에서는 대상을 의인화하여 대상이 지닌 속성들을 점층적으로 나열하고 있다.

17. <보기>의 ㉠, ㉡를 고려하여 (가)~(라)를 이해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보 기〉	
『방옹시여』는 선조(宣祖) 사후에 정계에서 밀려난 신희이 은거 상황을 배경으로 창작한 시조 작품을 모아 놓은 것이다. 여기에 수록된 30수는 몇 개의 작품군으로 분류될 수 있다. 예컨대 ㉠은 <u>은자로서의 자족감이나 자궁심을 표현한 작품군</u> , ㉡는 <u>‘님’으로 표상되는 선왕에 대한 그리움과 연모의 정을 표현한 작품군</u> 등이 있다.	

- ① (가)의 ‘눈’은 ㉠와 연관된 시어로, 화자의 은거가 자발적으로 이루어졌음을 알려 주는 단서이다.
 ② (나)의 ‘수간모옥’은 ㉡와 연관된 시어로, 화자의 답답한 심정이 투영되어 있는 대상이다.

[1 ~ 3] 다음은 학생들 간의 토의이다. 물음에 답하시오.

사회자: 우리 동아리는 역사를 탐구하기 위한 자율 동아리입니다. 그런데 요즘 동아리 활동이 침체되어 걱정하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그래서 문제점을 짚어 보고 해결 방안을 토의하고자 합니다. 먼저 문제점에 대해 말씀해 주십시오.

부원 1: 토론 중심의 단조로운 활동으로 부원들의 흥미와 의욕이 저하되어 동아리 활동이 침체된 것 같습니다.

부원 2: ㉠ 맞습니다. 토론을 통해 진지하게 역사를 탐구하는 것도 좋지만, 부원들이 흥미를 가지고 참여할 수 있는 활동이 없어서 아쉬웠습니다.

사회자: 토론 중심의 단조로운 활동 때문에 부원들의 참여가 저조해졌다는 말씀이시군요. 그렇다면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부원 3: 토론 외에 정기적으로 역사적 인물이나 사건을 소재로 한 역사 영화를 함께 감상하는 것이 어떨까요?

부원 4: 저는 역사 유적 답사를 정기적으로 다녀오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사회자: 정기적으로 역사 영화를 감상하자는 의견과 역사 유적 답사를 다니자는 의견이 제시되었습니다. 어느 방안이 더 좋을지 의견을 주십시오.

부원 1: 역사 영화는 역사를 재미있게 접할 수 있도록 해 줍니다. 관련 자료를 찾아 영화의 내용과 역사적 사실을 비교하면서 영화를 감상하면 유익할 것 같습니다.

부원 4: 역사 영화에는 허구적인 내용도 많이 있다고 하는데, 영화 내용이 사실에 부합하는지 알기 어렵습니다. 관련 자료를 찾고 그 자료가 적절한지를 판단하는 것도 우리의 힘만으로는 어렵습니다.

부원 3: 역사 유적 답사에는 여러 가지 사전 준비가 필요하고,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든다는 점을 생각하면 실행이 어려울 것 같습니다. 따라서 저는 역사 영화 감상이 더 낫다고 생각합니다.

사회자: 활동을 실행할 때의 어려움을 놓고 의견이 갈리고 있군요.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두 방안 중 어느 것이 좋을지 결정하겠습니다.

부원 1: 역사 영화의 내용과 관련해서는 동아리 지도 선생님께서 여쭙 보거나 관련 분야 전문가를 인터뷰하는 등의 방법으로 도움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부원 4: ㉡ 역사 영화를 보는 것에 동의합니다. 다시 생각해 보니, 역사 유적 답사는 답사지 조사와 선정, 사전 답사 등에 많은 시간과 비용이 소요될 것 같습니다.

부원 2: 저도 동의합니다. 다만 영화를 선정하고 관련 자료를 찾을 때 적절히 역할 분담을 하면 좋겠습니다.

사회자: 정기적으로 역사 영화를 보는 활동을 하자는 데 의견이 모아졌습니다. 모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동아리 활동이 활성화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사회자의 역할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토의 참여자들의 발언 내용을 정리해 토의를 원활하게 이끌고 있다.
- ② 토의 내용과 관련 있는 자료를 제시해 토의 주제의 범위를 넓히고 있다.
- ③ 토의 참여자 간의 감정 대립을 중재해 원만한 토의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다.
- ④ 발언 순서를 지정해 토의 참여자들에게 발언 기회를 공정하게 부여하고 있다.
- ⑤ 보충 질문을 통해 토의 참여자들이 자신의 발언 내용을 구체화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2. <보기>의 ㉠ ~ ㉣와 관련지어 위 토의에 대해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 보 기 > —

토의는 최적의 해결 방안을 선택하기 위한 공동의 사고 과정이다. 이 과정이 효율적으로 진행되기 위해서는 ㉠ 공동체가 해결해야 할 문제와 문제의 원인을 인식하고 가능한 대안들을 도출해야 한다. 그리고 ㉡ 대안의 선택에 필요한 판단 준거를 토대로 대안을 분석해 ㉢ 최적의 대안을 선택해야 한다.

- ① ㉠: 동아리 활동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을 해결해야 할 문제로 제시하고 있군.
- ② ㉠: 토론 위주의 활동으로 인해 부원들의 흥미와 의욕이 저하된 것을 문제의 원인으로 인식하고 있군.
- ③ ㉡: 역사 영화를 보는 활동을 하자는 대안과 역사 유적 답사를 다녀오자는 대안에 대해 분석하고 있군.
- ④ ㉡: 부원들의 역할 분담이 공정하게 이루어지는지의 여부를 대안 선택의 준거로 삼고 있군.
- ⑤ ㉢: 정기적으로 역사 영화를 보는 활동을 최적의 대안으로 선택하고 있군.

3. ㉠, ㉡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 과거의 문제 해결 사례를 들어 동의하고 있다.
- ② ㉠: 대안의 실시로 기대되는 효과에 긍정적 반응을 보이고 있다.
- ③ ㉡: 예상되는 문제점을 고려하여 생각을 바꾸고 있다.
- ④ ㉡: 다른 대안의 한계를 지적하면서도 이에 부분적으로 동의하고 있다.
- ⑤ ㉡: 소수 의견에 대한 존중을 전제로 방안을 실행하는 데에 동의하고 있다.

[4~5] 다음은 학생의 발표이다. 물음에 답하시오.

여러분, ‘녹색 기술’이란 말을 들어 보셨나요? (대답을 듣고) 대부분 들어 보셨군요. 그럼, ‘청색 기술’이란 말은 들어 보셨나요? (대답을 듣고) 들어 보신 분이 별로 없으시네요. 오늘 제가 소개하고자 하는 것은 바로 ‘청색 기술’입니다. 녹색 기술이 오염 물질 배출을 최소화하기 위한 기술이라면, 청색 기술은 오염 물질 자체를 배출하지 않기 위한 기술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청색 기술은 자연을 모방하고 자연의 순환 시스템을 따름으로써 환경 오염을 원천적으로 방지하려는 기술입니다.

여러분, (사진을 화면에 띄우고) 땅에 박혀 있는 이 파이프가 무엇인지 아시나요? 이 파이프를 이용한 장치를 에어드롭이라고 하는데요, 일종의 인공 오아시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사진 속 파이프를 가리키며) 이 장치를 이용하면 에너지를 사용하지 않고도 1m³ 부피의 대기에서 하루 11.5ml의 물을 얻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에너지 사용 없이 어떻게 물을 얻을 수 있을까요? 땅에 박힌 파이프 속으로 공기가 모이면, 파이프가 박혀 있는 땅 속의 온도가 낮기 때문에 공기 중의 수분이 물방울로 맺히게 됩니다. 이 물방울은 땅 속으로 스며들게 됩니다. 이렇게 에어드롭을 사용하면 에너지를 안 들이고도 깨끗한 물을 농작물에 댈 수 있습니다. 이 장치를 개발한 에드워드 리나커는 아프리카 나미브 사막에 살고 있는 풍뎅이가 수분을 섭취하는 방식을 모방했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청색 기술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과학자들은 청색 기술이 환경 오염을 사전에 억제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자연을 모방하고 자연의 순환 시스템을 따르는 혁신적인 기술은 더 나은 우리의 미래를 위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청색 기술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4. 다음은 위 발표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떠올린 생각이다. ㉠~㉣ 중 발표에 나타나지 않은 것은?

이번에는 ‘청색 기술’에 대해 발표하려고 해. ‘녹색 기술’이란 말과 달리 ‘청색 기술’이란 말은 친구들에게 생소할 것 같아. ㉠ ‘녹색 기술’과 ‘청색 기술’에 대해 알고 있는지 질문을 하면서 발표를 시작하는 것이 좋겠어. 그리고 ㉡ ‘녹색 기술’과 ‘청색 기술’의 차이점이 드러나도록 해야겠어. 그런 후에 나미브 사막의 풍뎅이를 모방한 장치를 ‘청색 기술’의 사례로 들어 설명해야겠어. 이때 ㉢ 친구들이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시각 자료를 활용해야겠지. 발표 중간에는 ㉣ 친구들이 발표에 집중할 수 있도록 설명하려는 대상과 관련된 나와 친구들의 공통된 경험을 환기해야겠어. 발표 끝부분에서는 ㉤ ‘청색 기술’이 우리의 미래를 위한 것임을 밝히면서 당부의 말로 마무리해야겠어.

- ① ㉠ ② ㉡ ③ ㉢ ④ ㉣ ⑤ ㉤

5. <보기>는 위 발표를 들으며 학생들이 한 생각이다. <보기>에 드러난 학생들의 듣기 전략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 보 기 > —

학생 1: 발표자 말대로 청색 기술은 더 나은 환경을 만드는 데 크게 기여할 것 같아.
 학생 2: 에어드롭 장치가 모방했다고 하는 나미브 사막의 풍뎅이의 수분 섭취 방식에 대한 설명이 빠져 있어. 이를 자세히 설명하면 이해가 더 잘 될 것 같아.
 학생 3: 청색 기술이 혁신적인 기술이라고 하는데, 좋은 점만 있는 것일까? 단점은 없는 것일까?
 학생 4: 얼마 전에 청색 기술의 사례로 흰개미 집을 모방한 건물이 있다는 것을 책에서 읽어 알고 있었는데, 발표 사례는 그와 동일한 성격의 사례로군.
 학생 5: 에어드롭을 이용하면 에너지를 사용하지 않고도 1m³ 부피의 대기에서 하루 11.5ml의 물을 얻을 수 있다고 하는데, 이 정보가 믿을 만한 것인지 한번 확인해 봐야겠어.

- ① 학생 1은 발표자가 전제로부터 결론을 이끌어 내는 과정의 논리적 타당성을 판단하며 들었다.
 ② 학생 2는 발표 내용에 대해 보완할 점이 있는지 평가하며 들었다.
 ③ 학생 3은 발표 내용이 편향된 것은 아닌지 판단하며 들었다.
 ④ 학생 4는 발표 내용을 자신의 배경지식과 관련지어 들었다.
 ⑤ 학생 5는 발표에 활용한 자료의 신뢰성에 대해 점검하며 들었다.

[6~8] 다음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학생 간의 대화

A: 얼마 전 뉴스에서 우리나라의 반려 동물 학대와 유기 문제에 대해 보도했는데, 혹시 봤니?

B: 응, 나도 봤어. 생각했던 것보다 문제가 너무 심각하더라.

A: 맞아. 심각하지. 최근 들어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우리나라에서도 반려 동물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들을 갖추어 가고 있어. 하지만 이러한 장치들이 아직까지는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아. 그래서 현재 시행되고 있는 제도적 장치들을 점검하고, 반려 동물 보호를 위한 사람들의 관심을 촉구하는 글을 써서 신문에 투고하려고 해.

B: 좋은 생각이야. 내 도움이 필요하면 언제든 말해 줘.

(나) 초고

반려 동물을 기르는 사람들이 많아지면서 학대받거나 유기되는 반려 동물도 많아졌다. 반려 동물의 학대와 유기 문제는 이제 특정한 사람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사회가 함께 고민하고 해결해야 할 문제가 된 것이다. 우리나라에서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들을 갖추어 가고 있지만, 이들이 아직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고 있다.

동물 등록제는 반려 동물의 유기를 예방하기 위해 반려 동물의 소유자가 자신의 반려 동물을 공공기관에 등록하게 만든 제도로, 2014년부터 그 대상 동물을 반려견으로 한정하여 등록을 의무화하고 있다. 현행 제도에 의하면 반려견을 제외한 다른 반려 동물들은 등록 대상이 아니며, 아직까지 반려견의 등록률도 높지 않은 실정이다.

동물 보호 센터는 유기된 반려 동물을 보호하고 새로운 주인에게 입양될 수 있게 해 주는 기관이다. 동물 보호 센터가 제 기능을 안정적으로 수행할 경우, 유기된 반려 동물이 좋은 주인을 만나 적절한 보호를 받을 수 있다. 그러나 현재의 동물 보호 센터는 운영 여건이 열악하여 반려 동물의 유기나 학대 문제를 해결하는 데 크게 기여하지 못하고 있다.

현행 동물보호법에서는 반려 동물을 학대하거나 유기할 경우 벌금을 부과하거나 형사 처분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불법 행위에 대한 단속이 적극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불법 행위가 적발되는 경우에도 이에 대한 처벌이 미미하여 반려 동물에 대한 학대와 유기를 방치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

위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동물 등록제의 적용대상을 확대하고 등록률을 제고해야 한다. 또한 동물 보호 센터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여 보호 센터가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고, 반려 동물을 학대하거나 유기하는 사람에 대한 처벌도 강화해야 한다. 아울러 많은 사람들이 이 문제에 관심을 갖고 문제 해결을 위한 노력에 동참할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 반려 동물 보호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환기하고 보호 활동에의 참여를 촉구하는 홍보가 수반되어야 할 것이다.

6. (가)와 (나)를 통해 알 수 있는 작문의 특성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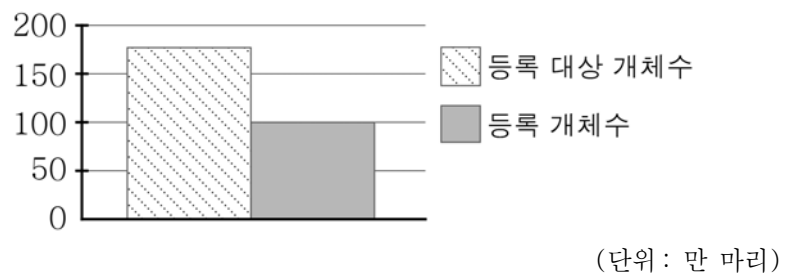
- ① 독자와의 관계 개선을 목적으로 하는 정서 표현 행위이다.
- ② 독자의 반응을 토대로 내용을 조정하는 사회적 상호 작용이다.
- ③ 공동체가 당면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문제를 분석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표현 행위이다.
- ④ 독자와 필자의 공동된 경험을 환기하여 공동체의 정신적 가치를 내면화하는 행위이다.
- ⑤ 언어 공동체의 담화 관습을 토대로 사회의 공통적인 의사소통 양식을 정립하는 과정이다.

7. <보기>의 자료를 활용해 (나)를 수정·보완하기 위한 방안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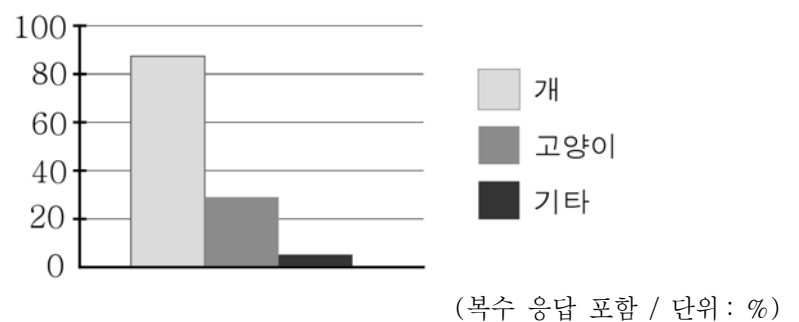
< 보 기 >

I. 통계 자료

1. 반려견 등록 현황(2015년)



2. 반려 동물 사육 가구의 동물종별 사육 현황(2015년)



II. 신문 기사

동물 보호 센터는 2015년 기준으로 전국에 307개가 운영되고 있는데, 이중 90% 이상이 민간 위탁 시설이다. 이들 대부분은 재정, 시설, 인력 등이 부족해 자원봉사자들의 열의에 기대어 겨우 운영되고 있는 실정이다.

III. 전문가 인터뷰

“미국의 경우 동물 유기나 학대에 대해 최고 10년의 징역형이나 15만 달러의 벌금을 부과하기도 합니다. 반면 우리나라는 정부나 지방 자치 단체가 불법 행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단속하지 않고 처벌 수위도 낮습니다. 최고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고작이며, 실제로 처벌 받은 경우에도 소액의 벌금형에 그치는 등 처벌 정도가 매우 미미합니다. 근본적으로는 반려 동물을 사람에 종속된 소유물로 보는 시각에서 벗어나, 말 그대로 반려의 대상으로 보는 인식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 ① I-1과 II를 활용하여, 1문단에서 학대받거나 유기되는 반려동물이 많아지고 있다는 사실의 근거로 삼는다.
- ② I-1, I-2를 활용하여, 2문단에서 등록 대상이 되는 반려동물의 범위와 반려견 등록 현황에 문제가 있음을 지적하는 근거로 삼는다.
- ③ II를 활용하여, 3문단에서 열악한 운영 여건으로 인해 동물보호 센터가 제 기능을 안정적으로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는 내용을 뒷받침한다.
- ④ III을 활용하여, 4문단에서 외국의 사례와 비교하여 불법 행위에 대한 우리나라 정부나 지방 자치 단체의 처벌이 미미하다는 사실을 뒷받침하는 근거로 삼는다.
- ⑤ III을 활용하여, 5문단에서 반려 동물에 대한 인식이 달라질 필요가 있음을 강조하는 내용을 추가한다.

8. ㉠을 위한 문구를 <조건>에 맞게 썼을 때 가장 적절한 것은?

- < 조 건 >
- 반려 동물 보호에 대한 관심을 환기하고 보호 활동에의 참여를 촉구하는 내용을 담을 것.
 - 대구를 활용할 것.

- ① 당신의 마음이 열려야, 당신의 손길이 닿아야
반려 동물 유기와 학대를 끝낼 수 있습니다.
- ② 반려 동물 복지에 빨간 불이 켜졌습니다.
이제는 정부가 나서서 초록 불을 켤 때입니다.
- ③ 좋을 때만 반려 동물이라고 생각하지는 않나요?
당신의 반려 동물과 눈을 맞춰 주세요.
- ④ 우리에게 마음의 위안을 주는 반려 동물
우리에게 사랑을 가르쳐 주는 반려 동물
- ⑤ 동물 학대는 먼 곳에 있지 않습니다.
반려 동물 학대를 감시하는 보안관이 되어 주세요.

[9~10] 다음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원고 요청서]

최근 빅 데이터 전문가가 유망한 직업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관심 있는 학생들을 위해 교지에 빅 데이터 전문가를 소개하는 글을 싣고자 합니다.

[작문 계획]

- 처음
- － 빅 데이터 전문가에 대한 관심 증대 ㉠
- 중간
- － 빅 데이터 전문가가 하는 일 ㉡
- － 빅 데이터 전문가에 대한 수요 ㉢
- － 빅 데이터 전문가가 되기 위한 방법 ㉣
- 끝
- － 빅 데이터 전문가의 역할에 대한 전망 ㉤

[초고]

빅 데이터는 사람들이 디지털 기기를 사용하며 남긴 수많은 ‘디지털 흔적’이라 할 수 있는데, 이를 다루는 ‘빅 데이터 전문가’를 여러 매체에서 유망한 직업으로 추천하고 있다. 이에 따라 빅 데이터 전문가가 어떤 사람이며, 어떻게 빅 데이터 전문가가 될 수 있는지를 ㉠ 궁금한 사람들이 늘고 있다.

빅 데이터 전문가는 빅 데이터를 활용해 부가 가치를 ㉡ 창 안할 수 있는 정보를 생산하는 일을 한다. 예를 들면, 드라마 시청자들이 사회 관계망 서비스에 실시간으로 남긴 메시지를 분석하여 새로운 콘텐츠를 개발하는 데에 밑거름이 되는 정보를 생산한다.

빅 데이터 전문가는 컴퓨터 공학과 통계학 관련 전문 지식을 갖추어야 한다. ㉢ 그래서 이것만으로는 인정받는 빅 데이터 전문가가 되기 어렵다. 빅 데이터 전문가들은 ‘통찰’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컴퓨터 시스템이 갖지 못하는 통찰력을 갖추는 것이 빅 데이터 전문가에게 꼭 필요한 것이다.

그렇다면 어떻게 빅 데이터 전문가가 될 수 있을까? 최근 여러 대학에서 관련 전공 및 교육과정을 개설해 빅 데이터 전문가를 양성하기 위한 전문 지식을 교육하고 있다. 이와 같은 교육을 받는 것과 함께 다양한 독서를 통해 인문학적 소양과 사회 현상을 통찰할 수 있는 안목을 키우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 빅 데이터를 다루는 일이 많아짐에 따라 사생활 침해의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앞으로 사물 인터넷 시대가 본격화될수록 빅 데이터가 우리 ㉤ 삶에 미치는 영향력은 점점 더 커질 것이다. 지금까지는 사람이 자신에게 필요한 정보를 찾아다녔지만 빅 데이터 시대에는 정보가 사람이 있는 곳을 찾아다니며 그에게 필요한 맞춤형 정보를 제공할 것이다. 이러한 시대 흐름에 따라 빅 데이터를 다루는 전문가의 역할은 앞으로 더욱 더 중요해질 것이다.

9. ‘작문 계획’의 ㉠~㉤ 중, ‘초고’에 반영되지 않은 것은?

- ① ㉠ ② ㉡ ③ ㉢ ④ ㉣ ⑤ ㉤

10. ㉠~㉤을 고쳐 쓰기 위한 방안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 문장 성분 간의 호응이 자연스럽지 않으므로 ‘궁금해 하느’으로 고친다.
- ② ㉡: 문맥상 부적절한 단어이므로 ‘고안’으로 고친다.
- ③ ㉢: 앞뒤 내용을 자연스럽게 연결하지 못하므로 ‘하지만’으로 고친다.
- ④ ㉣: 글의 통일성을 해치고 있으므로 삭제한다.
- ⑤ ㉤: 조사의 사용이 잘못되었으므로 ‘삶’으로 고친다.

[11 ~ 12] 다음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대화]

학생 A: ‘뱀씨’는 ‘뱀’과 ‘씨’가 결합한 말이잖아? 그런데 왜 ‘뱀씨’가 아니라 ‘뱀뱌’야?

학생 B: 그러고 보니 ‘살’과 ‘고기’가 결합한 말도 ‘ㄱ’이 ‘ㅋ’으로 바뀌어서 ‘살코기’로 쓰이고 있어.

학생 A: 그렇구나. 왜 두 말이 어울릴 적에 ‘ㄴ’ 소리나 ‘ㅎ’ 소리가 덧나는 경우가 있는 것일까?

[자료]

현대 국어와 달리 15세기 국어에서는 어두에 두 개 이상의 서로 다른 자음, 즉 어두 자음군이 올 수 있었다. 그러한 자음군 중 맨 앞의 ‘ㄴ’은 당시에는 실제로 발음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 ‘ㄴ’은 훗날 탈락하였으나 과거에 만들어진 복합어 속에 그 흔적이 남아 있는 경우가 있다. 가령, 현대 국어의 ‘뱀+씨→뱀뱌’에서 ‘ㄴ’이 생겨나는 이유는 ‘뱀>뱌’의 변화와 관련이 있다. 15세기에는 ‘뱀’의 어두에 ‘ㄴ’이 있었는데, 당시 ‘뱀+뱀→뱀뱌’가 만들어진 후 나중에 ‘뱀’의 어두에 있는 ‘ㄴ’이 앞 형태소의 받침 자리로 가서 붙어 ‘뱀뱌’와 같은 어형이 생성되었다. ‘뱀>뱌’에서 보듯이 훗날 단일어에서는 ‘ㄴ’이 탈락하였다. 그러나 ㉠ 복합어 속에서는 ‘ㄴ’이 탈락되지 않고 그대로 남아 있는 경우가 현대 국어에서 확인된다.

15세기 국어에는 체언 종성에 ‘ㅎ’을 가진 단어들이 존재했는데, 이를 ‘ㅎ’ 종성 체언이라고 한다. 이 ‘ㅎ’ 역시 훗날 탈락하였으나 과거에 만들어진 단어 속에 그 흔적이 남아 있는 경우가 있다. 대표적인 ‘ㅎ’ 종성 체언이었던 ‘술ㅎ’을 살펴보자. ‘ㅎ’ 종성 체언은 단독형으로 쓰일 때는 ‘ㅎ’이 실현되지 않았으나 ‘술ㅎ+이→술히’처럼 모음으로 시작하는 말 앞에서는 연음이 되어 나타났다. 현대 국어의 ‘살+고기→살코기’에서 ‘ㄱ’이 ‘ㅋ’으로 바뀌는 이유 역시 ‘술ㅎ>살’의 변화와 관련이 있다. ‘ㅎ’ 종성 체언은 ‘ㄱ, ㄷ, ㄴ’으로 시작하는 말과 결합할 때 ‘ㅎ’ 종성이 뒤에 오는 ‘ㄱ, ㄷ, ㄴ’과 결합하여 ‘ㅋ, ㅌ, ㄲ’으로 축약되어 나타났다. 즉 ‘술ㅎ’이 ‘고기’와 결합한 말이 만들어질 때 ‘ㅎ’이 ‘ㄱ’과 결합하여 축약되었으므로 ‘살코기’와 같은 어형이 생성된 것이다. 현대 국어에서 단일어의 ‘ㅎ’ 종성은 대체로 소멸하였으나 ‘살코기’ 외에도 ㉡ 복합어 속에서 ‘ㅎ’이 탈락하지 않고 그대로 남아 있는 경우가 더 있다.

11. 위 ‘대화’와 ‘자료’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15세기 국어에서 ‘뱀’의 어두에 있는 ‘ㄴ’은 실제로 발음이 되었을 것으로 추정되는군.
- ② 15세기 어두 자음군 중 맨 앞의 ‘ㄴ’은 단일어에서 훗날 탈락하였군.
- ③ 15세기 국어의 ‘ㅎ’ 종성 체언은 모음으로 시작하는 말 앞에서는 ‘ㅎ’이 실현되지 않았겠군.
- ④ 현대 국어에는 어두에 두 개 이상의 서로 다른 자음이 오는 말이 존재하지 않는군.
- ⑤ 현대 국어의 ‘살코기’에서 ‘ㅋ’은 ‘ㅎ’ 종성 체언의 흔적이 단어에 남아 있는 것이군.

12. ㉠, ㉡에 해당하는 예만을 <보기>에서 골라 바르게 묶은 것은?

- < 보 기 > —
- a. 휘쓸다: ‘휘-’와 ‘쓸다’가 결합한 말인데, ‘쓸다’는 옛말 ‘뜯다’에서 온 말이다.
 - b. 햅쌀: ‘해-’와 ‘쌀’이 결합한 말인데, ‘쌀’은 옛말 ‘쌀’에서 온 말이다.
 - c. 수평: ‘수-’와 ‘평’이 결합한 말인데, ‘수’는 옛말에서 ‘ㅎ’을 종성으로 가지고 있었다.
 - d. 안팎: ‘안’과 ‘밖’이 결합한 말인데, ‘안’은 옛말에서 ‘ㅎ’을 종성으로 가지고 있었다.
 - e. 들뜨다: ‘들다’와 ‘뜨다’가 결합한 말인데, ‘뜨다’는 옛말 ‘쁘다’에서 온 말이다.

	㉠	㉡
①	a, b	c
②	a, e	c
③	a, b	d
④	b, e	d
⑤	a, b, e	c, d

13. <보기>의 ㄱ ~ ㅍ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 보 기 > —
- ㄱ. 그가 이 사건의 범인임이 밝혀졌다.
 - ㄴ. 언니가 빵을 먹은 사실이 드러났다.
 - ㄷ. 오빠가 동생이 가게에서 산 빵을 먹었다.
 - ㄹ. 나는 집에 가기만을 기다렸다.
 - ㅁ. 누나가 집에 가기에 바쁘다.

- ① ㄱ과 ㄴ의 안긴문장은 각각의 안은문장에서 다른 문장 성분으로 쓰인다.
- ② ㄴ과 ㄷ의 안긴문장은 각각의 안은문장에서 동일한 문장 성분으로 쓰인다.
- ③ ㄴ의 안긴문장은 ㄷ의 안긴문장과 달리 안긴문장 속에 생략된 필수 성분이 없다.
- ④ ㄷ과 ㅁ의 안긴문장의 주어는 각각의 안은문장의 주어와 다르다.
- ⑤ ㄹ과 ㅁ의 안긴문장은 각각의 안은문장에서 다른 문장 성분으로 쓰인다.

14 <보기>를 바탕으로 ㄱ~ㅍ을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 보 기 > ————

한글 맞춤법 제15항 용언의 어간과 어미는 구별하여 적는다.

[붙임 2] 종결형에서 사용되는 어미 ‘-오’는 ‘요’로 소리나는 경우가 있더라도 그 원형을 밝혀 ‘오’로 적는다.

예 이것은 책이오. / 이것은 책이 아니오.

[붙임 3] 연결형에서 사용되는 ‘이요’는 ‘이요’로 적는다.

예 이것은 책이요, 저것은 붓이요, 또 저것은 먹이다.

선생님의 설명: 제15항 [붙임 2]에서 설명하는 어미 ‘-오’는 하오체 종결 어미입니다. 이 어미 ‘-오’는 [오]로 발음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요]로 발음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 ‘-오’가 ‘이다’, ‘아니다’의 어간 뒤에 붙어 ‘-이오’로 활용할 때, ‘차(車)’처럼 모음으로 끝나는 체언과 결합하는 경우 ‘차이오→차요’와 같이 ‘-이오’가 ‘-요’로 줄어 쓰이기도 합니다. 이때 ‘-이오’가 줄어든 형태인 ‘-요’는 청자에게 존대의 뜻을 나타내는 보조사 ‘요’와 그 형태나 발음이 동일하기 때문에 언어생활에서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제 다음 제시된 자료를 분석해 봅시다. 단, ㄱ과 ㅍ은 모두 말하는 도중에 상대 높임의 등급을 바꾸지 않는다고 가정합니다.

ㄱ. 이것은 들판이요, 저것은 하늘이오.

ㄴ. 선배: 고향이 어디니? / 후배: 서울으요.

ㄷ. (고향을 묻는 물음에 대한 답) 부산이오.

ㄹ. 무얼 좋아하시오? 소설이오? 아니면 영화요?

ㅍ. 무얼 좋아하세요? 소설요? 아니면 영화요?

- ① ㄱ의 밑줄 친 ‘이오’는 [이요]로 발음할 수 있다.
- ② ㄴ의 밑줄 친 ‘요’를 ‘이요’로 바꾸어 적을 수 있다.
- ③ ㄷ의 밑줄 친 ‘부산이오’는 하오체 문장에 해당한다.
- ④ ㄹ의 밑줄 친 ‘요’는 모음으로 끝나는 체언 뒤에서 ‘-이오’가 줄어든 형태에 해당한다.
- ⑤ ㅍ의 밑줄 친 ‘요’는 둘 다 청자에게 존대의 뜻을 나타내는 보조사에 해당한다.

15 <보기>는 사전 자료의 일부분이다. 이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 < 보 기 > ————

크다 [커, 크니]

[Ⅰ] 형용사

사람이나 사물의 외형적 길이, 넓이, 높이, 부피 따위가 보통 정도를 넘다. 예 키가 크다.

[Ⅱ] 동사

동식물이 몸의 길이가 자라다.

예 날씨가 건조하면 나무가 크지 못한다.

키우다 [...을] [키우어(키워), 키우니]

크다 [Ⅱ]의 사동사

- ① ‘크다’[Ⅰ]과 ‘크다’[Ⅱ]는 별도의 품사로 기술된 걸 보니 동음이의어이겠군.
- ② ‘크다’[Ⅰ]과 ‘크다’[Ⅱ]의 반의어로는 모두 ‘작다’가 가능하겠군.
- ③ ‘크다’[Ⅰ]의 용례로 ‘키가 몰라보게 컸구나.’를 추가할 수 있겠군.
- ④ ‘크다’[Ⅱ]는 사동사로 바뀌면 서술어의 자릿수가 하나 늘어나는군.
- ⑤ ‘크다’와 ‘키우다’는 모두 어미 ‘-어’가 결합하면 어간 끝의 모음이 탈락하는군.

[16~19]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가) 아리스토텔레스에 의하면 인생의 궁극적인 목적은 ‘행복’에 있으며, 인간은 행복에 이르기 위해 ‘덕’에 따라야 한다고 했다. 여기서 ‘덕’은 인간 고유의 기능을 탁월하게 발휘하는 것이다. 그는 동물이나 식물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인간 고유의 기능이 이성의 활동에 있다고 보았다. 따라서 그에 따르면, 인간의 행복은 이성의 활동에 있어서의 ‘탁월함’, 즉 이성의 본래적 기능인 사유와 추론에서의 탁월함과 더불어 비이성적 부분이 이성의 명령에 따르는 능력에 있어서의 탁월함에 있다. (나) 아리스토텔레스는 사유와 추론에서의 탁월함을 ‘지성의 덕’이라고 하며, 지성의 덕은 오랜 시간의 교육과 이론적 탐구를 통해 길러진다고 한다. 한편, 비이성적 부분인 ㉠ 감정과 욕망이 ㉡ 이성의 명령에 따르는 능력에 있어서의 탁월함을 ‘품성의 덕’이라고 한다. 그에 따르면, 품성의 덕은 부단한 실천을 통해 길러진다. 따라서 인간은 자신의 욕망과 감정, 그리고 행위에 있어서 이성의 명령에 따라 좋은 것을 선택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다) 아리스토텔레스에 의하면 품성의 덕은 ‘중용’이다. 중용은 욕망, 감정, 행위에 있어서 넉넉도 없고 모자람도 없는 알맞음의 극치, 또는 최적의 상태를 의미한다. 이러한 중용은 때에 따라, 상황에 따라, 대상에 따라, 동기나 목적이나 방법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그래서 중용은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지 않은 상대적인 중간점이다. 이렇듯 중용이라는 것은 각각의 경우에 따라 달라지므로, 각각의 경우를 정확하게 보는 안목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라) ‘실천적 지혜’는 지성의 덕 중 하나로, 인간에게 좋은 것과 나쁜 것이 무엇인지, 구체적인 상황에서 중용이 무엇인지 알게 해 주는 것이다. 그러므로 실천적 지혜는 품성의 덕을 갖추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것이다. 우리가 실천적 지혜라는 이성적 명령에 따라 어떤 욕망이나 감정을 가져야 하는가, 어떻게 행위해야 하는가를 선택하고 결정하는 과정을 ‘심사숙고’라고 한다. 우리는 이러한 심사숙고를 통해 욕망, 감정, 행위에 있어서 중용에 도달할 수 있다.

(마) 아리스토텔레스는 행복의 근본이 되는 덕을 따르는 일이 지식만으로는 가능하지 않음을 경고하며, 그냥 아는 것보다는 실제로 행하는 것의 중요성을 역설한다. 실제로 유덕한 행동을 실천함으로써 덕에 이르게 된다는 것이다. 우리는 정의로운 행동을 함으로써 정의로운 사람이 되고, 용감한 행동을 함으로써 용감한 사람이 된다.

제 1 교시

국어 영역

홀수형

[1~2] 다음은 학생의 발표이다. 물음에 답하시오.

다음 주에 우리 학교에서는 겸재 정선의 산수화전을 관람할 예정입니다. 여러분들이 정선의 산수화를 감상할 때 도움이 되도록 정선의 ‘관동팔경’을 중심으로 정선의 산수화에 대해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관동팔경’은 관동 지방을 소재로 한 여덟 점의 산수화로 정선의 작품 세계가 잘 드러난다고 평가받습니다. 산수화 연구가에 따르면, 산수화 중에는 실제 산수가 가질 수 없는 완전한 아름다움이 형상화된 것들이 있는데 이러한 아름다움을 산수화의 ‘환’이라고 합니다. 정선의 산수화에서도 이러한 특징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정선은 실제 자연의 모습을 있는 그대로 재현하기 보다 생략이나 변형의 방식을 통해 자연의 아름다움이나 정취를 부각함으로써 ‘환’을 실현했습니다. ‘관동팔경’의 산수화들을 통해 이를 살펴보도록 하죠.

(화면을 보여 주며) 이 그림은 <총석정>입니다. 정선은 수직으로 죽죽 내려 굽는 수직준법을 사용해 돌기둥을 표현하고 돌기둥 위에 있었던 소나무를 생략함으로써 다른 자연물보다 돌기둥을 더욱 부각했습니다. (화면을 전환하며) 이 그림은 <삼일포>입니다. 정선은 그리고자 하는 대상과 같은 높이에서 수평으로 사방을 둘러보며 원근을 표현하는 평원법을 사용하여 호수의 광활함을 부각했습니다.

정선의 산수화가 가진 또 다른 특징은 점경 인물이 자주 등장한다는 것입니다. 점경 인물이란 산수화에 등장하는 간단하고 작게 묘사된 인물인데요, 이들은 주로 명승지를 여행하며 자연과 교감하는 친자연적 존재로 표현됩니다. 이러한 점경 인물을 정선이 산수화에 형상화한 것은 인간이 자연과 조화를 이루는 대상이라고 인식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특징을 ‘관동팔경’의 작품 중 <낙산사>를 통해 확인해 보겠습니다.

(화면을 보여 주며) 이 그림이 바로 <낙산사>입니다. 이 점들이 보이시나요? (대답을 기다린 후) 네, 잘 안 보이시죠. 이 점처럼 보이는 것들은 일출의 장관을 즐기는 선비들로 이 그림 속의 점경 인물입니다. 이렇게 정선은 자연을 즐기고 있는 점경 인물을 등장시켜 자연과 인간의 조화를 드러냈습니다.

제 발표가 정선의 산수화전을 관람하는 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1. 발표에 반영된 학생의 발표 계획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제시된 시각 자료에 대한 신뢰성을 높일 수 있도록 참고한 서적들을 열거해야지.
- ② 청중이 발표 대상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도록 그 특징이 드러난 사례를 시각 자료로 제시해야지.
- ③ 청중이 발표 내용을 기억할 수 있도록 전체 발표 내용을 요약하는 시각 자료를 제시하며 마무리해야지.
- ④ 청중이 발표 내용을 예측하며 들을 수 있도록 발표 순서를 안내하는 시각 자료를 활용하며 발표를 시작해야지.
- ⑤ 청중이 발표 대상의 발전 과정을 파악할 수 있도록 발표 대상과 관련된 역사적 사건을 시각 자료로 제시해야지.

2. 다음은 발표를 들은 학생이 ‘정선의 산수화’에 대해 소개하는 글을 쓰기 위해 작성한 메모이다. 발표 내용을 고려할 때, 적절하지 않은 것은?

[정선의 산수화의 특징]

- 정선의 산수화에는 실제 산수가 가질 수 없는 아름다움인 ‘환’이 실현되었음. ㉠
- 정선은 자연과 교감하는 친자연적 존재인 점경 인물을 산수화에 등장시킴. ㉡

[‘관동팔경’의 산수화들]

- <총석정>에서는 일부의 자연물을 생략해서 돌기둥을 더욱 부각함. ㉢
- <삼일포>에서는 수직준법을 사용하여 호수의 광활함을 드러냄. ㉣
- <낙산사>에서는 일출의 장관을 즐기는 인물을 점경 인물로 형상화했음. ㉤

- ① ㉠ ② ㉡ ③ ㉢ ④ ㉣ ⑤ ㉤

[3~5] 다음은 토론의 일부이다. 물음에 답하시오.

사회자: 우리 학교 동아리 축제에서 동아리 홍보관은 신입 회원 모집을 위한 홍보 효과가 높기 때문에 동아리들에게 인기가 많습니다. 그러나 홍보관 설치를 위한 공간이 한정되어 있어, 지금까지는 학생회가 홍보관 운영 계획서를 공모하여 심사한 후 홍보관을 운영할 동아리를 선정해 왔습니다. 그런데 기존 방식인 ㉠ 심사 방식 대신 새로운 방식으로 ㉡ 추첨 방식을 요구하는 동아리들이 많이 있어, 이번 시간에는 ‘동아리 축제에서 홍보관을 운영할 동아리를 선정할 때 추첨 방식으로 해야 한다.’라는 논제로 토론을 하겠습니다. 찬성 측 입론해 주십시오.

찬성 1: 동아리 축제에서 홍보관을 운영할 동아리를 선정할 때 추첨 방식으로 해야 합니다. 심사 방식의 평가 기준이 타당하지 않고, 평가자 주관에 개입될 수 있어 평가의 신뢰성이 낮아 학생들의 불만이 높기 때문입니다. 반면에 추첨 방식은 선정 과정에서 평가자의 견해가 반영될 수 없습니다. 또한 추첨 방식으로 한다면 홍보관 운영 동아리로 선정될 수 있는 기회가 모든 동아리에 균등하게 부여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동아리 홍보관 운영 계획서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동아리들이 시간과 노력을 불필요하게 들이는 문제도 해소할 수 있습니다.

사회자: 이번에는 반대 측에서 반대 신문 해 주십시오.

반대 2: 추첨 방식이 기회를 균등하게 부여한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럴 경우 동아리 홍보관 운영을 더 잘 계획하고 준비한 동아리가 탈락할 수도 있죠. 준비가 덜 된 동아리가 [A] 선정된다면 동아리 홍보관 운영의 부실로 이어질 수 있지 않나요?

찬성 1: 그렇지 않습니다. 선정된 동아리들은 새로운 회원을 모집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홍보해야 하므로, 홍보관 운영에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사회자: 이번에는 반대 측에서 입론해 주십시오.

반대 1: 홍보관 운영 동아리 선정을 추첨 방식으로 하는 것에 반대합니다. 기존의 심사 방식은 전체 학생을 대표하는 다수의 평가자가 참여하여 평가자의 주관적 개입을 줄일 수 있고, 평가 기준 역시 매년 학생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개선해 왔기 때문에 그 타당성이 매우 높다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심사 방식은 모든 동아리가 홍보관 운영 계획서를 제출할 기회를 공정하게 부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계획서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동아리 구성원들이 동아리 축제의 목적에 부합하는 활동을 고민하게 되므로 축제가 내실화될 수 있습니다.

사회자: 이번에는 찬성 측에서 반대 신문 해 주십시오.

찬성 1: 홍보관 운영 계획서를 평가하는 기준이 타당하다고 하셨는데 작년 설문 조사 결과에 따르면 평가 기준 중의 일부가 특정 동아리에게 유리하게 작용한다고 응답한 학생 [B]들이 많았습니다. 이런 점에서 평가 기준이 타당하다고 보기 어렵지 않나요?

반대 1: 그 문제는 평가 기준의 일부를 개선하여 해결할 수 있습니다.

3. 위 토론의 입론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찬성 1’은 용어의 개념을 정의함으로써 논의의 범위를 한정하고 있다.
- ② ‘찬성 1’은 기존 방식이 유지될 때 발생하는 기대 효과를 중심으로 주장하고 있다.
- ③ ‘반대 1’은 논제와 관련된 문제 해결의 시급성을 강조하고 있다.
- ④ ‘반대 1’은 기존 방식의 긍정적 측면을 근거로 삼아 새로운 방식을 반대하고 있다.
- ⑤ ‘반대 1’은 새로운 방식을 도입할 때 발생할 수 있는 부정적 측면에 대하여 언급하고 있다.

4. [A]와 [B]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A]는 상대측이 제시한 사례가 적합한지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고, 적합한 사례를 제시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 ② [A]는 상대측이 앞서 진술한 내용의 일부를 확인하고, 기존 방식을 고수할 경우 생길 문제점을 제기하고 있다.
- ③ [B]는 상대측 주장을 뒷받침하는 근거가 믿을 만하지 않음을 제기하고, 출처를 제시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 ④ [B]는 상대측이 언급한 내용의 일부를 확인하고, 설문 조사 결과를 근거로 평가 기준의 타당성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 ⑤ [A]와 [B] 모두 상대측이 인용한 전문가의 설명이 적합한지 따지고, 사실 관계를 확인하고 있다.

5. ㉠과 ㉡에 관한 토론의 내용을 분석한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① 찬성 측은 평가자의 주관에 개입될 수 없다는 점에서 ㉡이 적합한 방식이라고 주장하고 있군.
- ② 찬성 측은 시간과 노력이 불필요하게 드는 ㉠의 문제점을 ㉡이 해소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이 적합하다고 주장하고 있군.
- ③ 반대 측은 홍보관 운영을 더 잘 계획하고 준비한 동아리가 ㉡으로 인해 탈락할 수 있다는 점을 들어 ㉠을 옹호하고 있군.
- ④ 반대 측은 동아리가 홍보관 운영 계획서를 준비하는 과정을 통해 축제가 내실화될 수 있다고 주장하며 ㉠을 지지하고 있군.
- ⑤ 반대 측은 ㉡을 도입하면 모든 동아리에게 선정 기회가 균등하게 부여된다는 점을 들어 ㉡이 ㉠보다 더 공평하다고 주장하고 있군.

[6~8] 다음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학생의 작문 계획

- 예상 독자: 학급 학생들
- 주제: 새로운 광고 기법에 대한 이해와 비판적 인식 촉구
- 글의 구성
 - 1문단: 새로운 광고 기법의 등장 배경을 제시해야겠어.
 - 2문단: 검색 광고에 대해 살펴야겠어.
 - 3문단: 기사형 광고에 대해 살펴야겠어.
 - 4문단: ㉠ 새로운 광고 기법의 문제점을 언급하고, 이 광고 기법에 대한 매체 이용자들의 비판적 인식을 촉구해야겠어.

초고

[A] 우리는 인터넷, 신문, 잡지 등의 다양한 매체를 이용하면서 수많은 광고에 노출된다. 이러한 광고는 다양한 매체에서 여러 유형으로 나타나는데, 이는 매체 발달에 따라 매체별 광고 기법도 다양해졌기 때문이다. 하지만 매체 이용자들은 이러한 광고를 불필요한 정보로 판단해 회피하는 경향이 있다. 이에 대응하여 매체 이용자들이 거부감 없이 광고를 수용하도록 하는 새로운 광고 기법이 등장하고 있다.

인터넷에서 이용자들의 눈길을 끄는 광고 기법으로 검색 광고를 들 수 있다. 검색 광고는 검색창에 검색어를 입력하면 검색 결과와 함께 검색어와 관련된 다양한 광고가 노출되도록 하는 광고이다. 검색 광고는 불특정 다수에게 노출되는 기존 인터넷 광고와 달리 특정 대상에게만 노출되지만, 검색 결과와 비슷한 형태로 제시되므로 이용자들에게 마치 유용한 정보인 것 같은 착각을 일으킨다.

신문이나 잡지 등에서 새롭게 사용되는 광고 기법으로 기사형 광고를 들 수 있다. 형식이나 내용이 기사와 확연히 구분되었던 기존 광고와 달리 기사형 광고는 기사처럼 보이는 광고를 말한다. 기사형 광고는 기사처럼 보이기 위해 제목에서 특정 제품명을 드러내지 않으며, 전문가 인터뷰나 연구 자료 인용을 통해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처럼 꾸며 독자의 관심을 끈다. 그러면서 가격, 출시일 등의 제품 정보를 삽입하여 독자의 소비 심리를 자극한다. 하지만 이러한 점 때문에 독자들이 기사형 광고를 기사로 오인할 수 있으므로 ‘특집’, ‘기획’ 등의 표지를 사용하는 것이 제한되어 있다. 또한 기자가 작성한 글로 착각하지 않도록 글 말미에 ‘글 ○○○ 기자’와 같은 표현도 사용하지 않도록 되어 있다.

광고를 접할 때 매체 이용자들은 이러한 광고 기법들의 문제점을 정확히 인식할 필요가 있다. 검색 광고와 기사형 광고는 모두

Ⓛ

6. <보기>는 [A]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떠올린 생각이다. ㉠~㉤가 [A]의 내용에 반영된 순서로 적절한 것은?

-〈보기〉-

- ㉠ 매체 이용자들의 광고 회피 경향에 대응해 새로운 광고 기법이 등장함을 제시해야겠어.
- ㉡ 다양한 매체에서 여러 유형의 광고가 나타나는 이유를 예상 독자가 궁금해할 수 있으므로 그 이유를 제시해야겠어.
- ㉢ 예상 독자가 자신의 경험을 떠올릴 수 있도록 예상 독자들이 광고를 접하고 있는 매체들을 구체적으로 제시해야겠어.
- ㉣ 매체 이용자들이 광고에 대해 보이는 태도를 제시할 필요가 있어.

- ① a — c — b — d
- ② b — c — a — d
- ③ b — c — d — a
- ④ c — b — d — a
- ⑤ c — d — b — a

7. [B]의 내용을 바탕으로, 기사형 광고에 대해 발표하고자 한다.
다음 기사형 광고의 활용 방안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좋은 물이 장수의 비결

○○ 대학에서는 최근 물과 장수의 관계를 밝힌 연구 논문을 발표했다. 이 논문에 따르면 국내 장수 마을 사람들의 장수 비결은 그 지역에서 나는 물과 관련이 깊다고 한다. 다른 지역 물에 비해 장수 마을의 물은 유익한 미네랄이 풍부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샘물은 미네랄의 함량이 국내 최장수 마을의 물과 유사한 것으로 나타났다. △△샘물은 상품화되어 11월 2일 출시된다.

제품 용량 500 ml. 1,000원

- ① ‘물과 장수의 관계’를 연구한 논문을 인용한 것은, 독자들의 관심을 끌기 위한 기법의 예로 발표에서 활용할 수 있겠군.
- ② ‘△△샘물’이라는 제품명을 제목에 나타내지 않은 것은, 독자들에게 광고처럼 보이기 위한 기법의 예로 발표에서 활용할 수 있겠군.
- ③ ‘특집’, ‘기획’ 등의 표지를 사용하지 않은 것은, 독자들이 기사로 오인하지 않도록 하는 제한 사항을 따른 예로 발표에서 활용할 수 있겠군.
- ④ ‘△△샘물’이라는 특정 제품에 대한 출시일과 가격 정보를 제시한 것은, 독자들의 소비 심리를 자극하기 위한 기법의 예로 발표에서 활용할 수 있겠군.
- ⑤ ‘글 ○○○ 기자’와 같은 정보를 명시하지 않은 것은, 독자들이 기사가 작성한 글로 착각하지 않도록 하는 제한 사항을 따른 예로 발표에서 활용할 수 있겠군.

8. ㉠을 바탕으로 초고의 마지막 문단을 완성하고자 한다. ㉡에 들어갈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매체 이용자들에게 광고를 불필요한 정보로 판단하게 하여 회피하게 한다. 따라서 기업은 매체 이용자들을 현혹하는 광고를 비판적으로 점검하며 기업 윤리를 지킬 필요가 있다.
- ② 광고 내용이 불특정 다수에게 노출된다는 점에서 매체 이용자들에게 거부감을 준다. 따라서 매체 이용자들은 주체적으로 광고를 분별할 수 있는 비판적 태도를 기를 필요가 있다.
- ③ 기존 광고에 비해 매체 이용자들의 거부감이 낮은 편이어서 부작용이 적다. 따라서 매체 이용자들은 기존 광고의 부작용을 인식하고 비판적으로 매체의 정보를 수용할 필요가 있다.
- ④ 검색 대상과 제품이 달라 매체 이용자들이 잘못된 정보를 바탕으로 제품 구매를 하도록 유도한다. 따라서 정부는 이러한 광고들을 강력히 규제하여 소비자들을 보호할 필요가 있다.
- ⑤ 광고를 유용한 정보인 것처럼 오인하게 만들어 매체 이용자들에게 착각을 유도한다. 따라서 매체 이용자들은 필요한 정보와 광고를 구별할 수 있는 비판적 안목을 기를 필요가 있다.

[9~10] 다음은 학생이 쓴 글의 초고이다. 물음에 답하시오.

작가의 꿈을 반드시 이루고 싶은 나는 좋은 글감이 떠오르지 않아 고민 끝에 선생님께 조언을 구하였다. 선생님께서는 작가를 꿈꾸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이런 ㉠ 어려움에 겪는다고 하시며 일상 소재를 유심히 관찰하고 이것들의 의미를 떠올리다 보면 좋은 글감을 마련할 수 있다고 말씀해 주셨다. 선생님의 말씀을 듣고 돌아오는 길에 푸른 잔디밭이 눈에 ㉡ 떠었다.

벤치에 앉아 잔디밭을 찬찬히 관찰해 보니 잔디밭 위로 난 길이 눈에 들어왔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잔디를 밟고 다니며 저 길을 만들었을까 생각하니 밟혀 사라진 잔디가 불쌍해졌다. 그 길을 계속 보다 보니 사람들에게 밟혀 사라진 잔디의 처지가 주변 사람들의 반대로 한때 꿈이 흔들렸던 나의 처지와 비슷하다는 생각이 들어 사라진 잔디가 더 안쓰럽기도 했다.

그런 생각을 하다 그 길을 다시 보니 연두색의 잔디 싹이 자라고 있었다. 사람들에게 밟혀 잔디가 사라진 그 길 위에 잔디는 다시 싹을 틔운 것이었다. 나는 그 잔디 싹에서 끈질긴 생명력을 느꼈다. 길 위에 다시 자라난 저 연두색 잔디 싹도 생명력을 뿜내며 ㉢ 푸르고 무성한 잔디로 자랄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 그러나 잔디밭에 함께 모여 춤추며 자라는 잔디를 보니 잔디가 서로를 의지하며 혹독한 시련을 함께 견뎌 왔다는 생각도 들어 대견함을 느꼈다. 생각해 보면 이 푸른 잔디는 바짝 마른 갈색 잔디가 되었다가 추운 겨울을 견디며 다시 푸른 잔디로 살아나는 것이었다. 사람들의 발길과 추운 겨울도 잔디의 생명력을 막을 수 없다는 생각이 들었다. 순간 나도 저 잔디처럼 시련에도 꺾이지 않고 꿈을 이루어 나가야겠다는 마음이 생겼다. 잔디를 보면서 나는 온갖 어려움을 극복해 가며 꼭 ㉤ 이루리라 다짐했다.

9. 초고의 내용으로 볼 때 학생이 연상을 이끌어 낸 과정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잔디가 밟혀 난 길을 관찰하며 밟혀 사라진 잔디에 대해 연민의 감정을 느꼈다.
- ② 잔디가 밟혀 난 길 위에 잔디 싹이 돋은 것을 관찰하며 잔디가 지닌 생명력을 떠올렸다.
- ③ 잔디밭에 함께 모여 자라는 잔디를 관찰하며 잔디가 혹독한 시련을 함께 견뎌 온 것에 대견함을 느꼈다.
- ④ 잔디밭 위로 난 길을 관찰하며 사람들에게 밟혀 사라진 잔디와 한때 꿈이 흔들렸던 자신의 처지가 비슷함을 떠올렸다.
- ⑤ 바짝 마른 갈색 잔디를 관찰하며 바짝 마른 잔디가 푸른 잔디로 다시 살아나는 모습에 대한 기대감을 느꼈다.

10. ㉠~㉤을 고쳐 쓰기 위한 방안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 조사의 사용이 부적절하므로 ‘어려움’으로 고쳐야겠어.
- ② ㉡: 어휘의 사용이 부적절하므로 ‘떠었다’로 고쳐야겠어.
- ③ ㉢: 어미의 사용이 부적절하므로 ‘푸르지만’으로 고쳐야겠어.
- ④ ㉣: 접속어의 사용이 부적절하므로 ‘또한’으로 고쳐야겠어.
- ⑤ ㉤: 필요한 문장 성분이 빠져 있으므로 ‘꿈을’을 첨가해야겠어.

11. <보기>의 ㉠, ㉡에 해당하는 예로 적절한 것은?

—<보 기>—

학 생: 선생님, 다음 두 문장을 보면 모두 ‘가깝다’가 쓰였는데 의미가 좀 다른 것 같아요.

(1) 우리 집은 학교에서 가깝다.

(2) 그의 말은 거의 사실에 가깝다.

선생님: (1)의 ‘가깝다’는 “어느 한 곳에서 다른 곳까지의 거리가 짧음”을 뜻하고, (2)의 ‘가깝다’는 “성질이나 특성이 기준이 되는 것과 비슷함”을 뜻한다. 이는 본래 ㉠ 공간과 관련된 중심적 의미를 지니던 것이 ㉡ 추상화되어 주변적 의미도 지니게 된 것이라고 할 수 있지.

학 생: 아, 그렇군요. 그러면 ‘가깝다’는 여러 의미를 지닌 단어로군요.

선생님: 그렇지. 그래서 ‘가깝다’는 다의어란다.

	㉠	㉡
①	물은 <u>낮은</u> 곳으로 흐른다.	환경에 대한 관심도가 <u>낮다</u> .
②	그는 성공할 가능성이 <u>크다</u> .	힘든 만큼 기쁨이 <u>큰</u> 법이다.
③	두 팔을 최대한 <u>넓게</u> 벌렸다.	도로 폭이 <u>넓어서</u> 좋다.
④	내 <u>좁은</u> 소견을 말씀드렸다.	마음이 <u>좁아서</u> 는 곤란하다.
⑤	<u>작은</u> 힘이라도 보태고 싶다.	우리 학교는 운동장이 <u>작다</u> .

12. <보기>의 (가), (나)를 중심으로 음운 변동을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한 것은? [3점]

<보 기>

국어의 음운 변동은 교체, 탈락, 첨가, 축약으로 구분된다. 이 중에는 음절의 종성과 관련된 음운 변동이 있다.

(가) 음절의 종성에 마찰음, 파찰음이 오거나 파열음 중 거센 소리나 된소리가 올 경우, 모두 파열음의 예사소리로 교체된다. 이는 종성에서 발음될 수 있는 자음의 종류가 제한됨을 알려 준다.

(나) 또한 음절의 종성에 자음군이 올 경우, 한 자음이 탈락한다. 이는 종성에서 하나의 자음만이 발음될 수 있음을 알려 준다.

- ① ‘꽃힌[꼬친]’에는 (가)에 해당하는 음운 변동이 있다.
- ② ‘뭉이[목씨]’에는 (나)에 해당하는 음운 변동이 있다.
- ③ ‘비웃[비운]’에는 (나)에 해당하는 음운 변동이 있다.
- ④ ‘얹고[안꼬]’에는 (가), (나) 모두에 해당하는 음운 변동이 있다.
- ⑤ ‘옹고[읍꼬]’에는 (가), (나) 모두에 해당하는 음운 변동이 있다.

13. <학습 활동>의 (가)에 들어갈 내용으로 적절한 것은?

<학습 활동>

동사는 목적어 필요 여부에 따라 타동사와 자동사로 구분된다. ㉠와 ㉡를 보고, 중세 국어 ‘열다’, ‘홀다’의 타동사, 자동사로서의 쓰임과 이에 대응하는 현대 국어 동사들의 쓰임을 비교하여 그 변화를 탐구해 보자.

㉠

[중세 국어] 큰 믰스믈 여러

[현대 국어] 큰 마음을 열어

㉡

[중세 국어] 自然히 믰스미 여러

[현대 국어] 자연히 마음이 열리어

[중세 국어] 번게 구르믈 호터

[현대 국어] 번개가 구름을 홀어

[중세 국어] 散心은 호튼 믰스미라

[현대 국어] 산심은 홀어진 마음이다.

탐구 결과 : ㉠와 ㉡를 보니, _____ (가)

- ① 중세 국어 ‘열다’, ‘홀다’는 타동사로만 쓰였고, 현대 국어 ‘열다’, ‘홀다’도 타동사로만 쓰인다.
- ② 중세 국어 ‘열다’, ‘홀다’는 자동사로만 쓰였고, 현대 국어 ‘열다’, ‘홀다’도 자동사로만 쓰인다.
- ③ 중세 국어 ‘열다’, ‘홀다’는 타동사 및 자동사로 쓰였고, 현대 국어 ‘열다’, ‘홀다’는 타동사로만 쓰인다.
- ④ 중세 국어 ‘열다’, ‘홀다’는 타동사 및 자동사로 쓰였고, 현대 국어 ‘열다’, ‘홀다’는 자동사로만 쓰인다.
- ⑤ 중세 국어 ‘열다’, ‘홀다’는 타동사 및 자동사로 쓰였고, 현대 국어 ‘열다’, ‘홀다’도 타동사 및 자동사로 쓰인다.

[14~15]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국어에서 동사나 형용사에 붙어 새로운 단어를 형성하는 접미사는 다양한 문법적 특징을 지니고 있다. 그 특징은 다음과 같다.

첫째로, 접미사는 동사나 형용사에 붙어 새로운 어간을 형성한다. 예를 들면, ‘눅다’의 어근 ‘눅-’에 접미사 ‘-이-’가 붙어 새로운 어간 ‘눅이-’가 형성된다. 이렇게 만들어진 ‘눅이다’의 어간 ‘눅이-’는 ‘눅다’의 어간 ‘눅-’과 구별된다. 둘째로, 접미사는 동사나 형용사의 어근에 붙어 품사를 바꾸기도 한다. 예를 들면, 명사 ‘먹이’나 ‘늪이’는 각각 동사와 형용사의 어근에 접미사 ‘-이’가 붙어 형성된 단어이다. 이때 ‘먹이’와 ‘늪이’의 ‘먹-’과 ‘늪-’은 서술어로 기능하지 못한다. 셋째로, ㉠ 접미사는 동사나 형용사에 붙어 사동의 의미를 더하기도 한다. 예를 들면, 동사 ‘익다’와 ‘먹다’의 어근에 각각 접미사 ‘-히-’와 ‘-이-’가 붙어 형성된 ‘익히다’와 ‘먹이다’는 ‘고기를 익히다.’와 ‘아이에게 밥을 먹이다.’에서와 같이 사동의 의미를 가진다. 넷째로, ㉡ 접미사는 타동사에 붙어 피동의 의미를 더하기도 한다. 예를 들면, ‘안다’의 어근 ‘안-’에 접미사 ‘-기-’가 붙어 형성된 ‘안기다’는 ‘아기가 엄마한테 안기다.’와 같이 피동의 의미를 가진다. 이때 피동을 나타내는 접미사는 ‘눅다’, ‘식다’와 같은 자동사에는 결합하지 않는다.

한편, 하나의 접미사가 모든 동사나 형용사에 자유롭게 결합하는 것은 아니다. 예를 들면, 접미사 ‘-히-’는 ‘읽다’의 어근 ‘읽-’에 붙어 ‘읽히다’를 만들 수 있지만, ‘살다’의 어근 ‘살-’에는 붙지 못한다. 어근 ‘살-’에는 접미사 ‘-리-’가 붙어 ‘살리다’가 형성된다. 또한 어근과 접미사 사이에는 다른 형태소가 끼어들 수 없다. 가령, 어근 ‘읽-’과 접미사 ‘-히-’ 사이에 ‘-시-’와 같은 선어말 어미가 끼어든 ‘읽시히-’와 같은 것은 만들어지지 않는다.

14. 윗글을 바탕으로 <보기>의 ㉠~㉣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한 것은?

<보 기>

㉠ 달콤한 휴식을 위해 시간을 비워 놓았다.

㉡ 아주 높이 나는 새라야 멀리 볼 수 있다.

㉢ 마을 앞 공터를 놀이 공간으로 조성했다.

㉣ 멀리서 찾아온 손님을 위해 차를 끓였다.

㉤ 할아버지께서는 오늘 일찍 오시기 힘들다.

- ① ㉠에서 ‘비워’의 어간은 ‘시간이 빈다.’에서 ‘비다’의 어간과 같다.
- ② ㉡에서 ‘높이’는 형용사 ‘높다’의 어근 ‘높-’에 접미사 ‘-이’가 붙어 형성된 명사이다.
- ③ ㉢에서 ‘놀이’는 명사이므로 ‘놀이’ 속의 ‘놀-’은 서술어로 기능하지 못한다.
- ④ ㉣에서 ‘끓였다’의 어근에 붙은 접미사 ‘-이-’는 모든 동사에 자유롭게 결합한다.
- ⑤ ㉤에서 ‘오시기’는 ‘오-’와 ‘-기’ 사이에 다른 형태소가 끼어든 것이므로 명사이다.

5 / 16

이 문제지에 관한 저작권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 있습니다.

15. 밑줄 친 부분이 ㉠, ㉡에 해당하는 예로 적절한 것은?

- ① ㉠: 형이 동생을 울렸다.
㉡: 그는 지구본을 돌렸다.
- ② ㉠: 이제야 마음이 놓인다.
㉡: 우리는 용돈을 남겼다.
- ③ ㉠: 공책이 가방에 눌렸다.
㉡: 옷이 못에 걸려 찢겼다.
- ④ ㉠: 바위 뒤에 동생을 숨겼다.
㉡: 피곤해서 눈이 자꾸 감겼다.
- ⑤ ㉠: 나는 종이비행기를 하늘로 날렸다.
㉡: 그는 소년에게 중요한 임무를 맡겼다.

[16~20]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 논리실증주의자와 포퍼는 지식을 수학적 지식이나 논리학 지식처럼 경험과 무관한 것과 과학적 지식처럼 경험에 의존하는 것으로 구분한다. 그중 과학적 지식은 과학적 방법에 의해 누적된다고 주장한다. 가설은 과학적 지식의 후보가 되는 것인데, 그들은 가설로부터 논리적으로 도출된 예측을 관찰이나 실험 등의 경험을 통해 맞는지 틀리는지 판단함으로써 그 가설을 시험하는 과학적 방법을 제시한다. 논리실증주의자는 예측이 맞을 경우에, 포퍼는 예측이 틀리지 않는 한, 그 예측을 도출한 가설이 하나씩 새로운 지식으로 추가된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 콰인은 가설만 가지고서 예측을 논리적으로 도출할 수 없다고 본다. 예를 들어 ㉠ 새로 발견된 금속 M은 열을 받으면 팽창한다는 가설만 가지고는 ㉡ 열을 받은 M이 팽창할 것이라는 예측을 이끌어낼 수 없다. 먼저 지금까지 관찰한 모든 금속은 열을 받으면 팽창한다는 기존의 지식과 M에 열을 가했다는 조건 등이 필요하다. 이렇게 예측은 가설, 기존의 지식들, 여러 조건 등을 모두 합쳐야만 논리적으로 도출된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예측이 거짓으로 밝혀지면 정확히 무엇 때문에 예측에 실패한 것인지 알 수 없다는 것이다. 이로부터 콰인은 개별적인 가설뿐만 아니라 ㉢ 기존의 지식들과 여러 조건 등을 모두 포함하는 전체 지식이 경험을 통한 시험의 대상이 된다는 총체주의를 제안한다.

논리실증주의자와 포퍼는 수학적 지식이나 논리학 지식처럼 경험과 무관하게 참으로 판별되는 분석 명제와, 과학적 지식처럼 경험을 통해 참으로 판별되는 종합 명제를 서로 다른 종류라고 구분한다. 그러나 콰인은 총체주의를 정당화하기 위해 이 구분을 부정하는 논증을 다음과 같이 제시한다. 논리실증주의자와 포퍼의 구분에 따르면 “총각은 총각이다.”와 같은 동어 반복 명제와, “총각은 미혼의 성인 남성이다.”처럼 동어 반복 명제로 환원할 수 있는 것은 모두 분석 명제이다. 그런데 후자가 분석

명제인 까닭은 전자로 환원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환원이 가능한 것은 ‘총각’과 ‘미혼의 성인 남성’이 동의적 표현이기 때문인데 그게 왜 동의적 표현인지 물어보면, 이 둘을 서로 대체하더라도 명제의 참 또는 거짓이 바뀌지 않기 때문이라고 할 것이다.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두 표현의 의미가 같다는 것을 보장하지 못해서, 동의적 표현은 언제나 반드시 대체 가능해야 한다는 필연성 개념에 다시 의존하게 된다. 이렇게 되면 동의적 표현이 동어 반복 명제로 환원 가능하게 하는 것이 되어, 필연성 개념은 다시 분석 명제 개념에 의존하게 되는 순환론에 빠진다. 따라서 콰인은 종합 명제와 구분되는 분석 명제가 존재한다는 주장은 근거가 없다는 결론에 ㉣ 도달한다.

콰인은 분석 명제와 종합 명제로 지식을 엄격히 구분하는 대신, 경험과 직접 충돌하지 않는 중심부 지식과, 경험과 직접 충돌할 수 있는 주변부 지식을 상정한다. 경험과 직접 충돌하여 참과 거짓이 쉽게 바뀌는 주변부 지식과 달리 주변부 지식의 토대가 되는 중심부 지식은 상대적으로 견고하다. 그러나 이 둘의 경계를 명확히 나눌 수 없기 때문에, 콰인은 중심부 지식과 주변부 지식을 다른 종류라고 하지 않는다. 수학적 지식이나 논리학 지식은 중심부 지식의 한가운데에 있어 경험에서 가장 멀리 떨어져 있지만 그렇다고 경험과 무관한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그런데 주변부 지식이 경험과 충돌하여 거짓으로 밝혀지면 전체 지식의 어느 부분을 수정해야 할지 고민하게 된다. 주변부 지식을 수정하면 전체 지식의 변화가 크지 않지만 중심부 지식을 수정하면 관련된 다른 지식이 많기 때문에 전체 지식도 크게 변화하게 된다. 그래서 대부분의 경우에는 주변부 지식을 수정하는 쪽을 선택하겠지만 실용적 필요 때문에 중심부 지식을 수정하는 경우도 있다. 그리하여 콰인은 중심부 지식과 주변부 지식이 원칙적으로 모두 수정의 대상이 될 수 있고, 지식의 변화도 더 이상 개별적 지식이 단순히 누적되는 과정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총체주의는 특정 가설에 대해 제기되는 반박이 결정적인 것처럼 보이더라도 그 가설이 실용적으로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언제나 그와 같은 반박을 피하는 방법을 강구하여 그 가설을 받아들이 수 있다. 그러나 총체주의는 “A이면서 동시에 A가 아닐 수는 없다.”와 같은 논리학의 법칙처럼 아무도 의심하지 않는 지식은 분석 명제로 분류해야 하는 것이 아니냐는 비판에 답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다.

16. 윗글을 바탕으로 할 때, ㉠과 ㉡이 모두 ‘아니요’라고 답변할 질문은?

- ① 과학적 지식은 개별적으로 누적되는가?
② 경험을 통하지 않고 가설을 시험할 수 있는가?
③ 경험과 무관하게 참이 되는 지식이 존재하는가?
④ 예측은 가설로부터 논리적으로 도출될 수 있는가?
⑤ 수학적 지식과 과학적 지식은 종류가 다른 것인가?

[1 ~ 3] 다음은 토의이다. 물음에 답하시오.

사회자: 우리 △△ 미술관은 최근 전시회 횟수도 줄고 관람객 발걸음도 뜸해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운영 위원 여러분과 이 문제의 원인 및 해결 방안에 대해 토의해 보겠습니다. 먼저 문제의 원인에 대해 말씀해 주십시오.

위원 1: 건물이 너무 낡은 데다 전시 공간도 협소해서 전시도 관람도 불편합니다. [A]

위원 2: 미술관을 전시 공간으로만 활용하는 것도 문제입니다. 전시가 없는 기간은 거의 운영하지 않고 있습니다.

위원 3: 주변의 다른 미술관들에 비해 전시료와 관람료가 너무 높게 책정된 것이 문제입니다.

사회자: 여러 가지 원인을 분석해 주셨는데요, ㉠ 그럼 이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어떤 것이 있을까요?

위원 3: 다른 전시관보다 전시료와 관람료를 대폭 낮추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 2: 전시회가 없을 때에도 사람들이 미술관을 자주 찾을 수 있도록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마련해야 합니다.

사회자: ㉡ 어떻게 프로그램을 다양화할 수 있을까요?

위원 2: 일반인을 대상으로 미술 강좌를 개설하거나 청소년 미술 대회를 여는 방법 등이 있습니다.

위원 1: 현재의 공간을 그대로 활용하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지난주에 시에서 미술관을 시 외곽으로 이전하자고 제안을 했습니다. 이 제안을 받아들이면 좋겠습니다. [B]

사회자: 그럼 제안해 주신 방안을 평가해 보고 최적의 방안을 찾아보겠습니다.

위원 2: 미술관을 시 외곽으로 이전하면 접근성이 떨어져 미술관을 찾는 시민들의 불편함이 커지기 때문에 이 전을 반대하는 의견이 더 많을 것입니다. 저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시민 참여를 확대하는 것이 실현 가능성이 더 높다고 생각합니다. [C]

위원 3: 저도 미술관 이전은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시에서 제시한 조건으로는 우리가 원하는 넓고 쾌적한 미술관 조성이 쉽지 않을 것입니다.

위원 1: 미술 강좌를 개설하거나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하려면 모두 비용이 많이 들 것입니다. 또 가뜰이나 예산이 부족한 상황에서 전시료와 관람료를 낮추면 예산 확보가 더 어려워질 것입니다. [D]

위원 3: 저는 ○○ 문화 재단에 예산 지원을 신청해 예산을 확보하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산 지원 사업의 취지가 우리와 같이 어려운 상황에 처한 예술 단체나 시설을 보조하는 것이었습니다. 제안서를 잘 준비하여 지원을 받으면 좋겠습니다.

위원 2: 그게 좋겠네요. 예산 지원을 받는다면 전시료 인하로 작지만 알찬 전시회가 자주 열릴 수 있으며, 관람료도 인하되어 관람객이 크게 증가할 것입니다. 그리고 프로그램도 다양화할 수 있습니다. [E]

위원 1: 저도 동의합니다.

사회자: 좋은 의견들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제안해 주

신 내용을 토대로 ○○ 문화 재단에 제안서를 제출해 예산 지원을 받으면 미술관을 이전하지 않고도 프로그램을 다양화하고 전시료와 관람료도 낮출 수 있을 것입니다. 이에 대한 구체적인 실천 방안은 추후 논의하겠습니다.

1. 토의 참여자의 발화 [A]~[E]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A]: 사회자의 요청에 따라 미술관의 여건에 초점을 맞추어 문제의 원인을 제시하고 있다.
- ② [B]: '위원 2'가 제시한 방안의 장단점을 분석하여 단점을 보완하기 위한 대안을 제시하고 있다.
- ③ [C]: '위원 1'이 제시한 방안을 부정적으로 평가하고 자신의 해결 방안을 옹호하고 있다.
- ④ [D]: '위원 2'와 '위원 3'이 제시한 방안을 실행할 때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경제적 측면에서 지적하고 있다.
- ⑤ [E]: '위원 3'이 제안한 방안의 시행으로 거둘 수 있는 다양한 효과를 예상하고 있다.

2. ㉠과 ㉡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은?

- ① ㉠은 토의의 진행 순서를 바꾸기 위한 질문이고, ㉡은 토의 참여자의 궁금증을 해소하기 위한 질문이다.
- ② ㉠은 토의 목적을 환기하기 위한 질문이고, ㉡은 토의 참여자 간의 의견 대립을 조정하기 위한 질문이다.
- ③ ㉠은 토의의 다음 단계로 넘어가기 위한 질문이고, ㉡은 토의 참여자의 발언 내용을 구체화하기 위한 질문이다.
- ④ ㉠은 적극적인 토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질문이고, ㉡은 토의 참여자의 발언 순서를 바로잡기 위한 질문이다.
- ⑤ ㉠은 토의 참여자에게 발언에 추가할 내용이 있는지 확인하기 위한 질문이고, ㉡은 토의의 국면을 전환하기 위한 질문이다.

3. 다음은 미술관 측에서 ○○ 문화 재단에 제출할 제안서 초안이다. ㉠~㉡ 중 위 토의 내용에 부합하지 않는 것은?

제안	△△ 미술관의 예산 지원 요청
제안 이유	△△ 미술관은 최근 관람객이 크게 줄어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미술관 운영을 활성화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모색하고 있으나 예산상의 어려움이 있어 귀 재단에 예산 지원을 요청하고자 합니다.
제안 내용	귀 재단에서 예산을 지원해 줄 경우 이를 활용하여 다음과 같은 사업을 하고자 합니다. ㉠. 시 외곽에 제2 미술관 건립 ㉠ ㉡. 일반인을 대상으로 하는 미술 강좌 개설 ㉡ ㉢. 청소년을 위한 미술 대회 개최 ㉢ ㉣. 전시료와 관람료 인하 ㉣
기대 효과	㉤. 전시회 개최 횟수의 증가 ㉤ ㉥. 관람객의 증가 ㉦. 프로그램의 다양화

- ① ㉠ ② ㉡ ③ ㉢ ④ ㉣ ⑤ ㉤

[4~5] 다음은 학생의 발표이다. 물음에 답하시오.

안녕하세요. 저는 여러분에게 재생 에너지 중 하나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먼저 화면을 보세요. (화면을 가리키며) 이게 무엇인지 아세요? 폐수 속에 살고 있는 다양한 미생물의 모습을 촬영해서 확대한 사진입니다. 이렇게 예쁜 미생물들이 더러운 폐수 속에 살고 있다는 게 신기하지 않은가요? 바로 오늘 발표할 내용이 이 폐수 속의 미생물들을 이용한 ‘미생물 연료 전지’에 대한 것입니다. 미생물 연료 전지는 전기도 생산하면서 폐수도 정화할 수 있기 때문에 획기적인 재생 에너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미생물 연료 전지는 대부분 유기성 폐수를 이용합니다. 환경공학 용어 사전을 보니까 ‘유기성 폐수’란 다양한 미생물이 많이 함유된 폐수라고 되어 있습니다. 어떤 미생물들은 유기물을 흡수하고 분해할 때 전자가 방출되기 때문에 유기성 폐수로 전기 에너지를 만들어 낼 수 있습니다. 유기성 폐수 속 미생물들이 만들어 낼 수 있는 에너지 양이 그 폐수를 처리하는 데 드는 것보다 약 9배나 많을 수 있다는 연구 논문도 있습니다.

그럼 미생물 연료 전지의 구조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화면을 가리키며) 이 통의 가운데에는 이온 투과가 가능한 막이 있고, 왼쪽에는 산화 전극, 오른쪽에는 환원 전극이 각각 설치되어 있습니다. 산화 전극 쪽에 폐수를 넣으면 폐수 속 미생물들이 유기물을 흡수, 분해하면서 전자와 수소 이온이 생성됩니다. 이로 인해 전기 에너지가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미생물 연료 전지를 연구해 온 ○○○ 교수는 한 신문과의 인터뷰에서 폐수를 이용한 미생물 연료 전지는 아직 상용화 단계에 이른 것은 아니지만 조만간 화석 에너지를 대체할 차세대 에너지로 상용화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여러분들도 미생물 연료 전지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4. 발표에 반영된 학생의 발표 계획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청중이 발표 내용에 대해 흥미를 가질 수 있도록 주제와 관련된 사진을 보여 주며 발표를 시작해야지.
- ② 청중이 발표 내용과 관련된 용어를 이해할 수 있도록 관련 분야의 사전 자료를 제시해야지.
- ③ 대상을 활용하여 경제적 효과를 얻게 된 선진국의 사례를 파악할 수 있도록 논문 자료를 제시해야지.
- ④ 대상의 작용 원리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도록 그 구조가 드러난 시각 자료를 제시해야지.
- ⑤ 대상에 대한 연구 현황과 전망을 알 수 있도록 관련 전문가의 인터뷰 기사를 소개하며 발표를 마무리해야지.

5. <보기>는 위 발표를 들은 학생이 작성한 메모이다. 학생의 듣기 활동에 대해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 보 기 > —

○ 발표를 듣기 전에 가졌던 의문

- 가까운 시기에 화석 에너지를 대체할 수 있는 재생 에너지에는 어떠한 것이 있을까?

○ 발표를 들으며 정리한 내용

- 미생물 연료 전지의 전기 생성 방법 : 미생물들이 유기물을 흡수, 분해하는 과정에서 방출된 전자로 인해 전기 에너지가 만들어짐. ㉠
- 미생물 연료 전지의 상용화 전망 : 조만간 화석 에너지를 대체할 수 있는 에너지 중 하나임. ㉡

○ 발표를 들은 후에 든 생각

- 발표에 활용된 자료가 믿을 만한 정보인지 확인하기 위해 출처를 찾아보아야겠다. ㉢
- ‘미생물 연료 전지 실험’을 주제로 삼아 과학 실험 동아리의 보고서 과제를 작성해야겠다. ㉣
- 축산 폐기물 처리 시 발생하는 메탄가스를 이용하여 난방 연료를 추출한다는 것을 글을 읽어 알고 있는데, 미생물 연료 전지와 유사점이 있는 것 같다. ㉤

- ① ㉠로 보아, 발표자가 활용한 근거가 사실에 부합하는지 확인하여 잘못된 내용을 바로잡으면서 정리했음을 알 수 있군.
- ② ㉡로 보아, 발표를 듣기 전에 가졌던 의문을 해소하기 위해 필요한 정보를 정리하며 들었음을 알 수 있군.
- ③ ㉢로 보아, 자료의 신뢰성을 평가하며 발표를 들었음을 알 수 있군.
- ④ ㉣로 보아, 들은 내용과 관련된 것을 자신의 과제 해결에 활용하려 하고 있군.
- ⑤ ㉤로 보아, 들은 내용을 자신의 배경 지식과 연결하여 이해하고 있군.

[6~8] 다음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교지 편집부의 요청 내용>

전자 상거래에서 피해를 입는 청소년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본교 학생들이 그 문제에 대해 알고 문제의 해결 방안을 함께 모색할 수 있도록 글을 써 주십시오.

<글을 쓰기 전에 떠올린 생각>

- 청소년의 전자 상거래 이용과 피해를 언급하며 글을 시작해야겠어. ㉠
- 청소년이 전자 상거래 피해를 입는 원인을 밝혀야겠어. ㉡
- 청소년의 피해 사례 중 대표적인 것을 선정해 제시해야겠어. ㉢
- 청소년의 안전한 전자 상거래 결제 방법을 단계적으로 설명해야겠어. ㉣
- 청소년의 전자 상거래 피해 예방 방안을 학교와 개인 차원으로 나누어 제시해야겠어. ㉤
- ㉡ 청소년의 전자 상거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노력에 동참할 것을 촉구해야겠어.

<초고>

전자 상거래를 이용해 물품을 구매하는 청소년이 매년 증가하고 있다. 그런데 이와 함께 전자 상거래에서 피해를 입는 청소년도 증가하고 있어 문제가 되고 있다. 청소년이 입는 전자 상거래 피해는 물질적 피해에 머무르지 않고 정신적 피해로도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특히 주의가 필요하다.

전자 상거래에서 피해를 입는 청소년이 증가하고 있는 것은 청소년의 전자 상거래 인증 절차나 결제 과정이 까다로워 성인에 비해 현금 거래를 하는 경우가 많은 것과 관련이 있다. 현금으로 전자 상거래를 하기 위해서는 결제 절차나 방법, 물품 배송 등의 측면에서 유의해야 할 점이 많다. 그런데 상당수 청소년이 이를 고려하지 못한 채 전자 상거래를 하고 있는 것이다. 사기 판매자들은 이러한 사실을 이용해 청소년에게 여러 가지 피해를 입히고 있는데, 대표적인 것으로는 대금을 지불하고도 물품을 배송 받지 못하는 것, 주문한 것과 다른 물품을 받는 것, 물품을 제때에 배송 받지 못하는 것 등을 들 수 있다. 많은 청소년이 이렇게 피해를 입고도 피해 신고 방법이나 보상 절차를 몰라 적절하게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

전자 상거래 과정에서 일어나는 청소년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청소년이 전자 상거래 과정에서 유의해야 할 점을 숙지할 수 있게 해 주어야 한다. 이를 위해 학교에서는 유관 기관이나 사회단체와 연계해 소비자 보호 정책, 관련 법률, 피해 예방 및 대처 방안 등에 관한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 마련해 시행해야 한다. 그리고 청소년은 전자 상거래 사기에 쉽게 노출될 수 있으므로 청소년 개개인이 교육을 받은 내용을 숙지하고 그 내용에 따라 전자 상거래를 이용해야 한다. 아울러 상품 거래 약관, 이용 후기 등의 다양한 정보를 활용하여 전자 상거래에서 인한 피해를 입지 않도록 스스로 노력해야 한다.

[B]

6. ㉠~㉣ 중 <초고>에 반영되지 않은 것은?

- ① ㉠ ② ㉡ ③ ㉢ ④ ㉣ ⑤ ㉤

7. <보기>의 (가), (나)를 모두 활용하여 [A]를 보완하기 위한 방안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 보 기 >

(가) 전자 상거래 사기 피해 발생 품목 순위

순위	품목
1위	휴대 전화 및 주변 기기
2위	공연 입장권 및 상품권
3위	의류 및 액세서리
4위	컴퓨터 및 주변 기기

(나) 청소년이 이용한 전자 상거래 주요 품목(복수 응답)

전자 상거래 품목	응답 비율
의류 및 액세서리	52 %
도서	33 %
컴퓨터 및 주변 기기	21 %
휴대 전화 및 주변 기기	14 %

- ① 청소년의 전자 상거래 이용 품목을 다양화해야 한다는 주장을 추가한다.
- ② 전자 상거래 피해에 대응하는 방안을 시행했을 때 기대되는 효과를 제시한다.
- ③ 유관 기관이나 사회단체에 전자 상거래 피해 내용을 신고해야 하는 이유를 뒷받침한다.
- ④ 전자 상거래로 피해를 입은 청소년에게 일어날 수 있는 2차 피해의 위험성을 뒷받침한다.
- ⑤ 청소년의 전자 상거래 주요 이용 품목이 사기의 대상이 될 수 있음을 유념해야 한다는 내용을 추가한다.

8. [B]에 들어갈 글을 작성하고자 할 때, <조건>에 따라 쓴 것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조 건 >

- 청소년의 전자 상거래 이용에 관한 전망을 바탕으로 ㉣에 관한 내용을 제시할 것.
- 설의적 표현을 활용할 것.

- ① 청소년의 전자 상거래는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이다. 그렇다면 청소년의 전자 상거래 피해 예방을 위해 실효성 있는 대책이 하루빨리 시행되어야 하지 않을까? 우리 모두가 함께 노력해야 할 것이다.
- ② 전자 상거래가 더욱 활성화될 것으로 전망되는 미래 사회에는 청소년이 새로운 소비의 주체로 자리매김할 것이다. 이러한 사회에 대비하기 위한 고민을 함께 해 나가야 할 것이다.
- ③ 청소년부터 전자 상거래 피해 예방을 위해 노력해야 하지 않을까? 불공정한 전자 상거래의 관행을 없애기 위해 청소년의 적극적인 노력과 관심이 필요하다.
- ④ 청소년 개개인의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그렇다면 청소년에게 어떤 교육을 실시해야 할까? 소비자 교육의 필요성이 대두되는 시점이다.
- ⑤ 청소년은 전자 상거래 피해에 대응하는 능력이 부족하다. 청소년 스스로 자신의 권리를 지킬 수 있는 대응 능력을 길러야 하지 않을까?

[9~10] 다음은 학생이 쓴 수행 평가의 후기이다. 물음에 답하시오.

이번 국어 수행 평가는 문학 작품을 읽고 독후감을 작성하는 것이었다. 그런데 오늘 발표된 수행 평가 결과를 보니 나를 포함해 많은 친구들이 최하 점수를 받았다. 결과에 놀라 최하 점수를 받은 까닭을 선생님께 여쭙어 보았더니, 선생님께서는 표절했기 때문이라고 말씀해 주셨다.

선생님께서는 수업에 들어오셔서 수행 평가 결과에 대해 말씀하시면서 많은 학생들이 남의 생각을 ㉠ 결코 자신의 생각인양 표현하는 것의 문제점을 설명해 주셨다. 출처를 제시하지 않고 다른 사람의 창작물이나 자료를 무단으로 사용하고 표절하는 것을 반복하면, 잘못된 글쓰기 태도뿐만 아니라 왜곡된 윤리 의식까지 형성될 수 있다고 하셨다. ㉡ 그러므로 때에 따라서는 사회적 물의를 일으킬 수도 있다고 하셨다. 앞으로는 인터넷이나 책에 있는 내용을 그대로 베끼는 행동을 해서는 안 되며, 자료를 인용할 때에는 ㉢ 반드시 밝혀야 한다는 말씀도 덧붙이셨다.

선생님의 말씀을 듣고, 보고서나 독후감을 작성할 때 인터넷이나 책에 있는 내용을 ㉠ 짜집기하고, 출처도 밝히지 않고 여러 가지 자료를 무단으로 활용해 왔던 나의 행동이 부끄러웠다. 쓰기 윤리의 중요성을 간과하고 비윤리적으로 글을 썼던 것의 문제점을 깨닫게 된 것이다.

이번 국어 수행 평가는 쓰기 윤리에 대한 나의 안일한 의식을 되돌아보는 계기가 되었다. ㉡ 빠른 속도로 변화하는 현대 사회에서는 나 자신을 되돌아보는 기회를 갖기가 어렵다. 앞으로는 선생님의 말씀처럼 남의 생각을 나의 생각인 양 표현하지 않아야겠다고 다짐했다. 그리고 글을 쓸 때마다 쓰기 윤리를 철저히 준수하는 사람이 되어야겠다고 결심하였다.

9. 윗글의 작문 수행 과정을 이해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표절과 관련한 다양한 사회적 사건을 조사하여 글의 내용으로 생성하였다.
- ② 쓰기 윤리를 준수하기 위한 자신의 실천 계획을 구체적 사례로 제시하였다.
- ③ 일상의 경험을 통해 자신의 글쓰기 습관에 대해 성찰한 내용을 중심으로 글을 전개하였다.
- ④ 쓰기 윤리 준수와 관련한 개인적 깨달음을 지역 사회 차원으로 확장하는 글을 계획하였다.
- ⑤ 쓰기 윤리를 소재로 하여 표절의 개념, 실태, 문제점, 해결 정책 순으로 내용을 구성하였다.

10. ㉠~㉢을 고쳐 쓰기 위한 방안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 부사의 쓰임이 적절하지 않으므로 ‘마치’로 대체한다.
- ② ㉡: 문맥의 흐름을 고려하여 ‘하지만’으로 고친다.
- ③ ㉢: 필요한 문장 성분이 생략되었으므로 ‘출처를’을 첨가한다.
- ④ ㉣: 맞춤법에 어긋나므로 ‘짜집기’로 수정한다.
- ⑤ ㉤: 글의 통일성을 해치는 내용이므로 삭제한다.

11. <보기>의 ㉠, ㉢가 사용된 예를 ㉦~㉨에서 바르게 고른 것은?

< 보 기 >

선생님: 여러분이 헛갈려 하는 것들 중 ㉠ 용언의 어간과 결합하는 명사형 어미 ‘-(으)ㄴ’, ‘-기’와 ㉢ 어근과 결합하여 명사를 만드는 접미사 ‘-이’, ‘-음’, ‘-기’가 있어요. 전자는 용언의 품사를 바꾸지 않으며, 전자가 결합해 활용된 용언은 서술하는 기능이 유지되고 부사어의 수식을 받을 수 있어요. 한편 후자가 결합하여 만들어진 명사는 관형어의 수식을 받을 수 있어요.

- 세상은 홀로 ㉦ 살기가 어렵다.
- 형은 충분히 ㉧ 잠으로써 피로를 풀었다.
- 날씨가 더워 시원한 ㉨ 얼음이 필요하다.
- 우리에게 건전한 ㉢ 놀이 문화가 필요하다.
- 이곳은 풍경이 매우 ㉤ 아름답기로 유명하다.

- | | ㉠ | ㉢ |
|---|---------|---------|
| ① | ㉦, ㉧ | ㉨, ㉢, ㉤ |
| ② | ㉦, ㉢ | ㉧, ㉨, ㉤ |
| ③ | ㉨, ㉢ | ㉦, ㉧, ㉤ |
| ④ | ㉦, ㉧, ㉢ | ㉨, ㉤ |
| ⑤ | ㉧, ㉨, ㉤ | ㉦, ㉢ |

12. <보기>의 ㉦~㉨에 대한 탐구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보 기 >

서술어의 자릿수란 서술어가 필수적으로 요구하는 문장 성분의 개수를 의미한다. 그런데 서술어는 문장에서 사용되는 의미에 따라 필수적으로 요구하는 문장 성분이 달라지기도 한다.

	의미	예문
살다	불 따위가 타거나 비치고 있는 상태에 있다.	바람 때문에 불씨가 다시 ㉦ <u>살았다</u> .
	본래 가지고 있던 특징 따위가 그대로 있거나 뚜렷이 나타난다.	이 한 구절로 글이 ㉧ <u>살았다</u> .
	어떤 직분이나 신분의 생활을 하다.	그는 조선 시대에 오랫동안 벼슬을 ㉨ <u>살았다</u> .
놀다	계속해 오던 일을 그만두고 하지 아니하다.	그는 잠시 일손을 ㉢ <u>놓았다</u> .
	잡거나 쥐고 있던 물체를 일정한 곳에 두다.	형은 책을 책상 위에 ㉤ <u>놓았다</u> .

- ① ㉦은 주어만 필수적으로 요구하는 한 자리 서술어이군.
- ② ㉧은 주어와 부사어를 필수적으로 요구하는 두 자리 서술어이군.
- ③ ㉨은 주어와 목적어를 필수적으로 요구하는 두 자리 서술어이군.
- ④ ㉢은 주어와 목적어를 필수적으로 요구하는 두 자리 서술어이군.
- ⑤ ㉤은 주어, 목적어, 부사어를 필수적으로 요구하는 세 자리 서술어이군.

13. <보기>를 참고할 때, 밑줄 친 부분이 바르게 쓰인 것은?

< 보 기 >

채 「의존 명사」
이미 있는 상태 그대로 있다는 뜻을 나타내는 말.

채 「의존 명사」
그렇듯하게 꾸미는 거짓 태도나 모양.

-째 「접사」
‘그대로’, 또는 ‘전부’의 뜻을 더하는 접미사.

- ① 사과를 껍질째로 먹었다.
- ② 나는 앓은 채로 잠이 들었다.
- ③ 그녀는 혼자 똑똑한 채를 한다.
- ④ 사나운 멧돼지를 산 째로 잡았다.
- ⑤ 꿈이 다가오자 그는 죽은 채를 했다.

[14~15] 다음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15세기 국어의 모음 조화는 형태소 내부와 경계에서 비교적 잘 지켜졌다. 한 형태소 내의 모음들을 살펴보면 ‘ㅏ, ㅑ, ㅓ’ 등의 양성 모음은 양성 모음끼리, ‘ㅓ, ㅕ, ㅗ’ 등의 음성 모음은 음성 모음끼리 어울렸다. 중성 모음 ‘ㅣ’는 양성 모음과 어울리기도 하고, 음성 모음과 어울리기도 하였다. 또 어근과 접사가 결합하여 단어가 형성되거나 체언에 조사가 연결될 때, 용언 어간에 어미가 연결될 때에도 조사나 어미의 첫 모음은 그에 선행하는 모음과 같은 성질의 모음이 연결되었다. 예를 들어, 목적격 조사는 그에 선행하는 명사의 모음에 따라 ‘을/을, 를/를’ 중 하나가 선택되었고, ‘-은/-은’, ‘-음/-음’, ㉠ ‘-아/-어’와 같은 어미도 선행하는 어간의 모음에 따라 규칙적으로 선택되었다. 다만, 조사 ‘도’, ‘와/과’나 어미 ‘-고’, ‘-더-’ 등은 모음 조화가 적용되지 않았다.

그런데 16세기부터 모음 조화는 약화되기 시작하였다. 이는 ‘ㅓ’의 소실과 관계가 있다. 16세기에는 둘째 음절 이하에서의 ‘ㅓ’가 소실되면서 주로 ‘ㅗ’에 합류하였다. 첫째 음절에서의 ‘ㅓ’는 여전히 양성 모음이었으나, 둘째 음절 이하에서는 ‘ㅓ’ 대신 음성 모음인 ‘ㅗ’가 쓰인 것이다. 이러한 변화로 체언에 연결되는 ‘은/은’, ‘을/을’, ‘의/의’ 등의 조사는 점차 ‘은’, ‘을’, ‘의’ 등으로 통일되었고, 모음 조화를 지키던 ‘사슴’과 같은 단어들은 ‘사슴’과 같이 모음 조화를 어기는 형태가 되고 말았다.

이후 18세기에 첫째 음절에서의 ‘ㅓ’가 주로 ‘ㅏ’에 합류하면서 ‘ㅓ’는 완전히 소실되었고, 국어의 모음 체계는 큰 변화를 겪게 되었다. 그리고 이러한 변화는 모음 조화가 약화되는 또 다른 요인으로 작용했다.

현대 국어에서는 모음 조화가 형태소 내부와 경계에서 지켜지지 않는 경우가 많다. 다만 ‘출렁출렁’, ‘출렁출렁’과 같은 음성 상징어에서나 ㉡ 일부 용언의 어간 뒤에 ‘-아/-어’ 계열의 어미가 결합할 때 모음 조화가 이루어지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

14. ㉠과 ㉡을 모두 확인할 수 있는 예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15세기 국어		현대 국어	
	용언 어간	활용형	용언 어간	활용형
㉠	알-	아라	알-	알아
㉡	먹-	머거	먹-	먹어
㉢	씨오-	씨와	깨우-	깨워
㉣	쓰-	써	쓰-	써
㉤	ㄱ득ㅎ-	ㄱ득ㅎ야	가득하-	가득하여

15. 윗글을 읽고, <보기>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가)

겨스레 소음 둔 오슬 낚디 아니 ㅎ고 녀르메 서늘흔 덕 가디 아니 ㅎ며 ㅎ르 쌀 두 호브로써 죽을 밍굴오 소곰과 ㄴ물 ㅎ 먹디 아니 ㅎ더라

- 『내훈』(1447년)에서 -

[현대어 풀이]

겨울에 솜 든 옷을 입지 아니하고 여름에 서늘한 데 가지 아니하며 하루 쌀 두 호브로써 죽을 만들고 소곰과 나물을 먹지 아니하더라.

(나)

타락과 초와 장과 소곰과 계즈 ㄱ르와 파과 마늘과 부치와 기름과 댓무우과 외와 가지 등 여러가지 ㄴ물과 둥기 알과

- 『박통사언해』(1677년)에서 -

[현대어 풀이]

타락과 식초와 장과 소곰과 겨자 가루와 파와 마늘과 부추와 기름과 당근과 오이와 가지 등 여러 가지 나물과 닭의 알과

- 15세기에는 한 단어 내에서 모음 조화가 잘 지켜졌음을 (가)의 ‘겨슬’과 ‘ㅎ르’를 통해 확인할 수 있군.
- 15세기에는 체언에 목적격 조사가 결합할 때 모음 조화가 지켜졌음을 (가)의 ‘오슬’과 ‘죽을’을 통해 확인할 수 있군.
- 용언 어간에 ‘-더-’가 결합할 때에는 모음 조화가 적용되지 않았음을 (가)의 ‘ㅎ더라’를 통해 확인할 수 있군.
- 17세기에는 모음 조화의 약화에 따라 조사 사용에 혼란이 있었음을 (나)의 ‘초와’와 ‘파과’를 통해 확인할 수 있군.
- 둘째 음절의 ‘ㅓ’가 ‘ㅗ’로 변하였음을 (가)의 ‘ㄴ물’과 (나)의 ‘ㄴ물’을 통해 확인할 수 있군.

[16~20] 다음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소비자가 어떤 상품을 구매하기 위하여 지불할 용의가 있는 금액보다 실제로 지불한 가격이 낮아 얻는 이득을 소비자 잉여라고 하고, 생산자가 어떤 상품을 판매하여 얻은 실제 수입이 그 상품을 판매하여 꼭 얻어야겠다고 생각한 금액보다 많아 얻는 이득을 생산자 잉여라고 한다. 그리고 소비자 잉여와 생산자 잉여의 합을 총잉여라고 한다. 상품이 거래되지 않을 때에 비해 어떤 상품이 시장에서 거래될 때에 소비자 잉여는 소비자에게, 생산자 잉여는 생산자에게 혜택이 될 수 있다. 그런데 ㉠ 시장 가격을 임의의 수준으로 결정할 수 있는 독점적 지위를 가진 생산자는 소비자 잉여를 생산자의 이윤으로 흡수하기 위해 이부가격을 설정하기도 한다.

‘이부가격설정’이란 어떤 상품에 대하여 두 차례 가격을 치르도록 하는 방식이다. 즉 소비자로 하여금 특정한 상품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구입하게 한 다음, 상품을 이용하는 양에 비례하여 가격을 부담시키는 방식이다. 놀이공원 입장료와 놀이 기구 이용료를 생각해 보자. 독점적 지위에 있는 생산자는 놀이 기구 이용료와 별도로 놀이공원 입장료를 받아 두 차례 가격을 치르도록 할 수 있다. 이때 생산자는 놀이공원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인 입장료를 적절한 수준으로 결정해야 자신

국어 영역

제 1 교시

1

[1 ~ 3] 다음은 학생 토의의 일부이다. 물음에 답하시오.

사회자: 우리 학생회는 매 학기 학생회 활동을 평가하고 개선하기 위해 전교생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를 실시해 왔습니다. 그런데 지난 학기에 사용한 설문지의 형식과 내용을 보완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어 이에 대해 토의하고자 합니다. 먼저 기존 설문지의 문제점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생 1: 우리 부서에서 통계를 낼 때 보니 뒤 번호의 문항으로 갈수록 학생들이 답을 하지 않은 경우가 많았습니다. 설문지의 문항 수가 너무 많은 것은 아닐까요?

학생 2: 모든 선택형 문항에 같은 번호로 답하거나 서술형 문항에 장난스럽게 응답한 경우도 많았습니다. 이는 설문지에 설문의 중요성을 충분히 밝히지 않았을 뿐 아니라, 무기명이다 보니 학생들이 성의 없이 설문에 응한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학생 3: 저는 자신이 직접 참여하지 않은 활동에 대해서도 모두 응답하도록 되어 있는 것이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사회자: 말씀하신 내용을 들어 보니 기존의 설문지가 학생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데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학생 1: 설문지 문항 수를 줄인다면 학생들의 부담을 덜어 주어 설문 조사가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을 것입니다. 특히 서술형 문항은 더 줄일 필요가 있습니다.

학생 2: 학생들이 설문 조사의 중요성을 알 수 있도록 설문 목적과 의의를 밝히는 문구를 설문지에 넣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설문지에 실명을 기재하도록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학교 홈페이지의 게시판도 익명보다는 실명으로 이용할 때 학생들이 더 신중한 태도를 보이지 않나요?

학생 3: 저는 문항을 각 활동별로 묶어서 구성하되 먼저 참여 여부를 묻고, 참여한 학생만 해당 활동의 세부 질문으로 넘어가는 단계적 방식을 활용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사회자: 여러 가지 해결 방안들을 말씀해 주셨는데요. 그러면 지금부터는 제시된 방안들이 적절한지에 대해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학생 2: 선택형 문항 수를 줄이는 것에는 동의합니다. 하지만 서술형 문항은 학생들의 다양한 의견을 들을 수 있는 장점이 있으므로, 문항 수를 줄이는 것보다는 묻고자 하는 바를 구체적으로 제시하지 않은 기존의 질문을 개선할 필요가 있습니다.

학생 3: 설문지에 설문 목적이나 의의에 대한 문구를 넣는 것은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실명을 기재하게 되면 자신의 생각을 솔직하게 표현하기는 어렵지 않을까요?

학생 1: 실명 기재에 대해서는 저도 반대합니다. 그리고 단계적으로 설문 문항을 구성하는 것은 활동에 참여한 학생들의 실질적인 의견을 반영할 수 있어서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사회자: 여러 의견 감사합니다. 오늘 토의 내용을 참고하여 일단 ① 설문지의 초안을 작성해 보고 후속 토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다음은 위 토의의 과정을 정리한 것이다. A ~ C에 나타난 참여자들의 발화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A에서 ‘학생 1’은 설문 대상자의 범위를 잘못 설정한 것을 문제로 인식하고 있군.
- ② A에서 ‘학생 3’은 응답자의 참여 태도가 설문 결과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문제점으로 제기하고 있군.
- ③ B에서 ‘학생 1’은 설문 조사의 실시 시기를 조정하는 방법을 대안으로 제시하고 있군.
- ④ B에서 ‘학생 2’는 설문지의 형식에 대한 대안을 제시한 후 이와 관련된 유사한 사례를 제시하고 있군.
- ⑤ C에서 ‘학생 2’는 다른 학생이 대안으로 제시한 설문지 형식에 동의하며 그 이유를 밝히고 있군.

2. 사회자의 역할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은?

- ① 토의 내용이 주제에서 벗어남을 지적하고 있다.
- ② 이어질 화제를 안내하여 토의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 ③ 토의 참여자의 발언 기회를 균등하게 배분하고 있다.
- ④ 제시된 의견을 요약하며 후속 토의를 안내하고 있다.
- ⑤ 토의 참여자의 발언에 대해 추가 정보를 요청하고 있다.

3. 다음은 ㉠의 일부이다. 위 토의를 바탕으로 이를 평가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학생회 활동 만족도 조사 설문지

다음은 학생회가 실시하는 설문 조사입니다. 물음에 답하십시오.

1. 인적 사항
()학년 ()반 (남 / 여)

4. 학생회 주관 축구 대회에 참여했습니까?
① 예 (4-1번으로 가십시오.) ② 아니요 (5번으로 가십시오.)

4-1. 학생회 주관 축구 대회에 만족하십니까?
① 매우 만족 ② 만족 ③ 보통 ④ 불만족 ⑤ 매우 불만족

4-2. 학생회 주관 축구 대회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5. 학생회 주관 수요 콘서트에 참여했습니까?

- ① 1번 항목에 실명 기재란이 없는 것을 보니, ‘학생 1’과 ‘학생 3’의 의견이 반영되었다고 할 수 있겠군.
- ② ‘학생 2’와 ‘학생 3’의 공통 의견을 반영한다면, 안내 문구에 설문 의 중요성을 드러낼 수 있는 내용을 추가해야겠군.
- ③ ‘학생 1’과 ‘학생 2’의 공통 의견을 반영한다면, 다양한 의견 수렴 이 가능하도록 설문지에 서술형 문항 수를 늘려야겠군.
- ④ 4번 항목에서 참여 여부에 따라 다음 단계를 안내한 것을 보니, ‘학생 1’과 ‘학생 3’의 공통된 의견이 반영되었다고 할 수 있겠군.
- ⑤ ‘학생 2’의 의견을 반영한다면, 4-2번의 질문은 학생들이 구체적으 로 응답할 수 있도록 묻고자 하는 바를 더 명확하게 제시해야겠군.

[4 ~ 5] 다음은 학생의 발표이다. 물음에 답하십시오.

안녕하세요. 오늘 발표를 하게 된 ○○○입니다. 요즘 안전한 먹거리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생산 및 유통 단계에서 위생 관리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식품의 위생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졌는지 쉽게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화면을 가리키며) 혹시 주변에서 이런 마크를 본 적이 있나요? 마크에 쓰여 있는 ‘HACCP’는 ‘해썹’이라고 읽는데요.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시나요?



해썹은 식품의 생산부터 유통까지 전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해 요소를 사전에 체크하고, 문제를 예방하는 과학적인 위생 관리 체계를 의미합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식품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1995년에 이 제도를 도입하여 현재는 냉동식품, 병과류 등을 비롯한 7개 품목군에 의무적으로 적용하고 있고, 그 외 품목이나 업소의 경우에도 확대 적용하고 있죠.

업체가 해썹 인증을 받기 위해서는 생산과 유통에 있어 매우 까다로운 12개 단계의 위생 관리 체계를 갖추어야 합니다. 이를 모두 완료한 업체에 한해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은 서류 심사와 현장 심사를 통해 해썹 인증을 해 줍니다. 한 번 인증을 받았다 하더라도 3년마다 갱신 절차를 거쳐야 하니 해썹 마크가 있는 제품과 업소에 대해서는 소비자가 더 신뢰할 수 있겠죠?

해썹이 도입된 지 20여 년이 흘렀지만 상당수의 소비자들은 그 의미나 의의에 대해 잘 모르고 있습니다. 만약 이러한 제도에 대해 소비자가 더욱 관심을 갖는다면 해썹 적용 품목이나 업소가 확대될 것이고, 안전한 먹거리를 만들기 위한 더 나은 환경이 조성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목소리를 높이며) 먹거리의 파수꾼이라 할 수 있는 해썹 마크, 여러분도 한번 확인해 보면 어떨까요?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4. 위 발표자의 말하기 방식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청중이 발표에 집중할 수 있도록 시각 자료를 활용하고 있다.
- ② 청중의 이해를 돕기 위해 발표 대상의 장단점을 비교하고 있다.
- ③ 청중의 공감을 이끌어내기 위해 반언어적 표현을 사용하고 있다.
- ④ 발표 내용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자료의 출처를 제시하고 있다.
- ⑤ 발표를 인상적으로 마무리하기 위해 비유적 표현을 활용하고 있다.

5. 위 발표를 들은 학생이 할 수 있는 질문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7개 품목군 외에 확대 적용된 품목은 어떤 것이 있나요?
- ② 우리나라가 해썹 인증 제도를 도입한 목적은 무엇인가요?
- ③ 생산과 유통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해 요소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 ④ 인증을 받기 위한 12개 단계의 위생 관리 체계는 구체적으로 무엇 인가요?
- ⑤ 재인증을 위해 3년마다 거쳐야 하는 갱신 절차는 최초 인증 절차 와 동일하나요?

[6 ~ 8] 다음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작문 상황]

- 글의 목적: 스포일러 문제를 비판하고 그 해결 방안을 제시
- 예상 독자: 학급 학생들

[학생의 초고]

자신이 보려던 영화의 결말을 누군가 말해 버려서 속상했던 적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영화, 방송, 소설 등의 줄거리나 내용을 예비 관객이나 시청자, 독자들에게 미리 밝히는 행위나 그런 행위를 하는 사람들을 스포일러라고 한다. SNS 사용이 급증하고 있는 최근에는 스포일러로 인한 피해가 확산되면서 누리꾼들 사이에 이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심화되고 있다.

사람들은 다음에 벌어질 상황이나 결말을 알지 못할 때 긴장감과 흥미를 느낀다. 따라서 그들이 의도치 않게 스포일러를 접하게 되면 흥미는 반감될 수밖에 없다. 또한 최근에는 오디션이나 경연 대회를 다루는 프로그램들이 많은데, 누가 우승자가 될지 이목이 집중되는 이러한 프로그램들이 스포일러를 당하면 시청률은 큰 폭으로 떨어지게 된다. 물론 ([A])

누리꾼들은 자신의 행위가 스포일러가 될 수도 있다고 인식하지 못한 채 영화 관련 정보를 제공하려는 의도로 글을 올리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원래 의도와는 달리 이러한 글이 많은 사람들에게 피해를 줄 수도 있다. 한편 영화와 전혀 관련이 없는 내용인 것처럼 제목을 꾸며 놓고 클릭을 유도해서 중요한 내용을 공개해 사람들을 의도적으로 골탕 먹이는 경우도 있다.

그렇다면 이러한 스포일러 문제는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우선 자신의 행위가 스포일러가 될 수도 있다는 것을 명확히 인식해야 한다. 아울러 자신의 행위가 스포일러는 아닌지 한번 더 의심하고 자기 점검을 할 필요가 있다. 또한 의도적인 스포일러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캠페인 활동 등을 통해 누리꾼들의 윤리 의식을 고취시켜야 한다.

스포일러의 피해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는 요즘, 우리들은 문화 콘텐츠의 향유자로서 스포일러의 폐해에 관심을 갖고 스포일러 방지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

6. ‘학생의 초고’에 반영된 글쓰기 전략으로 적절한 것은?

- ① 권위자의 말을 인용하여 문제의 심각성을 드러내고 있다.
- ② 용어의 개념을 명확히 제시하여 독자의 이해를 돕고 있다.
- ③ 기존 이론의 문제점을 비판하여 주제를 분명히 드러내고 있다.
- ④ 도입부에서 질문의 방식을 사용하여 독자의 관심을 유도하고 있다.
- ⑤ 화제에 대한 긍정적 전망을 제시하여 주장의 설득력을 높이고 있다.

7. <보기>의 조건에 따라 작성한 [A]의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보 기 >

- ‘반론 - 재반론’의 형식으로 작성할 것.
- 비유의 방법을 활용할 것.

- ① 프로그램 제작자가 왜곡된 정보를 예고편에 의도적으로 넣어 스포일러를 하기도 한다. 이유는 시청자가 방송을 보았을 때 예상이 빗나가면 더욱 큰 재미를 느끼기 때문이다.
- ② 스포일러는 예능 프로그램뿐만 아니라 드라마의 시청률도 떨어뜨리는 원인이 된다. 그러나 적절한 스포일러는 시청자의 흥미를 자극해 시청률을 높이는 달콤한 미끼가 되기도 한다.
- ③ 스포일러가 홍보 역할을 하여 오히려 시청률 증가에 기여한다는 의견도 있다. 그러나 그런 경우는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고 시청자뿐만 아니라 제작자에게도 피해를 입히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 ④ 잘못된 정보를 퍼뜨리지 않는 이상 표현의 자유는 보장되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그러나 자유에는 책임이 뒷받침되어야 하므로 스포일러로 인한 피해가 발생한다면 자유는 제한되어야 마땅하다.
- ⑤ 시청률의 하락은 프로그램의 질을 떨어뜨리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 결국 시청자들은 스포일러 때문에 질 좋은 프로그램을 보지 못하게 되므로 스스로의 발목을 잡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는 것이다.

8. <보기>의 자료를 활용하여 ‘학생의 초고’를 보완할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보 기 >

(가) 신문 기사

영화 전문 예매 사이트 ○○가 2,322명의 누리꾼을 대상으로 스포일러에 대한 ㉠ 설문 조사를 실시하였다. 그 결과 ‘영화 관람에 영향을 미치므로 절대 금지해야 한다.’라는 응답이 73%였고, ‘스포일러도 리뷰이므로 상관없다.’라는 응답이 27%였다. 단, ‘상관없다’고 응답한 누리꾼도 ㉡ 스포일러 가능성 여부를 글의 제목에 미리 밝혀 줘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나) 전문가 인터뷰

㉢ 스포일러에 대한 판단 기준이 모호하기 때문에 누리꾼들은 자신도 모른 채 스포일러가 될 수 있습니다. 물론 현재는 ㉣ 스포일러로 인한 피해 규모를 수치로 입증하기가 쉽지 않아 민사상 손해 배상을 청구하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외국의 경우 실제 소송이 제기된 사례가 있고, ㉤ 악의적인 스포일러는 저작권법 위반에 해당하여 처벌받을 수도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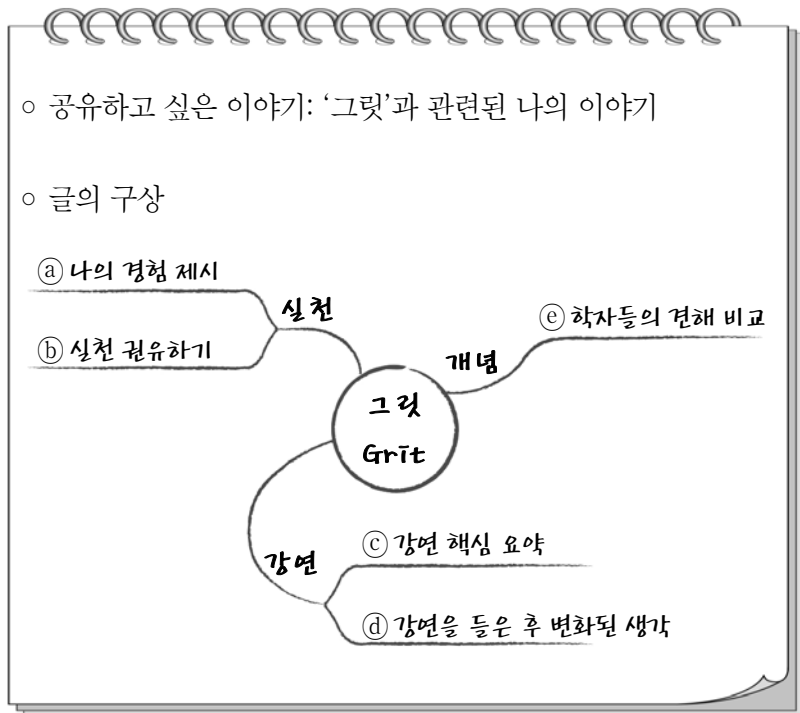
- ① ㉠의 결과를 첫째 문단에서 활용하여 스포일러에 대한 누리꾼의 부정적 인식이 심화되고 있다는 것에 대한 근거로 제시한다.
- ② ㉡의 의견을 넷째 문단에서 활용하여 스포일러로 인한 피해를 줄일 수 있는 대안의 하나로 추가하여 제시한다.
- ③ ㉢의 내용을 셋째 문단에서 활용하여 자신의 행위가 스포일러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인식이 어려운 이유로 제시한다.
- ④ ㉣의 사실을 셋째 문단에서 활용하여 스포일러의 의도성과 비의도성을 구분하는 기준으로 제시한다.
- ⑤ ㉤의 정보를 넷째 문단에서 활용하여 의도적인 스포일러들에게 경각심을 심어 주어야 한다는 내용을 해결 방안으로 제시한다.

[9 ~ 10] 다음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작문 과제]

친구들과 공유하고 싶은 이야기를 써 보자.

[작문 일지]



[초고]

작년 겨울, 천재들만 받는다는 맥아더 펠로상의 수상자 ‘엔젤라 더크워스(Angela Duckworth)’의 강연을 듣게 되었다. 그녀가 강조한 것은 재능 자체가 아니라 실패에 좌절하지 않고 목표를 향해 정진할 수 있는 능력인 ㉠ 그릿(Grit)이었다. 특히 그녀는 다양한 방법으로 그릿을 향상할 수 있으며, 그릿이 높은 사람은 삶의 만족도 또한 매우 높다고 역설했다.

짧은 강연은 매우 인상적이었다. 그 후 나는 ㉡ 그릿에게 빠져들었고 관련 서적을 찾아 읽어 보기도 했다. 지금까지 나는 성공한 사람들의 일화를 들으며 그들의 재능을 부러워하기만 했다. 그리고 노력하면 무엇이든 할 수 있다는 주변의 막연한 충고는 마음에 와 닿지 않았다. 그런데 강연을 통해 그릿의 효과와 그릿 향상 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게 된 후, 목표를 향해 끊임없이 열정을 퍼붓는 사람들의 끈기에 ㉢ 주목시키게 되면서 나의 생각이 잘못되었음을 깨달았다. ㉣ 그러나 나는 포기하려 했던 기타 연습에 다시 몰두할 수 있었다. 그리고 예전과 달리 소소한 성취감도 느끼며 내가 성장하고 있다는 생각에 즐겁기까지 했다.

베토벤이 되지 못할 바에는 음악을 포기해야 한다고 생각하는가? 대답은 당연히 ‘아니요’다. 베토벤이야말로 음악에 대한 열정을 불태운 그릿의 결정체임을 잊지 말자. 여러분도 무엇인가를 포기하고 싶을 때가 온다면 ㉤ 떠올리고, 목표를 성취할 때까지 노력했으면 좋겠다.

9. ‘작문 일지’에 기록한 내용 중 초고에 반영되지 않은 것은?

- ① ㉠ ② ㉡ ③ ㉢ ④ ㉣ ⑤ ㉤

10. ㉠ ~ ㉤을 고쳐 쓰기 위한 방안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 호응 관계를 고려하여 ‘그릿이라고 주장했다’로 바꿔야겠어.
 ② ㉡: 조사의 사용이 적절하지 않으므로 ‘그릿에’로 수정해야겠어.
 ③ ㉢: 불필요한 사동 표현이므로 ‘주목하게’로 고쳐야겠어.
 ④ ㉣: 접속어 사용이 적절하지 않으므로 ‘그래서’로 교체해야겠어.
 ⑤ ㉤: 필요한 문장 성분이 빠져 있으므로 ‘그릿을’을 첨가해야겠어.

11. <보기 1>을 참고하여 <보기 2>의 ㉠ ~ ㉤에 대해 설명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보기 1〉

[구개음화]

교체 현상의 하나로, 받침이 ‘ㄷ’, ‘ㅌ’인 형태소가 모음 ‘ㅣ’나 반모음 ‘ㅣ[j]’로 시작되는 형식 형태소와 만나면 그것이 각각 구개음 [ㄷʲ], [ㄷʲj]이 되거나, ‘ㄷ’ 뒤에 형식 형태소 ‘-히-’가 올 때 ‘ㅎ’과 결합하여 이루어진 [ㅌʲ]이 [ㄷʲ]이 되는 현상.

〈보기 2〉

- 나는 벽에 ㉠ 붙인 게시물을 떼었다.
- 교수는 문제의 원인을 ㉡ 날날이 밝혔다.
- 그녀는 평생 ㉢ 발이랑을 일구며 살았다.
- 그의 말소리는 소음에 ㉣ 묻히고 말았다.
- 그는 겨울에도 방에서 ㉤ 홀이불을 덮고 잤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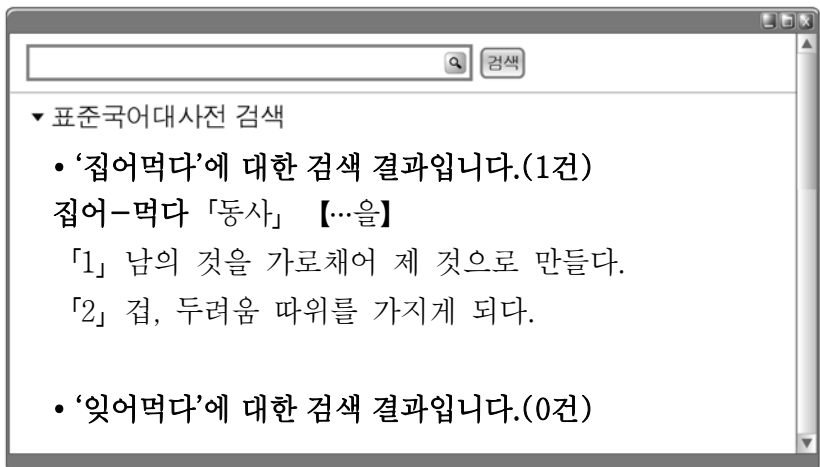
- ① ㉠의 ‘붙-’은 접미사의 모음 ‘ㅣ’와 만나므로 구개음화 현상이 일어나지 않는다.
 ② ㉡의 ‘-이’는 실질 형태소이므로 ‘날’의 받침 ‘ㅌ’은 [ㄷʲ]으로 발음되지 않는다.
 ③ ㉢의 ‘이랑’은 모음 ‘ㅣ’로 시작되는 형식 형태소이므로 ‘발’의 ‘ㅌ’은 [ㄷʲ]으로 발음된다.
 ④ ㉣의 ‘묻-’은 접미사 ‘-히-’와 만나므로 ‘ㄷ’이 ‘ㅎ’과 결합하여 이루어진 [ㅌʲ]은 [ㄷʲ]으로 발음된다.
 ⑤ ㉤의 ‘홀-’과 결합한 ‘이불’은 모음 ‘ㅣ’로 시작되는 실질 형태소이므로 ‘홀-’의 받침 ‘ㅌ’은 구개음화 현상이 일어난다.

12. (가)는 학생의 메모이고, (나)는 추가로 조사한 자료이다. (가)와 (나)를 참고하여 <보기>에 대해 탐구한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가) 두 용언이 연결 어미로 이어진 경우

유형	특징
본용언 + 본용언	•각각의 용언이 주어와 호응한다. •두 용언 사이에 다른 문장 성분이 올 수 있다. •반드시 띄어 쓴다.
본용언 + 보조 용언	•앞의 용언만으로 문장이 성립되고, 뒤의 용언만으로는 문장이 성립되지 않는다. •보조 용언은 띄어 쓰는 것이 원칙이지만 경우에 따라 붙여 쓰는 것도 허용한다.
합성 동사	•국어사전에 하나의 단어로 등재되어 있다. •반드시 붙여 쓴다.

(나) 표준국어대사전 검색 결과



< 보 기 >

- 온순했던 청년들은 지레 겁을 ㉠ 집어먹었다.
- 나는 시험 준비를 하느라 잠자는 것도 ㉡ 잊어 먹었다.
- 그는 그녀에게 진 빚을 갚기 위해 공금을 ㉢ 집어먹었다.
- 그는 굶주림에 지쳐 땅 위에 버려진 빵을 ㉣ 집어 먹었다.
- 그들은 서로 만나기로 했던 사실을 새까맣게 ㉤ 잊어먹었다.

- ① ㉠은 국어사전에 단어로 등재되어 있는 합성 동사이므로 두 용언을 붙여 쓴 것이겠군.
- ② ㉡은 뒤의 용언만으로 문장이 성립되지 않으므로 원칙에 따라 두 용언을 띄어 쓴 것이겠군.
- ③ ㉢은 각각의 용언이 모두 주어인 ‘그는’과 호응하고 있으므로 두 용언을 붙여 쓴 것이겠군.
- ④ ㉣은 두 용언 사이에 ‘허겁지겁’과 같이 다른 문장 성분이 올 수 있으므로 두 용언을 띄어 쓴 것이겠군.
- ⑤ ㉤은 사전에 등재된 단어가 아니고, 뒤의 용언만으로 문장이 성립하지 않으므로 두 용언을 띄어 써야 하지만 붙여 쓴 것을 허용한 것이겠군.

13. <보기>는 ‘학습 활동’에 대해 짝토론을 한 것이다. ㉠ ~ ㉤에 알맞은 말을 골라 바르게 연결한 것은?

[학습 활동] 다음 문장의 짜임에 대해 알아보자.

그가 아끼던 제자가 상을 받았음을 그녀가 알려 줬다.

< 보 기 >

- 학생 1: 어제 보았던 거꾸로 수업 동영상 강의에서 문장 속에 들어 있는 절을 ‘안긴문장’이라고 하고, 절을 포함하고 있는 문장을 ‘안은문장’이라고 했지?
- 학생 2: 그래. 그리고 어떤 문장의 짜임을 이해하려면 그 문장의 주어와 서술어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어. 그럼, 먼저 주어를 서술하는 기능을 가진 단어부터 찾아보자. 음……. ‘알려 줬다’와 ‘받았음’ 이렇게 두 개인가?
- 학생 1: 아니야. ‘아끼던’도 서술 기능이 있잖아.
- 학생 2: 그렇구나. 그러면 그중에서 문장 전체의 서술어는 ‘알려 줬다’이고, 그것의 주어는 (㉠)이겠지.
- 학생 1: 맞아. 그럼 ‘받았음’의 주어는 (㉡)이겠지?
- 학생 2: 응. 명사절이 문장 전체의 목적어 역할을 하며 안겨 있는 거지.
- 학생 1: 명사절 외에 관형절도 있잖아. 그러면 이 관형절의 주어는 (㉢)이겠지.
- 학생 2: 그래. 국어의 안은문장은 이렇게 여러 개의 안긴문장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거구나.

- | | | | |
|---|-----|-----|-----|
| | ㉠ | ㉡ | ㉢ |
| ① | 그녀가 | 제자가 | 그가 |
| ② | 그녀가 | 그가 | 제자가 |
| ③ | 그가 | 그녀가 | 제자가 |
| ④ | 그가 | 제자가 | 그녀가 |
| ⑤ | 제자가 | 그녀가 | 그가 |

[14 ~ 15] 다음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화자가 어떤 대상에 대하여 높임의 태도를 나타내는 문법 기능을 높임법이라 한다. 높임법은 높임이나 낮춤의 대상이 누구냐에 따라 주체 높임법, 객체 높임법, 상대 높임법으로 나누어진다.

주체 높임법은 화자가 문장의 주어인 서술의 주체에 대하여 높임의 태도를 나타내는 방법이다. 현대 국어에서는 선어말 어미 ‘-시-’를 통해 높임이 실현되는 것이 가장 일반적인 형태이지만, ‘주무시다’와 같은 특수한 어휘나 조사 ‘께서’에 의해 주체 높임법이 실현되기도 한다. 중세 국어의 경우에도 주로 ‘-시-’와 특수한 어휘가 사용된다는 점에서 현대 국어와 유사하다.

객체 높임법은 문장의 목적어나 부사어가 지시하는 대상, 곧 서술의 객체에 대하여 높임의 태도를 나타내는 방법이다. 현대 국어에서는 ‘드리다’와 같은 특수한 어휘나 조사 ‘께’ 등을 통해 실현된다. 중세 국어의 경우에는 대표적으로 객체 높임 선어말 어미 ‘-습-’을 통해 객체 높임이 실현되었으며, ‘-습-’은 앞뒤의 음운적 환경에 따라 ‘-습-, -습-, -슬-, -슬-, -줄-’으로 실현되기도 하였다. 또한 현대 국어와 같이 특수한 어휘들이 사용되어 객체 높임이 실현되기도 하였다.

상대 높임법은 화자가 청자인 상대방에 대하여 높이거나 낮추어 말하는 법을 일컫는다. 현대 국어에서 상대 높임법은 종결 표현에 의해 실현된다. 중세 국어의 경우에는 종결 표현이나 상대 높임 선어말 어미 ‘-이-, -잇-’ 등을 통해 실현되었다.

14. 윗글을 바탕으로 <보기>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보 기 〉

- 仁義之兵(인의지병)을 遼左(요좌) | ㉠ 깃스븀니
[현대어 풀이] 인의의 군대를 요동 사람들이 기뻐하니
- 聖孫(성손)이 ㉡ 一怒(일노)흐시니 六百年(육백년) 天下(천하) | 洛陽(낙양)에 ㉢ 올므니이다
[현대어 풀이] 성손(무왕)이 한번 노하시니 육백 년의 천하가 낙양으로 옮겨간 것입니다.
- 聖宗(성종)을 ㉣ 되셔 九泉(구천)에 가려 하시니
[현대어 풀이] 성스러운 어른을 모시고 저승에 가려 하시니
- 하늘히 駙馬(부마) 달애샤 두 孔雀(공작)일 ㉤ 그리시니이다
[현대어 풀이] 하늘이 부마를 달래시어 두 공작을 그리신 것입니다.

— 「용비어천가(龍飛御天歌)」 —

- ① ㉠은 현대 국어와는 달리, 선어말 어미 ‘-습-’을 사용하여 목적어가 지시하는 대상을 높이고 있다고 할 수 있다.
- ② ㉡은 현대 국어와 마찬가지로 선어말 어미 ‘-시-’를 사용하여 ‘聖孫(성손)’을 높이고 있다고 할 수 있다.
- ③ ㉢은 현대 국어와는 달리, 청자를 높이기 위해 ‘-이-’라는 선어말 어미가 사용되었다고 할 수 있다.
- ④ ㉣은 현대 국어와 마찬가지로 서술의 주체를 높이기 위해 특수한 어휘가 사용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 ⑤ ㉤은 선어말 어미 ‘-시-’와 ‘-이-’를 사용하여 각각 문장의 주체와 청자인 상대방을 모두 높이고 있다고 할 수 있다.

15. 윗글과 <보기 1>을 바탕으로 <보기 2>에서 사용된 높임의 양상을 바르게 분석하여 제시한 것은?

〈보기 1〉

주체 높임에는 서술의 주체를 직접 높이는 직접 높임과, 높여야 할 대상의 신체 부분, 개인적 소유물 등을 높임으로써 해당 인물을 높이는 간접 높임이 있다.

〈보기 2〉

아버지는 허리가 아프셔서 한영이가 아버지 대신 할아버지를 뵈고 왔습니다.

	주체 높임		객체 높임	상대 높임
	직접 높임	간접 높임		
①	×	○	○	높임
②	×	○	×	낮춤
③	○	×	○	높임
④	×	○	×	낮춤
⑤	○	×	○	낮춤

[16 ~ 21]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일반적으로 예술(藝術)이라고 할 때 떠오르는 것은 춤, 시, 음악, 건축, 회화, 조각 등 아름다움을 드러내는 작품들이다. 고대 그리스인들은 춤, 시, 음악은 ‘엔투시아스모스(enthusiasmos)’로부터, 그리고 건축, 회화, 조각은 ‘테크네(techne)’로부터 비롯된다고 생각하였다. 보통 ‘엔투시아스모스’는 ‘열광’, ‘열정’을 의미하고 ‘테크네’는 ‘기술’, ‘제작’을 의미한다. 엔투시아스모스와 테크네는 고대 그리스 시대부터 예술 작품 창작의 기원으로 여겨졌는데, 예술에 대한 관점에 따라서 그 가치에 대한 판단이 달라져 왔다.

고대 그리스인들에게 엔투시아스모스는 종교적인 행사에서 사제가 신의 메시지를 얻기 위해 신과 교감하는 열광적인 상태를 의미하였다. 그런데 그들은 이런 상태가 사제뿐만 아니라 종교 행사에 참가한 사람들에게서도 나타난다고 보았다. 고대 그리스인들은 몸짓, 언어, 그리고 멜로디와 리듬으로 감정과 충동을 표현하는 활동에 심취하여 사제를 통해 신과 교감하는 상태인 엔투시아스모스에 이를 수 있다고 믿었다. 그리고 이러한 활동에서 춤, 시, 음악이 ㉠ 나왔다고 생각하였다.

고대 그리스인들에게 테크네는 신적 존재와 무관한, 인간이 무엇인가를 제작할 때 발휘되는 지적 능력을 의미하였다. 즉 테크네는 정해진 규칙 체계를 준수해 가며 수행되는 의식적인 지적 제작 능력을 지시하는 말이었다. 고대 그리스인들은 이러한 테크네를 발휘해서 나올 수 있는 것이 건축, 회화, 조각이라고 생각했다. 그런데 그들은 건축은 실물을 제작하는 활동이라고 여겼던 반면 회화와 조각은 실물을 모방하는 활동이라고 여겼

제 1 교시

국어 영역

[1~3] 다음은 학생의 발표이다. 물음에 답하시오.

안녕하세요? 지난 주 진로 시간에 우리 학급은 ‘디지털 기술의 오늘과 내일’을 주제로 한 강연을 들었는데요, 디지털 기술의 활용을 쉽게 이해하고 진로 선택에도 도움이 되었던 유익한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도 강연을 들어 잘 알고 있듯이 디지털 기술의 활용 범위는 점차 확대되어 가고 있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문화유산의 디지털 복원에 대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문화유산의 디지털 복원이라는 개념이 생소하게 느껴질 텐데요, 문화유산의 디지털 복원이란 디지털 기술을 활용해 문화유산을 디지털 자료로 변환하여 보존하거나 그것을 가상의 공간에 복원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문화유산의 디지털 복원을 활용하면, 파손 정도가 심해서 사라질 우려가 있는 문화유산을 디지털 자료의 형태로 반영구적으로 보존할 수 있습니다. 또한 현재 훼손이 심각하여 현실의 공간에 복원이 불가능한 문화유산을 가상의 공간에 복원할 수 있습니다.

한편, 문화유산을 직접 접하고 싶은데 거리가 멀어서 그러지 못한 적이 있지요? 문화유산의 디지털 복원을 활용하면, 멀티미디어 기기를 활용하여 간접적이지만 문화유산을 쉽게 접할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 가상 체험 기술과 결합하여 문화유산을 가상공간에서 체험할 수 있는 디지털 콘텐츠로도 만들 수 있습니다. 몇 년 전 석굴암을 가상 체험 할 수 있는 디지털 콘텐츠가 큰 인기를 끌었던 것처럼 문화유산을 다양한 디지털 콘텐츠로 만드는 움직임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평소 디지털 콘텐츠 이용에 관심이 많은데, 문화유산을 소재로 한 디지털 콘텐츠에도 관심을 가져 본다면 그 매력을 느낄 수 있을 거예요.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처럼 디지털 기술은 문화유산 복원에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습니다. 디지털 기술에 대한 관심에서 더 나아가 문화유산의 디지털 복원에도 관심을 가져 보는 건 어떨까요? 마침 학교와 가까운 ○○ 박물관에서 ‘디지털로 복원한 조선 시대 한양 도성 체험전’이 다음 주까지 열린다고 합니다. 눈앞에 생생하게 펼쳐진 한양 도성을 저와 함께 걸어 보지 않겠어요?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1. 위 발표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디지털 기술과 문화유산의 관계를 비유적으로 설명하며 문화유산 복원에 디지털 기술이 유용함을 강조하고 있다.
- ② 문화유산의 디지털 복원이 성공한 요인을 제시하며 다양한 학술 분야 간의 연계가 선행되어야 함을 강조하고 있다.
- ③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문화유산 복원의 장점을 소개하며 문화유산의 디지털 복원에 대한 관심을 갖도록 권유하고 있다.
- ④ 문화유산과 관련된 산업의 발전 가능성을 언급하며 디지털 기술의 개발을 위한 재정적 지원이 필요함을 강조하고 있다.
- ⑤ 문화유산 훼손의 근본 원인을 다각도로 분석하며 문화유산 복원에 학생들이 더 많은 관심을 가져 줄 것을 요청하고 있다.

2. 다음은 위 발표를 위해 사전에 청중을 분석하여 세운 발표 계획이다. 발표 내용에 반영되지 않은 것은?

○ 지역

- 학교 가까운 곳에 박물관이 있으니, 그곳에서 발표 내용과 관련된 체험을 함께 해 보자고 제안해야겠다. …… ①

○ 사전 지식

- 디지털 기술의 활용에 대해서는 알고 있을 테니, 문화유산 복원을 디지털 기술과 관련지어 설명해야겠다. …… ②
- 문화유산의 디지털 복원이라는 용어가 낯설 테니, 개념을 설명해야겠다. …… ③

○ 요구

- 발표 내용이 진로 선택에 도움이 되기를 바라니, 문화유산의 디지털 복원과 관련된 직업을 소개해야겠다. …… ④

○ 관심사

- 디지털 콘텐츠 이용에 관심이 많으니, 문화유산을 디지털 콘텐츠로 만든 사례를 언급해야겠다. …… ⑤

3. 다음은 위 발표를 들으며 학생이 떠올린 생각이다. 이를 바탕으로 발표자에게 질문할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디지털 기술을 활용하더라도 문화유산의 종류에 따라 디지털 복원의 가능 여부가 다를 것 같은데, 이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은 것 같아.

- ① 발표 내용이 유형 문화유산에만 해당하는 것 같은데요, 한옥을 짓는 기술과 같은 무형 문화유산도 디지털 기술을 활용해 복원할 수 있는 건가요?
- ② 얼마나 훼손되어야 현실 공간에 문화유산을 복원하는 게 불가능한지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는데요, 복원 가능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 ③ 디지털 기술을 활용하면 문화유산을 반영구적으로 보존할 수 있다고 했는데요, 구체적으로 디지털 기술의 어떤 원리로 그것이 가능하다는 건가요?
- ④ 문화유산의 복원을 과학 기술의 차원에서만 다룬 것 같은데요, 그 외에 제도적 차원에서 문화유산의 복원을 위해 할 수 있는 노력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 ⑤ 앞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에 대해서는 말씀하지 않았는데요, 만약 개인이 소장한 문화유산을 디지털 콘텐츠로 제작한다면 그 소유권은 누구에게 있는 건가요?

[4~7] (가)는 학생들이 발명가를 대상으로 한 인터뷰이고, (나)는 이를 참고하여 ‘학생 1’이 ‘학습 활동’ 과정에서 작성한 설명문의 초고이다. 물음에 답하시오.

(가)

학생 1: 안녕하세요? 학생 발명가이신 선배님께 궁금한 게 많습니다. 먼저 발명이 무엇인지부터 말씀해 주세요.

발명가: 네. 발명은 전에 없던 기술이나 물건을 새롭게 생각하여 만들어 내는 것이라고 할 수 있지요.

학생 2: ㉠ 새롭게 생각하여 전에 없던 기술이나 물건을 만든다는 게 쉽지 않은데요, 선배님의 발명품이 궁금해요.

발명가: (발명품을 꺼내며) 네, 이걸 보여 드리죠. 설탕, 소금과 같은 양념을 담은 통들이 어디 있는지 찾지 못해 곤란한 때가 많았어요. ㉡ 그래서 통의 뚜껑과 본체를 여러 개로 나눈다는 아이디어를 생각해 냈습니다. 통 하나에 여러 가지 양념을 담을 수 있게 말이죠.

학생 2: 간단하면서도 유용하네요. 저도 발명을 하고 싶은데 아이디어가 잘 떠오르지 않아서 힘들어요. 도움이 될 만한 게 있다면 알려 주세요.

발명가: 아이디어 창출 중심 모형이 도움이 될 것 같네요. 이것은 세 단계로 구성됩니다. 체험 단계에서는 발명의 주제가 되는 물건을 탐색하며 발명에 대한 호기심을 가져 보고, 인지 단계에서는 그 물건에 담긴 과학적 원리를 학습합니다. 이 두 단계를 통해 주제가 되는 물건에 대한 이해를 높입니다. 발명 단계에서는 그러한 이해를 바탕으로 물건을 개선할 아이디어를 창출합니다. 이때 도움을 얻기 위해 기존의 다른 발명품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학생 1: 아직 이해가 잘 안 되는데요. ㉢ 예를 들어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발명가: 좋습니다. (가방에서 필통을 꺼내며) 필기구로 말씀드리죠. 여기 연필, 볼펜, 자가 있지요? 필기구를 발명 주제로 정했다면, 체험 단계에서는 필기구만 골라 만지고 분해하며 호기심을 가져 봅니다.

학생 2: ㉣ 그럼 다음 단계에선 과학적 원리를 공부하겠군요.

발명가: 네, 인지 단계에서는 필기구에 담긴 과학적 원리를 공부하지요. 다음으로 발명 단계에서는 필기구를 개선할 아이디어를 창출합니다. 아까 기존의 다른 발명품을 참고한다고 했는데요, ㉤ 이를테면 자가 발전 기능이 있는 손전등에 전자기 유도 법칙이 이용됐다는 것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참고한 내용을 통해 빛을 내는 볼펜이라는 아이디어를 생성할 수 있지요.

학생 1: 그렇군요. 끝으로 미래의 발명가 후배들에게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발명가: 주변 사물에 호기심을 갖고 개선할 점이 있는지 살펴보세요. 과학적 원리를 바탕으로 개선 방법을 찾다 보면 좋은 아이디어가 떠오를 것입니다.

학생 1,2: 네, 감사합니다.

[학습 활동]

1. 정보 전달을 목적으로 발명 동아리 소식지에 글 쓰기
2. 상호 평가를 통한 고쳐 쓰기

(나)

학생들은 발명을 어려워한다. 그 이유는 새로운 아이디어를 떠올리기가 어렵기 때문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사용할 수 있는 것이 아이디어 창출 중심 모형이다. 이것은 아이디어를 떠올리는 데 어려움을 겪는 학생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고, 그로 인해 쉽게 발명에 다가설 수 있게 한다. 그렇다면 아이디어 창출 중심 모형은 어떤 단계로 이루어질까?

먼저 체험 단계에서는 발명에 대한 호기심을 유발한다. 예를 들어 자전거라는 발명 주제가 제시되면 자전거를 눈으로 살펴보고 손으로 만진다. 그리고 직접 자전거를 타 보이기도 하고, 자전거를 분해해 보이기도 하면서 탐색된다.

그 후 인지 단계에서는 자전거에 적용된 과학적 원리를 학습한다. 커브를 도는 쪽으로 자전거를 기울여야 하는 것은 원심력 때문이고, 울퉁불퉁한 길을 부드럽게 달릴 수 있는 것은 타이어의 탄성력 때문임을 알 수 있다. 이런 내용을 친구들과 이야기하면서 발명 주제인 자전거를 깊이 이해하게 된다. 이때 자전거를 탔던 즐거운 추억을 떠올려 감상문을 써 보는 것도 좋다.

마지막으로 발명 단계에서는 자전거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그것의 개선 방안을 생각한다. 즉 자전거가 아닌, 자동으로 공기가 채워지는 튜브를 참고해 물에 뜨는 자전거라는 아이디어를 창출할 수 있는 것이다. 개선 방안을 생각할 때는 기존의 다른 발명품을 참고할 수 있다.

4. ㉠~㉤의 말하기 방식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 상대방의 말을 재진술하며 자신의 생각을 드러내고 있다.
- ② ㉡: 설명 대상에 대한 과학적 상식을 제시하여 상대방의 흥미를 유발하고 있다.
- ③ ㉢: 물음의 형식을 활용하여 자신의 요구를 상대방에게 전하고 있다.
- ④ ㉣: 상대방이 언급한 정보를 이용하여 다음 내용을 예측하고 있다.
- ⑤ ㉤: 구체적 사례를 제시하여 앞의 발화를 보충하고 있다.

5. 다음은 (가)에 참여한 ‘학생 1’이 (나)를 쓰기 위해 ‘학생 2’와 나눈 대화의 일부이다. (가)와 (나)를 고려할 때, ㉠에 들어갈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학생 2: 선배님의 말씀을 활용해서 글을 쓴다고 했잖아. 어떤 내용을 글에 포함할 거니?

학생 1: 선배님은 ㉠

- ① 발명품을 만드는 데 어려움을 겪었다고 하셨지. 나도 발명 도중에 겪었던 어려움을 글에 포함해야겠어.
- ② 주변 사물에 호기심을 갖고 개선점을 찾아보라고 하셨지. 나는 개선이 필요한 주변 사물의 문제점을 글에 포함해야겠어.

- ③ 모형의 각 단계를 양념 담는 통으로 설명하셨지. 나는 다른 물건을 이용해 모형을 설명하는 내용을 글에 포함해야겠어.
- ④ 기존의 다른 발명품을 참고할 수 있다고 하셨지. 나도 기존의 다른 발명품을 참고하여 아이디어를 창출하는 내용을 글에 포함해야겠어.
- ⑤ 발명은 아이디어를 통해 새로운 물건을 만드는 것이라고 하셨지. 나도 창출한 아이디어를 이용하여 새로운 물건을 제작, 완성하는 과정을 글에 포함해야겠어.

6. 다음 선생님의 조언에 따라 (나)에 내용을 추가하고자 할 때, 가장 적절한 것은?

선생님: 설명문의 끝부분을 쓸 때에는 먼저 중심 내용이 잘 드러나도록 요약해야 합니다. 그리고 중심 내용이 지닌 의의를 덧붙이며 글을 마무리하면 좋습니다.

- ① 이처럼 아이디어 창출 중심 모형은 발명을 처음 시작하는 사람에게 좋은 안내가 될 수 있다. 또한 주위 사물을 꼼꼼하게 관찰하는 태도를 길러 준다.
- ② 이처럼 아이디어 창출 중심 모형은 체험, 인지, 발명 단계로 이루어진다. 발명 단계 이후에는 체험 단계 이전에 학습한 발명 기법을 떠올리며 아이디어를 창출한다.
- ③ 이처럼 아이디어 창출 중심 모형은 주변의 사물들 중에서 발명 주제를 선정하는 것이다. 이렇게 주제를 선정하면 손쉽게 아이디어를 구상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 ④ 이처럼 아이디어 창출 중심 모형은 체험 단계, 인지 단계, 발명 단계가 순서대로 진행된다. 이 모형의 단계를 따라 하면 쉽게 아이디어를 생성할 수 있고 이를 통해 발명에 대한 자신감을 가질 수 있다.
- ⑤ 이처럼 아이디어 창출 중심 모형은 발명에 대한 호기심을 떠올리는 체험 단계, 과학적 원리를 탐구하는 인지 단계, 발명 아이디어를 창출하는 발명 단계로 이루어진다. 그리고 이후에는 아이디어를 구현한 제품을 만드는 적용 단계가 있다.

7. (나)에 대한 ‘학생 2’의 상호 평가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학생 2’의 평가 내용

잘한 점	비교의 방법을 사용하여 중심 화제의 의미를 구체적으로 설명한 점 ①
	글의 흐름이 잘 드러나도록 문단의 앞부분에 순서를 알려 주는 표지를 사용한 점 ②
수정할 점	2문단에서 표현이 어색한 문장을 사용한 점 ③
	3문단에서 글의 흐름과 어긋나는 문장을 사용하여 통일성을 떨어뜨린 점 ④
	4문단에서 앞뒤 문장의 위치를 잘못 배열하여 내용의 연결이 자연스럽지 않은 점 ⑤

[8~10] (가)는 학교 신문에 기고한 학생의 글이고, (나)는 (가)를 읽은 후 다른 학생이 같은 신문에 기고한 반박 글이다. 물음에 답하시오.

(가)

우리 학교는 내년도 학사 일정을 수립하기 위해 학생들의 의견을 수렴하였다. 그 과정에서 여름방학 기간을 현행 4주에서 2주로 단축하자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하지만 여름방학 기간을 단축하자는 주장에는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있다.

첫째, 여름방학의 의미가 제대로 실현되기 어렵다. 여름방학은 1학기가 끝나고 휴식을 취하면서 몸과 마음의 여유를 찾아 2학기를 준비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그런데 여름방학 기간이 단축되면 그만큼 여유를 찾는 시간이 줄어들게 된다.

둘째, 학생들이 원하는 프로그램에 참여하기 어렵다. 우리 학교의 많은 학생들은 여름방학 기간에 외부 기관에서 운영하는 교외 청소년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싶어 한다. 그런데 여름방학 기간이 단축되면 개학 이후에 시작되는 프로그램에는 참여할 수 없게 된다.

셋째, 학교 시설을 개선할 수 있는 기간을 확보하기 어렵다. 학교 시설을 보수하거나 설치하는 일이 2주 이상 걸리는 경우 방학을 활용한다. 그런데 여름방학 기간이 단축되면 학교 시설 공사를 완료하지 못한 상태에서 2학기를 시작하게 되므로 생활이 불편하게 될 가능성이 매우 크다.

학교는 학생들이 여유를 갖고 자율적으로 활동에 참여하며 편안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충분한 시간을 확보해 주어야 한다. 따라서 현재의 여름방학 기간을 유지해야 한다.

(나)

학교 신문에 여름방학 기간 단축을 반대하는 글이 실린 후 학생들 사이에서 찬성과 반대의 다양한 의견들이 오가고 있다. 그 글에서 제시한 근거들을 반박하고자 한다.

첫째, 여름방학 기간을 유지한다고 해서 여름방학의 의미가 실현되는 것은 아니다. 대다수의 학생들은 오히려 학기 중보다 학습 부담이 커져서 여름방학 기간에 여유를 갖고 휴식을 취하지 못한다. 그러므로 2주로 줄여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

둘째, 여름방학 기간을 단축해도 학생들은 원하는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다. 2학기가 시작된 후에도 개인 체험 학습을 신청하면 원하는 프로그램에 얼마든지 참여할 수 있다.

셋째, 오랜 시일이 필요한 공사는 겨울방학 기간을 활용하고 시급한 공사의 경우 기간을 단축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면 된다. 불가피하게 학기 중에 공사를 하게 되더라도 불편 없이 진행할 수 있다. 실제로 우리 학교에서 지난 학기 중 특별실 보수 공사를 하였지만 불편 없이 진행되었다.

여름방학 기간을 단축해야 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다. 수업 공백이 줄어들어 지난 학기의 수업 내용을 잘 기억할 수 있게 되어서 학습이 연속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 그리고 겨울방학 시작을 앞당길 수 있어 학년 말의 비효율적인 학사 운영을 피하는 데에도 도움을 준다. 인근 고등학교에서는 이미 여름방학 기간을 단축하여 운영하고 있는데, 학생들의 만족도가 높다고 한다.

학교가 학생들의 여유로운 생활을 보장해 주어야 한다는 주장도 타당한 측면이 있지만, 학교가 해야 할 더 중요한 일은 수업의 연속성 확보와 학사 운영의 효율성 제고라고 생각한다. 따라서 이를 실현하려면 여름방학 기간을 단축해야 한다.

8. <보기>는 (가)를 쓰기 위해 떠올린 생각이다. (가)에 반영된 생각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보 기〉

- ㄱ. 여름방학 기간에 학교 측에서는 무슨 일을 할까?
 ㄴ. 여름방학 기간을 단축했을 때 얻을 수 있는 이점은 무엇일까?
 ㄷ. 여름방학 기간을 단축했을 때 발생할 수 있는 문제는 무엇일까?
 ㄹ. 여름방학 기간을 유지하자는 주장에 대해 어떤 반론이 제기될 수 있을까?

-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ㄹ ④ ㄱ, ㄷ, ㄹ ⑤ ㄴ, ㄷ, ㄹ

9. (나)에 사용된 쓰기 전략이 아닌 것은?

- ① 여름방학 기간 단축에 대하여 (가)로 인해 촉발된 반응을 제시하고 글을 쓰는 목적을 밝힌다.
 ② 여름방학의 의미가 현실과 차이가 있다는 점을 들어 (가)의 주장을 비판한다.
 ③ 학생들이 원하는 프로그램에 참여하기 어렵다는 (가)의 주장을 반박하며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근거를 제시한다.
 ④ 학기 중 공사가 불편을 초래한다는 (가)의 주장을 비판하며 이를 뒷받침하는 사례를 제시한다.
 ⑤ 학생들의 여유로운 생활을 보장해야 한다는 (가)의 주장을 일부 수용하고 자신의 의견을 추가하여 절충안을 제시한다.

10. (가)를 쓴 학생이 (나)를 반박하는 글을 쓰려고 한다. [A]를 비판하기 위한 자료 활용 방안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 ① 학교 시설 공사로 통행에 불편을 겪었던 학생의 인터뷰를, 학기 중 공사가 불편 없이 진행된다는 주장을 반박하는 근거로 제시해야겠어.
 ② 개인이 신청할 수 있는 체험 학습 일수를 제한하고 있는 학교 규정을, 학기 중에도 체험 학습 참여가 얼마든지 가능하다는 주장을 반박하는 근거로 제시해야겠어.
 ③ 학기 중보다 여름방학 기간에 더 많은 휴식을 취한다는 신문 기사를, 여름방학 기간을 유지할 때 학생들의 만족도가 높다는 주장을 반박하는 근거로 제시해야겠어.
 ④ 여름방학 기간을 단축했지만 학년 말 학사 운영이 비효율적이었던 다른 학교 사례를, 여름방학 기간 단축이 학사 운영과 무관하다는 주장을 반박하는 근거로 제시해야겠어.
 ⑤ 여름방학 기간이 2주, 4주인 두 학교 학생들이 지난 학기의 수업 내용을 기억하는 정도에 차이가 없다는 조사 결과를, 여름방학 기간과 학습 연속성이 관련 있다는 주장을 반박하는 근거로 제시해야겠어.

- [11~12]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단어의 의미 관계 중 상하 관계는 의미상 한 단어가 다른 단어를 포함하거나 다른 단어에 포함되는 관계를 말한다. 이때 다른 단어의 의미를 포함하는 단어를 상의어라 하고 다른 단어의 의미에 포함되는 단어를 하의어라 하는데, 상의어일수록 일반적이고 포괄적인 의미를 지니며 하의어일수록 구체적이고 한정적인 의미를 지닌다.

상하 관계에 있는 단어들은 상의어와 하의어가 상대적으로 정해진다. 이를테면 ‘구기’는 ‘스포츠’와의 관계 속에서 하의어가 되지만, ‘축구’와의 관계 속에서는 상의어가 된다. 그런데 ‘구기’의 하의어에는 ‘축구’ 외에 ‘야구’, ‘농구’ 등이 더 있다. 이때 상의어인 ‘구기’에 대해 하의어 ‘축구’, ‘야구’, ‘농구’ 등은 같은 계층에 있어 이들을 상의어 ‘구기’의 공하의어라 하며, 이들 공하의어 사이에는 ㉠ 비양립 관계가 성립한다. 곧 어떤 구기가 ‘축구’이면서 동시에 ‘야구’나 ‘농구’일 수는 없다.

한편 상하 관계에서는 하의어들이 상의어의 의미를 이어받아 상의어를 의미적으로 함의한다. 일례로 어떤 새가 ‘장끼’이면 그 ‘장끼’는 상의어 ‘땡’의 의미를 이어받으므로 ‘땡’을 의미적으로 함의하는 것이다. 그러나 어떤 새가 ‘땡’이라 해서 그것이 꼭 ‘장끼’여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상의어는 하의어를 의미적으로 함의하지 못한다. 이를 ‘[]’로 표현하는 의미 자질로 설명하면, 하의어 ‘장끼’는 상의어 ‘땡’의 의미 자질들을 가지면서 [수컷]이라는 의미 자질을 더 가져, 결국 하의어 ‘장끼’는 상의어 ‘땡’보다 의미 자질 개수가 많다. 곧 상의어보다 의미 자질이 많은 하의어는 상의어를 의미적으로 함의하는 것이다.

그런데 앞에서 살폈듯이 ‘구기’의 공하의어가 여러 개인 것과 달리, ‘땡’의 공하의어는 성별로 구분했을 때 ‘장끼’와 ‘까투리’ 둘뿐이다. ‘구기’의 공하의어인 ‘축구’, ‘야구’ 등과 마찬가지로 ‘장끼’, ‘까투리’는 ‘땡’의 공하의어로서 비양립 관계에 있다. 그러나 ‘장끼’와 ‘까투리’의 경우, ‘장끼’가 아닌 것은 곧 ‘까투리’이고 그 역도 성립한다는 점에서 ㉡ 상보적 반의 관계에 있다. 따라서 한 상의어가 같은 계층의 두 단어만을 공하의어로 포함하면, 그 공하의어들은 상보적 반의 관계에 있다고 할 수 있다.

11. 윗글을 바탕으로 다음 자료를 탐구한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악기(樂器)[-끼][명]

[음악] 음악을 연주하는 데 쓰는 기구를 통틀어 이르는 말. 연주법에 따라 일반적으로 현악기, 관악기, 타악기로 나눈다.

타-악기(打樂器)[타:-끼][명]

[음악] 두드려서 소리를 내는 악기를 통틀어 이르는 말. 팀파니, 실로폰, 북이나 심벌즈 따위이다.

- ① ‘타악기’는 ‘실로폰’의 상의어로서 ‘실로폰’보다 포괄적인 의미를 갖겠군.
 ② ‘북’은 ‘타악기’의 하의어이므로 [두드림]을 의미 자질 중 하나로 갖겠군.

- ③ ‘기구’는 ‘악기’를 의미적으로 함의하고 ‘악기’는 ‘북’을 의미적으로 함의하겠군.
- ④ ‘타악기’와 ‘심벌즈’는 모두 ‘기구’의 하의어이지만, ‘기구’의 공하의어는 아니겠군.
- ⑤ ‘현악기’와 ‘관악기’는 ‘악기’의 공하의어이므로 모두 ‘악기’의 상위어 ‘기구’보다 의미 자질의 개수가 많겠군.

12. 윗글을 바탕으로 할 때 ㉠과 ㉡을 모두 만족시키는 단어 쌍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보 기>

㉠ 여름에 고향을 출발한 그가 마침내 ㉡ 북극에 도달했다는 소식에 나는 다급해졌다. 지구의 양극 중 ㉢ 남극에는 내가 먼저 가야 했다. 남극 대륙은 ㉣ 계절이 여름이어도 내 고향의 ㉤ 겨울만큼 바람이 차다. 남극 대륙에서 나를 위로해 준 것은 썰매를 끄는 ㉦ 개들과 귀여운 몸짓을 하는 ㉧ 펭귄들, 그리고 먹이를 찾아 날아다니는 ㉨ 갈매기들뿐이었다.

- ① ㉢ - ㉣
- ② ㉠ - ㉤, ㉢ - ㉣
- ③ ㉢ - ㉣, ㉧ - ㉨
- ④ ㉠ - ㉣, ㉢ - ㉣, ㉧ - ㉨
- ⑤ ㉠ - ㉤, ㉢ - ㉣, ㉦ - ㉨

13. <보기>를 바탕으로 음운 변동 사례에 대해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한 것은?

<보 기>

교체, 탈락, 축약, 첨가의 음운 변동이 일어나는 경우 음운 개수의 변화가 나타나기도 한다.

먼저 ‘집일[짐닐]’은 첨가 및 교체가 일어나 음운의 개수가 늘었다. 그런데 ‘닭만[당만]’은 탈락 및 교체가 일어나 음운의 개수가 줄었고, ‘뜻하다[뜨타다]’는 교체 및 축약이 일어나 음운의 개수가 줄었다. 한편 ‘맡는[만는]’은 교체가 두 번 일어나 음운의 개수가 변하지 않았다.

- ① ‘혹하고[흐카고]’는 탈락 및 축약이 일어나 음운의 개수가 두 개 줄었군.
- ② ‘저녁연기[저녕년기]’는 첨가 및 교체가 일어나 음운의 개수가 두 개 늘었군.
- ③ ‘부엌문[부엌문]’과 ‘볶는[봉는]’은 교체가 한 번 일어나 음운의 개수가 변하지 않았군.
- ④ ‘엷지[언찌]’와 ‘물고[물꼬]’는 교체 및 축약이 일어나 음운의 개수가 각각 한 개 줄었군.
- ⑤ ‘넙네[넙레]’와 ‘맑는[망는]’은 탈락 및 교체가 일어나 음운의 개수가 각각 두 개 줄었군.

14. ㉠~㉤의 문장 성분과 문장 구조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 그녀는 따뜻한 봄이 빨리 오기를 기다린다.
- ㉡ 내가 만난 친구는 마음이 정말 착하다.
- ㉢ 피곤해하던 동생이 엄마가 모르게 잔다.
- ㉣ 그가 시장에서 산 배추는 값이 비싸다.

- ① ㉠과 ㉡은 체언을 수식하는 안긴문장이 있다.
- ② ㉢과 ㉣은 서술어의 기능을 하는 안긴문장이 있다.
- ③ ㉠은 명사절 속에 부사어가 있고, ㉡은 서술절 속에 부사어가 있다.
- ④ ㉠은 주어가 생략된 안긴문장이 있고, ㉢은 목적어가 생략된 안긴문장이 있다.
- ⑤ ㉢은 부사어의 기능을 하는 안긴문장이 있고, ㉣은 관형어의 기능을 하는 안긴문장이 있다.

15. <보기 1>을 참고할 때, <보기 2>의 ㉠~㉣에 들어갈 말로 적절한 것은?

<보기 1>

일반적으로 중세 국어에서는 서술격 조사가 앞에 결합하는 체언의 끝소리에 따라 달리 나타났다.

먼저 체언의 끝소리가 자음일 때 ‘이’가 나타났다.

○ 상네 쓰는 힘 일후미라(일흠+이라) (보통 쓰는 해의 이름이다)

체언의 끝소리가 모음 ‘이’이거나 반모음 ‘ㅣ’일 때는 아무런 형태가 나타나지 않았다.

○ 牛頭는 쇠 머리라(머리+라) (우두는 소의 머리이다)

그리고 체언의 끝소리가 모음 ‘이’도, 반모음 ‘ㅣ’도 아닌 모음일 때는 ‘ㅣ’가 나타났다.

○ 生佛은 사라 거신 부테시니라(부터+ㅣ시니라) (생불은 살아 계신 부처이다)

<보기 2>

- 齒는 ㉠ (치는 이이다)
- 所는 ㉡ (소는 바이다)
- 樓는 ㉢ (누는 다락이다)

	㉠	㉡	㉢
①	니이라	바이라	다락라
②	니라	배라	다락ㅣ라
③	니이라	바라	다락ㅣ라
④	니라	배라	다라기라
⑤	니ㅣ라	바이라	다라기라

제1 교시

국어 영역

[1~2] 다음은 학생의 발표이다. 물음에 답하시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우리 모듬은 조선 시대의 경연에 대해 발표하겠습니다. 경연이라는 말이 생소하지요? (사진을 보여 주며) 보시는 것처럼, 경연이란 조선 시대 왕이 신하들과 함께 선현의 가르침인 경전을 공부하는 자리를 일컫는 말입니다. 경연은 대부분 편전에서 행해졌는데, 오전, 오후 할 것 없이 하루에도 여러 번 이루어졌지요.

그렇다면 왕을 가르치는 경연관들은 누구였을까요? (대답을 기다린 후) 겸임 관원과 전임 관원이 있었는데, 그 중 겸임 관원은 의정부의 삼정승과 승정원의 승지 등으로, 의정부나 승정원의 일을 하며 경연관의 일도 함께 하는 양반 관료 집단의 수뇌들이었죠.

한편 전임 관원은 홍문관의 관리들이었는데, 경연에 관한 업무만을 전담했죠. 조선 시대 국왕 교육의 전담 기관이 홍문관이었기 때문입니다. 홍문관은 당대 최고의 인재들이 모인 곳으로, 홍문관의 관리가 되려면 과거에 우수한 성적으로 합격해야 했을 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로부터 추천도 받아야 했습니다. (사진을 보여 주며) 이 사진은 경복궁의 배치도예요. 편전과 홍문관이 얼마나 가까웠는지 알 수 있겠지요? 의정부와 육조를 비롯한 대부분의 관청들은 대궐 밖에 있었지만 홍문관만큼은 대궐 편전 주변에 있었다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대답을 기다린 후) 그것은 왕이 한밤중에도 공부하다가 궁금한 것이 있으면 관리들을 부르거나 직접 찾아가기 쉽도록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러니 그들도 왕과 함께 밤낮없이 공부해야 했겠죠.

경연은 기본적으로 유교 경전을 교재로 하는 강독과 이와 관련한 토론으로 진행되었습니다. 강독의 순서에 따라 경연관이 먼저 경전을 읽고 나면 왕이 따라서 읽었고, 이어서 경연관이 경전의 뜻을 설명하고 나면 왕과 경연관들은 돌아가며 그 뜻에 대한 자신의 의견을 밝혔습니다. 이렇게 경전의 강독을 끝내고 나면, 왕과 경연관들은 강독한 경전의 내용과 관련한 국정 현안에 대해 논의를 하였습니다. 왕과 경연관들은 각자 그에 대한 의견을 개진하였고, 이 과정에서 제기되는 문제는 토론을 통해 해결하였다고 합니다. 결국 경연의 과정에서 왕은 유학에 대한 식견을 높일 수 있었고 신하와 활발하게 소통하며 국정 현안과 관련하여 합의된 해결책을 도출할 수도 있었던 것이죠.

이처럼 경연은 학문의 탐구를 정치의 기본으로 생각하는 유교 정치 문화의 산물이었습니다. 왕과 양반 관료들은 많은 시간을 경연에 할애함으로써 유교적인 이상 국가를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경연에서 조선 시대 유교적 문치주의의 특징을 찾아볼 수 있는 것이죠.

제 발표를 통해 우리 모두가 경연에 대해 알고, 경연에 참여했던 왕과 관리들의 노력에서 교훈을 얻었으면 합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1. 발표에 반영된 학생의 발표 계획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청중이 발표 내용을 예측하며 들을 수 있도록 발표 순서를 안내하며 발표를 시작해야지.
- ② 청중이 발표 대상의 변화 양상을 파악할 수 있도록 변화 이전과 이후를 대조하며 설명해야지.
- ③ 청중이 발표 내용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그 내용과 관련한 시각 자료를 제시해야지.
- ④ 청중이 발표 내용에 대해 가질 수 있는 의문을 해결할 수 있도록 청중이 질문할 수 있는 시간을 마련해야지.
- ⑤ 청중이 발표 대상에 대해 지속적인 관심을 갖도록 이와 관련한 시사적 문제를 언급하며 발표를 마무리해야지.

2. 다음은 발표를 들은 학생이 '경연'에 대해 소개하는 글을 쓰기 위해 작성한 메모이다. 발표 내용을 고려할 때, ㉠~㉣ 중 적절하지 않은 것은?



[경연관의 구성]

- 겸임 관원은 의정부의 삼정승이나 승정원의 승지 등으로 양반 관료 집단의 수뇌들이었음. ㉠
- 전임 관원은 홍문관의 관리들이었으며, 홍문관의 관리를 선발할 때는 추천의 방식을 배제하였음. ㉡

[경연의 방식]

- 강독의 순서에 따라 경연관과 왕이 차례로 경전을 읽은 후, 경전의 뜻에 대한 각자의 생각을 밝히며 경연을 진행하였음. ㉢
- 경전의 강독이 끝나면, 왕과 경연관들은 경전의 내용과 관련한 국정 현안에 대해 자신의 의견을 말하며 토론하였음. ㉣

[경연의 의의]

- 경연은 학문과 정치에 대한 토론의 장으로 유교 정치 문화의 산물이었음. ㉤

- ① ㉠ ② ㉡ ③ ㉢ ④ ㉣ ⑤ ㉤

[3~5] 다음은 토론의 일부이다. 물음에 답하시오.

사회자: 지난주에 □□방송국에서 우리 학교를 드라마 촬영 장소로 사용하고 싶다는 의사를 밝혀 왔습니다. 이에 학생들 사이에서, 우리 학교에서 드라마 촬영을 ㉠허가해야 한다는 의견과 ㉡허가해서는 안 된다는 의견이 대립하고 있습니다. 학교에서는 촬영 허가 여부를 결정할 때 학생회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할 것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이번 시간에는 ‘우리 학교에서의 드라마 촬영을 허가해야 한다.’라는 논제로 토론을 하겠습니다. 찬성 측 입론해 주십시오.

찬성 1: 우리 학교에서 드라마를 촬영할 수 있도록 허가해야 합니다. 우리 학교를 배경으로 드라마를 촬영한다면 드라마를 시청하는 사람들에게 우리 학교에 대한 긍정적인 인상을 심어 주어 학교 홍보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특히 이 드라마의 예상 시청자가 주로 청소년이라는 걸 감안하면 홍보 효과는 생각보다 더 클 것입니다. 또한 드라마 촬영은 학교에 대한 학생들의 자긍심도 높여 줄 것입니다. 드라마의 배경으로 나오는 학교의 모습을 보며, 우리 학교가 드라마 촬영 장소로 쓰일 만큼 아름답고 우수한 교육 환경을 지니고 있다는 것에 자부심을 느끼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회자: 이번에는 반대 측에서 반대 신문 해 주십시오.

반대 2: 촬영이 학교 홍보에 도움이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드라마에서 학교나 학생들의 모습을 부정적인 이미지 [A] 지로 연출한다면 오히려 역효과가 나지 않을까요?

찬성 1: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 방송 매체에서 이 드라마의 줄거리와 개요를 공개하였는데, 사제 간의 정을 소재로 학교와 학생들의 모습을 긍정적으로 표현할 것이라고 합니다.

사회자: 이번에는 반대 측에서 입론해 주십시오.

반대 1: 우리 학교에서 드라마를 촬영하는 것에 반대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학교의 면학 분위기를 해칠 것이기 때문입니다. 작년에 인근 학교인 △△고등학교에서 드라마를 촬영했던 것을 아십니까? 그 당시 촬영 때문에 소란스러워 수업에 집중하지 못하는 학생들이 많았고, 일부 학생들은 촬영을 구경하느라 수업 분위기를 망쳐 놓았다고 합니다. 결국 촬영 도중에 촬영 허가를 취소할 정도로 그 폐해는 심각했다고 합니다. 우리 학교도 촬영을 허가하게 되면 분명히 이와 유사한 문제 상황을 겪게 될 것입니다. 또한 촬영 관계자와 구경꾼 등 많은 외부인들, 그리고 촬영 관련 차량까지 학교에 수시로 드나들게 될 것이고, 이로 인해 학교 시설이 훼손되거나 각종 안전사고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사회자: 이번에는 찬성 측에서 반대 신문 해 주십시오.

찬성 1: 면학 분위기를 해칠 것이라고 하셨는데, 반대 측과 함께 살펴본 촬영 일정에 따르면 우리 학교에서는 주말에만 촬영이 진행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따라서 면학 분위기를 해칠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지 않나요? [B]

반대 1: 주말에도 학교에서 공부를 하는 학생들이 많습니다. 또한 드라마 방영 후에 학교가 유명세를 타면 평일에도 학교를 찾는 사람들로 소란스러워질 것입니다. 따라서 촬영이 주말에 진행된다고 해도 우리의 학습은 방해받을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3. 위 토론의 입론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찬성 1’은 전문가의 의견을 인용하여 촬영으로 인한 기대 효과를 언급하고 있다.
- ② ‘찬성 1’은 설문 조사 결과를 활용하여 자신의 주장이 타당하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
- ③ ‘반대 1’은 사례를 바탕으로 앞으로 발생 가능한 문제 상황을 제시하고 있다.
- ④ ‘반대 1’은 상대의 생각에 일부 동의한 후 그에 대한 자신의 견해를 주장하고 있다.
- ⑤ ‘반대 1’은 의문형 진술을 통해 상대의 주장에 대한 자신의 이해 여부를 확인하고 있다.

4. [A]와 [B]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A]는 상대측이 사용한 어휘의 개념을 확인하고, 용어 사용의 적절성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 ② [A]는 상대측이 제시한 근거의 사실 관계를 확인하고, 주장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인 자료를 요구하고 있다.
- ③ [B]는 상대측이 제시한 자료의 신뢰성에 의문을 제기하고, 자료의 출처를 명확하게 밝힐 것을 요구하고 있다.
- ④ [B]는 상대측과 공유한 정보를 언급하고, 그 내용을 바탕으로 상대측 주장의 근거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 ⑤ [A]와 [B] 모두 상대측이 제시한 주장의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고, 실현 가능한 대안을 제시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5. ㉠과 ㉡에 관한 토론의 내용을 이해한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① 찬성 측은 학교 홍보에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을 주장하고 있군.
- ② 찬성 측은 학생들이 학교에 대한 자부심을 가질 수 있다는 점에서 ㉡을 주장하고 있군.
- ③ 반대 측은 면학 분위기 조성에 방해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을 주장하고 있군.
- ④ 반대 측은 촬영 일정이 변경되면 평일에도 촬영이 진행될 수 있다는 점에서 ㉡을 주장하고 있군.
- ⑤ 반대 측은 촬영 과정에서 학교 시설이 훼손되고 안전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을 주장하고 있군.

[6~8] 다음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학생의 작문 계획

- **예상 독자** : 주택에 거주하는 지역 주민들
- **주제** : 주택 화재 발생 및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들을 알아보고, 이를 실천하자.
- **글의 구성**
 - 1문단 : 주택 화재 발생 실태 및 피해의 심각성 ㉠
 - 2문단 : 주택 화재 발생 원인과 피해가 심각한 이유 ... ㉡
 - 3문단 : 주택 화재 예방과 피해 경감을 위한 정부의 대책 및 그 한계 ㉢
 - 4문단 : 주택 화재 예방과 피해 경감을 위한 주민들의 실천 방안 ㉣
 - 5문단 : 주민들의 실천 촉구 ㉤

초고

최근 3년간 발생한 전체 화재 중 주택 화재의 발생 건수가 1/5 정도 차지한다. 그런데 주택 화재로 인한 사망자의 비율은 전체 화재 사망자의 절반 정도이다. 이는 주택 화재가 발생하면 매우 심각한 ㉠ 피해만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주택 화재는 누전, 전기용품의 부주의한 취급 등의 전기적 요인과 담뱃불, 방화 등에 의해 주로 발생한다. 화재 발생 시 주택의 경우에는 소방 시설이 제대로 갖추어져 있지 않고, 건물 간의 간격도 좁아서 인근 건물로 화재가 ㉡ 확충되기 쉽다. 또한 도로가 협소하기 때문에 소방차의 진입이 어려워 피해가 커질 수밖에 없다. 특히 심야나 새벽에 발생한 화재는 다른 때보다 더 심각한 피해를 초래한다.

최근에 정부는 주택 화재 예방과 피해 경감을 위해 이미 시행하고 있는 다른 나라의 사례를 참고하여 기초 소방 시설 의무 설치에 관한 법령을 제정했다. 이른바 ‘소방 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 관리에 관한 법률’이 그것인데, 이는 소화기 비치 및 단독경보형감지기 설치를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정부는 주민들의 자율적인 안전 관리를 촉진하기 위한 시책을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정하도록 ㉢ 했다면, 건물 사이의 일정한 거리 확보에 관한 기준을 강화하고, 소방도로 확보를 위한 법 개정도 추진하고 있다.

주택 화재 예방과 피해 경감을 위해 주택 주민들은 우선 정부의 법령에 따라 소화기, 단독경보형감지기 등 같은 기초 소방 시설을 설치하고, 사용법을 익힌 후 작동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그리고 전기 시설 관련 안전 교육을 통해 전열기나 난방기 등을 올바르게 사용하는 습관을 길러야 한다. 또한 이웃과의 협의를 통해 주택 주변에 CCTV를 설치하여 담뱃불이나 방화로 인한 화재 발생에 대비하고, ㉣ 지정되어진 기초 소방 시설 외에도 누전 경보기, 피난 사다리 등의 다양한 시설도 준비할 필요가 있다.

주택은 우리의 소중한 보금자리이다. 화재는 우리의 보금자리는 물론 우리의 생명까지도 한순간에 앗아갈 수 있다. ㉤ 그런데 우리를 각자는 주택 화재를 예방하고 화재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들을 알아보고, 이를 생활 속에서 실천해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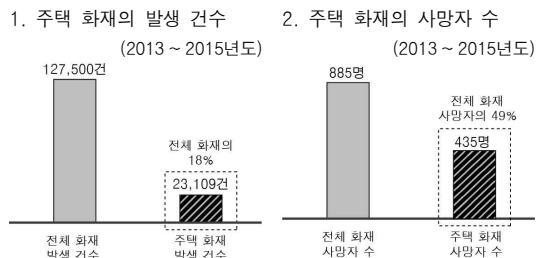
6. ㉠ ~ ㉤ 중 ‘초고’에 반영되지 않은 것은?

- ① ㉠ ② ㉡ ③ ㉢ ④ ㉣ ⑤ ㉤

7. ‘초고’를 수정·보완하는 과정에서 <보기>를 활용하는 방안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보 기>

(가) 통계 자료



- 국민안전처(2016) -

(나) 신문 기사

미국은 법령에 따라 1977년부터 주택용 기초 소방 시설 설치를 의무화해 96%의 주택에 기초 소방 시설 설치를 완료했고, 이에 따라 주택 화재 사망자는 6,000여 명에서 2,400여 명으로 크게 감소했다. 영국은 1991년부터 이를 시행해 주택 화재로 인한 피해를 상당히 줄였다. 우리나라에서도 주택용 기초 소방 시설 의무 설치에 관한 법령을 2011년에 제정하고 이를 의무화해서 주택 화재의 피해를 줄이기 위한 ‘선진형 화재 안전 기반’을 구축하고 있다.

(다) 소방관과의 인터뷰

작년에 발생한 주택 화재의 원인을 살펴보면, 전기적 요인이 36%, 담뱃불이 23%, 방화가 17% 순으로 나타났어요. 그 외에도 가스 사고, 불량난 등 다양한 원인이 있죠. 또한 주택 화재로 인한 사망자는 화재 대응이 어려운 심야나 새벽과 같은 취약 시간대에 집중적으로 발생하고 있는데요, 그 이유는 주민들이 취침 중인 경우 화재 발생에 대한 인지가 늦어 초기 진압에 실패하면서 인명 피해가 커지기 때문입니다.

- ① (가)를 활용하여, 첫째 단락에서 언급한 주택 화재로 인해 발생한 사망자가 전체 화재 사망자의 절반 정도라는 내용의 구체적 근거로 제시한다.
- ② (나)를 활용하여, 주택용 기초 소방 시설 의무 설치에 관한 법령을 이미 시행하고 있는 다른 나라의 구체적인 사례를 셋째 단락에 추가한다.
- ③ (다)를 활용하여, 둘째 단락에서 언급한 주요 화재 원인에 대해 구체적인 통계 수치를 제시함으로써 내용을 보완한다.
- ④ (다)를 활용하여, 취약 시간대에 주택 화재가 발생하면 인명 피해가 커지는 이유를 둘째 단락에 추가하여 내용을 보완한다.
- ⑤ (가)와 (나)를 활용하여, 주택 화재의 사망자 수를 줄이기 위해 주민들이 제정한 주택용 기초 소방 시설 의무 설치에 관한 법령의 구체적 내용을 넷째 단락에 추가한다.

[13~14]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공통된 성질을 가진 단어들을 모아 갈래 지어 놓은 것을 품사라고 한다. 국어의 품사는 단어의 형태, 기능, 의미를 기준으로 분류한다.

첫째, 단어는 형태 변화의 여부에 따라 형태가 변하지 않는 말인 불변어와, 활용하여 형태가 변하는 말인 가변어로 나뉜다. 둘째, 단어는 문장 속에서 해당 단어가 수행하는 기능에 따라 문장에서 주로 주어의 기능을 하는 체언, 문장의 주어를 서술하는 기능을 하는 용언, 다른 말을 수식하는 기능을 하는 수식언, 문장에 쓰인 단어들의 관계를 나타내는 기능을 하는 관계언, 다른 성분에 없매이지 않고 독립적으로 쓰이는 독립언으로 나뉜다. 셋째, 단어는 개별 단어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냐에 따라 대상의 이름을 나타내는 명사, 명사를 대신하여 그것을 가리키는 대명사, 대상의 수량이나 순서를 나타내는 수사, 사람이나 사물 따위의 움직임이나 작용을 나타내는 동사, 성질이나 상태를 나타내는 형용사, 주로 체언을 꾸며 주는 관형사, 주로 용언이나 문장을 꾸며 주는 부사, 앞말에 붙어 그 말과 다른 말과의 문법적 관계를 나타내거나 특별한 뜻을 더하는 조사, 말하는 이의 놀람이나 느낌, 부름, 응답 따위를 나타내는 감탄사로 나뉜다.

[A]

단어는 하나의 품사로 사용되는 경우가 일반적이지만 둘 이상의 품사로 사용되는 경우도 있다. 가령 ‘그는 모든 원인을 자기의 잘못으로 돌렸다.’의 ‘잘못’은 조사와 결합하는 명사이지만, ‘그는 길을 잘못 들어서 한참 헤맸다.’의 ‘잘못’은 용언을 수식하는 부사이다. ‘잘못’이 ㉠ 명사와 부사로 쓰인 것이다. 또한 ‘노력한 만큼 대가를 얻다.’의 ‘만큼’은 관형어의 수식을 받는 명사이지만, ‘집을 대궐만큼 크게 짓다.’의 ‘만큼’은 앞말과 비슷한 정도나 한도임을 나타내는 조사이다. ‘만큼’이 ㉡ 명사와 조사로 쓰인 것이다. 이 밖에도 국어에는 부사와 조사로 쓰이는 경우, 수사와 관형사로 쓰이는 경우와 같이 두 개 이상의 품사로 쓰이는 단어들이 존재한다.

13. [A]를 바탕으로 <보기>의 ㉠ ~ ㉢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보 기> —

- ㉠ 아직까지는 그 사실을 아무도 모르고 있다.
- ㉡ 할머니께서 온갖 재료로 만두를 곱게 빚으셨다.
- ㉢ (대화 중) “들어가요 됩니까?” / “네, 어서 오십시오.”

- ① ㉠에서 ‘아무’는 문장에서 주어의 기능을 하는 체언이다.
- ② ㉡에서 ‘온갖’은 문장에서 다른 말을 수식하는 수식언이다.
- ③ ㉢에서 ‘네’는 말하는 이의 응답을 나타내는 감탄사이다.
- ④ ㉠과 ㉡에서 조사는 각각 3개씩이다.
- ⑤ ㉠과 ㉡에서 가변어는 각각 2개씩이다.

14. ㉠, ㉡에 해당하는 예로 적절한 것은?

- ① ㉠ [돌에 다섯을 더하면 일곱이다.
여기에 사과 일곱 개가 있다.
- ② ㉠ [너 커서 무엇이 되고 싶니?
가구가 커서 방에 들어가지 않는다.
- ③ ㉠ [식구 모두가 여행을 떠났다.
그릇에 담긴 소금을 모두 쏟았다.
- ④ ㉡ [나를 처벌하려면 법대로 해라.
큰 것은 큰 것대로 따로 모아 두다.
- ⑤ ㉡ [모두 같이 학교에 갑시다.
얼음장같이 차가운 방바닥이 생각난다.

15. <보기>를 바탕으로 중세 국어의 특징을 탐구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보 기> —

㉠ 나랏 말뚝미 中庭國에 달아 文文字종와로 서르 스몃디 아니홀썩 이런 전츠로 어린 百穉姓성이 ㉡ 니르고져 ㅎ ㉢ 배 이셔도 ㅁ츨내 제 ㅼ뜨들 시러 ㉣ 퍼디 ㅁ흔 ㉤ 노미 하니라 내 ㉥ 이를 爲嬴하야 어엿비 너겨 새로 스물여덟 字종을 ㅁᄃᄃ노니 사름마다 ㅎ여 수비 니겨 날로 ㅼ메 便便안한키 ㅎ고져 ㅎ 썩르미니라

[현대어 풀이]

우리나라의 말이 중국과 달라 문자와 서로 통하지 아니하여서 이런 까닭으로 어리석은 백성이 말하고자 하는 바가 있어도 마침내 제 뜻을 능히 펴지 못하는 사람이 많다. 내가 이것을 위하여 가엾게 여겨 새로 스물여덟 자를 만드니,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쉽게 익혀 날마다 쓰는 데 편하게 하고자 함 따름이다.

- ① ㉠의 ‘ㅅ’은 현대 국어의 ‘의’에 해당하는 관형격 조사로 쓰였군.
- ② ㉡의 ‘-고져’는 현대 국어의 ‘-고자’에 해당하는 연결 어미로 쓰였군.
- ③ ㉢의 ‘ㅁ’은 주격 조사로, 모음으로 끝나는 체언에 결합했음을 알 수 있군.
- ④ ㉣과 현대 국어의 ‘퍼지’를 비교해 보니 ‘-디’에서는 구개음화가 확인되지 않군.
- ⑤ ㉤의 ‘ㄹ’은 목적격 조사로, 자음으로 끝나는 체언에 결합했음을 알 수 있군.

제 1 교시

국어 영역

[1~3] 다음은 강연의 일부이다. 물음에 답하시오.

안녕하세요? 영양 성분 표시 제도와 관련해 강연을 하게 된 ○○보건소의 △△△입니다. 2018년부터는 개정된 영양 성분 표시 방법으로 식품의 영양 정보를 표시하게 되는데요, 알고 있나요? (학생들의 대답을 듣고) 모른다는 학생들이 많은데요, 오늘은 이에 대해 알려 드리고자 합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는 일부 가공 식품에 영양 정보를 표시하는 영양 성분 표시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소비자들이 좀 더 쉽게 영양 정보를 확인하고 건강한 식생활을 실천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영양 성분을 표시하는 방법을 개정하였습니다. 개정 전과 후의 표시 도안을 같이 보시죠. (시각 자료를 보여 주며) 함량을 의무적으로 표시해야 하는 대상이 열량, 나트륨, 탄수화물, 당류, 지방, 트랜스지방, 포화지방, 콜레스테롤, 단백 질인 점은 이전과 변함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를 표시하는 기준은 달라졌습니다. 개정 전에는 한 번에 섭취할 것으로 예상 되는 양인 1회 제공량을 기준으로 영양 성분의 함량을 표시했는데요, 업체마다 1회로 보는 양이 달라서 소비자에게 혼란을 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품의 총 내용량을 기준으로 영양 성분의 함량을 표시하는 것으로 바뀌었습니다. 단, 한 번에 먹기 힘든 대용량 제품은 별도의 표시 기준을 두기로 했습니다.

영양 성분의 표시 순서에도 변화가 있는데요, 개정 전에는 에너지 공급원순으로 표시했는데 소비자의 관심도가 높고 국민 건강상 중요해진 성분들은 순서를 위로 올려 표시하는 것으로 바뀌었습니다. 예로 나트륨의 표시 위치가 개정 전보다 올라가게 되었는데요, 이는 우리나라 국민이 나트륨을 과도하게 섭취하고 있어 1일 나트륨 섭취량의 관리가 시급하기 때문입니다. 질병 관리본부 발표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 국민의 1일 나트륨 섭취량은 세계보건기구 권고량의 2배 수준이라고 합니다.

또한 열량의 표시 방식도 바뀌었는데요, 열량에 대한 소비자 들의 관심이 높은 만큼 이를 확인하기 쉽도록 다른 성분들과 분리해 열량을 표시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1일 영양 성분 기준치에 대한 비율을 표시하지 않았던 열량, 당류, 트랜스 지방 중에서 당류는 이번에 개정되면서 그 비율을 표시하도록 바뀌었습니다.

1. 위 강연자의 말하기 방식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강연 중간 중간에 자신이 말한 내용을 요약하여 청중의 이해를 돕고 있다.
- ② 관련 기관의 발표 자료를 인용하여 자신이 언급한 내용을 뒷받침 하고 있다.
- ③ 강연 대상과 관련된 자신의 경험을 사례로 들어 청중의 흥미를 유발하고 있다.
- ④ 강연 대상을 친숙한 소재에 빗대어 표현함으로써 대상의 개념을 설명하고 있다.
- ⑤ 청중의 질문에 답을 함으로써 강연 내용과 관련된 청중의 궁금증을 해소하고 있다.

2. 다음은 강연자가 사용한 시각 자료이다. 시각 자료를 보며 강연을 들은 학생이 떠올린 생각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개정 전 표시 도안>

영양 성분

1회 제공량 ○○(○○g)
총 ○○회 제공량(○○g)

1회 제공량당 함량	% 영양 성분 기준치
열량	○○○kcal
탄수화물	○○g ○○%
당류	○○g ○○%
단백질	○○g ○○%
지방	○○g ○○%
포화지방	○○g ○○%
트랜스지방	○○g ○○%
콜레스테롤	○○mg ○○%
나트륨	○○mg ○○%

* % 영양 성분 기준치: 1일 영양 성분 기준치에 대한 비율

→

<개정 후 표시 도안>

영양 정보 총 내용량 ○○g

○○○kcal

총 내용량당	1일 영양 성분 기준치에 대한 비율
나트륨 ○○mg	○○%
탄수화물 ○○g	○○%
당류 ○○g	○○%
지방 ○○g	○○%
트랜스지방 ○○g	○○%
포화지방 ○○g	○○%
콜레스테롤 ○○mg	○○%
단백질 ○○g	○○%

1일 영양 성분 기준치에 대한 비율(%)은 2,000kcal 기준이므로 개인의 필요 열량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 ① ㉠은 영양 정보를 확인할 때 소비자의 혼란을 줄이기 위한 함량 표시 기준이구나.
- ② ㉡은 에너지 공급원순에 따라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을 표시한 것이구나.
- ③ ㉢은 소비자의 관심도와 국민 건강상의 중요도가 반영되어 이전과 표시 위치가 달라졌구나.
- ④ ㉣은 소비자들이 확인하기 쉽도록 다른 성분들과 위치를 구분해 표시한 것이구나.
- ⑤ ㉤은 함량을 의무적으로 표시해야 하는 성분으로 추가되면서 1일 영양 성분 기준치에 대한 비율도 표시하게 되었구나.

3. 강연 내용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추가 설명을 요청하는 학생의 질문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영양 성분 표시 제도가 일부 가공 식품에 적용되고 있다고 하셨는데, 무엇을 기준으로 적용 대상을 결정하나요?
- ②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영양 성분 표시 방법을 바꿨다고 하셨는데,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 ③ 의무적으로 함량을 표시해야 하는 성분들을 말씀해 주셨는데, 비타민이나 칼슘 등은 왜 의무 표시 대상이 아닌가요?
- ④ 대용량 제품의 경우에는 별도의 표시 기준을 둔다고 하셨는데, 그 기준은 무엇인가요?
- ⑤ 우리나라 국민의 나트륨 섭취량이 세계보건기구 권고량의 2배 수준이라고 하셨는데, 그 권고량은 얼마인가요?

[4~7] (가)는 ‘또래 상담 요원 모집 공고문’에 따라 학생이 작성한 자기소개서이고, (나)는 (가)를 바탕으로 실시한 면접의 일부이다. 물음에 답하시오.

【또래 상담 요원 모집 공고문】

2017년 △△구 청소년 상담 복지 센터에서 또래 상담 요원을 모집합니다. 또래 상담에 관심 있는 학생들의 많은 지원 바랍니다.

- 모집 대상: △△구 지역 내 고등학생
- 신청 방법: 자기소개서를 작성하여 △△구 청소년 상담 복지 센터 홈페이지에 제출
- 선발 방법: 자기소개서 및 면접

(가)

친구 관계로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을 때, 저는 또래 상담을 받으면서 많은 위안을 얻은 적이 있습니다. 이를 통해 상담의 중요성을 깨닫게 되었고, 저도 친구들과 고민을 나누며 함께 성장할 수 있는 또래 상담 요원이 되고 싶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또래 상담 요원 모집 공고문’을 보고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작년부터 참여한 공부방 봉사 활동은 상담에서 신뢰와 친근감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려 준 의미 있는 활동이었습니다. 공부방 봉사 활동은 초등학생들의 공부를 도와주는 활동인데, 학습 내용을 중심으로 열심히 준비해 갔지만 제 생각만큼 잘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를 고민해 보니 서로에 대한 친밀감을 형성할 겨를도 없이 무언가를 가르쳐 주려고만 했던 것이 문제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수업 내용 중 어려운 것은 없었는지, 혹시 공부 외에 힘든 점은 없는지 서로 마음을 터놓고 이야기를 나눠 보았습니다. 그러자 아이들이 다가오기 시작했고 이후 수업도 잘 진행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공부방 봉사 활동은 물론, 상담을 할 때에도 상호 간의 신뢰와 친근감이 중요하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 상담에 대해 더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는 앞으로 좋은 또래 상담 요원이 되는 데 도움을 주리라 생각합니다.

최근에는 상담 관련 내용을 공부하기 위해, 상담 선생님께 추천을 받은 『상담 심리학의 기초』란 책을 읽어 보았습니다. 이 책에 소개된 여러 이론 중 저는 로저스의 인간 중심적 상담 이론을 흥미롭게 읽었습니다. 로저스는 상담자의 태도를 설명하면서, 상담자에게는 피상담자에 대한 공감적 이해의 태도가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저는 또래 상담 요원 역시 또래 친구들의 고민에 대한 공감적 이해의 태도를 갖추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또래 상담을 받으면서 얻은 가장 큰 힘은 또래 친구가 전해 주는 정서적 위로였습니다. 만약 제가 또래 상담 요원으로 선발된다면 친구의 이야기와 고민을 경청하면서 공감해 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나)

면접 대상자: 안녕하세요? 지원자 김○○입니다.

면접자: 안녕하세요? 긴장한 것 같은데요, 편안한 마음으로 답변하면 됩니다.

면접 대상자: 네. 잘 알겠습니다.

면접자: 다양한 상담의 유형이 있는데, 청소년들에게 또래 상담이 왜 필요하다고 생각하나요?

면접 대상자: 네. 요즘 청소년들은 많은 고민을 안고 있는 데요, 제가 본 설문 조사 결과에 따르면 청소년이 고민을 이야기하고 싶은 대상 1순위가 친구였습니다. 또래 상담은 생각의 눈높이가 맞는 또래 친구와 함께 고민을 나눌 수 있다는 점에서 청소년들에게 꼭 필요한 상담이라고 생각합니다. [A]

면접자: 평소 또래 상담에 대해 많은 생각을 했군요. 인간 중심적 상담 이론에서 제시한 상담자의 태도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설명해 줄 수 있을까요?

면접 대상자: 네. 『상담 심리학의 기초』란 책을 보면 인간 중심적 상담 이론에서의 상담자의 태도가 세 가지로 제시되어 있는데요, 공감적 이해의 태도 외에도 상담자는 피상담자를 진정성 있게 대해야 하며 피상담자에 대한 긍정적 존중의 태도를 지녀야 한다고 했습니다. [B]

면접자: 잘 알고 있네요. 혹시 상담에서 말하는 ‘래포’가 무엇인지 알고 있나요?

면접 대상자: 래포의 개념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면접자: 네. 맞습니다.

면접 대상자: 래포란 상호 간에 신뢰하며 감정적으로 친근감을 느끼는 인간관계를 말합니다. 상담은 마음을 열고 진솔하게 이야기를 나눌 수 있어야 하는 활동이므로 래포는 상담이 이뤄지기 위한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합니다.

면접자: 신뢰와 친근감을 뜻하는 래포는 진솔하게 이야기를 나눌 수 있게 하는 상담의 중요한 요소라는 말이군요. 이번에는 상담 상황을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또래 친구가 최근 성적이 많이 떨어져 부모님께서 자신에 대해 실망하시는 모습을 보며 우울해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에 어떻게 상담을 하겠습니까? [C]

면접 대상자: 먼저 또래 친구와 마음을 터놓고 이야기할 수 있도록 신뢰와 친근감을 형성한 뒤 친구의 어려움에 공감해 주며 상담을 하겠습니다.

4. (가)에 반영된 내용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보 기>—

자기소개서는 자신을 알리고자 하는 의도로 다른 사람에게 자신을 드러내는 글이다. 자기소개서에는 ㉠ 지원 동기, ㉡ 성장 배경 및 가정환경, ㉢ 성격의 장단점, ㉣ 지원 분야와 관련된 의미 있는 활동, ㉤ 지원자의 다짐 등의 내용이 포함될 수 있다.

- ① ㉠, ㉡ ② ㉠, ㉢ ③ ㉢, ㉤
④ ㉠, ㉢, ㉤ ⑤ ㉡, ㉢, ㉣

5. (가)의 글쓰기 방법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구체적인 경험을 제시하여 지원 분야에 대한 관심을 드러내고 있다.
② 지원 분야와 관련된 학업 계획을 언급하여 지원자의 의지를 드러내고 있다.

- ③ 지원 분야에 대한 분석 결과를 인용하여 지원자의 잠재력을 드러내고 있다.
- ④ 비유적 표현을 활용하여 지원 분야에 대한 지원자의 포부를 드러내고 있다.
- ⑤ 지원자에 대한 전문가의 평가를 활용하여 지원 분야에 대한 전문성을 드러내고 있다.

6. <보기 2>는 면접 대상자의 사고 과정 중 일부이다. <보기 1>을 참고하여 [A]~[C]에 대한 질문 분석과 답변 전략을 연결한 것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보기 1>

면접은 질문을 통해 면접 대상자의 지식, 성품, 능력 등을 평가하기 위한 공적 대화이다. 질문에 효과적으로 답변하기 위해 면접 대상자에게는 질문의 의도를 정확하게 분석하고, 그에 따라 적절한 답변 전략을 수립하기 위한 사고의 과정이 요구된다.

<보기 2>	
[질문 분석]	[답변 전략]
㉠ 자기소개서에서 제시한 내용과 관련하여 추가적인 설명을 요구하는군. ㉡ 지원 분야의 필요성에 대해 근거를 들어 답할 것을 요구하는군. ㉢ 지원 분야와 관련한 상황을 제시하며 수행 능력을 확인하고자 하는군. :	㉠ 자기소개서에서 언급한 내용을 제시된 상황에 적용하여 답변해야겠군. ㉡ 자기소개서에서 언급한 책의 내용을 바탕으로 자세하게 답변해야겠군. ㉢ 자기소개서에서 언급하지 않은 설문 조사 결과를 근거로 들어 답변해야겠군. :

	질문 분석	답변 전략
① [A]	b	㉠
② [A]	c	㉡
③ [B]	a	㉢
④ [B]	a	㉠
⑤ [C]	c	㉡

7. (나)에 나타난 면접 참여자들의 의사소통 방식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면접 대상자’는 ‘면접자’에게 되묻는 방식으로 질문 내용을 확인하고 있다.
- ② ‘면접 대상자’는 ‘면접자’와의 견해 차이를 인정하면서 자신의 입장을 밝히고 있다.
- ③ ‘면접자’는 ‘면접 대상자’의 답변에 대해 긍정적으로 반응하고 있다.
- ④ ‘면접자’는 ‘면접 대상자’의 답변 내용을 요약하며 재진술하고 있다.
- ⑤ ‘면접자’는 면접의 도입부에 ‘면접 대상자’의 긴장을 풀어 주는 말을 하고 있다.

[8~10] 다음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작문 상황]

- **작문 과제**: 일상생활에서 많은 사람들이 겪고 있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건의문 작성하기
- **예상 독자**: ○○시청 시내버스 운행 정책 담당자

[학생의 초고]

안녕하세요? 저는 ‘A 단지’에 사는 □□고등학교 학생 ◇◇◇입니다. 제가 이렇게 글을 쓰게 된 이유는 시내버스 노선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A 단지 학생들을 대표하여 개선 방안을 건의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 시의 고등학교들은 시내에 위치한 반면 2016년 2월에 생긴 A 단지는 시 외곽에 있어 이곳에 사는 많은 학생들은 시내 버스를 이용해 통학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내버스를 이용하면 자가용을 이용할 때보다 30분 이상 시간이 더 걸립니다. ○번 버스의 경우 A 단지를 지나 시청, 버스 터미널, 중앙 시장 등 시내 주요 장소뿐만 아니라 여러 곳을 경유하여 □□고등학교에 이릅니다. 시내 고등학교들로 향하는 다른 노선들도 상황은 이와 유사합니다. 통학 시간이 길어서 아침부터 피곤해서 학생들이 수업 시간에 졸게 되는 등 학업에 집중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다 보니 학생들이 시내버스를 기피하게 되고 부모님의 자가용을 이용해 통학하는 사례가 증가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학부모의 부담이 가중되고, 학교 주변의 교통이 혼잡해지고 있습니다. 결국 이러한 문제가 생긴 원인은 A 단지에서 고등학교들로 향하는 시내버스 노선들이 시내의 너무 많은 정류장을 경유하기 때문입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은 학생 전용 급행 노선을 신설하는 것입니다. 학생 전용 급행 노선이란 등교 시간에 학생들만 이용할 수 있는 시내버스 노선으로, A 단지에서 출발해서 거점 정류장만을 경유하여 시내 고등학교까지 최단 경로로 운행하는 노선을 말합니다. 급행 노선의 신설을 위해서는 학생들의 수요를 조사하여 인접한 고등학교들을 묶어 하나의 노선으로 정하고, A 단지 이외의 학생들이 많이 타는 곳을 거점 정류장으로 정하면 될 것입니다.

제 건의 내용이 받아들여진다면, ㉠

8. ‘학생의 초고’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건의 내용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권위자의 견해를 인용하고 있다.
- ② 건의 내용의 타당성을 높이기 위해 해결 방안의 한계점을 검토하고 있다.
- ③ 건의 내용의 합리성을 확보하기 위해 여러 가지 해결 방안을 비교하고 있다.
- ④ 건의 내용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예상되는 반론을 함께 제시하고 있다.
- ⑤ 건의 내용의 실현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제안하고 있다.

9. 선생님의 조언을 고려할 때, ㉠에 들어갈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선생님: 건의문의 끝 부분에는 건의가 받아들여졌을 때 건의 주체에게 도움이 된다는 점을 밝히고 다른 사람들에게 계도 도움이 된다는 점을 제시하면 설득력을 높일 수 있어요.

- ① 수요 조사에 따른 버스 운영으로 시내버스 회사의 이익 창출에 기여하며, ○○시도 시내버스 운영 지원비를 줄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 ② A 단지 학생들이 겪는 등굣길 버스 이용의 불편을 줄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A 단지 학생들의 아침 수면 시간을 확보할 수 있을 것입니다.
- ③ A 단지 학생들의 등굣길 스트레스를 줄여 줄 수 있으며, 여유롭게 등교할 수 있게 되어 A 단지 학생들이 즐겁게 학교 생활을 하는 데에도 기여할 것입니다.
- ④ 학생들의 자가용 통학으로 인한 학부모들의 부담을 줄일 수 있으며, 자녀들을 데려다 주지 않아도 되어 학부모들이 여유로운 아침 시간을 보낼 수 있을 것입니다.
- ⑤ 긴 통학 시간으로 인한 A 단지 학생들의 피로감을 줄일 수 있어 학업에 보다 집중할 수 있게 되고, 학교 주변 교통 혼잡을 해결하여 인근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할 수 있을 것입니다.

10. <자료>를 활용하여 ‘학생의 초고’를 보완하려 한다. <자료>의 활용 방안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자 료> —

(가) 인터뷰

“학교까지 가는 버스가 너무 많은 곳을 돌아서 시간이 오래 걸려서 힘들어요. 그러다 보니 아침에 일찍 집을 나서야 되고, 종종 아침밥도 못 먹고 갈 때가 있어요.”

— □□고등학교 학생 —

(나) ‘A 단지’ 고등학생들의 등교 수단 이용률

등교 수단 조사 시점	자가용	시내버스	기타
2016년 6월	25.2%	66.7%	8.1%
2016년 12월	44.4%	47.8%	7.8%
2017년 6월	53.2%	38.5%	8.3%

— □□고등학교 학생자치회 —

(다) 신문 기사

△△시가 3월부터 고등학교 학생 전용 급행 노선을 본격적으로 운행하였다. 등교 급행 노선은 오전 7시 30분부터 9시까지 통학생들이 집중된 지역에서 학교까지 일부 정류장만 점유하여 운행하는 것으로 기존 40분대 통학 시간을 20분대로 줄였다. 이로 인해 시내버스로 통학하는 학생의 비율이 급행 노선 운행 전보다 증가하였다.

- ① (가)의 학생 경험을 제시하여 등굣길 시내버스 노선 문제의 실태를 보여 주어야겠군.
- ② (나)의 시내버스 이용률 변화 추이를 활용하여 학생들의 시내버스 기피 현상이 심화되고 있음을 보여 주어야겠군.
- ③ (가)와 (나)를 활용하여 자가용 이용률 증가가 시내버스 이용 불편의 원인이 될 수 있다는 점을 보여 주어야겠군.
- ④ (나)와 (다)를 활용하여 학생 전용 급행 노선이 자가용 이용률을 감소시키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음을 제시해야겠군.
- ⑤ (가)와 (다)를 활용하여 학생 전용 급행 노선이 학생 불편 해소에 기여할 수 있음을 강조해야겠군.

[11~12] 다음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선생님: 여러분, 현대 사회에서 인공위성이 다양하게 활용되고 있다는 것은 잘 알죠? 그런데 ‘인공위성’은 옛날에는 쓰이지 않았던 말입니다. ‘인공위성’이라는 말이 어떻게 쓰이게 되었는지 생각해 봅시다. 행성의 궤도를 도는 인공적 물체가 처음 만들어졌을 때, 그 물체를 가리키는 말이 필요해서 ‘인공위성’이라는 말이 생긴 거겠죠? 이 말은 어떻게 만들어졌을까요?

학생 1: ‘인공’과 ‘위성’을 합쳐 만든 것입니다.

선생님: 맞아요. 그래서 오늘은 ‘인공위성’이라는 말을 만든 것처럼 새 단어를 만드는 원리를 알아볼 텐데, 그중에서도 실생활에서 자주 사용되는 합성 명사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를 먼저 알아보려고 합니다. 합성 명사는 어떻게 만들어질까요?

학생 2: 선생님, 합성 명사는 명사와 명사가 합쳐진 말 아닌가요?

선생님: 네, 그런 경우가 많지요. 예를 들어 ‘논밭, 불고기’처럼 명사에 명사가 결합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 밖에 용언의 활용형이 명사와 결합한 ‘건넌목, 노림수, 섞어찌개’와 같은 경우도 있고 ‘새색시’처럼 명사를 꾸며 주는 관형사가 앞에 오는 경우도 있어요.

학생 3: 그런데 선생님, 말씀하신 합성 명사들을 보니 뒤의 말이 모두 명사네요?

선생님: 그래요. 우리말에서 합성어의 품사는 뒤에 오는 말의 품사와 같은 것이 원칙이에요. 앞에서 말한 예들이 다 그래요. 그런데 이러한 일반적인 경우와는 달리 ㉠ 명사가 아닌 품사들로만 이루어진 합성 명사도 있답니다.

학생 4: 아, 그렇군요. 그런데 선생님, 생각해 보니 요즘 자주 쓰는 말들은 그런 방식과는 다르게 만들어지는 것 같아요.

선생님: 맞아요. 여러분들이 자주 쓰는 ‘인강’이라는 말은 ‘인터넷’과 ‘강의’가 합쳐지면서 줄어든 말인데, 앞말과 뒷말의 첫 음절만 따서 만들어진 것이에요. 또한 컴퓨터를 잘 다루지 못하는 사람이라는 뜻의 ‘컴시인’은 ‘컴퓨터’와 ‘원시인’이 합쳐지면서 줄어든 말인데, 앞말의 첫 음절과 뒷말의 둘째, 셋째 음절을 따서 만들어진 것이에요.

11. <보기>의 ㄱ~ㅌ 중 윗글에서 설명한 단어 형성 방법의 사례에 해당하는 것만을 있는 대로 고른 것은?

<보 기>

ㄱ. '선생님'을 줄여서 ' 쌤'이라는 말을 만들었다.
 ㄴ. '개-'와 '살구'를 결합하여 '개살구'라는 말을 만들었다.
 ㄷ. '사범'과 '대학'을 결합하여 '사대'라는 말을 만들었다.
 ㄹ. '점잖다'라는 형용사로부터 '점잔'이라는 말을 만들었다.
 ㅁ. '비빔'과 '냉면'을 결합하여 '비빔냉면'이라는 말을 만들었다.

- ① ㄱ, ㄹ ② ㄷ, ㅁ ③ ㄱ, ㄴ, ㄷ
 ④ ㄴ, ㄷ, ㅁ ⑤ ㄴ, ㄹ, ㅁ

12. 밑줄 친 단어 중 ㉠의 예로 적절한 것은?

- ① 자기 잘못은 자기가 책임져야 한다.
 ② 언니는 가구를 전부 새것으로 바꿨다.
 ③ 아이가 요사이에 몰라보게 훌쩍 컸다.
 ④ 오늘날에는 교육에서 창의성이 중시된다.
 ⑤ 나는 갈림길에서 어디로 가야 할지 몰랐다.

13. <보기>의 담화 상황에서 ㉠~㉣가 가리키는 대상이 같은 것끼리 바르게 짝지은 것은?

<보 기>

(수빈, 나경, 세은이 대화를 하고 있다.)
 수빈: 나경아, 머리핀 못 보던 거네. 예쁘다.
 나경: 고마워. ㉠ 우리 엄마가 얼마 전 새로 생긴 선물 가게에서 사 주셨어.
 세은: 너희 어머니 참 자상하시네. 나도 그런 머리핀 하나 사고 싶은데 ㉡ 우리 셋이 지금 사러 갈까?
 수빈: 미안해. 나도 같이 가고 싶은데 ㉢ 우리 집에 일이 있어 못 갈 것 같아.
 세은: 그래? 그럼 할 수 없네. ㉣ 우리끼리 가지, 뭐.
 나경: 그래, 수빈아. 다음엔 꼭 ㉤ 우리 다 같이 가자.

- ① ㉠-㉡ ② ㉠-㉣ ③ ㉡-㉣
 ④ ㉢-㉣ ⑤ ㉢-㉤

14. <보기 1>의 중세 국어의 특징을 바탕으로 <보기 2>의 ㉠~㉣를 탐구하는 활동을 수행하였다. 학생들이 탐구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보기 1>

- ㉠ 설명 의문문과 판정 의문문에서 쓰이는 종결 어미가 서로 달랐다.
 ㉡ 체언에 결합하는 조사의 형태는 모음 조화에 따라 결정되었다.
 ㉢ 높임의 호격 조사로서 현대 국어에 없는 형태가 있었다.
 ㉣ 선어말 어미의 결합 순서가 현대 국어와 다른 경우가 있었다.
 ㉤ 듣는 이를 높이기 위한 선어말 어미가 사용되었다.

<보기 2>

- ㉠ 므슴 마를 니르느뇨 [무슨 말을 말하느냐?]
 ㉡ 저므며 늘구미 잇느녀 [끓으며 늪음이 있느냐?]
 ㉢ 虛空과 버를 보더시니 [허공과 별을 보시더니]
 ㉣ 世尊하 내 堂中에 이서 몬져 如來 보습고 [세존이시여, 내가 집 안에서 먼저 여래 뵈고]

- ① ㉠의 '니르느뇨'와 ㉡의 '잇느녀'를 비교해 보면, ㉠을 확인할 수 있군.
 ② ㉠의 '마를'과 ㉢의 '버를'을 비교해 보면, ㉡을 확인할 수 있군.
 ③ ㉣의 '世尊하'를 보면, ㉢을 확인할 수 있군.
 ④ ㉢의 '보더시니'를 보면, ㉣을 확인할 수 있군.
 ⑤ ㉣의 '보습고'를 보면, ㉤을 확인할 수 있군.

15. 밑줄 친 말에 주목하여 <보기>의 ㉠~㉤에 대해 탐구한 결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 기>

- ㉠ 거기에는 눈이 왔겠다. / 지금 거기에는 눈이 오겠지.
 ㉡ 그가 집에 갔다. / 막차를 놓쳤으니 나는 집에 다 갔다.
 ㉢ 내가 떠날 때 비가 올 것이다. / 내가 떠날 때 비가 왔다.
 ㉣ 그는 지금 학교에 간다. / 그는 내년에 진학한다고 한다.
 ㉤ 오늘 보니 그는 키가 작다. / 작년에 그는 키가 작았다.

- ① ㉠을 보니, 선어말 어미 '-겠-'이 미래의 사건을 추측하는 데에 쓰이고 있군.
 ② ㉡을 보니, 선어말 어미 '-았-'이 과거 시제를 나타내지 않는 경우도 있군.
 ③ ㉢을 보니, 관형사형 어미 '-ㄴ-'이 붙을 때 미래의 사건을 나타내지 않는 경우도 있군.
 ④ ㉣을 보니, 현재 시제 선어말 어미 '-ㄴ-'이 미래의 사건을 나타낼 때도 쓰이고 있군.
 ⑤ ㉤을 보니, 형용사에서 현재 시제를 나타낼 때 시제 선어말 어미가 나타나지 않고 있군.

201503	201504	201506	201507	201509	201510	201511
3	5	1	1	5	1	4
4	4	5	1	3	3	2
3	2	4	1	5	5	5
3	3	3	5	3	4	2
5	4	1	2	4	2	1
3	3	3	2	2	4	1
3	5	5	4	5	5	2
5	2	3	3	3	2	5
2	4	2	4	3	4	4
1	5	3	4	2	2	3
4	3	5	2	2	4	5
2	4	1	4	1	4	4
5	3	5	5	1	3	5
3	2	4	5	3	5	2
3	3	2	5	5	1	2
2	1	1	1	5	5	2

201603	201604	201606	201607	201609	201610	201611
5	2	3	3	1	1	2
5	1	1	4	2	4	4
4	1	5	5	5	3	4
3	3	1	5	5	4	4
2	2	2	3	4	1	5
4	2	4	3	4	3	4
4	4	5	2	3	1	2
2	5	5	2	3	1	5
3	1	2	2	5	3	5
5	2	3	4	3	2	3
4	4	2	3	2	3	1
1,3	4	1	5	2	3	5
5	5	5	4	3	4	3
4	2	3	3	1	2	3
1	4	1	1	5	4	4

201703	201704	201706	201707	201709	201710	201711
2	4	3	3	2		
3	2	4	2	5		
1	3	1	3	2		
3	2	2	4	4		
1	2	4	4	1		
4	2	4	3	4		
5	3	1	5	2		
1	4	2	5	5		
3	5	5	4	5		
2	1	5	5	3		
4	4	3	1	2		
2	3	1	2	1		
1	1	1	4	3		
5	4	2	3	5		
4	1	4	5	1		

Made by